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장 혜 경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민 가 영 (위촉연구원)

발 간 사

한국가족의 모습이 그 구조와 기능 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는 가족 내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와 직결됨으로 여성정책적 시각에서 가족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여성과 가족을 주제로 지금까지 취업주부와 관련하여서는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를, IMF로 인한 실직가정의 주부와 관련한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주부들의 삶과 관련하여서는 『전업주부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를,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가족통합 모색차원에서 국내 북한이탈주민가족여성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전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연구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혼율증가와 재혼가족의 증가현상에서 초혼·혈연중심 핵가족과 부계중심적 한국가족의 특성상 초혼가족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는 재혼가족에 대해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들 가족의 안정 및 여성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제 ‘여성과 가족’ 주제의 여섯 번째 결실로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이미 사회적인 중요 이슈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이혼여성들은 이혼적응과정에서 부모역할과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그 어려움을 더욱 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감정적 이혼, 법적으로 불리한 지위 및 경제적 제약에 따른 고충, 그리고 한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이들 여성들의 적응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봄으로써 이들 여성들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습니다.

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이혼의 부정적 인식이 크지만 본 연구가 우리사회의 가족의 한 모습으로서 이혼가족과 이들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해 본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가출청소년들의 배경인 가족요인이 되고 있고 이에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대와 함께 사회 각 부문에서의 청소년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들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문제의 예방차원에서도 부모역할에 대한 국가적 차원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원내 여러분과 자문을 해주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기꺼이 도와주신 관련단체 실무자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연구성과를 위해서 노력해준 연구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2년 12월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원 장 장 하 진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가치와 이를 형식화한 가족문화가 여전히 강한 현실에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해야하는 자녀들을 어머니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적 개입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가 증가하면서 자녀와 함께 살게 되는 한쪽부모(엄마)인 여성은 담당해야할 몫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남성들은 자녀와 일상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에 익숙한 여성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보다 밀착되어 있고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서 받은 아픈 경험이 성격과 정서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혼 후 여성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과업은 매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혼한 여성들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고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혼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관념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모습 속에 여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 더욱이 자녀들에게도 그 여파는 마찬가지로 이혼여성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이혼전후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이들 가족이 당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이혼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혼한 여성자신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1) 이혼관련 전반적인 통계현황의 파악
- (2) 국내외 이혼가족에 대한 정책, 관련법 및 프로그램 현황 파악 및 분석
- (3) 이혼가족 관련한 이론적 시각 정립과 분석체계 도출
- (4) 자녀와 함께 살고있는 이혼여성 대상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실시
- (5) 이혼여성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의 제언

나.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 (2) 실태조사 :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로 2002년 7월 22일부터 2002년 8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대상자는 여성한부모사업 관련기관 협조를 얻어 임의표집과 눈덩이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 설문조사는 200명을 대상으로 직접설문과 우편조사를 병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132부였으며 (회수율 66%) 이중 분석에 이용된 것은 127부였다 (분석율 63.5%).
 - 심층면접은 이혼여성들의 자녀양육현실과 대응방식을 다양하게 살펴 펴보고자 이혼과정, 연령, 그리고 자녀변수를 고려하여 30사례를 선정하였지만 24사례만이 분석되었다.
- (3) 전문가 자문회의
- (4) 전문가 워크숍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 일반적 배경특성

-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40.1세로 30대(48.8%)와 40대(40.9%)가 주를 이루었으며 응답자의 80%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나타냈다.
- 응답자의 86.6%가 일을 하고 있었으며 직업으로는 단순노무직

(30.7%), 사무직(16.5%), 전문직(15.0%), 판매 및 영업관련(11.8%), 자영업(9.4%)순으로 단순노무직과 판매 및 영업 관련직이 많았다. 응답자의 학력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및 비숙련직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특별히 응답자들의 57.5%가 이혼 전에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비율을 이혼 전(41.7%)과 이혼 후(13.4%)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때 많은 경우 여성들이 이혼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 소득수준은 하층(41.7%)과 최하층(29.9%)의 분포를 볼 때 주관적 평가이긴 하나 응답자의 70% 이상이 하층의 범주 속에 놓여있어 이들 가족의 어려운 경제적 상태의 일면을 나타냈다. 실제 한달 소득은 100만원 이하(57.5%), 150만원 미만 (18.9%)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5.4%가 한달 2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살고 있었다. 생활비조달은 본인 월급의 경우가 58.4%로 가장 많고, 정부보조금(15.7%), 가족친지의 도움(6.7%)의 순이었다. 이혼한 여성들이 많은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가정을 영위해나가고 있었지만 이들의 실제 한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고 30-40대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자녀와 관련한 비용이 적지 않은 바 이들 가족의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였다.

□ 가족원 특징

- 가족상태는 자녀 외에 친정식구(부모, 남동생, 여동생 등)들이 함께 사는 경우가 있었고 주로 한 자녀를 두었지만 두 명을 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첫째와 둘째 모두 아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첫째와 둘째 자녀의 평균연령은 모두 14세였으며 따라서 초중등학생들이 많았다.

□ 이혼관련사항

- 응답자의 이혼 전 결혼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7년으로 평균 약 10년 5개월이었으며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결혼기간의 분포도의 폭이 넓었다. 이혼하기전 별거기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평균 1년 6개월이었으며 전반적으로 2년 미만

- 이 대부분이었다 (78.2%). 이혼 후의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1년으로 평균 이혼기간은 약 4년 4개월이었다. 대부분이 이혼한지 2년 4년 혹은 6년 정도 된 여성들이 많았으며 협의이혼 (78%)이 많았다.
- 이혼 사유에 있어서 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로는 ‘남편의 외도’, ‘남편의 폭언/폭력’이었으며 이혼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동기 역시 ‘남편의 외도’로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이 이혼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처음 이혼이야기가 된 시점에서부터 이혼하게 되기까지의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예외이기는 하지만 최대 25년까지였으며 평균적으로는 약 3년 2개월이었다. 특히 1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가 약 67%였다.
 - 이혼을 결정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스트레스 유발요인은 이혼결정 전의 단계에서는 ‘남편의 폭언 및 폭력’, 이혼하는 과정의 단계에서는 ‘자녀에게 미칠 영향’, 이혼 후의 단계에서는 ‘생활비 조달 문제’가 제일 높아 이혼여성들이 이혼과정의 각 단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특징은 자신→ 자녀→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고 이혼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적 이혼,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부모역할, 그리고 이들 가족의 환경에의 적응(사회적 편견, 경제문제들)이라는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이혼 후에 전남편과는 60%이상이 교류하지 않았으며 교류가 있는 경우는 자녀와 관련한 이유 (자녀와의 만남, 양육비 및 경제적인 부분, 자녀양육 방식, 자녀와 친조부모와의 관계, 한쪽의 새파트너로 인한 부모역할 문제, 한쪽의 재결합 요구 등)들이었다. 응답자들은 전남편들이 아이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부모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응답자의 50%이상이 아이 때문에 주저하기는 하지만 재혼을 ‘하고 싶다’와 ‘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싶어서’, ‘부+모+자녀로 된 가족을 갖고 싶어서’, ‘노후를 위해서’, ‘성적으로 외로워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갖고 싶어서’ 등으로 원하였다.
 - 이혼 후 달라진 점은 ‘경제적 어려움’, ‘혼자서 부/모역할수행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양육부담 증가’,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의 순으로 나타나 본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에는 도움이 된 반면 자녀양

육과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혼 후 여성의 삶의 열악함을 나타냈다. 특별히 심리정서적 안정면에서 도움이 된 경우를 보면 이혼 후의 상황에 대한 평화였다

□ 이혼과정과 자녀양육 관련 사항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응답자의 79.6%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과정이 힘들다고 하였다. 이혼과정에서 혹은 결정에서 응답자의 64%이상이 ‘양육비’, ‘자녀가 남편과 만나는것’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거주지’, ‘학업관련사항’등 자녀와 관련하여 협의가 있었다. 상의가 없었던 이유를 보면 아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오직 아이를 맡으려는 일념으로, 너무 급해서 아이를 떠 안을 수밖에 없어서. 엄마가 키우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아버지로서 자격 즉 경제적, 건강, 정서적 등의 면에서 자기가 맡을 수밖에 없는 현실 등을 들었다.
- 이혼과정 혹은 결정에서 응답자의 50%이상의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나 태도를 보였고 자녀의 나이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자녀가 전혀 몰랐음도 42.6%나 되어 상당수가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자녀의 의사가 있는 경우 ‘부모의 결정에 맡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녀들이 어느 정도 부모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혼이 결정된 후 응답자의 88%이상은 자녀에게 ‘이혼하려는 이유’, ‘미안한 마음의 전달’, ‘자녀의 삶에 대한 변화’, ‘아빠의 생활’, ‘함께 살 부모’, ‘아빠와의 만남’ 아이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감 심어주는 것’, ‘왜 아빠가 없는지에 대한 것’과 ‘추후 생활방식에 대한 것’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 이혼과정에서 응답자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이혼과정의 스트레스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 표출된 적이 있다’에서 응답자의 63.9%가 경험함으로써 그 과정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54.5%가 자녀에게 이혼과 관련해 아빠의 협담을 한 적이 있고 자녀를 자기편으로 끌어드리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적도 40%정도가 경험함으로써 상당부분 이혼과정에서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이혼 후 부-자녀와의 관계 유

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었다.

- 응답자의 76%이상이 이혼 후 자녀들에게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엄마에게 집착’하고 ‘친가와 멀어짐’, ‘외가와 가까워짐’ 순으로 나타나 가족관계에 대한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자녀자신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성적의 변화가 제일 컸으나 친구와 멀어지고 행동장애를 일으키거나 비행 및 가출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자녀의 나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면들은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생활력이 강해지거나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등 어른스럽게 변해 가는 모습, 이혼 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오히려 가정의 안정된 모습을 가지게 된 것 등이다. 그러나 명절 때 외로워하거나 내성적으로 변한 것, 악몽을 꾸거나 남자에 대한 적개감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친구집과의 비교하는데서 오는 심적 어려움 등이 부정적인 측면들도 보였다.
- 이혼 후 여성들은 남편의 부재를 인지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어나 갔다. ‘자녀에게 신경 쓰다보니 자신의 개인생활이나 욕구들을 이전보다 자제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60%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혼 후 여성들이 자녀와의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기에 바쁘며 자신들의 삶의 질은 부차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혼후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관련 사항

- 이혼 후 어려움으로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고 (87.1%) 다음으로 ‘자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것’, ‘자녀의 결혼관 혹은 이성관에 영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버지 엄마의 역할에 대한 역할규정과 역할 수행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어려움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것과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역할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이혼한 가족 자녀들의 가치관형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녀와 관련해 의논할 사람이 없는 것’에 59.2%가 그렇다고 하여 남편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은(혹은 앞으로 겪을) 어려움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이 가장 높았으며 ‘친구들이 부모에 관해 물을 때 당황함’, ‘결혼할 때 상대방 집안에서의 반대나 거부감’ 등을 들었다. 이를 볼 때 양부모 이데올로기로부터 내재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무엇인가 결핍된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반영하여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이 가장 큼을 보여주었다.
- 특별히 초등학교 자녀들 둔 부모들의 경우 학교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행사들로 인한 어려움으로 유치원에서 아빠참여수업이나 모시고 오는 것이 많았으며 초등학교에서도 가족신문, 가족사진, 가족계보 알아오기, 그리고 가족소개하기 등의 프로그램 등을 들었다.
- 이혼 후 응답자의 50%정도의 자녀만 아빠와 만나고 있었으며 ‘생일 등 특별한 날에만 만난다’(50.0%)가 많았지만 ‘정기적으로 만난다’(40.9%)의 비율도 그리 낮지 않았다. 같이 사는 엄마를 고려하여 자녀가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함으로써 자녀가 한쪽 부모를 만날 때 편안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혼한 부부들이 담당해야 할 몫임을 보여준다.
- 양육비 관련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는 50%미만이었으며 양육비 30만원의 현실성에 대해서 71.6%가 부정적이었다. 자녀와 관련한 비용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는 ‘학원비’가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78%가 현재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전 남편의 경제적 무능’(4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음’, ‘양육비 안 받는 조건으로 아이 맡음’, ‘상대방이 안주겠다고 선언’ 등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결핍뿐만 아니라 양육책임회피로 인한 이유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과 과태료 혹은 감치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7.2% 정도였으며 전반적으로 상당수 이혼가정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이미 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양육비지급의 무준수를 위한 강제조치 그리고 이혼 후 자녀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강화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응답자의 80%이상이 자녀양육자는 ‘엄마’라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모성애의 역할의 큼을 지적하였으며 반면 아버지가 키워야한다는 이유를 보면 아들이라는 것과 호주제 등을 들었다. 자녀를 엄마가 키워야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127명 중 43명인 33.9%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 이혼후의 생활 만족도와 정책욕구

- 이혼 전과 비교하여 응답자의 72%가 현재의 생활을 더 만족스러워하였다. 응답자 자신의 경우도 이혼 전에 비해 만족정도가 77.2%로 높았다. 자녀의 삶에 대한 본인의 평가에서는 ‘그래도 전보다 만족’과 ‘비슷하다’가 많아 자녀의 삶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삶이 더 만족스럽다고 느끼기는 하였지만 자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혼여성자신들의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 이혼 후 자녀와 관련하여 상담에 대한 욕구는 50%이상이 있었으나 실제로 응답자의 22%만이 상담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80%이상이 상담이 실제적 도움이 되었음을 말하였다. 상담한 곳으로는 학교 교사, 정신과, 여성단체 및 복지관, 상담소, 친구, 이웃, 종교지도자 등 다양하였으며 주로 대인관계, 자녀문제로 건강과 학교부적응, 친구관계, 정서적 불안정, 사춘기, 자녀의 도벽과 성적 문제, 엄마에 대한 자녀의 지나친 애착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많았으며 본인의 대인관계와 우울증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다. 상담을 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는 40.7%가 ‘그럴 필요가 없어서’와 ‘상담할 곳을 몰라서’(24.7%),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13.6%), ‘도움이 안되어서’(6.2%) 등을 들었는데 상담관련 홍보의 필요성과 문제에 대한 오픈마인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이혼 후 생활하면서 응답자들은 경제적 안정지원에 관한 욕구가 제일 강하였으며 안정적인 가족관계프로그램과 여성자신의 감정적 독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자녀양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시설, 이웃 및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자녀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이혼여성가족을 위한 안내책자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반면 자녀의 아버지나 친가쪽 식구들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2) 심층면접조사결과

□ 감정적 이혼

- 여성들의 감정적 이혼은 여성 스스로 이혼이라는 삶의 변화를 해소하는데 중심적인 부분이 되며 따라서 이혼 후 자녀양육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감정적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는 전남편의 애매한 태도와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며 감정적 이혼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은 이혼의 긍정적인 면 부각시키기와 자신의 일을 갖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만들기 및 참여하기 (온라인 동호회, 여성단체, 상담기관 등)등이었다,

□ 한부모 부모역할모델의 부재와 경제적 제약 및 사회적 편견

- 이혼 전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이혼을 설명해 주는 방식에서 이혼 사실에 대한 모호한 설명, 이혼사실을 감추기, 그리고 이혼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혼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이혼의 현실 인식시키기, 이혼 후 자녀의 신변에 대한 안심시키기, 이혼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죄책감 없애기, 이혼에 대한 콤플렉스 없애기, 재혼 가능성에 대한 설명등을 포함하였다.
- 이혼 후 부모역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서는 성역할에 기반한 양부모 중심주의 (이성자녀 키우기의 어려움과 아빠역할의 사회적 신화, 이혼가정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부모의 강박증), 경제적 책임과 부모역할의 과다한 이중부담, 그리고 자녀에게 투사되는 전남편에 대한 분노였다.
- 이혼 후의 적극적 부모역할은 이혼 후 달라진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 전 남편과의 협력적 부모역할, 그리고 부모역할의 사회화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먼저 이혼 후 달라진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는 자녀를 변화된 상황에 적응시키는 것과 이혼과정에서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었으며 전남편과의 협력적 부모역할은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불성실한 약속이행, 이혼 후 협력적 부모역할의 회피, 자녀 앞에서 전 남편에 대한 가족들의 험담)을 극복하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과 이혼 후 협력적 부모역할을 위한 원칙의 상호간 합의가 조건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역할의 사회화는 복지관의 활용, 교사의 도움, 다른 가족, 친지들을 통한 부모역할 수행 등을 통해서 가능함을 경험하였고 특별히 협력적 부모역할을 실천하는데 우리 사회의 힘든 부분은 한국가족특성으로서 초혼·혈연·친족 중심의 핵가족과 부계중심 가족관계와 성별역할분업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 양부모를 전제한 공식적 제도와 잠재적 문제아로 보는 암묵적 시선, 사회생활에 따라다니는 낙인 등 이혼 여성과 자녀와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된다. 이것은 이혼 가족들이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고 양부모 가족과는 다른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정상가족처럼 보이게 하면서 순응하기와 내면화된 편견 버리거나 사회적 편견,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써 저항하기의 대응방식을 보여주었다.
- 이혼 후 여성이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큰 관건은 경제적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이들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절실하였다. 노동시장의 성별화, 공사영역에서의 성역할 분담으로 경제적 기반이 남성에게 비해 취약한 여성들에게 양육비의 지급은 절실한 문제가 된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양육비 지급의 실태를 보면 정기적, 고정 액수의 지급이나 부정기적, 비고정액수의 지급 혹은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종적 감추기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은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양육비 못 받는데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밀리거나 적극적 청구는 시도하였으나 좌절 (절차의 복잡함, 제도적 문제-개인의 접근이 금지된 개인정보)등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는 심층면접조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감정적 이혼	어렵게 만드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편의 애매한 태도 -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의 긍정적인 면 부각시키기 - 자신의 일을 갖기 -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만들기 및 참여하기 (온라인 동호회, 여성단체, 상담기관) - 주위 가족들의 지지 	
부모역할 :이혼 전	이혼 설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사실에 대한 모호한 설명 - 이혼 사실을 감추기 - 이혼 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의 현실 인식시키기 ○이혼 후 자녀의 신변 안심시키기 ○이혼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죄책감 없애기 ○이혼에 대한 콤플렉스 없애기 ○재혼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모역할 : 이혼 후	어렵게 만드는 요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역할에 기반한 양부모 중심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성자녀 키우기의 어려움 ○아빠역할의 사회적 신화 ○이혼가정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부모의 강박증 - 경제적 책임과 부모역할의 과도한 이중부담 - 자녀에게 투사되는 전남편에 대한 분노
			<div>준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변화된 상황에 적응시키기 - 이혼과정에서의 상처 극복하기
			<div>협력적</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부모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성실한 약속이행 ○이혼 후 협력적 부모역할의 회피 ○자녀 앞에서 전남편에 대한 가족들의 험담 - 협력적 부모관계를 위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이혼 후 협력적 부모역할을 위한 원칙의 상호간 합의
			<div>부모역할 사회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의 활용 - 교사의 도움 - 다른 가족, 친지들을 통한 부모역할 수행
사회경제 적 불리 : 사회적 편견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부모를 전제한 공식적 제도 - 잠재적 문제로 보는 암묵적 시선 - 사회생활에 따라다니는 낙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응하기: 정상가족처럼 보이게 하기 - 저항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면화된 편견 버리기 ○사회적 편견, 제도에 대한 비판 	
사회경제 적불리 :양육비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고정 액수의 지급 - 부정기적, 비고정액수의 지급 -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종적 감추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부터 포기하기: 양육비 못 받는게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 적극적 청구의 시도와 좌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의 복잡함 ○제도적 문제(개인의 접근이 금지된 개인정보) 	

4. 이혼여성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여성한부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이 함의하는 내용은 이들 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입법화가 필요한 내용들과, 현존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의 보완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본 조사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결과 이혼과정단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유발요인들, 이혼 후 사회환경(사회적 편견, 경제적 불리-양육비 문제 등) 부모역할의 문제, 이혼여성자신의 삶의 질 문제(감정적 이혼) 등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인지 하에 본 연구에서는 입법화가 필요한 내용들과 현존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원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정책과제의 특성상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바 시기적으로 장기와 단기과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나. 정책과제

시기	정책과제	세부과제
장기 과제	법정비	주민등록제, 호주제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이혼 가정 자녀들을 대상 프로그램 마련 : 가족의 변화와 부모역할 개념 교육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 낙인 개선
	사회적 부모로서의 교사, 예비교사 교육의 제도화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상담, 지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이혼 가정 자녀들에 대한 다른 아이들의 편견 극복과 이해를 위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단기 과제	양육비 관련 법조항 마련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제도의 개선 -양육비청구에 대한 국가의 조력 -부양의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 이행명령 -부양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도입
	여성한부모가정 대상의 경제적 지원	-구직 활동 지원 -모자가정 자녀대상 학비면제 확대 -임대주택 보급

시기	정책과제	세부과제
단기 과제	상담사업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활동중심의 상담을 벗어나 일반적인 이혼가정 자녀양육에 관한 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과정 단계별 심리적 지원 -기존 상담료의 인하 -이혼여성의 상담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여성들간의 멘토링 사업 지원: 이미 한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운 여성들의 사례 홍보와 일대일 만남을 주선하여 서로가 정신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상담의 긍정적 효과성 홍보와 시설확대
	부모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자신의 감정적 독립 프로그램 ○자녀들의 발달단계 특성 이해와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프로그램 (자녀양육공동책임)
	부모역할의 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한부모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 및 프로그램의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야간보호서비스 운영
	양부모 중심 학교활동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환경조사서 양식 개선 -부모를 모두 전제한 학교 행사 개선
	한부모관련 정보지침서 및 이혼 여성의 부모역할 지침의 수립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관련 정보지침서의 제작 및 보급 -자녀의 장기간의 적응을 위한 지침수립 및 보급 -이혼여성의 감정적이혼을 위한 지침수립 및 보급
	한부모 관련 담당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강화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문제에 대한 실태, 인식 교육 -한부모관련 지원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 훈련프로그램 실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3. 개념정의	9
가. 이혼여성가족	9
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9
4. 연구방법	10
가.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10
나. 실태조사	10
다. 전문가 자문회의	14
라. 전문가 워크숍	15
5.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18
II. 한국 이혼가족의 일반적 현황과 정책	21
1. 한국이혼가족의 일반적 현황	23
가. 이혼관련 사항 현황	23
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현황	29
다. 요약 및 논의	32
2. 이혼가족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34
가. 우리나라의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34
나. 외국의 이혼가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50
다. 요약 및 논의	63

III. 이론적 배경	71
1. 이혼가족연구에 대한 기존 이론의 주요 쟁점	73
가. 이혼가족에 대한 관점	73
나. 모자가정에 대한 관점	74
다. 이혼과 자녀	75
라. 이혼과 부모역할	77
2. 본 연구의 관점과 분석모형	79
IV. 이혼여성가족 삶의 전반적 현황	81
1. 일반적 사항	83
가. 사회 인구학적 특성	83
나. 가족원 관련 사항	86
2. 이혼과정과 본인관련 사항	89
3. 이혼과정과 자녀관련 사항	100
4. 이혼여성의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105
5. 양육비 관련 사항	112
6. 삶의 만족도 및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	115
7. 요약 및 소결	121
V. 이혼여성들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현실과 대응방식	131
1. 심층면접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및 관련사항 특성	133
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에 대한 구체적 실태	136
가. 감정적 이혼	136
나. 이혼 여성의 부모역할 모델	148
다. 이혼 여성 · 자녀들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	178
라. 양육비관련 문제	190
3. 요약 및 소결	196

VI.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201
1. 기본방향	203
2. 정책과제	205
가. 장기 정책과제	205
나. 단기 정책과제	208
참고문헌	235
부 록	239

표 목 차

<표 I-1> 설문지 내용	13
<표 II-1> 조혼인율/조이혼율	24
<표 II-2> OECD 국가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2000)	25
<표 II-3> 혼인, 이혼건수 전망(2003년~2007년)	25
<표 II-4> 연령별 남녀 조이혼율	26
<표 II-5> 평균 이혼연령(세)	26
<표 II-6> 동거기간별 이혼정도(%)	27
<표 II-7> 이혼사유별 이혼정도(%)	28
<표 II-8> 협의 및 재판이혼 건수와 비율	29
<표 II-9> 성별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변화(1975-2000)	30
<표 II-10>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1975-2000)	31
<표 II-11>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 유무 및 자녀수 비율	32
<표 II-12>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1999년)	38
<표 II-13> 2001년 모자가정 선정기준1)	42
<표 II-14> 영락 모자원의 『부모역할 교실』 프로그램	45
<표 II-15> 각국의 한부모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53
<표 II-16> 미국의 양육비 징수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법	56
<표 II-17> 미국의 이혼예방 및 부모역할 관련 프로그램	59
<표 III-1> 연령에 따른 이혼가정 자녀의 반응	77
<표 IV-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84
<표 IV-2> 자녀구성 성별분포	86
<표 IV-3> 자녀연령분포	87
<표 IV-4> 자녀학력분포	88
<표 IV-5> 응답자의 이혼 전 결혼기간 및 별거기간	89
<표 IV-6> 응답자의 이혼사유	91
<표 IV-7> 처음 이혼 이야기가 된 시점에서부터 이혼하기까지의 기간	92
<표 IV-8> 2년 이하의 기간	93
<표 IV-9> 이혼단계에서의 스트레스	94
<표 IV-10> 전남편과의 교류유무와 그 이유	96

<표 IV-11> 재결합 기대 이유	97
<표 IV-12> 재혼에 대한 의견과 재혼을 원한다면 그 이유	98
<표 IV-13> 이혼 후 달라진 점	99
<표 IV-14>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과정	100
<표 IV-15> 자녀문제에 대한 전남편과의 상의	101
<표 IV-16> 자녀의 반응 및 자녀와 이야기한 내용	102
<표 IV-17>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1)	103
<표 IV-18>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2)	104
<표 IV-19> 이혼 후 자녀에게 일어난 변화	105
<표 IV-20>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	106
<표 IV-21> 자녀양육과 관련한 당면 문제	108
<표 IV-22> 이혼으로 자녀들이 겪은 어려움	109
<표 IV-23> 자녀와 아빠와의 만남	111
<표 IV-25> 자녀의 법정 양육비에 대한 인식과 양육비용	112
<표 IV-26> 자녀와 관련된 비용	113
<표 IV-27> 양육비 관련 사항	114
<표 IV-28> 자녀양육자 문제	114
<표 IV-29> 이혼 후 삶의 만족도	115
<표 IV-30> 자녀관련 상담 욕구	117
<표 IV-31> 자녀 상담 경험	117
<표 IV-32> 상담한 곳과 상담내용	118
<표 IV-33> 상담하지 않는 이유	118
<표 IV-34>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1)	119
<표 IV-35>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2)	120
<표 V-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 및 관련사항	135
<표 V-2> 감정적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대응전략	137
<표 V-3> 자녀에게 이혼 설명해 주기	149
<표 V-4> 이혼 후 부모역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156
<표 V-5> 이혼후의 적극적 모델	168
<표 V-6> 사회적 편견의 경험과 이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방식	178
<표 V-7> 양육비 지급 실태와 이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방식	191
<표 V-8> 이혼여성의 가족환경과 대응방법	199
<표 VI-1>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 정책과제	204

그림 목 차

<그림 I - 1> 연구의 흐름도	18
<그림 II- 1>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24
<그림 II- 2> 동거기간별 이혼추이(구성비)	27
<그림 III- 1> 연구의 분석모형	80
<그림 IV- 1> 자녀구성 성별분포	86
<그림 IV- 2> 자녀의 연령별 분포	87
<그림 IV- 3> 자녀의 학력별 분포	88
<그림 IV- 4> 이혼 형태	90
<그림 IV- 5> 처음 이혼 이야기가 된 시점에서부터 이혼하기까지의 기간	93
<그림 IV- 6> 이혼 후 남편과의 관계	96
<그림 IV- 7> 재결합에 대한 기대	97
<그림 IV- 8>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과정	100
<그림 IV- 9>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1)	103
<그림 IV-10>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2)	104
<그림 IV-11>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	107
<그림 IV-12> 자녀양육과 관련한 당면문제	108
<그림 IV-13> 양부모와 함께하는 학교행사로 인한 곤란정도	110
<그림 IV-14> 이혼 전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	111
<그림 IV-15> 자녀와 관련된 비용	113
<그림 IV-16> 자녀양육자 문제	114
<그림 IV-17> 이혼 후 삶의 만족도	116
<그림 IV-18> 자녀관련 상담 욕구	117
<그림 IV-19> 자녀 상담 경험	117
<그림 IV-20>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1)	119
<그림 IV-21>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2)	12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3. 개념정의	9
4. 연구방법	10
5.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결혼에 대한 이혼율은 1990년 11.4%, 1995년 17.1%, 2000년 35.9%로, 10년 사이에 24.5%포인트 이상 빠른 증가를 보여 이혼은 사회적인 중요이슈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 계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남녀 모두 30-40대인 부부의 이혼수가 가장 많아 이 연령층에서의 이혼율의 상승은 이혼한 여성가구의 증가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은 2000년의 경우 70.3%로 나타나 이혼가정의 절대수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것을 볼 때 이혼당사자의 부모역할뿐만 아니라 이들 자녀의 적응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이혼여성이 이혼적응과정에서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가치와 이를 형식화한 가족문화가 아직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해야하는 자녀들을 어머니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적 개입이 요청되고 있다.

현재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 혹은 모에 대해 자녀양육비와 부모역할 책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자녀양육을 맡게 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 시 자녀양육권을 부인이 가지는 경우 전 남편에 대해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녀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양육권을 가진 여성들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들 가족은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이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혼모의 경우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빈곤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로는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일환으로 이들 가정의 자녀교육비와 아동양육비 지원 등의 공적부조차원에 불

과하다. 또한 이혼여성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부모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즉 부모역할과중 및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 겪게 되는 정서적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혼을 한부모가족이 되게 하는 전환사건으로 보아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한 복지 지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이 사회 전 계층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혼으로 인한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서비스차원에서의 여성한부모가족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장혜경 외, 2001).¹⁾

부모역할의 목적은 아동이 태어나서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를 이해시키고 성인기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 부모역할은 인간사회를 유지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역할수행에 있어 이혼여성 가족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살게 되는 한쪽부모(엄마)인 여성은 담당해야 할 몫이 매우 크고 대부분의 경우 같이 살게 되지 않는 부모(아버지)와의 관계는 소원해지거나 방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제적 여파는 물론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은 자녀와 일상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에 익숙한 여성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보다 밀착되어 있고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서 받은 아픈 경험이 성격과 정서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혼 후 여성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과업은 매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혼한 여성들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고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혼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관념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모습 속에 여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 더욱이 자녀들에게도 그 여파는 마찬가지여서 이혼여성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²⁾ 아직은 여성노동력의 가치가 남성 그

1) 장혜경 외(2001)는 우리 사회의 전체 한부모가족에서 여성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모색하였다.

2) 한국여성민우회의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교사를 대상으로 이혼이나 사별로

것의 60%내외 수준인 한국사회에서 이혼과 더불어 대다수 여성들이 마주치는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여기에 더해 선진적인 이혼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자녀양육비에 대한 전배우자의 마땅한 지원이나 의무책임의 불이행이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이혼은 성인남녀의 정서적 고통이나 경제적 지위변동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보다 절박해진다.³⁾ 따라서 이혼문제는 단순히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소수가족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미 이혼률이 결혼률대비 30%를 넘긴 한국사회에서 적극적인 구조적 개입이 요청되어진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물질적 지원체계는 물론 한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전담양육자의 공백을 지역사회 및 사회가 유기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방안의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2차적 해체의 실태(이혼 후 아동을 보육원에 떠맡기는 실태)와⁴⁾ 그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갖는 자녀양육의 정서적, 물질적, 제도적 어려움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욕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이혼전후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이들 가족이 당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혼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는데 두 번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혼한 여성자신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부모역할 및 자녀

인한 한부모가족 아동들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데 사별한 가정보다 이혼한 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자녀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한부모자녀가 당당한 학교만들기』(2002)을 참조.

- 3) 이혼의 증가와 그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이전에 양부모가 담당하던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을 한부모가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곧바로 자녀양육기능상의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특히 자녀양육에서 보육시설 이용에서부터 교육비등의 부담이 있게 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장혜경 외, 2001).
- 4) 특히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은 남성이나 여성에게 자녀양육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단독 담당 판사의 “최근 협의이혼을 하러온 30대 부부가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경제적 능력이 생길때까지 고아원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하더라”는 언급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만은 아니지만 전국 8개 영아 일시보호소와 보육원들의 요보호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상당부분이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라는 점이다.

양육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가를 모색하는데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여성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이혼여성가족의 여성과 자녀의 사회적응 능력제고와 복지서비스 확대, 그리고 가족형태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법제도적 마련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가출청소년들의 배경인 가족요인(구조적 및 기능적 요인)이 되고 있고 이에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대와 함께 사회 각 부문에서의 청소년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들을(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고려해 볼 때 청소년문제의 예방차원에서도 부모역할에 대한 국가적 차원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이혼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가족이 당면하는 현실 속에서 대응해 가는 방식과 그 방해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들 가족의 안녕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관련 전반적인 통계현황을 파악하였다. 통계적으로 한국인의 혼인현황에서 이혼율 정도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정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우리사회의 가족모습을 진단해 보았다. 총혼인율 및 총이혼율, 연령별 이혼율, 평균이혼연령 및 동거기간, 이혼사유 등과 이혼가구주의 증가율과 연령별 혼인상태구성비 및 이혼당시 자녀유무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외 이혼가족에 대한 정책, 관련법 및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혼으로 인한 여성한부모가족과 관련한 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정책제언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는 정

부차원에서 이혼관련 법률(협의 및 재판이혼, 재산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한 부모역할과 법적문제,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복지법)을 살펴보았으며 민간차원에서 여성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종교단체와 연구소, 인터넷공동체, 자활후견기관, 빈곤지역공부방의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았다. 외국 현황은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한부모관련 정책의 방향과 정책내용으로 경제적 지원, 자녀보호와 양육, 그리고 심리정서적 지원차원에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특별히 양육비 집행과 관련 그 내용과 관련법들을 알아보았다.

셋째, 이혼가족 관련한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고 분석체계를 도출하였다. 이혼가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에 관한 이론적 시각의 정립에 있어서 모자가족에 대한 관점, 이혼여성 및 자녀의 이혼경험과 한부모가족의 부모-자녀 적응차원에서 이혼과 자녀, 이혼과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전반적으로 가부장적 성별분업과 부계중심의 생물학적 양부모중심주의하에서 이혼여성은 법적문제(호주제), 경제적 문제(양육비, 취업의 어려움 등), 사회적 인식의 문제, 이혼여성의 부모역할모델의 부재 등을 당면하게 되고 이에 대해 여성들이 어떻게 적응 혹은 대응해 가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넷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이혼과정에서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여 어려움과 구체적인 문제를 밝혀 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혼여성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혼과정의 본인관련 사항, 이혼과정과 자녀관련 사항, 이혼여성의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양육비관련 사항, 그리고 정책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심층면접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녀양육 현실과 그 대응방식 차원에서 감정적 이혼, 이혼여성의 부모역할모델, 이혼여성과 자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그리고 양육비 관련사항들을 분석해 보았으며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조사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기초로 이혼여성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

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개념들을 이혼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의 배경과 가정 및 사회에서의 당면문제(감정적 이혼, 법적·경제적 문제, 사회적 편견), 그리고 부모역할모델로 구분하여 각 문제에 대한 이혼여성들의 현실대응유형으로 순응형, 소극적 대응형, 적극적 대응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현존하는 제도의 입법화 부분과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조사결과에 기인하여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호주제 및 양육비 관련 법적 정비, 여성한부모가정 대상의 경제적 지원, 부모역할의 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확대 상담사업의 활성화, 부모교육의 활성화, 이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회적 부모로서의 교사·예비교사 교육의 제도화, 양부모 중심의 학교활동 개선, 그리고 한부모관련 담당종사자들의 의식교육과 전문성 강화 훈련실시차원에서 살펴보았으며 한부모 관련 정보지침서의 제작과 보급 및 이혼후 부모역할 지침의 수립 및 보급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는 여성이 이혼한 여성의 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당면하고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대응해 가는 모습들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혼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사실은 이혼이 실패보다는 성공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절망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떤 이혼자와 그 자녀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지만 다른 이혼자와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 증명된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고 일관되게 부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온 것은 연구자의 선택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의 신념이 내재화된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미 “이혼의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혼이 하나의 문제해결대안으로 인식되고 이혼자와 자녀들이 그 문제해결방법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부정적 인식을 경험하지 않으며, 특히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부모의 결정으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경험하는 아동들이 더 이상 부가적인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여성민우회, 2002).

3. 개념정의

가. 이혼여성가족

이혼여성가족은 부부가 이혼하여 여성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여성이 가구주인 한부모가족을 의미한다. 여성한부모가족은 사별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이 그 자녀와 함께사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한 여성들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여성한부모가족은 이혼한 여성들만은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원래 한부모가족은 편부모가족, 모자가정/부자가정, 편친가족, 모자세대/부자세대, 결손가족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한부모가족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부모역할은 역동적이고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다. 전반적으로 부모역할은 자녀와의 원만하고 성숙된 관계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모두 성장할 수 있는데 있다. 따라서 이혼이 단절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지속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때 이혼여성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혼 여성 스스로가 이혼이라는 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하는 것이다. 즉 여성자신의 적응을 다루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의 개념을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통해 성공적인 한부모 가정을 만들기 위한 여성의 적응노력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여성들이 감정적 이혼, 법적·경제적 문제, 사회적 편견, 그리고 한부모로서의 부모역할모델에 대한 이들 여성들의 대응양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별히 이혼여성들의 자녀양육에 있어 무엇보다도 양육비 관련문제가 직결되는바 양육비수급은 이혼여성의 부모역할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소득과 계층에 따라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 할지

라도 양육비는 한부모가정의 빈곤을 해소하고 생활의 질을 윤택하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는 여성한부모들이 아동을 키우고 보살핌으로써 아동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책임감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관련 국내외 연구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이혼여성가족이 안고있는 문제의 배경, 가정과 사회에서의 현 당면문제, 그리고 이의 해결을 돕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혼가정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은 크게 1) 여성과 자녀에게 이혼경험이 어떠한 성공적인 한부모가정을 만들기 위한 적응방안에 대한 모색과 2) 이혼에 따르는 자녀문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들-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체계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여성한부모가족만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나 자료는 전체 여성한부모가족 상황과 구별되지 않고 있어(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충분치 않다) 이혼가족관련 법, 정책논의 사항 및 프로그램은 사별을 포함한 여성한부모가족대상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정책 제언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신문 및 인터넷 자료검사를 통해 제기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의 질문내용에 참고하였다.

나.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로 조사기간은 2002년 7월 22일 -2002

년 8월 2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1) 조사대상자 선정과 표집⁵⁾ 및 조사 실시방법

조사대상자는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추출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여성한부모사업 관련기관 협조를 얻어 임의표집과 눈덩이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특별히 막내자녀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생애주기별로 ①영유아기(미취학, 0-5세) ②초등학생(6세-12세) ③중고등학생(13세-18세) ④고등학교졸업이후(18세이상)의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골고루 선정하고자하였으나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워 자녀의 연령구분 없이 여성의 연령대를 고려하면서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가) 설문조사 대상자

설문조사대상자는 여성한부모가 많은 동의 동사무소, 사회복지관(자조모임), 결혼상담소, 자활후견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한부모인터넷공동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얻어 각 기관의 담당자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범위를 고려하여 200명의 규모로 설정하였고 직접설문과 우편조사를 병행하였다. 대상자의 사전허락 하에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된 설문지는 132부였으며(회수율 66%) 이중 분석에 이용된 것은 127부였다(분석율 63.5%).

나) 심층면접대상자

심층면접대상자선정은 본 연구의 목적과 중심내용인 이혼여성들의 자녀양육현실과 대응방식을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이혼과정, 연령, 그리고 자녀변수를 고려하여 30명을 선정하였고 대상자가 이를 쾌히 받아들여 면접에 응한 대상자는 총 28명이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4명은 면접과정에서 중단되었고 총

5) 이혼에 관한 계량적 접근은 모집단에 의거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표본추출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들의 접근도가 매우 낮다. 양적조사와 질적조사 모두 표본의 수가 적지만 한국 내 이혼과 관련된 사항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모집단의 이혼연령대와 동반자녀의 수나 연령 등의 면에서 어느 정도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24명의 면접이 완료되었다.

면접조사원은 연구진 2인과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인지한 질적연구 및 심층면접에 관한 이론적 교육경험이 있는 훈련된 조사원 3인이 수행하였다. 면접장소는 응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집, 카페, 사무실 등 응답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하였으며 면접시간은 대략 사례 당 3시간에서 5시간까지 소요되었다. 면접조사 기록은 모두 녹취하였으며 풀이하여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조사의 내용 및 도구

본 연구의 내용을 반영하는 질문지는 이혼여성을 대상으로한 설문지와 심층면접지이다. 질문지의 내용은 광범위한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과 관련 분야 학자 및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본원 연구진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예비조사⁶⁾ 실시 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질문지의 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비롯해 이혼과정 관련사항, 이혼과정과 자녀, 이혼후의 생활과 자녀, 양육비 관련사항, 삶의 만족도 및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등 6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지는 설문지 항목을 중심으로 그 세부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 <표 I-1>과 같다.

심층면접지는 설문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크게 1)일반적 사항과 2)이혼관련 사항, 3)자녀의 적응과정과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4)양육비 문제, 그리고 5)시설이나 기관의 지원정보 등 다섯분야로 구분하였다. 이혼관련사항으로는 전반적인 사항, 과정으로서의 이혼, 이혼으로 인한 변화 등을 설정하였으며 자녀의 적응과정과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에서는 이혼과정과 자녀, 이혼에 따른 변화, 이혼가정에 대한 편견, 이혼후 co-parenting, 양부모중심주의를, 양육비문제에서는 특별히 받지 못하고 있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달라고 해본적이 없다는가, 이야기할때의 상대방의 반응 등 개인적 대응의 정

6) 인터넷 공동체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으로 2002년 7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 2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문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그 중 상당부분이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였고 다음으로 주위의 시선과 편견을 어려움으로 들었다.

<표 I -1> 설문지 내용

항 목	세 부 내 용
일반적 사항	연령, 학력, 직업유무, 이혼전의 직업유무, 생활비조달, 소득수준, 한달소득, 주거형태, 결혼기간, 별거기간, 가족원상황
이혼과정 관련사항	이혼기간, 이혼형태, 이혼사유, 이혼시점에서 이혼까지의 기간, 이혼단계에 따른 스트레스요인, 전남편과의 관계, 재결합에 대한 생각, 재혼에 대한 생각, 이혼 후 달라진 사항
이혼과정과 자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소유과정, 자녀와 관련한 의논내용, 자녀의 반응, 자녀와 이야기한 내용. 이혼과정에서 자녀와 경험할 수 있는 내용
이혼 후의 생활과 자녀	이혼전과 후의 변화,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 양육과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내용.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학교에서의 곤란경험, 전남편과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 아빠의 만남, 어머니의 아버지로서의 역할
양육비 관련사항	양육비 인지여부, 액수에 대한 견해, 자녀와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 가장 부담되는 부분, 양육비 수급정도와 집행, 바람직한 자녀양육자, 양육포기생각
삶의 만족도 및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	본인과 자녀의 이혼전후의 만족도비교, 자녀와 관련한 상담욕구와 경험, 전문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욕구정도

도와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강조되어야 할 것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3) 분석 및 자료제시 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와 자료 입력 단계를 거쳐서 오류 점검을 실시하였고 window용 SPSS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사항을 비롯해 이혼과정 관련

사항, 이혼과정과 자녀, 이혼후의 생활과 자녀, 양육비 관련사항, 삶의 만족도 및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해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문항별로 입력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관련학자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설문지, 관련사항들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다. 특히 전문가들간에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물질적 지원체계는 물론 한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전담양육자의 공백을 지역사회 및 사회가 유기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방안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되었고 이런 점에서 이들이 갖는 자녀양육의 정서적, 물질적, 제도적 어려움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욕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실하였음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가족연구에 있어 경험적 접근이 결코 수월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혼가족을 경험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의 내면적인 갈등과 욕구를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진의 노력과 구조화된 설문지 구성작업이 갖는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설문문항에 대한 보다 표준화작업을 위해 응답자들의 적절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문지 항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두 번째 자문회의에서는 본원의 타 연구자들과 함께 하였다. 연구제목에서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의미가 같지 않은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부모역할은 여성의 직접적인 역할이지만 자녀양육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의 의미를 함축하기 위해서는 두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설문과 심층면접결과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연구진이 의도한대로 별도의 장으로 한다면 소제목들에 대한 정리의 틀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연구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하며 두 분석결과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 조사대상자에 있어서 ‘숨어있는 대상’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은 여전히 숙제가 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으며 어떻게 이들 대상들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의 강구가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세 번째 자문회의에서는 진행된 보고서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의 시간을 가졌다. 설문조사결과제시에 있어서의 문장의 교열문제로 보다 명료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특별히 정책제언에서 연구진이 외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본 것과 한국의 한부모여성들의 양육실태와 욕구에 준해 향후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서비스내용을 제시할 때 내용구성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 보완될 필요가 있는 정책적 지원책을 항목별 혹은 수준별로 정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할 전략 구상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이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 학교선생님들의 이혼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라.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학계, 관계부처와 여성단체 및 상담기관 관계자 등의 실무자와 함께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혼여성가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별히 이혼가족연구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할 논제들로서 새로운 가족규범의 창조문제와 예방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은 현행제도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야함이 강조되었고 특별히 양육비제도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새로운 가족규범과 관련하여서는 ‘극복되어야 할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주지하듯이 갈등론이나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위 비정상가족들이 전통가족주의에서 비롯된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부터의 탈피의 결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수용과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해체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수용,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사회가 증가하는 이혼율과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가족해체 자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데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혼여성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옹호되는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적극적 삶의 방식선택’과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강하게 수용되고 있는 ‘가족의 안정이 사회의 안정’이라는 기능론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수렴시킬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계의 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 가족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사회 현실에 적합한 사회규범을 만드는 것이지만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았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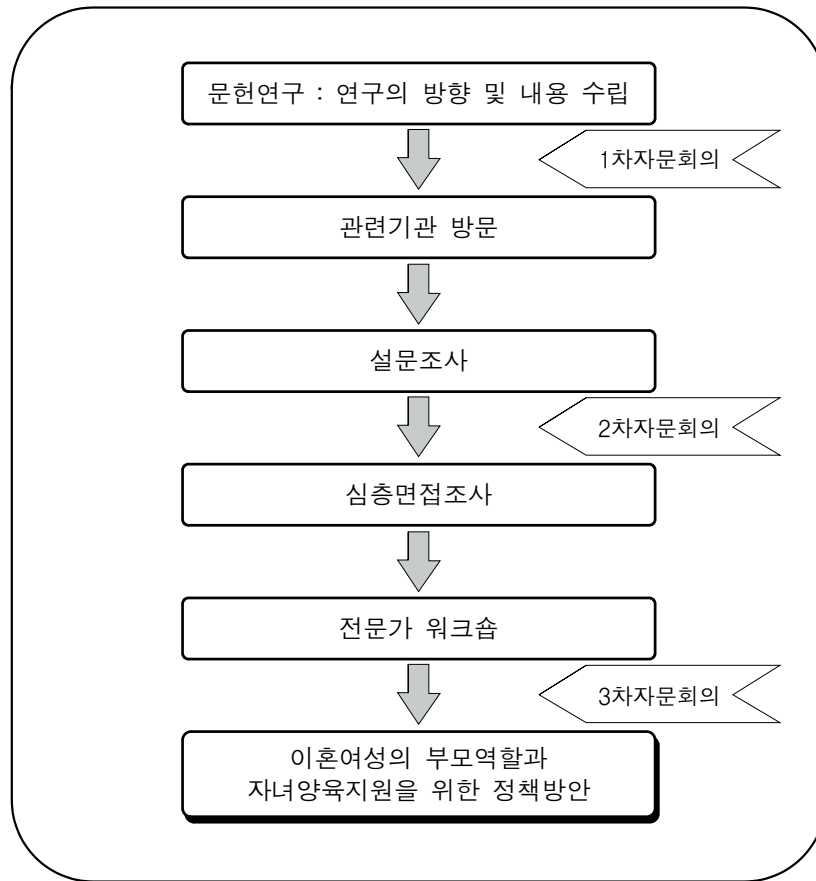
이혼을 예방하고 이혼 후 건강한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양성평등한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서비스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의 높은 이혼율은 여성과 남성의 가족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서 문제가족과 일반가족들을 그 수혜대상으로 하여 근본적으로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담실을 찾아오는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인간관계의 기본인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여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가부장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남편에 대한 갈등과 가사노동에 대한 불평등에 대하여 호소하며 이혼을 생각하는 사례들을 볼 때 이혼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회문제는 결혼 전 교육과 결혼 후 교육, 부모교육을 통하여 줄일 수 있을 것임이 제안되었다. 급격한 사회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각자의 끊임없는 적응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가족구성원은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동시에 새로운 가족생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조직적인 가족생활교육이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부터 실시되어야하면 각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복지관을 통하여 가족생활에

7) 노동시장과 같은 공적부문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제고되고 성별분업개념의 개선이 시작된 반면 사적부문, 즉 가족에서는 이러한 공적영역에서의 개선과는 상관없이 전통적 성역할 개념은 여전히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김승권의, 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p. 496). 최근 우리사회에서 호주제 폐지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그 주장이 쉽게 공식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나 호주제 폐지운동이 급진적인 여성계 일부의 운동으로만 축소되어 비쳐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양성평등한 새로운 가족규범을 창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장기적인 과제인가를 대변해준다.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기술 훈련, 대인관계기술 훈련, 자기표현 훈련, 스트레스관리 훈련, 분노조절프로그램, 자기성장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재교육, 그리고 매스컴을 활용한 건강한 가족의 모델의 제시는 좋은 방안이며 가족관련학과(가족학과, 아동가족학과, 가족복지학과 등)에서 배출되는 가족생활교육사 및 가족상담사제도가 학계와 정부측의 연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이혼가족을 위한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의 방향은 여성의 입장에서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이 논의되었다. 이혼률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녀의 성 문제를 법률제도 개선을 통하여서 강제하기보다는 이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인간 됨의 자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으며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양육비 확보 정책 입법화가 강조되었다.

다음 <그림 I-1>은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단계별로 구성되어 진행되어 갔는가를 정리한 연구의 흐름도이다.



<그림 I-1> 연구의 흐름도

5.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본 연구가 이혼여성가족에 대한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현황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역시 유의표집으로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설문조사시 샘플수의 한계로 인해 통계적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시도되지 못하였는데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심도있는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실태 상황이 제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

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과 제언에 있어서 전체와 계층별로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 비공식적 지원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범위에 있어서는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의 가정을 고려해 볼 때 본 조사결과에서도 언급은 하였지만 부모역할은 자녀들이 사회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적응·부적응을 볼 수 있는 학교교사들의 인식 및 태도와 관련이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함이다.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그 한계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향후과제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여성들 내의 다양한 차이 수용과 정책 반영의 문제이다. 이혼 여성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경험하는 문제들은 그들이 기반하고 있는 다양한 위치와 조건에 따라 차별화 된다. 이혼 여성들의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여성들의 경제적 기반, 주변 가족들의 지지 정도, 전남편과의 협력적 관계 여부, 자녀의 성별과 연령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여성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혼 여성들간의 본격적인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혼 여성들간의 차이와 그 차이가 부모역할에 미치는 상관관계, 차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실행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생애주기별, 자녀의 연령대별 문제 유형화이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특정한 시기에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생애주기와 자녀의 연령대 사이에는 일정정도 유사한 연관성이 있다. 주로 30대에서 40대 여성들은 자녀의 학령기 시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에 놓여있고 또 그 안에서 자녀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인가에 따라 요구되는 부모역할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학령기 이전의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서는 자녀를 맡겨야 할 곳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앞의 생애주기 여성들과는 다른 지점에서의 부모역할의 어려움과 모델이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연령대와 자녀의 연령대를 함께 고려해서 이 두 변수가 어떤 차이를 야기하는지, 그 차이가 정책적으로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분석을 도출하지 못하여

향후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이혼가정 자녀들에 대한 심층 조사의 문제이다. 이혼 여성들의 부모역할은 자녀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자녀가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포함시켜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경우, 이혼한 부모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몰두하느라 자녀들의 욕구와 고민과 걱정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접근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녀의 인터뷰에 응하기를 꺼려했고 자녀들에 대한 인터뷰의 경우 심리 상담적 접근이 함께 병행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자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경로와 인터뷰 방식을 개발하여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자녀들의 욕구와 필요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한국이혼가족의 일반적 현황과 정책 및 프로그램현황을 살펴보았다. 제 III장은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 IV장은 이혼한 여성가족 삶의 전반적 현황을 양적조사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제 V장에서는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이혼여성의 자녀양육현실과 구체적인 대응양식을 살펴봄으로써 이혼여성가족들이 이혼과정에서 당면하는 구체적인 문제와 긍정적인 대처방법들, 그리고 보다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적 욕구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 VI장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이혼한 여성이 부모역할과 자녀양육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제안하였다.

Ⅱ



한국 이혼가족의 일반적 현황과 정책

1. 한국이혼가족의 일반적 현황	23
2. 이혼가족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34

Two horizontal bar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 top bar has a fine cross-hatch pattern, and the bottom bar has a denser cross-hatch pattern.

본 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 및 이혼가족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정책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혼인 현황에서 이혼율을 정도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정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우리사회의 가족모습을 진단해 보았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정책제언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 한국이혼가족의 일반적 현황

가. 이혼관련 사항 현황

1) 조혼이율 및 조이혼율

2002년 3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혼인·이혼 통계결과’를 보면 이혼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혼인연령층의 인구감소와 학업의 연장, 경제 활동 참여 확산 등에 따른 결혼 지연, 개인주의적 성찰에 따른 독신 선호로 혼인이 줄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지향 등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결혼한 사람은 하루 평균 877쌍씩 모두 32만100쌍으로 전년 33만 4천 쌍에 비해 4.2% 감소했다. 1980년에는 혼인 13쌍에 이혼 1쌍, 2001년에는 혼인 2.5쌍에 이혼 1쌍의 추이이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6.7건으로 지난 80년 10.6건에서 90년 9.3건, 95년 8.7건, 2000년 7.0건에 이어 매년 줄어들고 있다(<표 II-1>과 <그림 II-1>). 이에 비해 이혼율은 2001년 현재 42.2%를 기록함으로써 사상 최고를 나타냈으며 지난해 하루 평균 이혼한 사람은 370쌍으로 모두 13만 5천쌍이었는데 전년보다 12.5% 증가하였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2.8건으로 80년 0.6건, 90년 1.1건, 2000년 2.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OECD 국가중에서 이혼율이 높은 영국의 이혼율이 2.6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표 II-2>),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혼율을 향후 5년간 전망해 볼

때 약 5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표 II-3>) 우리사회가 혼인혁명기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표 II-1> 조혼인율/조이혼율

단위: 천명, %

연도	결혼수	이혼수	조혼인율 (건)	조이혼율 (건)	결혼에 대한 이혼율(%)
1980	400,471	23,150	10.6	0.6	5.8
1985	376,847	38,838	9.2	1.0	10.3
1990	397,872	42,898	9.3	1.1	10.8
1995	398,484	68,279	8.7	1.5	17.1
2000	334,030	119,982	7.0	2.5	35.9
2001	320,100	135,000	6.7	2.8	42.2

* 조혼인율(이혼율)(건)=[혼인수(이혼수)÷해당연도인구]×1,000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그림 II-1>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표 II-2> OECD 국가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2000)

국 가	조혼인율(건)	조이혼율(건)
벨기에	4.4	2.6
덴마크	7.2	2.7
독일	5.1	2.4
그리스	4.3	0.9
스페인	5.3	1.0
프랑스	5.2	2.0(1999)
아일랜드	5.0	0.7
이태리	4.9	0.7
룩셈부르크	4.9	2.3
네덜란드	5.5	2.2
오스트리아	4.8	2.4
포르투갈	6.2	1.9
핀란드	5.1	2.7
스웨덴	4.5	2.4
영국	5.1	2.6

자료: Euro Statistics(2001), Statistics in Focus: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표 II-3> 혼인, 이혼건수 전망(2003년~2007년)

단위: 천명(%)

년 도	혼인건수	이혼건수	이혼율
2003	300,930	151,283	50.27
2004	299,785	152,924	51.01
2005	305,274	151,078	49.49
2006	301,997	151,761	50.25
2007	302,352	151,921	50.25

참고: 전망방법은 선형이동평균법을 약간 수정하여 2007년까지 단기예측한 결과임.

2) 연령별 조이혼율

2001년 현재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남녀 모두 35~39세이며, 다음은 남자 40~44세, 30~34세 순이고, 여자는 30~34세, 40~44세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35~44세 및 여자 30~39세 연령층은 2001년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II-4> 연령별 남녀 조이혼율

단위: 인구천명당 건

연령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5~19	0.0	0.1	0.0	0.1	0.0	0.2	0.0	0.2	0.0	0.2	0.0	0.3
20~24	0.6	2.4	0.6	2.4	1.0	3.4	0.9	3.3	0.9	3.4	1.0	3.6
25~29	3.7	6.4	3.6	6.8	4.9	9.5	4.9	9.4	5.0	9.7	5.6	10.8
30~34	6.2	6.4	7.1	8.5	10.2	12.7	9.9	12.4	10.0	12.3	11.2	13.8
35~39	6.2	4.9	8.1	7.6	12.7	12.9	12.4	12.9	12.2	12.6	13.6	14.1
40~44	5.0	3.0	7.5	5.3	12.6	10.2	12.4	10.4	12.2	10.5	13.4	11.7
45~49	3.3	1.7	5.6	3.0	10.0	6.2	10.1	6.4	10.1	6.6	11.1	7.3
50세이상	1.1	0.4	1.8	0.6	3.6	1.4	3.7	1.4	3.7	1.4	4.0	1.6

자료: 통계청(2002), “2001년 혼인·이혼통계결과”

3) 평균이혼연령 및 동거기간

2001년 남자의 평균 이혼연령은 40.2세, 여자는 36.7세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90년에 비해 남자 3.4세, 여자 4.0세 늘어났다(<표 II-5>). 이는 15년이상 장기동거부부의 이혼 증가 및 혼인연령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이혼부부의 동거기간을 보면 10년 미만은 54.4%, 10~19년은 34.3%, 20년 이상은 11.3% 차지하였고 20년이상 장기 동거부부의 경우를 보면 90년 3.9%에서 2001년 11.3%로 3배정도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표 II-6>). 연도별 이혼 전 평균동거기간을 고려해 볼 때 1995년에는 평균 6.8년에서 요즈음은 평균 10년을 넘기는 것을 볼 때 이혼 전 장기동거부부의 이혼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II-5> 평균 이혼연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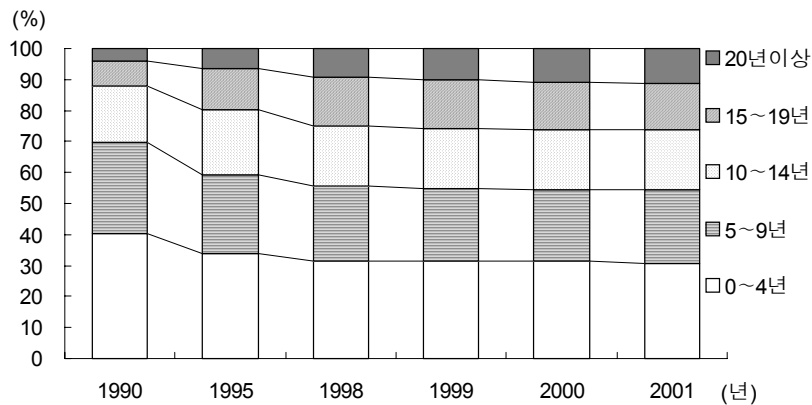
연 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남 성	36.8	38.4	39.8	40.0	40.1	40.2
여 성	32.7	34.6	36.1	36.4	36.6	36.7
차 이	4.1	3.8	3.7	3.6	3.5	3.5

자료: 통계청(2002), “2001년 혼인·이혼통계결과”

<표 II-6> 동거기간별 이혼정도(%)

동거기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0~ 4년	40.3	33.7	31.6	31.4	31.7	30.5
5~ 9년	29.4	25.6	24.0	23.5	23.0	23.9
10~14년	18.3	21.0	19.5	19.2	19.0	19.4
15~19년	8.0	13.2	15.6	15.7	15.4	14.9
20년 이상	3.9	6.5	9.3	10.2	10.9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02), “2001년 혼인·이혼통계결과”



<그림 II-2> 동거기간별 이혼추이(구성비)

4) 이혼사유

통계적으로 나타난 이혼의 주된 사유(통계청, 2001)를 보면 부부불화가 제일 많다. 1990부터 2001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부부불화 사유는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일 큰 사유가 되고 있다. 반면 경제문제와 기타의 범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부불화의 주요내용은 배우자의 부정과 부부간의 성격차이가 대부분으로 나타난다. 최근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족의 경제적 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부불화가 가장 큰

이혼사유가 되고 있는 점은 중시되어야 할 것 같다(은기수, 2002).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주된 구체적인 이혼사유는 부부불화(가족간 불화 포함)가 7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문제, 건강문제 순으로 나타났다(<표 II-7>).

<표 II-7> 이혼사유별 이혼정도(%)

이혼사유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부부 불화 (가족간 불화포함)	84.9	83.0	80.7	80.2	74.5	74.0
경제 문제	2.0	2.9	6.6	7.0	10.7	11.6
건강 문제	1.5	1.0	0.9	0.9	0.9	0.7
기 타	11.6	13.1	11.8	11.9	13.9	1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02), “2001년 혼인·이혼통계결과”

그러나 기타의 범주를 고려해 보면 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유들이 다양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많은 경우 부부불화와 경제문제는 상호관련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문제로 인한 가정파탄, 맞벌이 부부의 불평등문제, 재산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처분, 혼인중 재산의 분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혼, 이혼과 빚 등 매우 구체적인 사유들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사례들을 보면 근래의 이혼성향은 다양하고 질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주는데 월급을 안주거나 때리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도박을 일삼는 등 남편으로서의 “일탈”행위뿐만 아니라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성적 갈등 등 재판을 통해서가 아닌 협의이혼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표 II-7>). 광배희 소장은 1990년대 이후 민법 제 840조 6항에 해당하는 “기타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36가지로, 점점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중독도 이혼사유에 더해진 것을 볼 때 이혼율은 어떠한 범주에서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현재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손쉽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경애 상담위원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의 단순성으로 인해 잠시 감정에 휩싸여 이혼결정을 내리거나 이혼후의 문제들, 특히 가족해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자녀양육문제, 권리보호 등에 관해 충분히 고려하거나 혹은 관련지식없이 이혼을 한 경우가 상담사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에 급급하여 철저한 숙고없이 이혼에 이르게 되고 이혼절차단계에서 자녀양육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8> 협의 및 재판이혼 건수와 비율

단위 : 건(%)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협의 이혼	43,857 (73.9)	51,547 (79.3)	54,087 (79.2)	64,402 (80.6)	73,863 (81.0)	97,609 (83.6)	98,858 (83.8)	100,238 (83.5)	111,688 (82.7)
재판 이혼	11,613 (19.6)	12,936 (19.9)	13,024 (19.1)	14,815 (18.5)	16,833 (18.5)	19,057 (16.3)	18,908 (16.0)	19,248 (16.0)	22,646 (16.8)
미상	3,843 (6.5)	532 (0.8)	1,168 (1.7)	678 (0.8)	463 (0.5)	61 (0.1)	248 (0.2)	496 (0.4)	680 (0.5)
계	59,313 (100.0)	65,015 (100.0)	68,279 (100.0)	79,895 (100.0)	91,159 (100.0)	116,727 (100.0)	118,014 (100.0)	119,982 (100.0)	135,014 (100.0)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1) 이혼가구주의 비율

이혼을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는데 전체 가구주 중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형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5년의 4.3%에서 2000년 현재 11.6%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9>에 나타나는 것처럼 남녀 모두 이혼 가구주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유배우 가구주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그 증가속도는 이혼여성가구주에게 있어서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를

보면 2000년 현재 사별이 44.7%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유배우 상태이지만 가출, 유기 등의 사유로 배우자와 비동거 하는 경우로 22.5%, 다음이 이혼에 의한 것으로 21.9%이다. 특별히 과거에 비해 최근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되는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 1985년에는 5.9%에 불과했던 것이 1995년에는 12.9%, 2000년 21.9%를 나타낸다. 즉 2000년에는 1995년에 비해 12.1%p나 증가하였다.

<표 II-9> 성별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변화(1975-2000)

(단위: %)

혼인상태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남자	유배우	93.1	92.9	92.3	91.2	89.9	88.3
	사별	1.9	2.0	1.6	2.0	1.9	1.9
	이혼	0.3	0.4	0.5	0.8	1.2	2.1
	미혼	4.7	4.7	5.6	6.0	7.0	7.6
여자	유배우	24.5	22.2	22.7	17.7	15.7	16.6
	사별	59.4	58.1	52.2	56.3	56.1	50.5
	이혼	4.3	3.9	4.3	5.6	7.1	11.6
	미혼	11.8	15.7	20.7	20.4	21.0	21.4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 연령별 혼인상태 인구구성비와 이혼당시 자녀유무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표 II-10>). 전체 연령층에서 기혼보다 미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혼가운데서 이혼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사별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연령별 이혼비율을 보면 30-34세 연령은 1975년 1.0%에서 2000년 1.5%로, 35-39세 연령층은 1975년 1.1%에서 2000년 3.0%로, 40-44세는 1975년 1.0%에서 2000년 4.3%로, 45-49세 연령층은 1975년 0.9%에서 2000년 4.4%로 늘어나고 있다. 즉 30대 이상의 각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 즉 여성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II-10>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1975-2000)

단위: 천명, %

연령	1975					1980					1985				
	인구	미혼	기혼			인구	미혼	기혼			인구	미혼	기혼		
			유배우	사별	이혼			유배우	사별	이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21,471	34.5	57.0	7.9	0.5	24,751	43.0	77.0	9.4	1.0	28,324	37.5	67.3	8.2	0.9
15~19	4,147	98.6	1.4	0.0	0.0	4,240	99.0	0.9	0.0	0.0	4,316	99.5	0.5	0.0	0.0
20~24	3,123	78.2	21.6	0.1	0.1	4,053	79.8	20.0	0.1	0.1	4,245	83.6	16.3	0.0	0.0
25~29	2,507	29.6	69.4	0.4	0.5	3,082	29.6	69.7	0.3	0.3	4,070	34.5	65.0	0.2	0.3
30~34	2,224	4.6	93.3	1.2	1.0	2,519	5.0	93.0	1.1	0.9	3,115	6.9	91.4	0.8	0.9
35~39	2,189	1.0	95.3	2.6	1.1	2,223	1.4	95.1	2.4	1.1	2,581	2.2	94.5	1.9	1.4
40~44	1,800	0.4	92.9	5.7	1.0	2,132	0.6	93.7	4.6	1.1	2,188	0.9	93.6	4.0	1.5
45~49	1,399	0.2	87.5	11.4	0.9	1,782	0.4	89.9	8.9	0.9	2,089	0.5	91.4	6.9	1.2
50~54	1,197	0.2	82.0	17.2	0.6	1,326	0.2	82.6	16.5	0.7	1,695	0.3	86.3	12.5	0.9
55~59	939	0.2	75.2	24.2	0.4	1,125	0.2	75.5	23.8	0.5	1,268	0.2	77.8	21.3	0.7
60~64	738	0.1	66.4	33.1	0.3	822	0.1	67.0	32.5	0.3	1,007	0.2	68.9	30.5	0.4
65+	1,207	0.1	44.6	55.1	0.2	1,446	0.1	45.0	54.7	0.2	1,750	0.2	47.9	51.7	0.2
연령	1990					1995					2000				
	인구	미혼	기혼			인구	미혼	기혼			인구	미혼	기혼		
			유배우	사별	이혼			유배우	사별	이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34,318	30.8	60.7	7.4	1.1	32,256	33.0	59.1	7.2	0.8	36,347	30.1	60.6	7.4	1.9
15~19	3,863	99.5	0.5	0.0	0.0	4,449	99.7	0.3	0.0	0.0	3,692	99.5	0.5	0.0	0.0
20~24	4,304	90.1	9.9	0.0	0.0	4,396	88.8	11.1	0.0	0.0	3,848	93.5	6.4	0.0	0.1
25~29	4,138	47.1	52.5	0.1	0.3	4,334	39.6	59.9	0.2	0.3	4,097	55.6	43.8	0.1	0.5
30~34	4,230	13.2	85.4	0.5	0.9	4,208	9.7	88.7	0.7	1.0	4,093	19.5	78.7	0.3	1.5
35~39	4,134	5.0	91.7	1.3	2.0	3,201	3.1	93.5	1.7	1.7	4,187	7.5	88.6	0.9	3.0
40~44	3,071	2.3	92.0	3.0	2.6	2,539	1.3	93.1	3.7	2.0	3,996	3.8	89.7	2.2	4.3
45~49	2,464	1.2	90.5	5.6	2.6	2,177	0.7	90.9	6.6	1.7	2,952	2.1	89.1	4.4	4.4
50~54	2,064	0.7	87.5	9.8	2.0	2,010	0.4	87.5	10.9	1.2	2,350	1.2	87.1	7.9	3.7
55~59	1,913	0.4	82.8	15.5	1.3	1,623	0.3	80.6	18.3	0.9	1,968	0.8	83.4	13.2	2.6
60~64	1,495	0.3	73.7	25.2	0.8	1,157	0.2	69.2	30.0	0.6	1,789	0.5	77.5	20.4	1.5
65+	2,640	0.2	47.6	51.8	0.4	2,162	0.2	47.2	52.4	0.3	3,372	0.3	52.0	47.0	0.7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이는 이혼당시 20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를 보면 보다 명확해 진다. 이혼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아직 주로 남녀 모두 3~40대인 경우가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즉 이혼 당시 자녀가 학령기인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동거기간별 분포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자녀의 연령에 비추어보며 전학령기부터 학령

기에 이르는 시기에 이혼하는 비율이 이혼건수의 43.23%에 이르며 청소년기는 14.9%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1). 2001년 현재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70.3%로 2명 두고 있는 경우가 34.6%, 1명인 경우는 31.2%를 감안하면 이혼당시 보통 1-2명의 자녀를 둔 부부들이 대부분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이혼한 여성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수행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즉 경제적 자립을 유지해야하고 자녀의 의, 식, 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사노동이 있어야한다.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양육활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양부모가 있는 경우 이러한 역할에 분담이 가능하지만 여성이 혼자서 수행하는데서오는 힘들음을 겪게 되는 것이다.

<표 II-11>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 유무 및 자녀수 비율

	1993	1995	1998	1999	2000	2001
○ 있음	65.6	71.4	71.8	71.3	70.4	70.3
- 1명	30.0	32.9	31.7	32.0	31.7	31.2
- 2명	30.0	32.9	35.5	34.9	34.3	34.6
- 3명이상	5.6	5.6	4.6	4.4	4.4	4.5
○ 없음	34.4	28.6	28.2	28.7	29.6	2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02), “2001년 혼인·이혼통계결과”

다. 요약 및 논의

전반적인 이혼관련 통계지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2001년 현재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남녀 모두 35~39세이다. 통계적으로 나타난 이혼의 주된 사유로 부부불화가 제일 많지만 경제문제와 기타의 범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부불화의 주요내용은 배우자의 부정과 부부간의 성격차이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최근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족의 경제적 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부불화가 가장 큰 이혼사유가 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의 범주를 고려해 보면 근래의 이혼성향은 다양하고 질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주는데 월급을 안주거나 때리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도박을 일삼는 등 남편으로서의 “일탈”행위뿐만 아니라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성적갈등 등 재판을 통해서가 아닌 협의이혼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혼절차는 현재 그 과정이 매우 간소하여 손쉽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혼절차단계에서 자녀양육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이혼율 증가는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는데 특별히 과거에 비해 최근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되는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를 보면, 전체 연령층에서 기혼보다 미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혼가운데서 이혼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사별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0대 이상의 각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 즉 여성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이혼당시 20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를 보면 보다 명확해 진다. 이혼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아직 주로 남녀 모두 3-40대인 경우가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혼당시 자녀가 학령기인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동기간 별 분포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자녀의 연령에 비추어보면 전학령기부터 학령기, 청소년기에 이르는 시기에 이혼하는 비율이 이혼건수의 55%가 넘고 있고 이혼 당시 20세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보통 1-2명의 자녀를 둔 이혼부부들이 대부분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이혼한 여성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수행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경제적 자립 지속의 문제, 자녀의 의, 식, 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사노동수행문제,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양육활동의 문제 등. 양부모가 있는 경우 이러한 역할에 분담이 가능하지만 여성이 혼자서 수행하는데서오는 힘들음을 겪게 되는 것이 이혼여성가족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이혼가족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가. 우리나라의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1) 정부차원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혼가족이 겪는 문제를 다루는 정책이나 전담부서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민법의 가족법 중 이혼관련 조항이 있다. 이혼관련 법률은 이혼의 유형, 재산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혼관련 법률은 아니지만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로 호주제를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이혼관련법률의 제시는 본 연구의 내용전개와 차원이 다르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고 국가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가의 정책차원에서 이혼한 여성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없으며 전반적인 차원에서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차원의 공공부조에서 일면 살펴볼 수 있다.

가) 이혼관련 법률과 한부모역할관련 법적문제

이혼관련 법률은 이혼의 유형, 재산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혼관련 법률은 아니지만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로 호주제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의 절차, 재산관계로는 위자료, 재산분할문제 등이 주를 이루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친권과 면접교섭권을 다루고 있다. 호주제는 이혼관련법률은 아니지만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녀의 입적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족공동체가 이혼에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그 당사자가 여성일 경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부부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므로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되어버리게 되고 이럴 경우 자녀의 호적을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 호적에 함께 기록 될 수 없다. 따라서 자의 부가입적과 부자동성원칙은 이혼한 여성가정의 호적상 불합리를 가져오고 있다.

한부모 역할과 관련한 법적 문제로는 1)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과 2)양육비 문제가 대표적이다. 법적 문제는 사실 이론적 논의의 차원에서보다는 이혼한 한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해결되어야할 문제들로 본 글의 전개에 있어서 중심사안임으로 주요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문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고있는 ‘현재 양육자’는 경제력이 없는 어머니들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혼소송기간 동안 자녀가 어디에서 양육되었는가는 부수적인 참고사유로 하고 평소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의 정도, 경제적 능력이나 자녀의 정서적 반응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자녀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하는데 있어 자녀의견을 참고하는 경우 너무 어린 나이의 자녀들은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고 양육중인 부모에게 세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법원 출석 자체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외부 전문상담가를 활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함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적절한 형사처벌과 현행법에 마련되어있지 않은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성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법원에서 이혼 후 자녀양육과 관련된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양육비 문제

특히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양육비현실화의 필요성의 문제이다. 한부모와 관련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1)와 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결과(2002)⁸⁾

8) 한국여성민우회의 <가족과 성 상담소> 한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의 경우 1)경제

를 보면 공통적으로 여성 한부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공공부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극히 낮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부모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한 수입 때문에 주택규모를 줄이거나 자녀교육비, 생활비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 한부모에게 가장 먼저 닥쳐오는 것은 경제적 자립의 문제인데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임금도 열악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부모에게 주어지는 자녀의 양육비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물론 소득과 계층에 따라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 할지라도, 양육비는 여성 한부모가정의 빈곤을 해소하고 생활의 질을 윤택하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2002).

현재 민법상의 문제들을 보면 부모의 재정적인 측면이 양육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서 자녀의 복지가 간과되고 있다는 점과 양육비 지급 책임의 의무에 대한 인식 미비이다. 또한 이혼 절차에서 양육비가 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양육비가 소액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을 통해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절차도 어렵다는 사실이다.⁹⁾

적인 문제와 사회적 지지기반의 문제로, 다수가 친인척과 함께 기거하고 있으며 2)1/3이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임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여성의 노동현실로 가사와 생계를 동시에 꾸려가는 것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3)80% 가량의 한부모가 저소득층 기준이 되는 4천 5백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받지 못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양육비의 경우도 받지 않거나 아예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가 70%가 넘어 이러한 사실은 자녀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10가정 중 하나에 불과함을 나타냈다. 4)현재 생활비 중 자녀양육비가 30~50%를 차지, 50%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20%가 넘었다.

9) 현재 제안되고 있는 개선안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이혼시 부부간에 합의조항의 필수(친권, 양육권, 양육비등을 이혼신고서 등에 기재) : 합의문을 법원에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 전문가의 조정으로 이혼시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② 양육비 판결 확정시까지 양육비의 인정 : 자녀를 데리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경우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임시조치로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 지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 규정의 마련
- ③ 양육비산정기준의 체계화 : 최저양육비 산정의 필요성(양육노동에 대한 환산).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자녀 1인당 15만원 내지 30만원 선에서 양육비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입의 정도나 재산 정도등을 종합하여 탄력적인 양육비 책정이 되어야 하고 일시불의 지급명령 판결도 인정될 필요가 있음
- ④ 양육비 이행명령 : 국가의 개입을 통한 양육비의 실질적 전달(고정 급여자의 경우 회사의

나) 공공부조

우리나라에 이혼한 여성의 가족만을 대상으로하는 공공부조는 없다. 다만 이혼 및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전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으로 주로 공공부조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⁰⁾

먼저 공공부조와 관련한 제도의 수혜자 중 여성이혼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정치는 밝혀볼 수 없지만 전체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 성격의 법률에 적용을 받아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과 한부모가 된 원인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999년 현재 총 68,815세대인데 이는 전체 한부모가구 96만 가구의 약 7.1%인 68,160 가구에 해당되며 이 중 81.6%는 여성한부모가구이다. 모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 자료의 부재로 저소득 한부모가구가 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다만 현실적으로 『모자복지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현황관련 자료를 참조로 살펴볼 수 있다. 모자가족의 경우, 이혼(43.7%), 배우자 사망(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5.4%), 미혼모(4.7%), 기타(2.9%)의 순으로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경우 모자가정의 약 44%가 이혼여성가족에 해당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표 II-12>).¹¹⁾

직접지급 제도 등)

- ⑤ 감치처분제도를 강화 : 능력이 있음에도 지불치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조항 마련 등
- ⑥ 양육비 선급제도
- ⑦ 중재행정기관의 설치(국영보험회사, 행정기관, 법원의 부서...)
- ⑧ 이혼중재 프로그램 및 이혼후의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 ⑨ 국가가 아동부양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장기적 방안 마련.

10)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장혜경 외(2001) 참조

11) 여성가구주가족의 일반적인 경제적 지위 및 형편은 다음의 두연구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변화순 외 4인(2000)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일반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159만6천원인데 비해 편모가구는 78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문제는 이들의 경제활동 양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저소득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살펴 본 김미숙 외(2000)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여성한부모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8.8%인데 과반수 이상이 일용직이고 자영업상이 많아 대부분 저임금 직종에 몰려있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모자가족에서 매우 심각한데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성을 통해 가정내로 경제적 자원이 유입되고 분배되어 왔기에 부부관계의 해체는 모자가족에게 있어 직접적인 소득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이에 여성한부모는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여성고용 차별, 남녀간 높은 임금격차, 저학력 등으로 인해 저임금, 장시간 직종에 불안정고용인 경우

<표 II-12>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1999년)

(단위: 명, %)

한부모가 된 원인	편모가족	편부가족
배우자 사망	43.4	16.1
이혼	43.7	60.9
배우자 가출·유기	5.4	19.7
미혼모	4.7	1.8
기타	2.9	1.5
계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1999),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결과요약』.

공공부조차원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는 하지는 않으나 많은 한부모가족이 수혜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저소득 계층 모(부)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법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법이 1999년 새로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로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조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절대빈곤층에 한정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999년 12월 현재 공공부조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는 총 68,815세대로 전체 한부모가족의 약 7%에 불과한 실정이다. 1999년 12월 현재 저소득 편모가족은 56,125세대이고 이중 모자복지법에 의해 24,418세대, 생활보호법에 의해 31,535세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14,045세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72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 김미숙 외, 2000에서 재인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으며 주로 모자복지법과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개정한 것으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

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포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을 고려하여 소득평가액 산정에 차등을 두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 한부모가구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구에 따른 지출요인으로는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는 의료비, 6세 미만의 아동이나 학령기에 있는 자녀를 둔 여성가구주는 보육비 등을 감안하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연감, 2000).

부양의무자 기준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 혈족 가구’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완화하였다 (보건복지부, 2000: 147). 이것은 부양의무자의 존재에 대한 규정을 현실화하였다고 보인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세분화하여 부양무능력자, 능력미약자, 부양능력자로 구분한 점도 이전의 생활보호법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인 부양을 하지 못해도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인해 보호대상에서 탈락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간 별거나 유기, 실종 등으로 인해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실질적인 여성 가장 가구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통계로는 남성 배우자와의 장기간 별거나 유기, 실종, 징역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한부모가구주의 숫자를 공식적으로 추산할 수 없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숫자의 가구가 남성 배우자나 아버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2001). 또한 이혼을 하기 전 별거기간동안에 생활비나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이들 별거 가구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보호책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아

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1).

이러한 보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질환이나 신체건강 정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이 저소득층 가족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6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거나 질환 및 장애자를 데리고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나 건강과는 상관없이 가족 내 역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작업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급여와 자립·자활을 지원해주는 자활급여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공하고 있는 급여내용은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법과 유사하나 주거보호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한부모가족에게 있어 주거보호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한 조치이지만 주거안정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 등은 일정 정도의 재산이 있는 한부모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절대빈곤선 이하의 가구는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수많은 저소득계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으나, 수급대상에서 누락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의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중 많은 가구가 수급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여전히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1; 한국여성민우회, 2001). 사회적 지원망에 걸리지 않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생산적 복지’ 전제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을 강조하고 있다. 자활은 저소득층 여성가구주의 생활안정과 자립도모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성이 있으나, 가구내 여성역할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수급자의 대상으로 가구여건상 근로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수급자로 첫째, 초등학생(1~3학년)자녀 양육자, 둘째,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 등을 제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적용 받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구는 많지 않

다(보건복지부, 2000). 6세미만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한부모가장은 연령이나 근로능력상 취업부문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과 가사일 등으로 주로 비취업부문 자활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취업/비취업 부문 자활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현황은 공식통계로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여성들이 대부분 비취업부문 단순자활이나 자활미약자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 모자복지법¹²⁾

모자복지법은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을 주요정책대상으로 한 유일한 사회적 지원책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모자복지 관련정책의 시작은 1946년 미군정 하에서 보건후생부에서 부녀국이 창설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주로 전쟁미망인과 전쟁고아의 증가에 대응한 원호의 차원이었을 뿐 종합적인 모자복지대책으로는 볼 수 없다. 이외에도 1961년 생활보호법, 1961년 아동복지법, 1961년 윤락행위 방지법 등 각종 사회복지 관련법이 1960년대 초 제정되었으나 사별, 이혼, 유기 등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 자체를 대상으로 한 독립된 법은 존재하지 않아 왔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인다.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이 생활안정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모자복지법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정책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모자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가 세대주인 가정으로서 소득 및 재산수준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을 모자가정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모자복지법 모자가정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

12) 모자복지법 기준이나 모자가정 지원현황 및 내용은 주로 『2001년도 여성복지사업』(보건복지부, 2001)을 자료로 하였음.

구는 다음과 같다.

-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③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 ⑤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 ⑥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모자가정의 소득기준은 4인 가족 월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0만원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차등을 두고 있다(<표 II-13>). 모자복지법의 모자가정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비교해서 약간 상회하는 기준인데 예를 들어 자녀 두명을 데리고 사는 여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은 76만원인 반면 모자복지법 월소득기준은 819,000원 이하이다. 그러나 모자복지법 대상은 대부분의 경우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표 II-13> 2001년 모자가정 선정기준¹⁾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	564천원 이하	819천원 이하	1,000천원 이하	1,150천원 이하	1,270천원 이하
재 산	45백만원 이하			50백만원 이하	55백만원 이하

주 1) 가구원수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을 선정 관리함.

자료: 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모자복지법의 주 지원내용은 재가보호와 시설보호가 있다.

(가) 재가보호

재가보호로는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

주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그리고 기타 행정지원이 있다.

먼저 자녀학비는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학비를 지원하여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지된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 현재 20,210명의 학비 87억 94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01년도에는 지원할 가구원 수는 증가하지 않을 예정이나 개별 지원액수를 약간 늘려 94억 99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양육비 1일 541원(분유80g)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000년 현재 6세미만 아동 6,099명을 대상으로 9억 2800만원을 지원했다. 1인당 아동양육비로 지원되고 있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자금 융자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이전에는 생업자금이라 불렀음)을 지원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일정량을 모자가정에 우선 공급하는 지원책이다. 95년까지는 3,000가구가 넘게 혜택을 받았으나 96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2000년 7월 현재 연간 입주한 가구는 1,056 가구에 불과하였다. 영구임대주택의 절대적인 비중이 줄어들며 따라 한부모가족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숫자도 함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택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재가 저소득 한부모와 모자보호시설 거주자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직업훈련 기간 중에는 가계보조수당을 노동부로부터 지급 받는다. 2001년 2월부터는 노동부 근로여성국 근로여성정책과 주관 하에 ‘여성가장 실업자 직업훈련’이 3개월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취업알선은 직업훈련 이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 및 시설운영권을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지원책이다(모자복지법 제15조).

이외에도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 상담, 교육, 결연사업 등을 통한 행정지원이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하여 반상회보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녀학습지도 및 상담, 지역내의 유지 및 독지가를 통한 장학금 지급, 여성 및 일반 민간단체들의 생업지도, 가사보조, 무료보육 등의 자매결연사업 후원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나) 시설보호

재가보호와는 달리 시설에 입소하여 사회적 보호를 받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있는데, 크게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자립시설이 있다. 2000년 12월 현재 전국의 모자보호시설은 42개소로 1,031세대가 보호받고 있으며, 모자자립시설은 전국 3개소 56세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이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미만 단위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비지원,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원¹³⁾ / 복지자금 융자지원/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2년 이상 기거 후 시설 퇴소시 자립정착금(세대당200만원) 지원/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비용 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직업훈련 수당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급 등이 있다.¹⁴⁾ 그러나 시설은 광역시나 지자체에 1~2개 정도에 불과하며 도시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서 농촌지역은 시설이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모자자립시설은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과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이 시·도, 시·군·구 또는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여 보호를 받게된다. 지원내용은 재가보호 대상자와 동일하

13) 아동 급식비는 미취학 유아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하루 600원 꼴이며, 중·고등학생의 자녀에게는 교통비가 하루 600원씩 한달 평균 24일치의 금액이 지급되고, 연중 학용품비(초등학생 16,000원, 중학생 27,000원, 고등학생 28,500원)가 지급되고 있다(서울시, 2001).

14) 그러나 박영란(1998)이 전국 37개의 모자보호시설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공부방 운영, 취업 알선, 개인상담, 후원자 개발 및 결연사업은 100%,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91.3%, 종교생활지도 90%, 직업훈련 의뢰 78.9%, 집단상담·지도 72.2%, 아동보육 55.6%, 직업 훈련은 33.3%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보육과 직업훈련은 인근 기관에 의뢰할 가능성이 높아 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집단상담 및 지도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 기본적으로 제공받는 보호내용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비지원, 복지자금
 용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비용 지원, 기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등이다. 3곳의 모자자립 시설 중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주택 무료제공, 연2회 자
 녀를 위한 행사(동장군캠프, 힘 실어주기 캠프 등), 부모교육 특강, 심리검사,
 심리상담 서비스, 취업상담, 자립의지향상교육, 월1회 자조모임, 가족 사회복
 지자원 연결, 모자가정 자립능력향상교육 등이 있다. <영락모자원>의 실습교
 육을 통한 부모역할교실 프로그램(<표 II-14>)은 한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자
 신감을 갖게 하고 자녀양육 방법이 개선되고 자녀들과의 문제회수가 감소되

<표 II-14> 영락 모자원의 『부모역할 교실』 프로그램

횟수	집단활동 동단계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비 고
1회	초기 단계	오리엔 테이션	부모교육의 필요성 제시 교육기간 내 성실히 프로그램에 임할 것을 서약함	
2회	탐색 단계	성격유형 검사 가계도 그리기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른 자녀양육 방법 및 상호 관계 파악	과제: 일주일간 자녀의 행동을 무조건 수용
3회	문제 제기	자녀와의 문제영역 파악	의견충돌에 부딪힐 때 현재 표현하는 의사소통 발표	역할극
4회	문제 해결 단계	의사소통 걸림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시 의사소통 의 걸림돌 사용 금지	과제: 자녀와의 대화시 걸림돌 사용을 억제
5회		경청	경청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 여 공감대를 형성	과제: 자녀와의 즐거운 시간 만들기
6회		나-전달법 (I-message)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나의 감정을 전달	역할극
7회		타협	타협을 통해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형성	자녀에게 편지 쓰기
8회	종결 단계	평가회	종합 평가 설문지를 통해 교육 내용 평가	

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혜경 외(2001) 참조

는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시설은 전국에 3개뿐이어서 모자보호시설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새롭게 해나가는 모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으로는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외에 모자보호 및 모자자립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놀이터, 운동장, 강당 등의 시설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하여 상호교류를 확대시키거나 지역사회의 민간단체·종교단체·기업들과의 결연 사업 추진이 지원되고 있다.

2) 민간차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생업자금대여, 주택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우선 허가조치, 시설보호(모자보호 및 자립시설) 등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는 매년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제공되며 인적자본이 취약한 저소득 여성들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자녀양육 및 사회심리적인 문제 등에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영란, 1998). 이는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요보호여성의 보호’라는 잔여주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 속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사회로부터 낙인 받지 않고,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소득, 의료, 고용, 주거,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개별적인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이다.

최근 다양한 가족형태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더불어 다양한 가족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복지기관 및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한부모가족 운동’을 통해 ‘한부모’라는 용어를 정착시킨 한국여성민우회와 같은 여성단체 외에 현재 한부모가족에게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부모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더불어 한부모가족은 교회와 같은 일부 종교단체 및 가족관련 연구소, 자활후견기관, 빈곤지역

공부방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¹⁵⁾

가) 여성단체

이혼한 여성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단체로는 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 성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으로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집단, 법률상담,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는 한부모가족 운동과 집단 프로그램(“새로 짓는 우리집”을 위한 한부모 교실/ 여성주의 집단상담/자기성장집단상담/한부모자녀 집단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부모 자조모임과 한부모지원상담, 그리고 가족캠프(어린이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부모가족 행복찾기 모임터, 가족캠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혼관련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여성의 전화>는 이혼여성들의 적응을 위한 집단상담과 이혼여성의 자녀관계를 돕는 프로그램, 그리고 혼자된 여성을 위한 캠프 및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지역사회복지관

전국348개의 복지관 중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독립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약 20여 곳이며 그 외 대다수의 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사업 혹은 가정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등 요보호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가사, 간병, 정서, 의료, 학습지도, 결연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 중에서도 <방화6종합사회복지관>과 <대구사직종합사회복지관>의 부모역할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부록 참조).

15) 부록 참조.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장혜경 외(2001) 참조.

다) 인터넷 공동체

최근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뜻을 함께 하는 한부모들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형성·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공동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한부모가족들의 모임인 경우가 많으며, 서로의 아픔과 다양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ssolo.com, www.divorcenet.co.kr, www.happydate.or.kr, www.oto7.com의 한부모가족 코너 등이 있다.

라) 종교단체와 연구소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종교를 매개체로 이혼 혹은 사별한 여성들 중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혼을 위한 만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새출발교회>의 “이혼자클럽”과 “가정상담선교센터”가 있다. 연구소로는 <한국가정상담교육연구소>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한부모가정의 모자녀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마)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지원사업은 일자리·기술·자금부족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활지원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과 의지를 가진 집단이다. 자활지원센터는 1996년 5개소로부터 시작하여, 1997년 10개, 1998년 17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던 해인 1999년에는 2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문화사업, 주민공동사업(공동작업, 용역사업, 가내부업) 지원과 자활공동체 설립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99년 20개소였던 자활지원센터를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0년 70개소, 2001년에는 161개소로 증가시켰으며, 서울과 부산 두 곳에 자활정보센터를 설립하였고,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추구되어 up-grade형 자활근로 수탁기관 및 사업선정이 이루어졌고, 재할 및 근로의욕 증진 프로그램 실시기관도 지정되었다.

현재 자활사업의 일차적 대상자인 조건부 수급자 4만9천8백여명 중 여성은

57.1%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자활대상자 50%이상이 모자가정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참여관찰 등의 조사를 통해 본 결과 실제 여성비율은 70~8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자활사업의 주 대상은 여성이다(강남식, 2001; 김수현, 2000; 장혜경 외 2001에서 재인용). 이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특징은 40~50대 연령층, 낮은 학력수준, 실질적인 여성가구주, 비숙련 상태 등의 조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 빈곤여성 및 여성자활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후전기관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활후전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의 내용은 홍보, 상담 및 교육, 자활사업의 배치, 자활사업의 선정, 지역자원의 연계 등이다.

바) 빈곤지역 공부방

빈곤지역 공부방은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층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지원의 열악함으로 인해 신체발달의 불균형, 학습능력의 저하,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일탈 및 비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빈민지역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지역의 문제를 공유함과 동시에 그 지역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시작되었다(이용교, 2000). 최근의 공부방은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의 한 형태¹⁶⁾로, 실직가정 및 저소득가정, 가정해체로 정상적 아동보육이 행해지지 않는 가정의 아동, 결식아동, 방임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 학습지도를 비롯하여 음악·미술·공동체놀이 등의 문화활동, 다양한 심성훈련과 상담 및 권익보호활동,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빈민지역 청소년들의 인성적·지적 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전국에 걸쳐 500여개의 청소년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공부방은 지역적 제한, 접근성 등의 문제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가용자원이 될

16)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는 ① 복지관에서의 방과후 아동학습 프로그램 ② 어린이집에서의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③ ‘공부방’으로 불리우는 방과후 보육사업으로 분류된다(이태수, 2001).

수 있으며, 최근 아동보육 조례 제정을 통한 공부방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어 모자복지법상의 모자·부자가족의 아동도 지원의 우선순위에 적용이 되며, 더욱 체계화된 아동보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외국의 이혼가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1) 한부모 관련 정책

외국의 한부모가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은 과거에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사별보다는 이혼이나 미혼모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제 외국의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들은 전적으로 이혼여성의 자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이들을 대상으로한 정책들이다. 외국의 정책들은 각 국가의 사회복지 이념 및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각국 정부와 노동시장이 한부모가정을 어떻게 취급하고 지원하는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내에서 공적부조와 아동수당, 가족수당, 주거보장, 교육지원 등을 통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경우 한부모가족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해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이들이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영국, 스웨덴). 반면 잔여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공적부조체계를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가정을 위한 숙식과 기타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미국, 일본)(박영란 외, 2001). 그러나 최근 한부모가족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는 복지급여정책(welfare)에서 근로유인정책(workfare)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취업을 통한 자립을 성취하고 공공부조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사회보장제도가 일찍이 발달해온 이들 복지 선진국가들에서는 한부모를 위한 복지제도가 소득보장이나 공공부조제도 내에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자복지제도 속에서 이들에 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보편화된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네 국가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가) 정책의 방향

미국의 사회복지제는 개인주의적 사회관에 기초하고 잔여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어 강제적 건강보험, 질병보험, 가족수당, 출산급여, 모성연금 등이 없으며 상호부조와 재분배적 기능도 거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공부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조의 원리는 사회보장(OASDHI) 프로그램의 급여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식 받고 제공받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은 임금수준과 엄격하게 관련되어 있어 적절성의 가치보다는 공평의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공공부조의 개혁을 통해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빈곤층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근로를 통한 자활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수를 급격히 감소시켰지만, 일정 기간 후에도 근로로 자활을 할 수 없는 빈곤층 한부모가족의 최저생계권을 경시하였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김미숙 외, 2000).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평등과 통합의 원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념은 국민보건서비스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영국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공공부조보다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과거 급여수급 중심에서 근로를 통한 자활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근로를 통한 자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한 보호·양육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으며, 남성의 부양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사회보험 급여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질병 및 부모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분야, 조세, 주택 및 교육정책 분야 등에서 포괄적으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다(박영란 외, 2001). 여기에 어떠한 사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하여는 사회봉사개념이 포함된 다양한

사회복지가 주어지고 있다. 이처럼, 스웨덴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하나의 합법적인 가족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여성과 자녀는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에게는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다(김미숙 외, 2000).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모자복지제도를 법제화하여 소득보장이나 공공부조제도 속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제공하는 영국이나 스웨덴과는 달리, 지원체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호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주로 복지자금대여나 사회복지서비스만을 실시하고 있어 미국, 영국, 스웨덴보다 매우 소극적인 한부모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일반아동에 대한 건전 육성 및 모자보건 등에 걸쳐 아동전반의 복지를 도모하고 있어 아동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나) 정책내용

정책의 내용은 경제적 지원, 자녀보호 및 양육, 그리고 심리정서적 지원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표 II-15>는 네 국가의 주요 정책 내용들이다.

(1) 경제적 지원

공공부조 및 사후적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영국, 스웨덴, 일본에서는 보편적인 아동수당(급여)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한부모가족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는 근로유인정책(workfare)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취업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공공부조 개혁이 한부모가족의 최저생계권을 경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예를 통해서 볼 때, 빈곤층이 공공부조의 의존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근로를 통한 자활정책과 더불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김미숙 외, 2000). 스웨덴은 근로를 통한 자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표 II-15> 각국의 한부모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분 류		미 국	영 국	스웨덴	일 본
경제적 지원	소득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 및 유족보험 • WIC • TANF • Food St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망인 급여 • 한부모를 위한 아동급여 • 편부모급여 • 공공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수당 • 아동연금 • 아동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 편모가족을 위한 대부 • 세금공여 및 소득공제 • 아동수당 및 아동부양수당
	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세대 주택부조 • 저소득세대 광열비 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급여 - 집세공제 - 집세수당 • 난방보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주택우선입주 • 한부모월세조성 제도
	고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NF를 통한 직업훈련, 취업알선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 program) • ND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개호원양성 • 과부등 직업상담원 배치 • 직장적응훈련 • 훈련수당 • 구직자고용개발조정금 • 직장적응훈련비
보호 및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보육서비스 • 가정보육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출산급여 • 질병부가급여 • 출산보조금 • 아동보호세금공제 • 아동양육보너스 • 보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료선불 • 양자녀수당/해외 아동입양관련비용 • 아동보호수당 • 기관보육시설 • 시간제 유아집단 • 가정보육시설 • 레저타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지원을 위한 단기이용사업 • 가정양육지원사업 • 보육소입소우선권
심리서정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상담 • mentoring • 집단 프로그램 • 가족지원 서비스 • 가족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복지상담원 • 모자복지센터 • 모자휴양홈 • 모자생활지원시설 • 편부가구개호인 파견

자료: 장혜경 외(2001),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용정책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고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훈련기간의 기본적 생계보장 등이 선행되는 적극적인 여성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노동유인적 프로그램을 위해서 개인상담자를 배정하여 취업지원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심리정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자녀보호 및 양육

미국의 경우 빈곤가정의 아동건강향상의 목표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WIC(Woman, Infant, and Child)가 있다. 산모와 아동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대표적이다. WIC은 저소득층 임산부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모에게 영양음식을 제공하고 아이의 출산 후에는 아이가 취학할 때까지 영양음식을 제공하는 현물서비스로 빈곤가정의 자녀가 취학한 이후에는 학교급식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의 영양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학교급식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전액이나 일부비용을 면제해 주고 있다. 구체적인 자녀양육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은 자녀부양 강제제도(CSE)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0%로 상당히 높다.¹⁷⁾ 이들 한부모들은 복지제도의 주요 수혜층으로 전체 TANF 대상자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연방정부는 아이의 아버지(어머니)를 확인하여 부양비를 내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TANF에 신청하고자 하는 한부모는 자녀부양강제기구에 협조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성립에는 여성운동단체 등의 입법화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Kamerman, 1997). 그 결과 1993년에 마련된 “자녀부양강제”(Child Support Enforcement) 제도는¹⁸⁾ 자녀출생시 미리 아버지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강제정책을 기반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부양금액은 점점 공식화된 비율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한자녀에 대해서는(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 혹은 모의) 급여에서 17%, 두 자녀에 대해서는 25%, 세 자녀에 대해서는 29%가 설정되고 있다(Clearinghouse).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전배우자의 부양비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아동보조청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

17) 전체출산 중 비혼여성의 출산비중이 약 1/4에 해당한다. 특히 10대 임신율은 거의 전세계적으로 높아서 한 해에 78,000명이라는 10대 출산은 영국이나 통일전 서독의 두배에 해당하며,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10배나 많은 수치이다(Clearinghouse 자료)
<http://www.childpolicyintl.org/childsupporttables/58.htm>

18) 2001년 TANF 보고서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자녀부양강제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CSE)]’ 프로그램에 의해 2000년도에 거의 160만명의 부성을 확립 내지 인지했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180억을 거두어들였고, 이와 관련하여 연방 세금환급금만으로 거의 15억달러를 모았다고 한다.

는 등 법적 기구를 설치하고 있어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와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여 자녀양육의 책임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하고 포괄적인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학자금, 수업자금 및 취학지도자금을 통한 대학등록금까지 지원을 하는 등 한부모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김미숙 외, 2000).

(3) 심리정서적 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심리정서적인 지원은 공적 지원을 통해서보다 주로 민간기관이나 지역사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장혜경외(2001)에 의하면 미국은 민간의 지역사회기관에서 개인상담뿐 아니라 집단 프로그램, 가족치료 등이 포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심리상담, 각종 자활지원정책을 통해서 한부모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김미숙 외, 2000). 그러나, 각종 시설들이 있지만, 그 시설수와 수용정원도 부족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도 전근대적인 것이 많아 각종 시설의 확충과 내용 및 운영의 합리화와 충실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합법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한부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고 양육서비스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저소득층이 적게 분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절실하지 않다. 또한, 영국은 노동을 위한 복지가 강조되면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노동과 연계하여 보조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심리정서적 지원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양육비 집행

미국의 경우¹⁹⁾ 양육비에 관한 정부의 개입은 크게, 부모 찾아내기, 친권 확립, 양육비 명령 확립, 명령 검토 및 수정, 의료지원 증가, 양육비 집행, 다른

19)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cess(번역자료) (한국여성민우회, 2002 참조)

<표 II-16> 미국의 양육비 징수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법

1950년	주 사회복지과 직원이 자녀 부양 보조금을 지급한 후 관계기관에서 보조금 수혜자 및 양육의무자 신원을 통고할 것을 규정.
1965년	주 사회복지과 직원이 후생성장관으로부터 양육의무를 해태한 자의 주소,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법 개정
1975년	후생성장관 주관하에 새로운 업무 실행할 부서 신설. 이 부서는 부모소재 확인, 양육비 지급명령의 집행을 위해 연방법원 및 국세청에 송부할 사건의 승인등을 시행.
1981년	국세청에 양육비연체자에 대한 연방소득세 정산금을 유보할 권한을 부여하고 주에 양도된 양육비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추가 양육비연체자에 대해 지급할 실업급여 일부 지급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
1984년	연방정부가 자녀부양보조금과 기타 보조금 관련 징수업무를 위해 주에 6%까지 실적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1988년	주는 자동추적 및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으며 이유가 없을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급여를 공제하도록 함
1992년	부모가 양육비를 1년이상 연체하거나 연체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제 1회 기소시 5000달러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제 2회 기소시 벌금 혹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7년동안의 양육의무 불이행 사실을 소비자 신용조사기관에 통고할 것을 규정함.
1993년	종합예산조정법은 의료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 혹은 혼인의 자에 관한 보험혜택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주에서 하도록 함.

자료: Clapp(2000)

주 사이에 양육비 집행으로 나누어져 있다(<표 II-16> 미국의 양육비 징수에 관한 연방정부 입법참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임금원천징수 방법이고, 나머지는 정기적인 청구, 체불통보, 재산압류, 실업수당으로 충당, 자산압류 및 매각, 신용기관에 체불사실 통보, 임금압류, 주 및 연방 세금 환급 분 압류, 다양한 종류의 면허증(운전 면허, 사업 면허, 직업 면허 등) 취소, 연방 구속, 벌금 등이 있다.. 결국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한부모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부양비를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혹은 16주 동안 무급으로 지역사회 노동봉사를 하는 세가지 중 하나이다.²⁰⁾ 재무부(Department of the

20) 1996년의 PRWORA는 자녀부양비 징수를 강제화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를 위한 기

Treasury)의 Financial Management Service 라는 부처에서 아동 양육비 강제 집행을 위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제한적 지원 차원에서 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양육비 전담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구인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에서 하고 있지만 재무부에서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세 환급이나 기타 연방 지원금을 개인에게 지원할 일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양육비를 밀리고 있다면 그 돈을 안 주고 회수하여 양육비로 충당하는 등이다. 또한 정부 강제 집행과는 다소 다른 차원이지만 정부의 양육비 집행에 대한 보조 제도로 <Child Support Network>라는 민간 서비스 회사들이 있다. 법정 양육비 문서나 이혼 문서만 내면 이 회사에서 돈을 받아 내 주며 전 배우자가 사는 주소를 몰라도 이 회사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돈을 받아 내며 받아낸 돈의 일정퍼센트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양육비 이행과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비가 확정되어져 있고, 현재 만기가 도래한 양육비와 지난 6개월간 미지불된 금액에 대하여, 집달리가 채무자에 고지하고 제3자에게 직접 지불의무가 있음을 전달한다.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양육비 집행 전에 행한 가압류에 대하여 면제, 상계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소득의 압류금지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부명령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소득의 압류금지불해당의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공적집행의 단점으로 ‘지연’을 꼽고 있는 점이 있으며 또한 이미 만기가 도래한 양육비에 한하여만 인정되고 있다.

독일은 보좌제도로 보좌인이 양육비청구와 친부확인소송 청구권을 한부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 제도이다. 친부확인의 경우 오직 어머니의 승인을 전제로 가능하면, 친부확인 재판에서 청소년청이 자녀의 대리인인 된다. 양

술적인 체계들이 도입되었는데, 예컨대 ‘전국신규고용 보고시스템’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컴퓨터에 데이터 베이스화시켜서 그들이 새로 취직할 때마다 고용보고체계에 자동으로 신고되게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성공률은 주별로 상이한데, 일부 주는 법원 명령서(지불이행요구서)의 10%만을 거두어들이는 데 그치기도 하며, 연방정부가 이 컴퓨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데 20억 달러를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2개 주에서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Helen Barnes, P. Day, and N. Cronin, 1998, “Trial and Error: A Review of UK Child Support Policy,” Occasional Paper 24, London: Family Policy Studies Centre, Clearinghouse.

육비 청구소송 수행과 관련하여서 청소년청은 양육비 요구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수납권한도 있으나, 운용 및 투자권한은 없다.

캐나다의 양육 집행 프로그램 상 수금가능 조치 리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임금압류, 은행압류, 연방압류, 연방자격증 취소, 자동차 면허제한, 운전면허 취소, 신용국보고, 채무불이행 청문회, 등기부상 명령등재, 부동산 제한, 회사의 장막을 뚫기, 몰수, 제삼자의 자산몰수.

스웨덴에서는 자녀양육이 부모간의 협의나 법원의 권고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서 정하여 진다. 만약 비부양 부모가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금액만을 지급한다면, 양육중인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정부기관으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취급한다)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양중인 부모의 양육비 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비부양 부모가 보험회사에 변상하여야할 금액도 함께 정한다. 변상할 금액은 비부양 부모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2) 프로그램 차원

외국의 경우 이혼여성의 부모역할에 대한 프로그램은 용어의 정의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 범주가 크다. 부모훈련, 부모참여, 부모개입, 부모지지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결혼제도의 약화로 인해 잠재적인 복지수혜층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전에 이혼을 예방하고 가족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발달시키는 과제,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교육, 그리고 미혼부모의 예방을 위한 결혼장려 정책들을 통해 가족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표 II-17>).

<표 II-17> 미국의 이혼예방 및 부모역할 관련 프로그램

이혼방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조나주의 법률은 ‘결혼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위원회(Marriage and Communication Skills Commission)’을 설치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결혼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프로그램에 대해 백만 육십 오불의 기금을 책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결혼기술숙련과정에 참여하는 배우처, ‘결혼과 커뮤니케이션기술 위원회’가 제작한 결혼 소책자 인쇄 등이 있다. - 오크라호마에서는 결혼을 늘리고 이혼을 줄이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TANF 보유기금에서 천만불을 적립하였다. - 적어도 33개의 주는 양부모가족에 가해진 제한들을 철폐하였다.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주는 일명 IV-D 아동부양이라는 TANF를 활용한다. 주는 아버지가 아동의 삶에 더 결부되거나 어머니와 아버지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활동들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활동은 교육과 고용서비스, 부모역할교육, 커뮤니케이션과 갈등해결에 대한 훈련, 결혼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포함한다. - The Partner for Fragile Families Demonstration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아동부양 집행부서이다. 젊은 아버지가 자녀에 더 결부되도록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들로 하여금 더 강력한 부모역할 파트너쉽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신뢰에 기반을 둔) 배우자들간의 지역적 연합체이다.

자료: 장혜경 외(2002)

3) 이혼 후 부모역할 지침

이혼여성의 부모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세부적인 지침들이 있다. 특히 Clapp(2000)의 *Divorce and New Beginnings: A Complete Guide to Recovery, Solo Parenting, Co-Parenting, and Stepfamilies* 은 이혼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역할들 즉 일상적인 것과 장기적인 문제들을 당면할 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 지침들은 수백명의 전문가들(experts)의 임상경험과 통찰력에 의한 전략들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되었으며 이혼한 여성들이 자녀와 이혼 후의 성공적인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가 이혼여성의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 중심 내용을 살펴보았다.

Clapp(2000)의 『이혼후 부모역할을 위한 가이드』를 자녀의 장기간의 적응을 위한 단계별 지침과 이와 관련한 이혼에 대한 자녀의 적응을 위한 체크 목록, 그리고 이혼여성의 감정적 적응을 위한 지침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가) 자녀의 장기간의 적응을 위한 단계별 지침

이혼여성 자녀의 적응을 위한 지침은 먼저 자녀에게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이하 이혼여성을 독자로 고려하여 본 글에서는 당신으로 칭하였다). 당신의 확신, 열린 대화, 자녀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그들의 감정 수용은 자녀들의 초기 적응에 기여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혼에 대해 말할 때의 기본 방향은 먼저 말하기 전에 당신이 자녀에게 무엇을 말할 지에 대해 꼭 생각해 보라. 아이들은 불확실성의 시기가 길어질수록 더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다. 자녀에게 당신들 중 하나가 떠나게 되기 2주전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지침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 사실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만 화해에 관한 그들의 본능적 희망을 태워버리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들은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 보다 조금 더 일찍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이혼했다면, 당신 자녀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확실성, 안심을 주는 것은 늦지 않은 일이다. 어떤 설명도 없이 한 부모가 사라졌을 때 그 자녀는 적응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나 당황스러운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주도록 한다. “엄마 아빠는 매우 오랫동안 불행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느꼈어.” 등. 그리고 절대 상대방에 대해 욕하지 않도록 한다. 좋은 부모/나쁜 부모 시나리오는 아이에게 고통스러운 충성심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미칠 영향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은 준비가 되어야 함으로 그 부모가 언제 떠날 지에 관해 세부사항을 자녀가 아는 것은 중요하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떠난 그 부모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그들에게 있어 미래를 덜 위협적인 것으로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들의 반응에 민감해져야한다

나) 이혼 여성의 감정적 이혼을 위한 가이드²¹⁾

이혼여성들의 감정적 이혼을 위한 지침으로는 자아존중감을 세우기,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외로운 시간들에 잘 대처하기,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기,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만들기 등이다.

(1) 자아존중감을 세우기

배우자로부터 꾸준히 받은 부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손상되고 때로 그것은 내면화되어 거부감, 좌절감으로 손상을 입기도 한다. 다음 중에서 당사자는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몇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2)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결혼생활동안 배우자들은 불가피하게 자신들의 개인적 고유성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게 된다. 그들의 공유된 시간 때문에 그들은 상호 의존적이 되는데 이혼과 함께 그들 삶의 씨실과 날실들의 얽혀 있음을 풀어야만 한다. 이혼 후 정체성 위기(나는 누군가? 나는 삶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이곳으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 등)에 대해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 이전 배우자와 이전 결혼생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배우자가 원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당신이 디자인한 방식대로 삶을 창조할 수 있으며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고 당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결정할 때까지는 당신은 “자아들” 사이에 끼어있다는 느낌을 갖게될 것이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Robert Weiss는 이혼한 많은 사람들이 결정 내리는 것을 어려워해서 당황하게 된다고 밝힌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옷, 가구, 집, 이웃, 라이프 스타일이 옳은지 결정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좋고 싫음을 그들의 이전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 왔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관된 자아의 안정성을 얻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21) 구체적인 방법들은 VI장 정책제언의 “이혼 후 부모역할 지침의 수립 및 보급”에서 언급하였다.

는 것이다. 몇몇에게는 이혼 후 발전시킨 새로운 정체성이 결혼생활 안에서의 정체성과 거의 유사성을 갖지 않는데 이것은 특별히 그들의 정체성이 결혼과 가족에 좀 더 밀접하게 묶여 있었던 여성들에게서 나타난다. 때때로 남자들은 이혼을 자기 평가를 위한 원동력을 삼기도 하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을 새로운 삶의 위한 계기로 삼는다는 좀 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임을 밝히기도 한다.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한다

(3) 외로운 시간들에 잘 대처하기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슬픔, 취약함, 지루함, 우울, 불안정, 자기 연민, 자기비난 등)이 수반된다. 외로움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적 외로움으로 가까운 감정적 관계의 대상이 부재한데에서 연유된다. 사회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사람도 그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식적인 친밀함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러한 유형의 외로움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외로움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재에서 연유한다. 많은 이혼한 남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방법이 재혼이라는 잘못된 결론으로 점프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끝내기 위한 조급함 안에서 몇몇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외로움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다.

(4)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기

다양한 여성들간의 모임은 그 구성원들간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우정과 강한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다.

(5) 개인적 성장을 위한 기회들을 만들기

많은 사람들은 이혼이 그들의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혼이 아니었다면 가질 수 없었던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옹기 만들 필요가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당신을 위해 그것을 그 누군가가 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많은 면을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 기회들을 갖는다(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흥미 발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습득, 더 넓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의 형성, 목표 설정과 추진 등).

다. 요약 및 논의

우리나라의 이혼관련 정책을 볼 때 법률상으로 이혼한 여성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양육자 및 친권자가 여성일 경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고는 여전히 이혼여성가족의 어려움의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문제는 부모가 공동의 부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의 재정적인 측면이 양육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 자녀복지가 우선되지 못하고 있고 양육비 지급 책임이 의무임에 대한 인식을 갖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혼절차에서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양육비가 소액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을 통해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절차 또한 어려워 실질적으로 이행의무가 준수되기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조차원에서 저소득층 여성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복지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등이 외형상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사회적 지원이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층에 대한 복지적 지원이나 보호는 미흡한 현실인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자복지법에 의한 지원내용이나 지급수준도 미흡하여 수혜대상 한부모가족이 현실적으로 생활을 안정하고 자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편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여성 한부모가구주를 둘러싼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취업교육 및 훈련중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있기는 하나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의 소액이며 기간도 직업훈련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여 기술 습득이나 숙련정도를 높일 수 없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보육비 지원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보육비 감면 또는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이지만 여성한부모의 취업직종 특성상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아동양육비 지원이나 자녀학비 지원수준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아동양육비로 책정되어 있는 액수는 일일 평균 504원, 한달 평균 16,000원에 불과해 ‘건강한 아동 양육과 균형있는 영양공급’이라는 취지에는 매우 불충분하고 자녀학비지원의 경우도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정되어 교재비나 기타 학용품 준비(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원내용이 있으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한부모가구의 숫자는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한부모가구의 주택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대기 기간이나 영구임대주택 공간의 협소함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모자시설의 경우 제한된 자원(인적, 물적)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시에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보다는 가족관리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행사성 프로그램에 치중해 있다. 그러나 최근 수궁모자원(2002년 10월에 서울모자의 집으로 전환)이나 영락모자원의 ‘부모역할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어 도리어 타 사회복지기관의 시범 사례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공부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극히 낮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며 대부분의 한부모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한 수입 때문에 주택규모를 줄이거나 자녀교육비, 생활비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부모에게 주어지는 자녀의 양육비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어 물론 소득과 계층에 따라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 할지라도 양육비는 한부모 가정의 빈곤을 해소하고 생활의 질을 윤택하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적 노력의 시급성이 무엇보다

도 요구된다.

민간차원에서 볼 때 그 동안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일부 민간단체에 제한되어 있었으며,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이 미미하였다. 특히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진 것이 최근으로,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기관간 혹은 민간단체들과의 연계망이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여성민우회 등과 같은 여성단체들은 오랜 기간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어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한부모가족 사업에의 노하우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사회복지관에서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모자가정의 보호와 관리에만 치중했던 모자시설에서도 심리·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들은 아직 시작단계이며, 한부모가족에 관한 지식 및 노하우의 미흡, 관련예산, 자원의 부족으로 전문화되지는 못한 상태인 실정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결손가정,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해 제공되던 재가복지, 가족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어 오다가 최근 한부모가족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용시설의 특성상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교실과 같은 자녀교육프로그램이 가장 보편화되었고, 부모들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실시하려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들의 근로시간이 늦거나 불규칙적이라는 점 때문에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궁극적인 프로그램의 목적인다고 할 때 자조모임 등이 형성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형성되기 시작한 인터넷 공동체는 인터넷에의 자유로운 접근성, 일부 유료서비스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보다는 경제적인

로 안정된 중산층 이상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들 인터넷 공동체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 공동체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이라기보다 서로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자조모임)의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그런 차원에서 divorcenet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인터넷을 통한 한부모가족 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좋은 시도로 보인다. 그 외 기타기관으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이고 저학력, 미숙련 등의 특성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자활후견기관은 한부모가족의 경제 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차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자활사업에의 배치를 위해 실시하는 상담과 교육은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구축과 지지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자활후견기관이 자활사업의 선정과 배치에만 역할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집단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공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종교기관이나 공부방 등도 한부모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자원의 열악성, 재정지원의 미흡 등으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 역시 타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전문화, 특성화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및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 연계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는 여성단체 역시 자신들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달, 교육, 확산시키고 싶어하지만 그 통로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정보공유 및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들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학교(대학교), 기업, 동사무소 등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되어야 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재정의 취약성 문제이다. 공동모금회나 복지재단의 재정지원으로 시작된 프로그램들이 일정 지원기간이 경과되면서 프로그램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 재단의 경우 대부분 동일 사업에 대해 2년 이상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사업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단기사업으로 종영될 경우 확실한 효과를 얻기 전에 실무자나 대상자 모두의 아쉬움 속에서 프로그램이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등촌4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간보호서비스는 아동보호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자립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어 그 효과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비수용 그룹홈, 야간 탁아소 운영, 어린이집 운영시간대의 연장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령대별로 교사가 투입되어야 하고 충분한 급식 및 놀이프로그램의 제공으로 보육, 보호 수준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옹호서비스는 한부모가족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일이 기관 및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개별적인 옹호를 실시해야하므로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서비스이지만, 그 효과가 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려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한부모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과 내용면에서 몇 국가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정책방향이나 내용면에서 영국과 스웨덴의 한부모가족정책은 사회보장정책 속에 흡수되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정책 혹은

아동정책의 체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잔여주의적인 공공부조제도 및 별도의 모자복지제도를 통해서 한부모가족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각국의 정책현황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는 미국의 경우 먼저 근로를 통한 자활과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장이 병행해서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현황은 한부모를 위한 별도의 아동수당 및 소득보조의 책정으로 최소한의 보장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과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총괄적 상담 및 지속적 지원체계의 수립이라는 점이다. 스웨덴은 경우는 한부모가족을 새로운 가족형태로 인정하고 자녀양육문제의 사회화이다. 일본은 성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및 시설 이용을 위한 배려(심리상담, 자활지원정책 등)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보호책임에 대한 국가의 보장이라는 점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자녀양육과 보호책임에 대해 부모의 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모델과 집합적 지원모델이 있는데 부모의 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모델은 부모의 자녀양육과 보호책임에 있어서 그 비용은 개인(가족)이 책임이라는 입장에 국가의 이차적인 역할을 하며 부모의 지불능력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을 강조한다(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집합적 지원모델은 국가가 가족의 형태와 관계없이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책임을 분담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이들 가정자녀의 성공은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부모가 실질적으로 자녀지원 급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당의 형태로 선불하거나 보장하는 것이다(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 등).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자녀의 양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복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면에서는 이혼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등과 이혼여성의 부모역할수행 지침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는데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 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침들은 우리사회에도 이혼의 예방과 이혼여성이 이혼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 대처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앞서 살

펴본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인준비교육정책화, 가족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활성화, 이혼여성의 감정적 이혼을 위한 지침이라든지, 양육에 관한 지침과 가이드 등 이혼 후 새로운 생활설계를 위한 지침 등의 활성화는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한부모 가족의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요구되는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들은 한부모가정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 대한 지원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부모들이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 제공면에서도 한부모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관련 정보지침서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이론적 배경

1. 이혼가족연구에 대한 기존 이론의	
주요 쟁점	73
2. 본 연구의 관점과 분석모형	79

1. 이혼가족연구에 대한 기존 이론의 주요 쟁점

가. 이혼가족에 대한 관점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가 그 문제에 대해 전제하고 있는 관점에 의해 달라진다. 연구자의 관점은 그 사건의 어떤 면을 보게 하고 어떤 면을 간과하게 하기도 하고, 동일한 현상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전혀 다른 대안을 도출하게 한다. 이혼에 대한 관점은 이혼에 따르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다르게 구성해 내는 역할을 한다. 가령 이혼이 양부모 중심의 ‘정상가족’에 비해 일탈적인 가족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이혼 가정에 대한 대안은 이혼을 예방하거나, 최대한 ‘정상가족’과 같은 모델을 모방하는데 맞추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이혼을 통해 달라진 가족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관점이라면 이혼에 대한 대안은 다르게 구성된다.

이혼 연구에 대한 관점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왔는데, 이혼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던 50년대에는 병리적 관점이 우세했다. 이 관점은 이혼을 일탈로 규정하면서 결혼 중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며 이혼한 사람들은 병리적 상태에 놓여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 오면서 이혼이 불행한 결혼관계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자기발전과 해방의 기회라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관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은 이혼을 일탈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이혼 전후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혼 후 생활의 적응의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최근 이혼연구에서는 이혼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연속적인 단계로 보는 과정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 Bohannan(유경희, 2001, 재인용)은 이혼을 법적 이혼, 정서적 이혼, 경제적 이혼, 공동부모역할 이혼, 사회적 이혼, 심리적 이혼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영역들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복합적 과정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고 이태영박사가 이혼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최초로 접근을 함으로써 이혼을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가족정책 수립에 대한 토대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이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에 이혼의 원인, 양육, 재산을 둘러싼 법 제도적 연구가 이어졌고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여성’ 문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실증적 파악을 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이혼을 사회 구조, 제도적 차원의 사건으로 파악하는 지금까지의 흐름 위에 ‘이혼 여성’의 문제를 부모역할과 관련지어 이혼과 자녀, 이혼과 부모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모자가정에 대한 기존 이론의 관점을 살펴보면서 이혼과 자녀, 이혼과 부모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혼가정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과 관련하여서 기존의 문헌들은 여성과 자녀에게 이혼경험이 어떠하며 성공적인 한부모가정을 만들기 위한 적응방안에 대한 모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나. 모자가정에 대한 관점

모자가족의 연구는 생애구조적 관점, 가족발달적 관점, 가족 스트레스 관점, 가족전략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공선영, 2002).

생애구조적 관점(Levinson, 1978)은 인생주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개인적인 다양성을 강조한다. 인생주기를 안정기와 전환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사별이나 이혼이라는 생활사건이 인생의 전환기로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가족발달적 관점에서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이 있다는 관점하에 사별이나 이혼 등의 가족해체현상이 가족발달과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에 기인한 것으로 여긴다. 이혼이나 사별이 하나의 위기이며 이 위기를 통해 새로운 대처전략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가 성숙될 수 있는 발달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McGoldrick(1980)은 가족발달주기에서 이혼가족에게 요구되는 단계들 즉 이혼결정 단계, 별거 단계, 이혼단계, 그리고 이혼 후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혼 후 전배우자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자녀에게 효과적인 양육자 역할을 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의 재구조화와 관계정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족발달적 관점에서는 모자가족 여성가장들이 이혼이나 사별이라는 생활사건에 의

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만 확대가족 등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지지가 이혼 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있다.

가족스트레스 관점에서는 사별이나 이혼은 가족구성원에게 고통과 긴장을 안겨주며 가정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위기로 지적한다. 이혼이나 사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며 따라서 가족 자원, 인지, 대응의 결과들을 살펴보고 있다.

가족전략적 관점에서는 모자가족의 생존전략 속에 그들의 욕구와 필요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모자가족의 특성을 파악한다. Yeandle(1984)은 생존전략이란 개념을 주부들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일상적 위기상황에 적용한 결과, 주부들은 직면한 위기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확대가족 및 친족들과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해 공동전략으로 대처한다는 것으로 파악한다. 가족전략적 관점에서는 모자가족을 사회구조적 변화와 산업사회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수동체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삶의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행위자로 보도록 유도하고있다. 생존전략이란 모자가족의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략을 의미하며, 이러한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가족구성원의 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다. 이혼과 자녀

이혼한 가정의 자녀에 대한 최근 연구의 관점은 이혼 그 자체가 자녀의 부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띠고 있다. 문제는 이혼 그 자체라기 보다는 어떤 가정 상황, 구조,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에서의 이혼이며,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어떤 식으로 취급되었고, 이혼 후에 두 부모와 맺는 관계 방식에 따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Hetherington & Clingempel, 1992). 따라서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할 때에는 이혼 당시 자녀의 나이, 이혼한 이후의 경과기간, 이혼 후 양쪽 부모와의 관계, 가족 구조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는 이혼이라는 사건 그 자체보다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하는 미숙한 부부갈등이 아이에게 더 큰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주장한다(Camara & Resnick, 1988; Eamery, 1988; Johnston & Campbell, 1988; Johnston, Campbell & Mayes, 1985; Johnston, Klein & Tschann, 1989; Peterson & Zill, 1986; Kaslow, 1997에서 재인용).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이혼 가정의 자녀를 무조건 잠재적 문제아로 보는 시선과, 이혼 가정 자녀의 일탈행동의 원인을 오직 이혼이라는 변수 하나로 환원시키는 것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신화에 의한 편견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이혼이 갖는 의미는 개별적인 가정 조건이나 연령, 개인적 기질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가족-지원, 안정성, 보호, 지속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많은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갖게되고 자아존중감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모든 자녀들에게 이혼이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고정관념이다. 실제로 이혼 가정의 자녀 중 10%정도의 자녀들은 그들 부모의 이혼에 위안을 느끼기도 한다(Clapp, 2000). 이때 자녀들은 가정폭력, 알콜 중독등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인 경우가 많다. 모든 양부모하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바람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양부모 중심주의이다. 모든 이혼가정이 자녀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갈등 안에 놓여있는 양부모 가정의 자녀보다 갈등에서 자유로운 한부모 가정이 자녀에게 더 바람직하다는, 이혼에 대한 맥락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Clapp(2000)은 연령에 따른 자녀가 보이는 이혼 반응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놓고 있다.

<표 III-1> 연령에 따른 이혼가정 자녀의 반응

연령별	자녀의 반응
유아기와 걸음마	유아들은 주로 식욕장애와 소화장애를 동반함. 걸음마 시기의 아이들은 공격적, 민감, 성급, 퇴화행동을 보임
학령기 전	나머지 부모 한명도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공포감. 자신의 공포를 부모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표출. 퇴화행동. 이혼을 자신 책임으로 돌림.
9-12살	스트레스가 주로 물리적인 건강문제로 표출됨-두통, 위장병등. 정체성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려짐. 다른 한쪽 부모에게 심한 분노를 돌리면서 나머지 한 부모와 동맹관계에 빠지기 쉬움. 이혼에 대한 죄책감을 끝냄
청소년기	삶의 변화를 수용할만한 준비가 되어있는 청소년들은 좀더 성숙해지고 통찰력이 생김. 그것이 안되는 청소년들은 일탈행위를 행하기도 함. 가정 내의 관계들과 거리를 두면서 가족외적 지원-주로 친구들-에 의존함

Hetherington(1993)은 현재 이혼과 자녀 관련한 연구들이 청소년들이 가족 안에서의 변화에 대응하고 협상해 가는 방식과 과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기술된 이혼 이야기에서 이제는 자녀의 입장에서 기술된 이혼 이야기로 연구의 초점이 이동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라. 이혼과 부모역할

1) 여성의 이혼경험

이혼은 단절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지속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따라서 이혼여성의 자녀양육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혼 여성 스스로가 이혼이라는 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하는 것이다. 여성 자신의 적응을 다루는 것은 이혼 자녀의 적응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Long and Forehand, 2002).

Clapp(2000)에 따르면 초기에는 주로 생활의 변화와 연속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이전 배우자로부터 분리하면서 -이때 분리는 단절이 아닌 관계의 재정의-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들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심리학자 Bruce Fisher는 이혼으로 인한 삶의 손실 하나 하나에 -이전 배우자, 당신의 집, 삶의 방식, 과거의 시간, 함께 계획했던 미래, 아내로서의 정체감등- 대해 작별 편지를 쓰고 기억들을 하나하나 마음 속에서 재생시키고 당사자로 하여금 마음껏 슬퍼하게 하는 애도와 의례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하며 이혼에 관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로서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것을 권한다.

이혼과 함께 직면하게 되는 정체성의 위기는 지금까지의 익숙했던 정체성과 헤어져야 하는 것, 이혼과정에서 손상된 자아존중감, 외로움의 감정 등으로 추약될 수 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들을 만들고 개인적 성장을 위한 활동과 기회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이다.

2) 이혼 관련된 부모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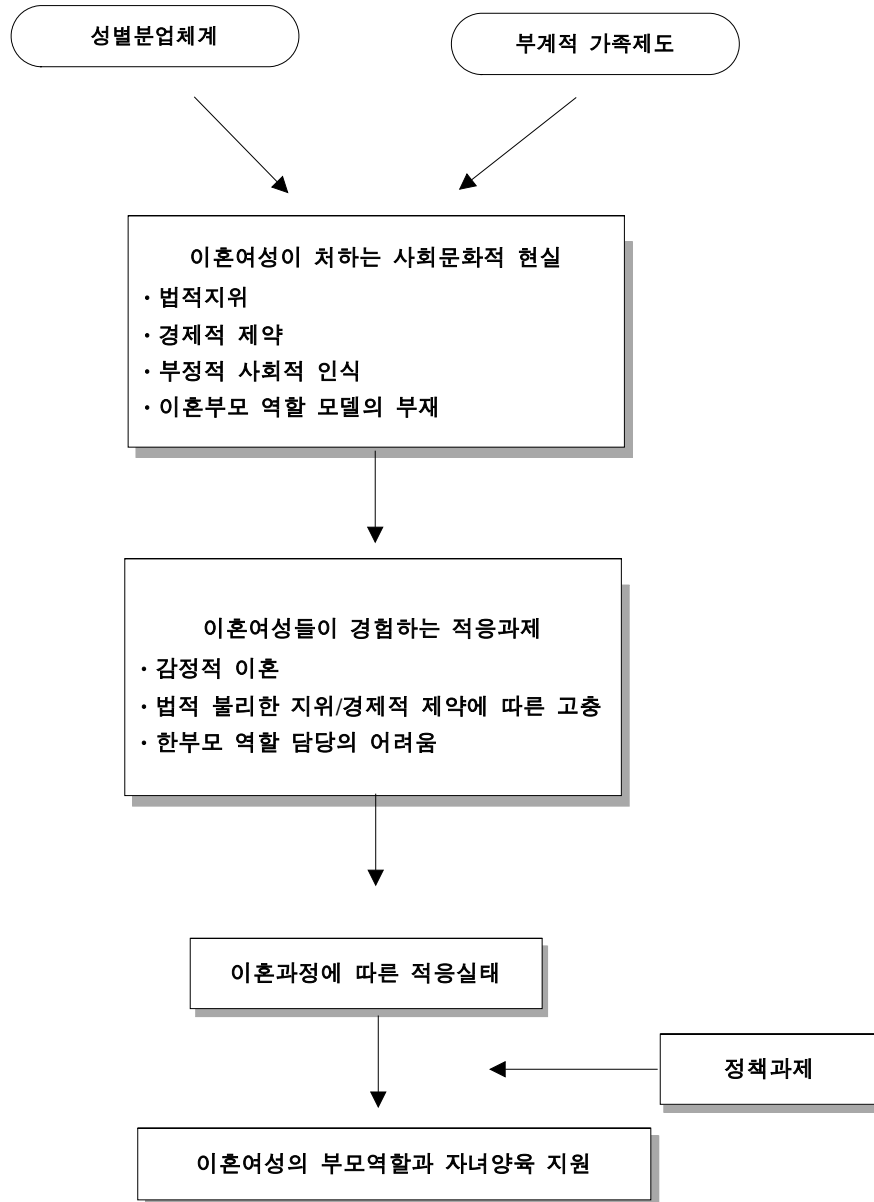
이혼 후 달라진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는 특별히 여성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있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주로 이혼 후 자녀의 적응에 부모역할이 어떻게 개입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적응을 방해하는 부모역할로는 첫째, 충성심 갈등-두 부모 사이에 자신이 끼어있다는 느낌-이 있다. Albigail은 충성심 갈등이 아이의 낮은 적응의 주된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 사이에서 찢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다가 결국엔 그 긴장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한 부모와 동맹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둘째, 다른 한 부모의 근황을 알기 위해 아이를 이용하기와 셋째, 아이 앞에서 다른 한 부모를 경멸하기, 그리고 넷째, 자녀를 특정 부모의 편으로 만들려는 시도 등을 들고 있다.

2. 본 연구의 관점과 분석모형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이 여성에게 상당한 감정적 노동을 수반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성중립적인 부모역할이 아닌 사회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의 문제와 이혼 여성에게 더 심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작동되는 이혼자에 대한 성별화된 사회적 평가라는 성별적 관점에서 이혼 여성의 부모역할의 문제를 보고자하며 본 연구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이 개인적 사건이 아닌 사회, 문화, 경제, 법적 측면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사건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서 이혼이 단지 어떤 특정한 순간에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일정한 시기에 걸쳐 변화를 주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적 사건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부모역할을 이혼 후에, 부모-자녀관계를 통해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기 전의 과정부터 이혼하는 과정, 이혼 후의 과정에 걸쳐 보고자한다. 또한 이혼에 따른 부모역할을 중립적 관점이 아닌,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노동 조건, 이혼한 여성에게 좀 더 무겁게 가해지는 이혼에 대한 성별화된 편견, 가부장적 호주제도로 인한 이혼의 법적 문제등 여성과 이혼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혼 여성의 부모역할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이혼 여성들이 이혼과정에서 어떤 식의 적극적인 대응, 협상, 선택, 적응 등을 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 속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를 끌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정리하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III-1> 연구의 분석모형

IV



이혼여성가족 삶의 전반적 현황

1. 일반적 사항	83
2. 이혼과정과 본인 관련 사항	89
3. 이혼과정과 자녀관련 사항	100
4. 이혼여성의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105
5. 양육비 관련 사항	112
6. 삶의 만족도 및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	115
7. 요약 및 소결	121

본 장에서는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가족 삶의 현실과 특히 이들 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관련 하여서는 응답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생애주기, 그리고 이혼과정의 적응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1. 일반적 사항

가. 사회 인구학적 특성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 127명의 사회인구학적 배경특성은 <표 IV-1>과 같다.

1) 연령

응답한 이혼여성들은 24세에서 최고 66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40.1세였다. 연령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대 48.8%, 40대 40.9%, 50대 이상이 6.3%, 그리고 20대가 3.1% 순으로 나타났으며 30-40대의 연령층(89.7%)이 주를 이루었다.

2) 교육정도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44.1%, 대학교 졸업이 26.8%, 전문대졸/대학 중퇴와 중학교 졸업이 각각 9.4%, 초등학교 졸업이 3.9%, 대학원 이상이 3.1%, 무학이 2.4%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0%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나타냈다. 대학교 졸업과 중퇴의 비율을 보면 36.2%정도로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3) 직업 관련 사항

응답자에게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응답자의 13.4%만이 현재 돈벌이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

의 직업으로는 단순노무직이 30.7%, 사무직이 16.5%, 전문직이 15.0%, 판매 및 영업관련이 11.8%, 자영업이 9.4%의 순으로 나타나 단순노무직과 판매 및 영업관련직이 많았다. 응답자의 학력별 수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저임금 및 비숙련직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IV-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연령	21-29	4 (4.1)	직업 (이혼전)	예	73 (57.5)
	30-39	62 (48.8)		아니오	53 (41.7)
	40-49	52 (40.9)		무응답	1 (.8)
	50이상	8 (6.3)			
	무응답	1 (.8)			
	Total	127 (100.0)		Total	127 (100.0)
학력	무학	3 (2.4)	현재 직업	전혀 돈벌이를 하지 않는다	17 (13.4)
	초등학교 졸업	5 (3.9)		단순노무직 일을 한다	39 (30.7)
	중학교 졸업	12 (9.4)		판매 및 영업관련 일을 한다	15 (11.8)
	고등학교 졸업	56 (44.1)		사무직 일을 한다	21 (16.5)
	전문대 졸업/대학중퇴	12 (9.4)		전문직 일을 한다	19 (15.0)
	대학교 졸업	34 (26.8)		자영업에 종사한다	12 (9.4)
	대학원 이상	4 (3.1)		무응답	4 (3.1)
	무응답	1 (.8)			
	Total	127 (100.0)		Total	127 (100.0)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소득 수준	최하층	38 (29.9)	집의 형태	자가	31 (24.4)
	하층	53 (41.7)		전세	27 (21.3)
	중간층	33 (26.0)		월세	22 (17.3)
	상층	2 (1.6)		사글세	5 (3.9)
	무응답	1 (.8)		친정집	7 (5.5)
	Total	127 (100.0)		Total	127(100.0)
월 소 득	100만원 이하	73 (57.5)	생활 비 조 달	내월급	104 (58.4)
	101-150만원	24 (18.9)		전남편의 도움	6 (3.4)
	151-200만원	12 (9.4)		가족친지의 도움	12 (6.7)
	201-300만원	9 (7.1)		은행대출금	5 (2.8)
	300만원 이상	5 (3.9)		정부보조금	28 (15.7)
	무응답	4 (3.1)		위자료	8 (4.5)
				저축해 둔 돈으로	9 (5.1)
				재산에 따른 이익(건물세, 배당금 등)	3 (1.7)
				다른가족(식구)이 벌어오는 돈으로	3 (1.7)
	Total	127 (100.0)		Total(무응답:1명/0.07%)	178(100.0)

특별히 응답자들이 이혼 전에 일을 하고 있었지만(57.5%) 일을 하지 않은 비율을 이혼 전 41.7%와 이혼 후 13.4%와 비교해 볼 때 3배이상 증가하였다. 많은 경우 여성들이 이혼 후 경제활동에 참여함을 보여준다.

4) 소득수준과 월소득 및 생활비 조달 방법

소득수준은 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1.7%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순으로 최하층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29.9%로 나타나, 주관적 평가이긴 하나 응답자의 70% 이상이 경제적 상태가 하층 범주에 놓여있음을 보여주어 이들 가족의 어려운 경제적 상태의 일면을 나타낸다.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6.0%였으며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6%였다.

이는 실제 한달 소득면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진다.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0만원 미만에는 18.9%, 200만원 이하는 9.4%로 응답하여 응답자의 85.8%가 한달 2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살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300만원이하는 7.1%, 300만원이상은 약 4%의 분포를 나타냈다. 응답자 연령층이 30-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자녀와 관련한 비용이 적지 않은 바 이들 가족의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생활비 조달방법을 보면(복수응답) 본인 월급의 경우가 58.4%로 가장 많고, 정부보조금이 15.7%, 가족친지의 도움이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저축해 둔 돈이 5.1%, 위자료 4.5%, 전남편의 도움 3.4%, 재산에 따른 이익(건물세, 배당금 등)과 다른 가족이 벌어오는 돈에 응답한 경우가 1.7%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혼한 여성들이 많은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가정을 영위해나가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들의 실제 한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들인 것이다.

5) 주거 형태

응답자의 주거형태는 자가가 24.4%, 전세가 21.3%, 월세가 17.3%, 가구보호(정부)가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외에 친정집과 기타가 약 5.5%, 친척집이 4.7%로 나타나. 전세를 제외한다면 응답자의 50%이상이 주거가 불

안정함을 알 수 있다.

나. 가족원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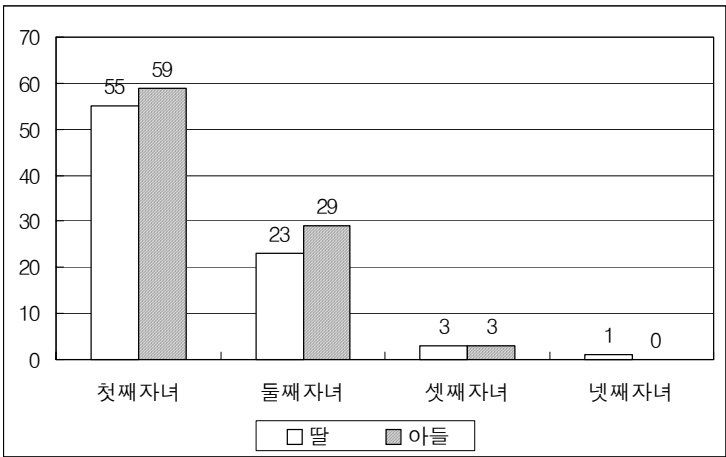
응답자의 가족원은 주로 자녀와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여섯 사례가 자녀외에 친정식구(부모, 남동생, 여동생 등)들과 함께 하였다. 첫째 자녀로 114명, 둘째는 52명, 셋째는 6명, 넷째는 1명으로 주로 한 자녀를 둔 응답자들이 많았지만 두 명을 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첫째와 둘째 모두 아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2> 자녀구성 성별분포

(단위: 명)

구 분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자녀
딸	55	23	3	1
아 들	59	29	3	0

(단위: 명)



<그림 IV-1> 자녀구성 성별분포

연령별 분포를 보면 첫째자녀의 평균연령은 14세였으며 최저연령은 2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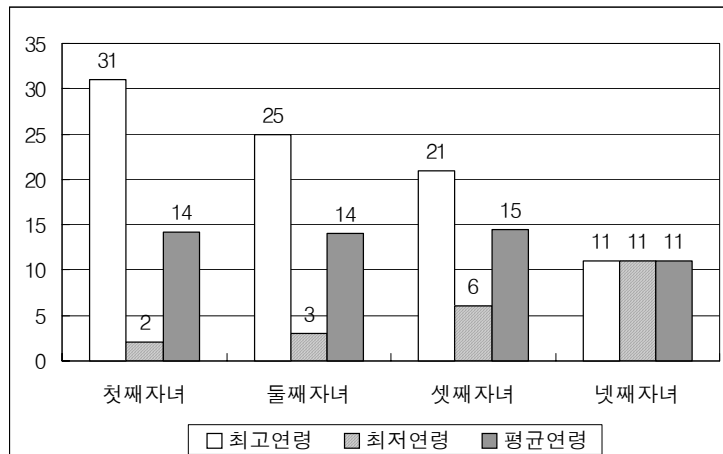
서 최고 31세까지 있었다. 둘째자녀의 평균 연령은 첫째자녀와 마찬가지로 14세였으며 최저 3세에서 최소 25세까지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표 IV-3> 자녀연령분포

(단위: 세)

구 분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자녀
최고연령	31	25	21	11
최저연령	2	3	6	11
평균연령	14	14	15	11

(단위: 세)



<그림 IV-2> 자녀의 연령별 분포

자녀들의 학력분포를 보면 첫째와 둘째 자녀 모두 초등학교생들이 많았으며 첫째의 경우 중학교, 유치원과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순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주 연령분포가 30-40대임을 고려해볼 때 초중등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혼여성들의 자녀들의 학력분포와 관련하여 부모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여성들의 생애주기와 자녀의 연령대 사이에는 일정정도 유사한 연관성이 있다. 주로 30대에서 40대 여성들은 자녀의 학령기 시기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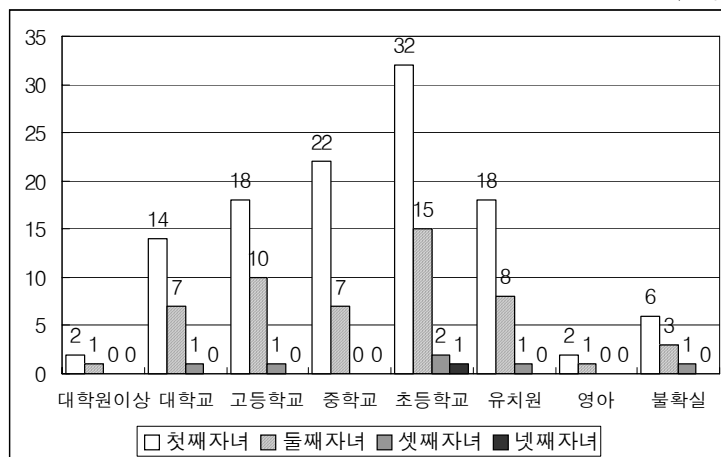
나가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에 놓여있고 또 그 안에서 자녀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인가에 따라 요구되는 부모역할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령기 이전의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서는 자녀를 맡겨야 할 곳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며 성인이 된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앞의 생애주기 여성들과는 다른 지점에서의 부모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표 IV-4> 자녀학력분포

(단위: 명)

구 분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자녀
대학원이상	2	1	0	0
대학교	14	7	1	0
고등학교	18	10	1	0
중학교	22	7	0	0
초등학교	32	15	2	1
유치원	18	8	1	0
영아	2	1	0	0
불확실	6	3	1	0

(단위: 명)



<그림 IV-3> 자녀의 학력별 분포

2. 이혼과정과 본인 관련 사항

1) 이혼과 관련한 기간

이혼과 관련한 기간으로 응답자들에게 ‘이혼 전 결혼기간’, ‘이혼 전 별거기간’, 그리고 ‘이혼 후의 기간’을 물어보았으며 다음 <표 IV-5>와 같다.

<표 IV-5> 응답자의 이혼 전 결혼기간 및 별거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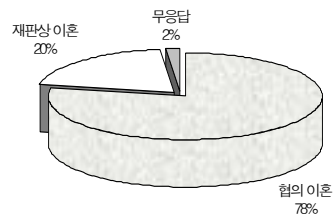
이혼전 결혼기간 (무응답:3명/2.4%)	빈도 (%)	별거기간 (무응답:49명/38.6%)	빈도 (%)	이혼 후 기간 (무응답 :5명/3.9%)	빈도 (%)
0개월- 2개월	6 (4.8)	0개월- 2년	61 (78.2)	0개월- 2년	38 (31.1)
2년1개월- 4년	18 (14.5)	2년1개월- 4년	9 (11.5)	2년1개월- 4년	35 (28.7)
4년1개월-6년	15 (12.1)	4년1개월- 6년	4 (5.1)	4년1개월- 6년	23 (18.9)
6년1개월-8년	12 (9.7)	6년1개월- 8년	2 (2.6)	6년1개월- 8년	13 (10.7)
8년1개월-10년	16 (12.9)	8년1개월-10년	2 (2.6)	8년1개월-10년	5 (4.1)
10년1개월-12년	7 (5.6)	Total	78 (100.0)	10년1개월-12년	2 (1.6)
12년1개월-14년	19 (15.3)			12년1개월-16년	1 (.8)
14년1개월-16년	12 (9.7)			16년1개월-18년	2 (1.6)
16년1개월-18년	3 (2.4)			18년1개월이상	3 (2.5)
18년1개월이상	16 (12.9)				
Total	124 (100.0)			Total	122 (100.0)

이혼 전 결혼기간은 총 124명이 응답하여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7년이었으며 평균 약 10년 5개월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기간이 12년 1개월에서 14년기간이 15.3%로 가장 많았지만 2년 1개월에서 4년기간이 14.5%, 그리고 8년 1개월에서 10년과 18년 이상이 각각 12.9%로 결혼기간의 분포도가 넓게 펼쳐져 있다. 이는 응답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서도 이혼 시기에 따른 삶의 구체적 모습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하기 전 별거기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78명이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평균 1년 6개월로 나타났다. 별거기간이 있을 경우 전반적으로 2년 미만이 대부분으로 보인다(78.2%). 이혼한지는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한 기

간에는 122명이 응답하였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1년로 평균 이혼기간은 약 4년 4개월이었다. 이혼한지 6년 이상 된 경우는 전체 20%정도로 본 연구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이혼한 지 2년 4년 혹은 6년 정도 된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평균이혼기간이 비교적 짧게 나타난 것은 사례선정방법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혼 형태

이혼형태에 대한 응답으로는 협의이혼이 78%(99명)를 차지했고, 재판상이혼이 20%(26명), 무응답이 1.6%(2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 이혼 형태

3) 이혼 사유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와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유들을 구분해서 알아보았다. 부부싸움할 때 이혼하자라고 말 안 해본 부부들은 거의 없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여 다시 부부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의 칼로 물베기가 아닌 이유들은 무엇일까. 그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시작과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로는 ‘남편의 외도’, ‘남편의 폭언/폭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남편의 외박/

가출'과 '경제적 무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로 역시 '남편의 외도'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는 '남편의 폭언/폭력', '결혼 지속에 대한 회의', '빚'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6>).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이 이혼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이다.

세부적으로 순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의 <1순위>는 '남편의 외도'와 '남편의 폭언/폭력'으로 각각 2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편의 외박/가출'(9.8%)의 순이었다. <2순위>로는 '경제적 무능력'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남편의 외박/가출'(12.7%), '남편의 외도'(10.8%),

<표 IV-6> 응답자의 이혼사유

내 용 순 위 이 유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			이혼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		
	1순위 빈도 (%)	2순위 빈도 (%)	3순위 빈도 (%)	1순위 빈도 (%)	2순위 빈도 (%)	3순위 빈도 (%)
남편의 가부장적 의식	7 (6.3)	5 (4.9)	5 (5.2)	4 (3.6)	5 (5.4)	5 (5.8)
남편의 외도	23 (20.5)	11 (10.8)	5 (5.2)	21 (19.1)	9 (9.8)	4 (4.7)
남편의 폭언/폭력	23 (20.5)	11 (10.8)	8 (8.2)	13 (11.8)	8 (8.7)	8 (9.3)
남편의 도박	9 (8.0)	7 (6.9)	6 (6.2)	7 (6.4)	5 (5.4)	
남편의 외박/가출	11 (9.8)	13 (12.7)	8 (8.2)	4 (3.6)	8 (8.7)	4 (4.7)
남편의 음주	9 (8.0)	8 (7.8)	3 (3.1)	5 (4.5)	7 (7.6)	5 (5.8)
경제적 무능력	9 (8.0)	17 (16.7)	9 (9.3)	4 (3.6)	11 (12.0)	8 (9.3)
인터넷 중독			1 (1.0)			
생활비를 안 줌	4 (3.6)	7 (6.9)	8 (8.2)	4 (3.6)	4 (4.3)	15 (17.4)
남편의 이혼강요	2 (1.8)	4 (3.9)	8 (8.2)	7 (6.4)	5 (5.4)	3 (3.5)
남편의 건강문제			1 (1.0)		1 (1.1)	1 (1.2)
성적 불만			2 (2.1)	1 (.9)	1 (1.1)	
본인의 외도				1 (.9)		
본인의 이혼요구	1 (.9)	1 (1.0)	5 (5.2)	4 (3.6)	5 (5.4)	7 (8.1)
시댁과의 마찰	4 (3.6)	6 (5.9)	9 (9.3)	3 (2.7)	7 (7.6)	4 (4.7)
빚	4 (3.6)	3 (2.9)	3 (3.1)	10 (9.1)	5 (5.4)	9 (10.5)
친정과의 마찰	2 (1.8)	1 (1.0)	1 (1.0)	1 (.9)		1 (1.2)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	2 (1.8)	3 (2.9)	9 (9.3)	12 (10.9)	7 (7.6)	8 (9.3)
자녀문제		2 (2.0)	1 (1.0)	3 (2.7)	3 (3.3)	3 (3.5)
본인의 일의 지장	1 (.9)		1 (1.0)	2 (1.8)	1 (1.1)	1 (1.2)
본인의 건강문제	1 (.9)		4 (4.1)	4 (3.6)		
Total	112 (100.0)	102 (100.0)	97 (100.0)	110 (100.0)	92 (100.0)	86 (100.0)
	(무응답:15명/ 11.8%)	(무응답:25명/ 19.7%)	(무응답:30명/ 23.6%)	(무응답:17명/ 13.4%)	(무응답:35명/ 27.6%)	(무응답:41명/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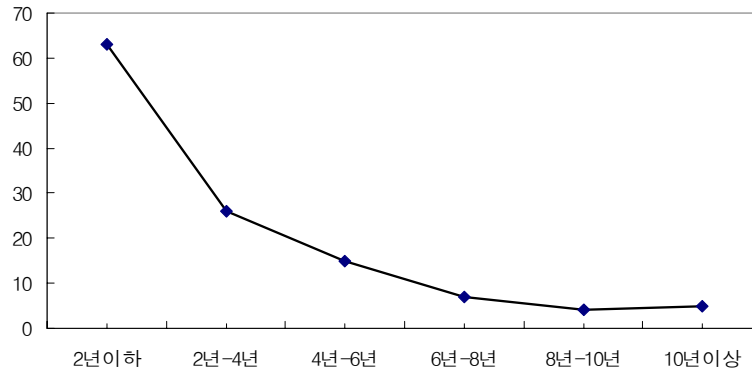
‘남편의 폭언/폭력’(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경제적 무능력’, ‘시댁과의 마찰’,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가 각각 9.3%로 제일 높았다. 이혼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1순위>에서 ‘남편의 외도’가 19.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남편의 폭언/폭력’(11.8%),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10.9%), 빚(9.1%)의 순이었다. <2순위>로는 ‘경제적 무능력’이 1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편의 외도’(9.8%), ‘남편의 폭언/폭력’(8.7%), ‘남편의 외박/가출’(8.7%)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생활비를 안줌’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빚’(10.5%), ‘남편의 폭언/폭력’, ‘경제적 무능력’,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각각 9.3%)를 들었다.

4) 이혼이야기가 된 시점에서 이혼하기까지의 기간

처음 이혼이야기가 된 시점에서부터 이혼하게 되기까지의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예외이기는 하지만 최대 25년까지였으며 평균적으로는 약 3년 2개월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년 이하가 약 5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2년에서 4년 사이가 21.7%, 4년에서 6년 사이가 12.5%로 나타났다(<표 IV-7>, <그림 IV-5>).

<표 IV-7> 처음 이혼 이야기가 된 시점에서부터 이혼하기까지의 기간

구 분	빈도 (%)
2년	63 (52.5)
2년 1개월-4년	26 (21.7)
4년 1개월-6년	15 (12.5)
6년 1개월-8년	7 (5.8)
8년 1개월-10년	4 (3.3)
10년 1개월-12년	3 (2.5)
12년 1개월-14년	1 (.8)
18년 1개월 이상	1 (.8)
Total	120 (100.0) (무응답:7명/5.5%)



<그림 IV-5> 처음 이혼 이야기가 된 시점에서부터 이혼하기까지의 기간

2년 이하에 응답한 63명의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가 약 67%였으며 이중 6개월 이하가 31.7%, 7개월에서 12개월 이하가 34.9%로 응답하였다(<표 IV-8>).

<표 IV-8> 2년 이하의 기간(세부사항)

구 분	빈도 (%)
6개월이하	20 (31.7)
7개월-1년	22 (34.9)
1년 1개월-1년 6개월	8 (12.7)
1년 7개월-2년	13 (20.6)
Total	63 (100.0)

5) 이혼과정의 각 단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

응답자들이 이혼을 결정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이혼결정전, 이혼하는 과정, 그리고 이혼 후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스트레스가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표 IV-9>는 이혼단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순위별 응답이다.

<표 IV-9> 이혼단계에서의 스트레스

단계	이혼결정전			이혼하는과정			이혼후		
순 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상 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남편의 폭 언 및 폭력	35 (32.1)	7 (7.0)	5 (5.6)	12 (10.7)	2 (1.9)				1 (1.1)
친권 및 양 육권 문제	5 (4.6)	9 (9.0)	3 (3.4)	9 (8.0)	6 (5.8)	3 (3.3)	4 (3.7)	1 (1.0)	
양육비 관 련사항	1 (.9)	7 (7.0)	5 (5.6)	3 (2.7)	7 (6.8)	5 (5.5)	5 (4.7)	6 (6.3)	3 (3.3)
자녀가 누 구와 살지	7 (6.4)	5 (5.0)	6 (6.7)	11 (9.8)	10 (9.7)	6 (6.6)	1 (.9)	1 (1.0)	
자녀에게 미칠 영향	23 (21.1)	23 (23.0)	12 (13.5)	22 (19.6)	14 (13.6)	5 (5.5)	10 (9.3)	11 (11.5)	8 (8.9)
생활비 조 달문제	8 (7.3)	9 (9.0)	14 (15.7)	12 (10.7)	9 (8.7)	10 (11.0)	24 (22.4)	17 (17.7)	16 (17.8)
재산분배 및 위자료 문제	2 (1.8)	1 (1.0)	2 (2.2)	4 (3.6)	7 (6.8)	1 (1.1)			1 (1.1)
재산/위자 료 받는 것 에 대한 확 신여부	1 (.9)			5 (4.5)	4 (3.9)	7 (7.7)	1 (.9)	1 (1.0)	1 (1.1)
부모역할 의 편향성 문제	4 (3.7)	1 (1.0)	2 (2.2)	3 (2.7)	2 (1.9)	4 (4.4)	3 (2.8)	7 (7.3)	2 (2.2)
자녀혼유 의 어려움	1 (.9)	3 (3.0)	3 (3.4)		6 (5.8)	2 (2.2)	8 (7.5)	9 (9.4)	3 (3.3)
외로운	1 (.9)	1 (1.0)	1 (1.1)		1 (1.0)	1 (1.1)	6 (5.6)	3 (3.1)	9 (10.0)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3 (2.8)	6 (6.0)	9 (10.1)	5 (4.5)	8 (7.8)	7 (7.7)	7 (6.5)	5 (5.2)	5 (5.6)
재혼여부 의 갈등			1 (1.1)					6 (6.3)	5 (5.6)
성생활			3 (3.4)	1 (.9)				2 (2.1)	3 (3.3)
이혼가정 자녀에 대 한 편견	7 (6.4)	7 (7.0)	4 (4.5)	5 (4.5)	7 (6.8)	8 (8.8)	12 (11.2)	9 (9.4)	6 (6.7)
이혼녀에 대한 편견	1 (.9)	3 (3.0)	7 (7.9)	1 (.9)	7 (6.8)	7 (7.7)	12 (11.2)	9 (9.4)	5 (5.6)
남편에 대 한 원망감 (분노)	7 (6.4)	8 (8.0)	7 (7.9)	14 (12.5)	4 (3.9)	16 (17.6)	6 (5.6)	1 (1.0)	9 (10.0)
자녀와 남 편과의 만 남 인정				1 (.9)		2 (2.2)	4 (3.7)	1 (1.0)	2 (2.2)
친정부모 와의 관계	2 (1.8)	3 (3.0)	2 (2.2)	2 (1.8)	5 (4.9)	1 (1.1)		3 (3.1)	4 (4.4)
시부모와 의 관계	1 (.9)	6 (6.0)	1 (1.1)	1 (.9)	3 (2.9)	2 (2.2)	1 (.9)		
친구들과 의 관계						3 (3.3)	1 (.9)	2 (2.1)	3 (3.3)
친척친지 의 관계		1 (1.0)	2 (2.2)	1 (.9)	1 (1.0)	1 (1.1)			
이웃과의 관계							2 (1.9)	2 (2.1)	4 (4.4)
Total	109 (100.0) (무응답:18명 /14.2%)	100 (100.0) (무응답:27명/ 21.3%)	89 (100.0) (무응답:38명/ 29.9%)	112 (100.0) (무응답:15명 /11.8%)	103 (100.0) (무응답:24명 /18.9%)	91 (100.0) (무응답:36 명/28.3%)	107 (100.0) (무응답:20명 /15.7%)	96 (100.0) (무응답:31명 /24.4%)	90 (100.0) (무응답:37명 /29.1%)

이혼결정 전의 단계에서 나타난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은 ‘남편의 폭언 및 폭력’(32.1%)이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에게 미칠 영향’(21.1%), ‘생활비 조달 문제’(7.3%)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자녀에게 미칠 영향’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비 조달 문제’(9.0%), ‘친권 및 양육권 문제’(9.0%)의 순이었다. <3순위>로는 ‘생활비 조달 문제’(15.7%) ‘자녀에게 미칠 영향’(13.5%),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10.1%)의 순으로 스트레스요인들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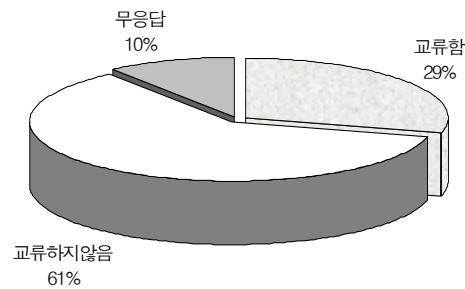
이혼하는 과정의 단계에서 느낀 스트레스는 <1순위>로 ‘자녀에게 미칠 영향’이 1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편에 대한 원망감(분노)’(12.5%), ‘남편의 폭언 및 폭력’(10.7%), ‘생활비 조달 문제’(10.7%)를 들었다. <2순위>에서는 ‘자녀에게 미칠 영향’이 13.6%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비 조달 문제’(8.7%),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7.8%)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남편에 대한 원망감(분노)’이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비 조달 문제’(11.0%), ‘이혼가정에 자녀에 대한 편견’(8.8%)의 순으로 스트레스가 되었다.

이혼 후의 단계에서 나타난 사항들로 <1순위>로는 ‘생활비 조달 문제’가 22.4%로 제일 높았으며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11.2%), ‘이혼녀에 대한 편견’(11.2%)순이었다. <2순위>는 ‘생활비 조달 문제’(17.7%)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에게 미칠 영향’(11.5%), ‘자녀훈육의 어려움’(9.4%),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9.4%), ‘이혼녀에 대한 편견’(9.4%)을 들었다. <3순위>에서는 ‘생활비 조달 문제’가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로움’(10.0%), ‘남편에 대한 원망감(분노)’(10.0%)가 스트레스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이혼여성들이 이혼과정의 각 단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이혼 결정전에 있어서는 “남편의 폭언 및 폭력”이, 이혼하는 과정에서는 “자녀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이혼 후에는 “생활비 조달문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어 이혼은 자신→자녀→생존의 문제가 핵심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틀에 포함되는 주요개념들인 감정적 이혼, 부모역할, 사회적 편견, 경제문제들이 단계별로 일련의 과정들에 의해 경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6) 전 남편과의 교류 상황

이혼 후에 전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경우는 60.6%(77명), ‘어떠한 형태로든 교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9.1%(37명), ‘무응답’이 10.2%(13명)로 나타났다(<그림 IV-6>).



<그림 IV-6> 이혼 후 남편과의 관계

‘전남편과의 교류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의 교류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로는 다양하였으며 76%이상이 자녀와 관련한 이유로 ‘자녀와의 만남’(35.8%), ‘양육비 및 경제적인 부분’(23.9%), ‘자녀양육 방식’(16.4%) 등이었으

<표 IV-10> 전남편과의 교류유무와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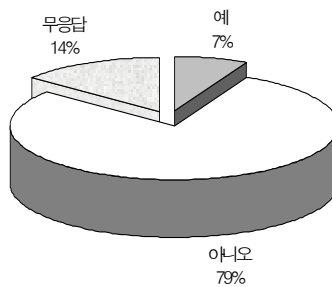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빈도 (%)
교 류 여 부	어떠한 형태로든 교류하고 있다	37 (29.1)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	77 (60.6)
	무응답	13 (10.2)
	Total	127 (100.0)
교 류 이 유	양육비 및 경제적인 부분	16 (23.9)
	자녀양육 방식	11 (16.4)
	자녀와의 만남	24 (35.8)
	자녀와 친조부모와의관계	4 (6.0)
	한쪽의 새파트너로 인한 부모역할 문제	2 (3.0)
	한쪽의 재결합 요구	6 (9.0)
	기타	4 (6.0)
	Total	67 (100.0)

며 이 외에도 ‘자녀와 친조부모와의 관계’(6.0%)와, ‘한쪽의 새파트너로 인한 부모역할 문제’(3.0%)가 있었으며 ‘한쪽의 재결합 요구’(9.0%)의 이유도 있었다(<표 IV-10>).

응답자들이 전 남편에게 바라는 점들을 개방형질문으로 물어보았는데 아버지로서의 부모역할을 해 줄 것과 양육관련사항에 대한 협조, 그리고 이혼사실 인정과 관련한 것이었다(부록 [전남편에 대해 바라는 점] 참조).

7) 재결합 관련 사항

재결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예’(7%), ‘아니오’(79%), ‘무응답’(14%)로 나타나, 대부분이 재결합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림 IV-7> 재결합에 대한 기대

<표 IV-11> 재결합 기대 이유

이 유	빈도
남편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4
자녀들이 아버지를 원해서	
부+모+자녀의 가족모습이 중요해서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힘들어서	
자녀들의 성장에 아버지의 부재가 크게 지장을 준다고 생각해서	2
기타	3
무응답	
Total	9 (100.0)

나타났다(<그림 IV-7>). 재결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9명의 응답자는 ‘부+모+자녀의 가족모습이 중요해서’(4명)와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힘들어서’(2명)를 재결합의 이유로 제시하였다(<표 IV-11>).

8) 재혼에 대한 의견

재혼에 대한 의견으로는 <표 IV-12>와 같이 ‘전혀 생각없다’가 46.7%로 응답자의 50%이상이 재혼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혼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다양하였는데 아이 때문에 주저하지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으며’(13.3%), ‘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싶어서’(9.5%), ‘부+모+자녀로 된 가족을 갖고 싶어서’(7.6%) 등이었다. 기타의 이유들로는 노후를 위해서, 성적으로 외로워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갖고 싶어서 등을 들었다(부록 [재혼에 대한 생각] 참조).

<표 IV-12> 재혼에 대한 의견과 재혼을 원한다면 그 이유

이 유	빈도 (%)
전혀 생각 없다	49 (46.7)
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싶어서	10 (9.5)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해서	2 (1.9)
경제적으로 기대고 싶어서	7 (6.7)
남편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서	7 (6.7)
부+모+자녀로 된 가족을 갖고 싶어서	8 (7.6)
생각은 있지만 아이 때문에	14 (13.3)
기타	8 (7.6)
Total	105 (100.0) (무응답:22명/17.3%)

9) 이혼 후 달라진 점

이혼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복수응답결과 ‘경제적 어려움’(15.6%), ‘혼자서 부/모 역할수행의 어려움’(13.8%), ‘미래에 대한 불안’(11.9%), ‘자녀양육부

담 증가’(11.3%), ‘심리정서적으로 안정’(10.9%)의 순으로 나타나 본인의 심리 정서적 안정에는 도움이 된 반면 자녀양육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혼 후 여성의 삶의 열악함을 보여준다(<표 IV-13>). 본인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원됨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때에 따라서 친정쪽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더 가까워지기도 한 사례들도 있었다.

특별히 심리정서적 안정면에서 도움이 된 경우 그 이유를 기타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집에 안들어오는 사람 아침까지 안기다려도 되는게 행복하다. 상스러운 말 안들어서 좋다”, “인생에 대해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아이들도 불안감에 쌓여서 집안이 전쟁터 같았으나 이혼후 표정이 밝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왜 이혼을 좀 더 일찍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도 해보았다” 등으로 이혼 후의 상황에 대한 평화를 말하였다(부록 [이혼후 달라진점: 기타의견] 참조).

<표 IV-13> 이혼 후 달라진 점

변화내용	빈도 (%)	변화내용	빈도 (%)
경제적 어려움	76 (15.6)	본인의 형제/자매/친척과 소원	24 (4.9)
혼자서 부/모 역할 수행의 어려움	67 (13.8)	친구/이웃과 멀어짐	27 (5.5)
자녀양육부담 증가	55 (11.3)	자녀에게 남편역할기대	10 (2.1)
자녀에게 더욱 밀착	32 (6.6)	심리정서적으로 안정	53 (10.9)
가사일로부터의 자유로움	30 (6.2)	개인생활과 욕구에 대한자제	20 (4.1)
시가친척일로부터의 해방	24 (4.9)	기타	11 (2.3)
미래에 대한 불안	58 (11.9)		
Total		487 (100.0)	
		(무응답:3명/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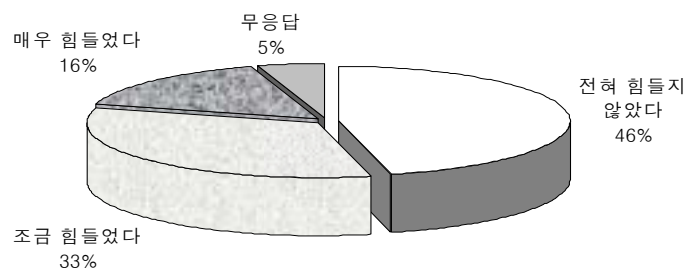
3. 이혼과정과 자녀관련 사항

1)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가 46.5%인 반면 ‘조금 힘들었다.’(33.1%)와 ‘매우 힘들었다’(15.7%)를 볼 때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한 응답자가 더 많아 친권과 양육권 여부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표 IV-14>, <그림 IV-8>).

<표 IV-14>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과정

구 분	빈도 (%)
매우 힘들었다	20 (15.7)
조금 힘들었다	42 (33.1)
전혀 힘들지 않았다	59 (46.5)
무응답	6 (4.7)
Total	127 (100.0)



<그림 IV-8>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과정

2) 자녀와 관련하여 전남편과의 상의내용

이혼과정에서 혹은 결정에서 자녀와 관련하여 남편과의 상의여부에서 응답자의 36.4%가 상의가 전혀 없었다. 상의가 있었던 경우 그 내용은 복수응답결

과 ‘양육비’(26.0%)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남편과 만나는 것’(13.0%),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11.1%), ‘거주지’(8.6%), ‘학업관련사항’(6.80%) 순으로 나타났다(<표 IV-15>).

특별히 응답자들이 상의가 전혀 없었던 경우를 보면 ‘아이를 맡으려는 일념으로’, 그리고 ‘너무 급해서 아이를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엄마가 키우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 등의 이유를 들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남편이 아버지로서 자격 즉 경제적, 건강, 정서적 등의 면에서 자기가 맡을 수밖에 없는 현실때문임을 말하였다(부록 [자녀와 상의하지 않은 이유] 참조).

<표 IV-15> 자녀문제에 대한 전남편과의 상의

내 용	빈도 (%)
상의가 전혀 없었다	59 (36.4)
자녀가 남편과 만나는 것	21 (13.0)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18 (11.1)
학업관련사항	10 (6.8)
거주지	13 (8.6)
양육비	26 (16.7)
기타	12 (7.4)
Total	162 (100.0)
	(무응답:13명/10.2%)

3) 자녀의 반응 및 자녀와 이야기 내용

이혼과정 혹은 결정에서 자녀들의 반응을 보면 응답자의 50%이상의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나 태도를 보였고 자녀의 나이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자녀가 전혀 몰랐음도 42.6%나 되어 상당수가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음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자녀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결정에 맡김’(22.2%)비율이 높았으며 찬성하는 비율이 20.3%인 반면 반대는 8.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IV-16>).

이혼이 결정된 후 이와 관련하여 아이가 어려서 이야기를 못하였으며 응답자의 88%이상이 자녀와 이야기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혼하려는

이유’(25.1%), ‘미안한 마음의 전달’(21.7%), ‘자녀의 삶에 대한 변화’(11.6%), ‘아빠의 생활’(9.2%), ‘함께 살 부모’(8.2%), ‘아빠와의 만남’(7.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의 내용에서는 아이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감 심어주는 것, 왜 아빠가 없는지에 대한 것과 추후 생활방식에 대한 것 등의 자세한 내용들도 있었다.

<표 IV-16> 자녀의 반응 및 자녀와 이야기한 내용

	반 응	빈도 (%)		내 용	빈도 (%)
자 녀 의 반 응	매우 반대했음	2 (1.9)	자 녀 와 이 야 기 한 내 용	이혼하려는 이유	52 (25.1)
	어느 정도 반대했음	7 (6.5)		함께 살 부모	17 (8.2)
	부모의 결정에 맡김	24 (22.2)		아빠와의 만남	15 (7.2)
	찬성하는 편이었음	13 (12.0)		자녀의 삶에 대한 변화	24 (11.6)
	적극적으로 찬성했음	9 (8.3)		아빠의 생활	19 (9.2)
	탈선, 우울증을 보임	7 (6.5)		미안한 마음의 전달	45 (21.7)
	자녀는 전혀 몰랐음	46 (42.6)		이야기 한 적 없음	26 (12.6)
				기타	9 (4.3)
	Total	108 (100.0)		Total	207 (100.0)
		(무응답:19명/15.0%)			(무응답:10명/7.9%)

4)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했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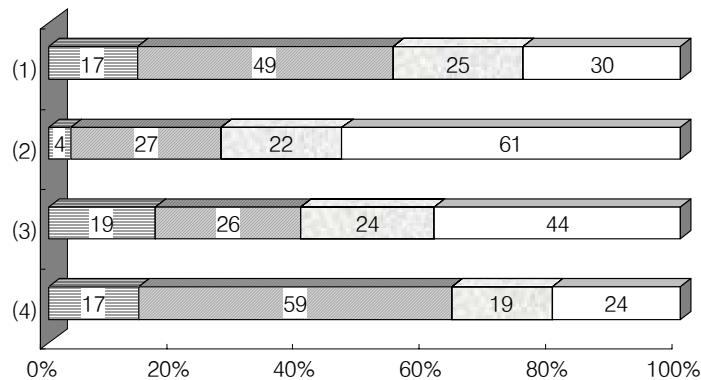
응답자들에게 이혼과정에서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8개 항목의 질문을 하였는데 각각의 항목에 대한 경험정도를 보면 다음 <표 IV-17>, <표 IV-18>과 같다.

먼저 어떠한 형태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혼과정이 자녀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표 IV-17>에 나타난바와 같이 ‘이혼과정의 스트레스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 표출된 적이 있다’에서 응답자의 63.9%가 경험함으로써 그 과정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에게 이혼과 관련해 아빠의 험담을 한 적이 있다’에는 54.5%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자녀를 자기편으로 끌어드리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적도 40%정도가 경험함으로써 상당부분 이혼과정에서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이혼 후 부-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기도 하다. 반면 응답자의 시각에서 자녀와 남편 및 시댁식구들에 의한 부정적 관계는 그 정도가 약하였다.

<표 IV-17>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1)

항 목	매우	약간	별로	전혀	Total
(1) 자녀에게 이혼과 관련해 아빠의 책임을 한 적이 있다(무응답:6명/4.7%)	17 (14.0)	49 (40.5)	25 (20.7)	30 (24.8)	121 (100.0)
(2) 자녀를 통해 남편의 의중을 알려고 하거나 나의 의중을 전달하려한 적이 있다(무응답:13명/10.2%)	4 (3.5)	27 (23.7)	22 (19.3)	61 (53.5)	114 (100.0)
(3) 자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무응답:14명/11.0%)	19 (16.8)	26 (23.0)	24 (21.2)	44 (38.9)	113 (100.0)
(4) 이혼과정의 스트레스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 표출된 적이 있다(무응답:8명/6.3%)	17 (14.3)	59 (49.6)	19 (16.0)	24 (20.2)	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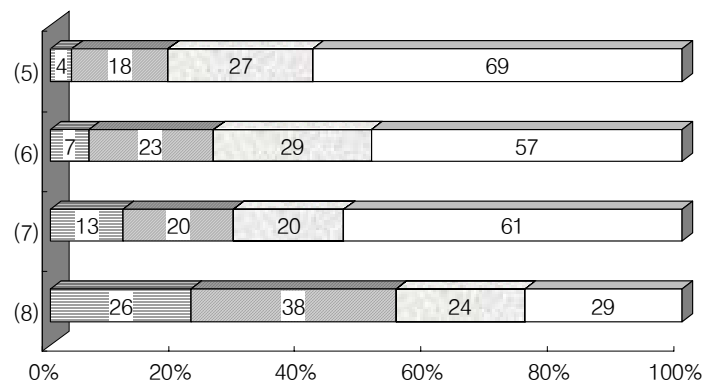
*왼쪽부터

매우 | 약간 | 별로 | 전혀

<그림 IV-9>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1)

<표 IV-18>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2)

항 목	매우	약간	별로	전혀	Total
(5) 자녀가 아빠와 함께 나에 대한 비난을 한 적이 있다(무응답:9명/7.1%)	4 (3.4)	18 (15.3)	27 (22.9)	69 (58.5)	118 (100.0)
(6) 자녀를 통해 남편이 나의 의중을 알려고 하거나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려한 적이 있다 (무응답:11명/8.7%)	7 (6.0)	23 (19.8)	29 (25.0)	57 (49.1)	116 (100.0)
(7) 남편과 시부모가 나와 자녀관계가 멀어지도록 자녀에게 나에 대한 비난을 한 적이 있다(무응답:13명/10.2%)	13 (11.4)	20 (17.5)	20 (17.5)	61 (53.5)	114 (100.0)
(8) 이혼과정이 자녀에게 표출되지 않도록 애쓴 적이 있다 (무응답:10명/7.9%)	26 (22.2)	38 (32.5)	24 (20.5)	29 (24.8)	117 (100.0)



*왼쪽부터

매 우 | 약 간 | 별 로 | 전 혀

<그림 IV-10>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2)

4. 이혼여성의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1) 이혼 후 자녀의 변화

이혼 전과 비교하여 이혼 후에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발견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IV-19>). 응답자의 23.7%가 자녀의 변화를 느끼지 않았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이혼 후 자녀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보면 ‘엄마에게 집착’(18.9%)하고 ‘친가와 멀어짐’(13.7%), ‘외가와 가까워짐’(11.6%)의 순으로 나타나 가족관계에 대한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었고 자녀 자신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성적의 변화가 제일 컸으나 친구와 멀어지고 행동장애를 일으키거나 비행 및 가출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이 기타의 항목에 적은 자녀들의 변화내용들을 보면 자녀의 나이와 관련하여 자녀와 직접적인 것으로서 긍정적인 면들도 많았다.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생활력이 강해지거나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등 어른스럽게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혼전의 힘들음을 벗어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오히려 가정의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명절 때 외로워하거나 내성적으로 변한 것, 악몽을 꾸거나 남자에 대한 적개감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친구집과의 비교하는데서 오는 심적 어려움 등이 있어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임을 보여준다(부록 [자녀의 변화: 기타 의견] 참조).

<표 IV-19> 이혼 후 자녀에게 일어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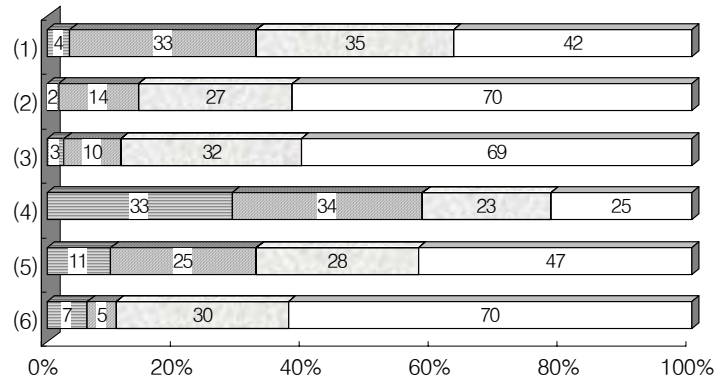
변화내용	빈도 (%)	변화내용	빈도 (%)
변화가 없었음	45 (23.7)	엄마에게 집착	36 (18.9)
학교성적의 변화	14 (7.4)	건강이 나빠짐	8 (4.2)
친구와 멀어짐	7 (3.7)	친가와 멀어짐	26 (13.7)
행동장애	7 (3.7)	외가와 가까워짐	22 (11.6)
비행 및 가출	5 (2.6)	기타	20 (10.5)
Total			190 (100.0)
			(무응답:10명/7.9%)

2)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일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일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응답자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남편 역할의 기대’, 또한 자녀에게 ‘두 사람의 몫(아빠까지)을 기대’하는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70-80%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하여 남편의 부재를 인지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녀에게 신경 쓰다보니 자신의 개인생활이나 욕구들을 이전보다 자제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60%에 달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혼 후 여성들의 자녀와의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기에 바쁘며 자신들의 삶의 질은 분명 부차적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녀가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하지 않지만(10.8%) 자녀가 전 남편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67.5%가 별로 혹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성들이 이혼 후 자녀와 남편이 아버지로서의 관계유지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IV-20>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

내 용	매우	약간	별로	전혀	Total
(1) 자녀에게 자신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함(무응답:13명/10.2%)	4 (3.5)	33 (28.9)	35 (30.7)	42 (36.8)	114 (100.0)
(2) 자녀에게 일상생활에서의 남편의 역할을 기대함(무응답:14명/11.0%)	2 (1.8)	14 (12.4)	27 (23.9)	70 (61.9)	113 (100.0)
(3) 자녀에게 두 사람의 몫(아빠까지)을 기대함(무응답:13명/10.2%)	3 (2.6)	10 (8.8)	32 (28.1)	69 (60.5)	114 (100.0)
(4) 자녀에게 신경 쓰다 보니 나의 개인생활이나 욕구들을 이전보다 자제함(무응답:12명/9.4%)	33 (28.7)	34 (29.6)	23 (20.0)	25 (21.7)	115 (100.0)
(5) 자녀가 전 남편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함(무응답:16명/12.6%)	11 (9.9)	25 (22.5)	28 (25.2)	47 (42.3)	111 (100.0)
(6)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자녀가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함(무응답:15명/11.8%)	7 (6.3)	5 (4.5)	30 (26.8)	70 (62.5)	112 (100.0)



*왼쪽부터

매우 | 약간 | 별로 | 전혀

<그림 IV-11>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

3) 이혼 후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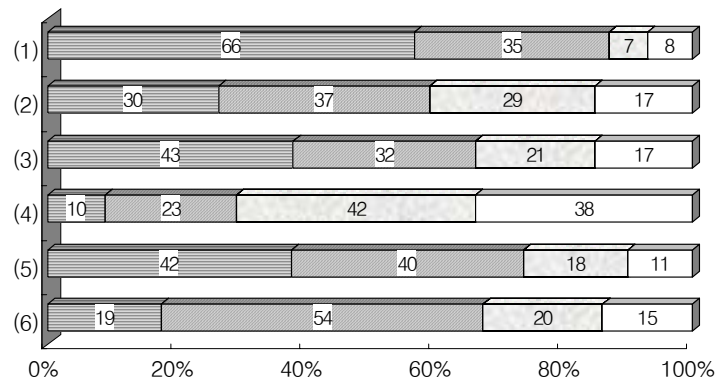
가) 당면문제

먼저 이혼 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실제로 본인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표 IV-21>).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에 ‘매우 그렇다’(56.9%)의 비율이 높았고 ‘약간 그렇다’(30.2%)와 함께 보면 응답자의 87.1%가 자녀와 관련한 비용의 문제가 가장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크다고 응답한 경우는 38.1% 그리고 약간 그렇다고 한 경우가 28.3%가 되어 응답자의 66.4%가 자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양육과정의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버지 엄마의 역할에 대한 역할규정과 역할 수행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어려움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것과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역할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녀의 결혼관 혹은 이성관’ 영향에 대해 67.6%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도 관련하여 이혼한 가족 자녀들의 가치관형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와 관련해 의논할 사람이 없는 것’에 59.2%

가 그렇다고 하여 남편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21> 자녀양육과 관련한 당면 문제

내 용	매우	약간	별로	전혀	Total
(1)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 (무응답:11명/8.7%)	66 (56.9)	35 (30.2)	7 (6.0)	8 (6.9)	116 (100.0)
(2) 자녀와 관련해 의논할 사람이 없는 것 (무응답:14명/11.0%)	30 (26.5)	37 (32.7)	29 (25.7)	17 (15.0)	113 (100.0)
(3) 아버지 역할을 보지 못하는 것 (무응답:14명/11.0%)	43 (38.1)	32 (28.3)	21 (18.6)	17 (15.0)	113 (100.0)
(4) 자녀에 대한 교사의 편견 (무응답:14명/11.0%)	10 (8.8)	23 (20.4)	42 (37.2)	38 (33.6)	113 (100.0)
(5)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당연시 하는 법제도 및 사회분위기 (무응답:16명/12.6%)	42 (37.8)	40 (36.0)	18 (16.2)	11 (9.9)	111 (100.0)
(6) 자녀의 결혼관 혹은 이성관 (무응답:19명/15.0%)	19 (17.6)	54 (50.0)	20 (18.5)	15 (13.9)	108 (100.0)



*왼쪽부터

매 우 | 약 간 | 별 로 | 전 혀

<그림 IV-12> 자녀양육과 관련한 당면문제

나) 자녀가 겪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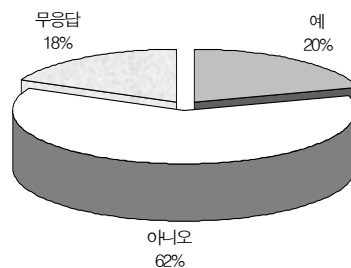
다음으로 응답자의 시각에서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은(혹은 앞으로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예시하면서 물어보았는데(<표 IV-22>)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이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친구들이 부모에 관해 물을 때 당황함’(18.4%), ‘결혼할 때 상대방 집안에서의 반대나 거부감’(17.4%) 등으로 나타나 양부모 이테올로기로부터 내재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무엇인가 결핍된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반영하여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이 가장 큼을 보여준다. 크게는 표출되지 않지만 ‘사회에 나가서 직장 구할 때의 불이익’(8.7%)도 염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가정내에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오는 자녀들의 어려움도 보여지고 있어 이혼한 여성들이 부모역할수행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음이다. 한 응답자의 기타의견에서 나타난 것은 자녀가 스스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하길 꺼려한다라고 하여 가족의 개념이나 가족의 형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표 IV-22> 이혼으로 자녀들이 겪은 어려움

내 용	빈도 (%)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	76 (18.9)
친구들이 부모에 관해 물을 때 당황함	74 (18.4)
사회에 나가서 직장 구할 때의 불이익	35 (8.7)
결혼할 때 상대방 집안에서의 반대나 거부감	70 (17.4)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	37 (9.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갈등	57 (14.1)
아빠를 원망하고 있는 엄마때문에 아빠를 못 만나는 것	9 (2.2)
아빠대신 엄마의 의논상대자 혹은 아빠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	26 (6.5)
아빠가 자녀와 만나기를 회피하는 것	12 (3.0)
기타	7 (1.7)
Total	403 (100.0) (무응답: 8명/6.3%)

특히 초등학교 자녀들 둔 부모들이 응답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114명의 응답자중 26명(20%) 이 학교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행사들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그림 IV-13>).

구체적인 경험들을 보면 유치원에서 아빠참여수업이나 모시고 오는 것이 많았으며 초등학교에서도 가족신문, 가족사진, 가족계보 알아오기, 그리고 가족 소개하기 등의 프로그램이었다(부록 [아빠와 함께하는 구체적 행사] 참고).



<그림 IV-13> 양부모와 함께하는 학교행사로 인한 곤란정도

다) 자녀와 아빠와의 만남

이혼 후 자녀가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엄마의 지원하에 잘 영위될수 있다고 생각되어 역할의 하나라고 볼 때 우선 응답자의 50.0%가 아이가 아빠와 만나지 않고 있었으며 무응답을 제외하고는 총 127명중 44명인 34.6% 아빠와의 만남을 하고 있었다(<표 IV-23>). 자녀가 아빠를 만나고 있는 44명의 경우 만나는 빈도는 ‘생일 등 특별한 날에만 만난다’(50.0%)가 많았지만 ‘정기적으로 만난다’(40.9%)의 비율도 그리 낮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같이사는 엄마를 고려하여 자녀가 아빠를 만나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물론 자녀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전혀안본다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고있다고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자녀가 한쪽 부모를 만날 때 편안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혼한 부부들이 담당해야할 몫이라는 생각이 든다. 응답자들에게 어머니가 대신할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정도

를 물어보았는데 긍정적 차원의 대답을 중심으로 본다면 80%이상이 있다고 함으로써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한쪽부모의 역할상실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으며 실제와 인식간의 갭을 볼 수 있는 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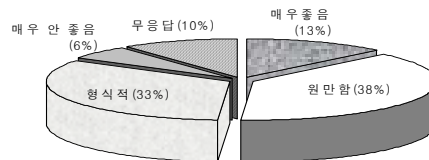
<표 IV-23> 자녀와 아빠와의 만남

질문	구 분	빈도 (%)	질문	구 분	빈도 (%)
아빠를 만나는지의 여부	예	44 (34.6)	만나는 빈도	정기적으로 만난다	18 (40.9)
	아니오	64 (50.4)		생일 등 특별한 날에만 만난다	22 (50.0)
	무응답	19 (15.0)		무응답	4 (9.1)
	Total	127 (100.0)		Total	44 (100.0)
자녀의 눈치 정도	매우	1 (2.3)	어머니가 대신할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	매우 그렇다	8 (18.2)
	어느 정도	6 (13.6)		어느 정도	18 (40.9)
	약간	12 (27.3)		약간	12 (27.3)
	전혀 안 본다	23 (52.3)		전혀 안 그렇다	5 (11.4)
	무응답	2 (4.5)		무응답	1 (2.3)
	Total	44 (100.0)		Total	44 (100.0)

이혼 전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원만하거나’(38.6%), ‘매우 좋음’(12.6%) 정도를 보면 50%이상이 긍정적임에도 이혼 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IV-24>).

<표 IV-24> 이혼 전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

구 분	빈도 (%)
매우 좋음	16 (12.6)
원만함	49 (38.6)
형식적 관계	42 (33.1)
매우 안 좋음	7 (5.5)
무응답	13 (10.2)
Total	127 (100.0)



<그림 IV-14> 이혼 전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

5. 양육비 관련 사항

1) 법정 양육비의 현실성과 자녀비용정도

현재 법원에서 1인당 양육비는 통상 1달에 30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설문대상자의 52.8%가 모르고 있었으며 양육비 30만원 정도의 현실성에 대해 응답자의 71.6%가 부정적이었다. 이는 현재 생활비에서 자녀와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에서도 나타나는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응답자의 70%정도가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IV-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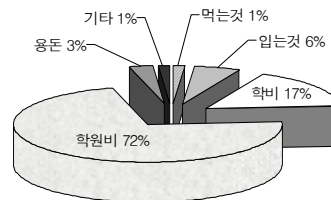
<표 IV-25> 자녀의 법정 양육비에 대한 인식과 양육 비용

질문	구 분	빈도 (%)	질문	구 분	빈도 (%)
양육비에 대한 인식 유무	예	50 (39.4)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	10만원 이하	7 (5.5)
	아니오	67 (52.8)		11만원-20만원	15 (11.8)
	무응답	10 (7.9)		21만원-30만원	21 (16.5)
	Total	127 (100.0)		31만원-50만원	33 (26.0)
현실에서의 양육비의 적합성	매우 적당	1 (.8)		51만원-80만원	18 (14.2)
	어느 정도 적당	25 (19.7)		81만원-100만원	9 (7.1)
	약간 부족	44 (34.6)		100만원이상	4 (3.1)
	매우 부족	47 (37.0)		기타	4 (3.1)
	무응답	10 (7.9)		무응답	16 (12.6)
	Total	127 (100.0)		Total	127 (100.0)

자녀와 관련한 비용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는 ‘학원비’가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학비’(16.9%), ‘입는 것’(5.6%) 등이었다(<표 IV-26>).

<표 IV-26> 자녀와 관련된 비용

내 용	빈도 (%)
먹는 것	1 (1.4)
입는 것	4 (5.6)
학비	12 (16.9)
학원비	51 (71.8)
용돈	2 (2.8)
기타	1 (1.4)
Total	71 (100.0) (무응답: 56명/44.1%)



<그림 IV-15> 자녀와 관련된 비용

2) 양육비 수급정도

조사대상자 중 현재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는 13명인 10.2%에 불과하였으며 78%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양육비를 받고 있는 13명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였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전 남편의 경제적 무능’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음’(13.1%), ‘양육비 안 받는 조건으로 아이 맡음’(12.1%), ‘상대방이 안주겠다고 선언’(8.1%)의 순으로 나타나 다양하였다(<표 IV-27>).²²⁾ 문제는 무엇보다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결핍뿐만 아니라 양육 책임회피로 인한 이유가 매우 큼을 보여준다. 남편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과 과태료 혹은 감치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47.2% 정도였다. 따라서 상당수 이혼가정의 경우 이미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혼여성가족의 경우 여성의 경제력의 필요와 더불어 양육비지급의무준수를 위한 강제조치 그리고 이혼후 자녀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한국여성민우회(2001)과 가정법률상담소(2001)의 조사결과와 맥락을 같이함

<표 IV-27> 양육비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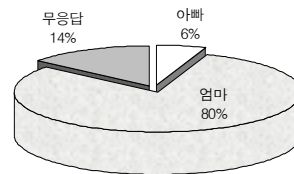
질문	구분	빈도 (%)	질문	구분	빈도 (%)
양육비를 받는가?	예	13 (10.2)	감지처분 관련지식	예	60 (47.2)
	아니오	99 (78.0)		아니오	52 (40.9)
	무응답	15 (11.8)		무응답	15 (11.8)
	Total	127 (100.0)		Total	127 (100.0)
양육비 액수	30만원	2 (15.4)	받지않는다면 그 이유는?	전남편의 경제적 무능	43 (43.4)
	45만원	2 (15.4)		양육비 안 받는 조건으로 아이 맡음	12 (12.1)
	50만원	2 (15.4)		상대방이 안주겠다고 선언	8 (8.1)
	70만원	1 (7.7)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모름	2 (2.0)
	80만원	1 (7.7)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음	13 (13.1)
	100만원	2 (15.4)		무응답	21 (21.2)
	무응답	3 (23.1)		Total	99 (100.0)
	Total	13 (100.0)			

3) 적합한 자녀양육자 문제

자녀양육은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0.3%가 ‘엄마’라고 응답하였다(<표 IV-28>).

<표 IV-28> 자녀양육자 문제

	빈도 (%)
아빠	7 (5.5)
엄마	102 (80.3)
무응답	18 (14.2)
Total	127 (100.0)



<그림 IV-16> 자녀양육자 문제

그 이유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아이가 원해서, 모성애, 친밀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 엄마의 세심한 배려로 아이가 성장할수 있기 때문에, 자식사랑은 엄마인 것 같아서, 아이들이 엄마품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등으로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모성애의 역할의 큼을 지적 하였으며 딸이기 때문에, 남편의 무책임, 남편의 알코올중독 등의 이유도 있었

다. 반면 아버지가 키워야한다는 이유를 보면 아들이라는 것과 호주제 등을 들었다(부록 [자녀양육 엄마가 해야하는 이유] 참조).

자녀를 엄마가 키워야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해보았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127명 중 43명인 33.9%가 그렇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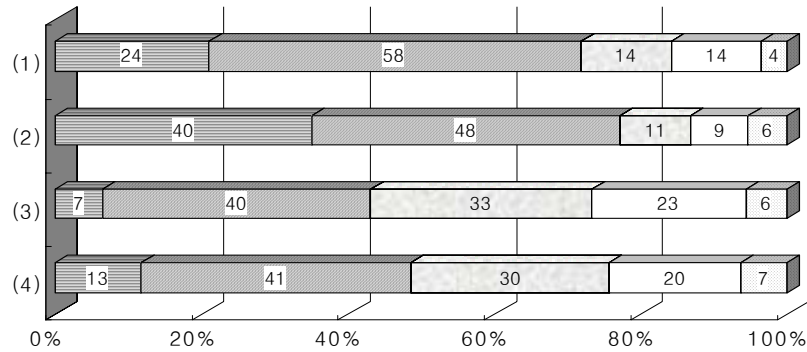
6. 삶의 만족도 및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

1) 이혼 후 삶의 만족도

이혼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았다. 현재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정도는 응답자의 72%가 현재의 생활을 더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개별적으로 응답자 자신의 경우도 이혼 전에 비해 만족정도가 77.2%로 전반적인 삶에서보다 자신의 경우 더 높았다(‘그래도 전보다는 만족’에 42.1% ‘전에 비해 훨씬 만족’ 35.1%). 자녀의 삶에 대한 본인의 평가에서 자녀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는 ‘그래도 전보다 만족’이 36.7%, ‘비슷하다’가 30.3%로 나타났다(<표 IV-29>).

<표 IV-29> 이혼 후 삶의 만족도

내 용	전에 비해 훨씬 만족	그래도 전보다는 만족	비슷 하다	전만 못하다	전과 비교 하여 매우 불만족	Total
(1) 현재 귀하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정도(무응답:13명/10.2%)	24 (21.1)	58 (50.9)	14 (12.3)	14 (12.3)	4 (3.5)	114 (100.0)
(2) 현재 귀하의 삶을 이혼 전과 비교해 볼 때의 만족 정도 (무응답:13명/10.2%)	40 (35.1)	48 (42.1)	11 (9.6)	9 (7.9)	6 (5.3)	114 (100.0)
(3) 귀하가 생각하기에 현재 자녀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 (무응답:18명/14.2%)	7 (6.4)	40 (36.7)	33 (30.3)	23 (21.1)	6 (5.5)	109 (100.0)
(4) 귀하가 생각하기에 현재 자녀의 삶을 이혼 전과 비교해 볼 때의 만족 정도(무응답:16명/12.6%)	13 (11.7)	41 (36.9)	30 (27.0)	20 (18.0)	7 (6.3)	111 (100.0)



* 왼쪽부터

전에 비해 훨씬 만족 | 그래도 전보다는 만족 | 비슷하다 | 전만 못하다 | 전과 비교하여 매우 불만족

<그림 IV-17> 이혼 후 삶의 만족도

자녀의 삶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전보다는 만족스럽다고 느끼기는 하였지만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이혼전이나 후가 비슷한 경우(30.3%)와 전만 못하다는(21.1%) 경우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격차가 크게 비교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이혼전과 비교해 볼 때의 만족정도에서도 비슷한 분포를 보여 이혼 후 삶의 만족도에서는 여성들에게 보다 크게 드러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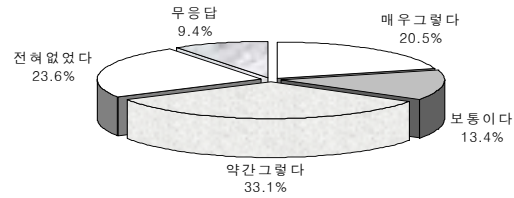
2) 자녀에 대한 상담 관련 사항

이혼 후 자녀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느냐에는 ‘매우 그렇다’에 20.5%, ‘약간 그렇다’에 33.1%로 나타났고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23.6%가 되었다(<표 IV-30>, <그림 IV-18>).

이혼 후 자녀문제와 관련해서 127명중 28명(22%)만이 상담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17명(60.7%)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6명(21.4%)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상담이 실제적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IV-31>, <그림 IV-19>).

<표 IV-30> 자녀관련 상담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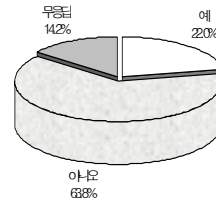
구 분	빈도 (%)
매우 그렇다	26 (20.5)
보통이다	17 (13.4)
약간 그렇다	42 (33.1)
전혀 없었다	30 (23.6)
무응답	12 (9.4)
Total	127 (100.0)



<그림 IV-18> 자녀관련 상담 욕구

<표 IV-31> 자녀 상담 경험

질문	구 분	빈도 (%)
상담 경험	예	28 (22.0)
	아니오	81 (63.8)
	무응답	18 (14.2)
	Total	127 (100.0)
도움 정도	매우 도움	6 (21.4)
	어느정도 도움	17 (60.7)
	전혀 도움안됨	1 (3.6)
	무응답	4 (14.3)
	Total	28 (100.0)



<그림 IV-19> 자녀 상담 경험

상담한 곳으로는 학교교사(9), 정신과(8), 여성단체 및 복지관(8), 상담소(6), 친구, 이웃, 종교지도자(3) 등이었으며 상담한 내용으로는 대인관계, 자녀문제로 건강과 학교부적응, 친구관계, 정서적 불안정, 사춘기, 자녀의 도벽과 성적문제, 엄마에 대한 자녀의 지나친 애착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많았으며 본인의 대인관계와 우울증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다(<표 IV-32> 참조).

상담을 한 경험이 없다는 그 이유로는 40.7%가 '그럴 필요가 없어서'라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상담할 곳을 몰라서'(24.7%),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13.6%), '도움이 안되어서'(6.2%)의 순으로 나타나 홍보의 필요성과 문제에 대한 오픈마인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표 IV-33>).

<표 IV-32> 상담한 곳과 상담내용

상담한곳	상담내용
가정법률상담소	이혼절차에 대해서
마리의 샘	학업
무료법률상담(인터넷)	이혼을 해야할지
보육교사	학업
복지관	대인관계, 보육소의 생활, 자식문제, 친구관계
상담소	다양한 문제(일상적인), 기타
유치원교사	대인관계, 자녀사춘기
이웃	우울증
자활후견기관	자녀의 도벽과 성적문제
정신과	자녀의 지나친 애착, 학업, 정서의 안정과 학교생활, 자식문제
존경하는 스승	친권양육, 기타
친구	자식문제
학교교사	자녀의 건강문제, 장애문제, 아이의 분리불안증

<표 IV-33> 상담하지 않는 이유

구 분	빈도 (%)
그럴 필요가 없어서	33 (40.7)
상담할 곳을 몰라서	20 (24.7)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11 (13.6)
도움이 안되어서	5 (6.2)
무응답	12 (14.8)
Total	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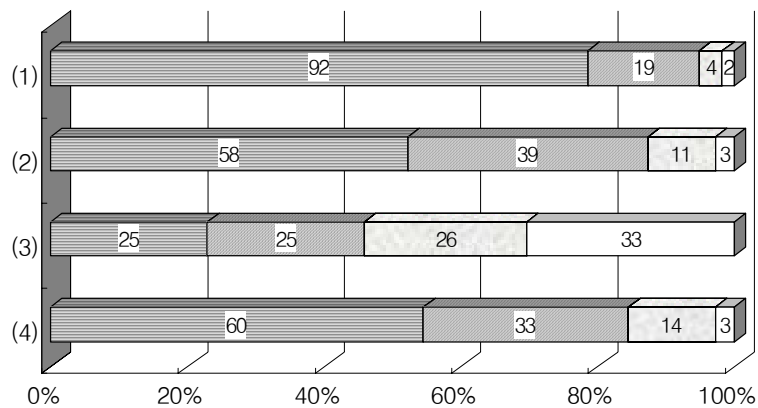
3)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

마지막으로 이혼 후 생활하면서 전문적인 지원체계나 상담 서비스, 교육 등이 어느 정도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 IV-34>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경제적 안정지원에 관한 욕구가 제일 강하였으며 안정적인 가족관계프로그램과 여성자신의 감정적 독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표 IV-34>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1)

내 용	매우 필요	필요	약간 필요	필요 없음	Total
(1) 이혼여성의 경제적 안정지원에 관한 것(무응답:10명/7.9%)	92 (78.6)	19 (16.2)	4 (3.4)	2 (1.7)	117 (100.0)
(2) 이혼여성가정의 안정적인 가족 관계 프로그램(무응답:16명/12.6%)	58 (52.3)	39 (35.1)	11 (9.9)	3 (2.7)	111 (100.0)
(3) 전 남편과의 관계 청산을 위한 프로그램(무응답:18명/14.2%)	25 (22.9)	25 (22.9)	26 (23.9)	33 (30.3)	109 (100.0)
(4) 여성 자신의 감정적 독립을 위한 프로그램(무응답:17명/13.4%)	60 (54.5)	33 (30.0)	14 (12.7)	3 (2.7)	110 (100.0)



*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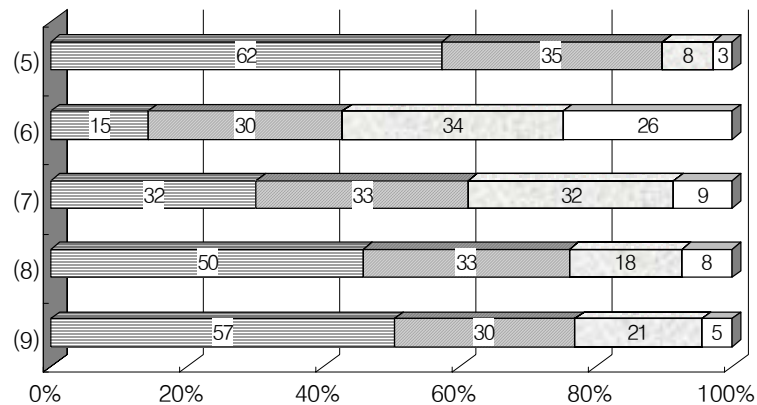
매우 필요 | 필요 | 약간 필요 | 필요 없음

<그림 IV-20>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1)

조사대상자들은 또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는데 자녀양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시설, 이웃 및 공동체와 함께할수 있는 시설, 그리고 자녀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혼여성가족을 위한 안내책자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반면 자녀의 아버지나 친가족 식구들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표 IV-35>).

<표 IV-35>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2)

내 용	매우 필요	필요	약간 필요	필요 없음	Total
(5) 이혼가정의 자녀양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시설 (무응답:19명/15.0%)	62 (57.4)	35 (32.4)	8 (7.4)	3 (2.8)	108 (100.0)
(6)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아빠와 친인척 관계에 관한 프로그램 (무응답:22명/17.3%)	15 (14.3)	30 (28.6)	34 (32.4)	26 (24.8)	105 (100.0)
(7) 이웃 및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무응답:21명/16.5%)	32 (30.2)	33 (31.1)	32 (30.2)	9 (8.5)	106 (100.0)
(8) 이혼여성이 자녀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시설(무응답:18명/14.2%)	50 (45.9)	33 (30.3)	18 (16.5)	8 (7.3)	109 (100.0)
(9) 이혼여성가족을 위한 안내책자에 관한 것(무응답:14명/11.0%)	57 (50.4)	30 (26.5)	21 (18.6)	5 (4.4)	113 (100.0)



*왼쪽부터

매우 필요 | 필요 | 약간 필요 | 필요 없음

<그림 IV-21>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2)

7.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가족 삶의 현실과 특히 이들 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관련하여 응답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생애주기, 그리고 이혼과정의 적응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40.1세였으며 30대(48.8%)와 40대(40.9%)가 주를 이루었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44.1%)과 대학교 졸업(26.8%,)이 순으로 응답자의 80%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나타냈다. 대학교 졸업과 중퇴의 비율을 보면 36.2%정도로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86.6%가 일을 하고 있었으며 직업으로는 단순노무직이 30.7%, 사무직이 16.5%, 전문직이 15.0%, 판매 및 영업관련이 11.8%, 자영업이 9.4%의 순으로 나타나 단순노무직과 판매 및 영업 관련직이 많아 응답자의 학력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및 비숙련직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특별히 응답자들의 57.5%가 이혼 전에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비율을 볼 때 이혼전에 비해 이혼후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볼 경우 여성들이 이혼 후 경제활동에 참여함을 보여주었다.

소득수준은 주관적 평가이긴 하나 응답자의 70% 이상이 경제적 상태가 하층 범주에 놓여있었다. 실제 한달 소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57.5%로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의 85.8%가 한달 2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살고 있었다. 응답자 연령층이 30-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자녀와 관련한 비용이 적지 않은 바 이들 가족의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

생활비 조달은 본인 월급의 경우가 58.4%로 가장 많고, 정부보조금, 가족친지의 도움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혼한 여성들이 많은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가정을 영위해나가고 있지만 실제 한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들이 많다. 응답자의 주거형태는 전세를 제외한다면 응답자의 50%이상이 월세 등으로 주

거가 불안정하였다.

응답자의 가족상태는 주로 자녀와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여섯 사례가 자녀 외에 친정식구(부모, 남동생, 여동생 등)들과 함께 하였다. 주로 한 자녀를 둔 응답자들이 많았지만 두 명을 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첫째와 둘째 모두 아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첫째와 둘째 자녀의 평균연령은 모두 14세였으며 초중등학생들이 많았다. 응답자의 주 연령분포가 30-40대임을 고려해볼 때 초중등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이혼여성들의 자녀들의 학력분포와 관련하여 부모역할을 고려해 볼 때 여성들의 생애주기와 자녀의 연령대 사이에는 일정정도 유사한 연관성이 있다. 주로 30대에서 40대 여성들은 자녀의 학령기 시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에 놓여있고 또 그 안에서 자녀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인가에 따라 요구되는 부모역할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령기 이전의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서는 자녀를 맡겨야 할 곳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며 성인이 된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앞의 생애주기 여성들과는 다른 지점에서의 부모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이혼 전 결혼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7년으로 평균 약 10년 5개월이었으며 결혼기간의 분포도가 넓게 펼쳐져 있다. 이는 응답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서도 이혼시기에 따른 삶의 구체적 모습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혼하기전 별거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평균 1년 6개월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2년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이혼 후의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1년으로 평균 약 4년 4개월이었으며 대부분 이혼한 지 2년 4년 혹은 6년 정도로 협의이혼(78%)이 많았다.

이혼 사유에서 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로는 ‘남편의 외도’, ‘남편의 폭언/폭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남편의 외박/가출’과 ‘경제적 무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로는

역시 ‘남편의 외도’가 가장 큰 이유였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이 이혼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처음 이혼이야기가 된 시점에서부터 이혼하게 되기까지의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예외이기는 하지만 최대 25년까지였으며 평균적으로는 약 3년 2개월이었다. 특히 2년 이하에 응답한 경우 1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가 약 67%였다.

응답자들이 이혼을 결정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이혼결정전, 이혼하는 과정, 그리고 이혼 후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스트레스가 되었던 사항들로 나타난 것들을 보면 이혼결정 전의 단계에서 나타난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은 ‘남편의 폭언 및 폭력’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에게 미칠 영향’, ‘생활비 조달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하는 과정에서는 ‘자녀에게 미칠 영향’, ‘남편에 대한 원망감(분노)’, ‘남편의 폭언 및 폭력’과 ‘생활비 조달 문제’ 순이었다. 이혼 후의 단계에서는 ‘생활비 조달 문제’가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혼 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 ‘이혼녀에 대한 편견’을 들었다. 이혼여성들이 이혼과정의 각 단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특징은 먼저 이혼 결정전에 있어서는 “남편의 폭언 및 폭력”이, 이혼하는 과정에서는 “자녀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이혼 후에는 “생활비 조달문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어 이혼은 자신→자녀→생존의 문제로 결국은 이혼여성자신의 감정적 이혼,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부모역할, 그리고 이들 가족의 환경에의 적응으로 사회적 편견, 경제문제들이 단계별로 일련의 과정들에서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혼 후에 전남편과의 관계는 60%이상이 교류하지 않고 있었으며 교류가 있는 경우는 자녀와 관련한 이유(자녀와의 만남, 양육비 및 경제적인 부분, 자녀양육 방식, 자녀와 친조부모와의 관계, 한쪽의 새파트너로 인한 부모역할 문제, 한쪽의 재결합 요구 등)였으며 응답자들은 전남편들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부모역할을 해 줄 것과 양육관련사항에 대한 협조, 그리고 이혼사실인정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응답자들은 대부분은 재결합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소수만이 ‘부+모+자녀의 가족모습이 중요해서’와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힘들어서’를 재결합의 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재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원하였는데 재혼하려고 하는 이유들을 보면 아이 때문에 주저하기는 하지만 ‘하고 싶다’와 ‘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싶어서’, ‘부+모+자녀로 된 가족을 갖고 싶어서’, ‘노후를 위해서’, ‘성적으로 외로워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갖고 싶어서’ 등 다양하였다.

응답자들이 이혼 후 달라진 점은 ‘경제적 어려움’, ‘혼자서 부/모역할수행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양육부담 증가’,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의 순으로 나타나 본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에는 도움이 된 반면 자녀양육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혼 후 여성의 삶의 열악함을 시사한다. 특별히 심리정서적 안정면에서 도움이 된 경우를 보면 이혼 후의 상황에 대한 평화가 특징이었다(예: “집에 안들어오는 사람 아침까지 안기다려도 되는게 행복하다. 상스러운 말 안들어서 좋다”, “인생에 대해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아이들도 불안감에 쌓여서 집안이 전쟁터 같았으나 이혼후 표정이 밝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왜 이혼을 좀 더 일찍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도 해보았다” 등)

이혼과정과 자녀양육관련하여 먼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과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한 응답자가 많아(79.6%) 친권과 양육권 여부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과정에서 혹은 결정에서 자녀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64%이상이 남편과의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양육비’, ‘자녀가 남편과 만나는것’,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거주지’, ‘학업관련사항’ 등이었다. 특별히 응답자들이 상의가 전혀 없었던 경우를 보면 아이를 맡으려는 일념으로, 그리고 너무 급해서 아이를 떠 안을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엄마가 키우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 등의 이유를 들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남편이 아버지로서 자격 즉 경제적, 건강, 정서적 등의 면에서 자기가 맡을 수밖에 없는 현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혼과정 혹은 결정에서 자녀들의 반응을 보면 응답자의 50%이상의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나 태도를 보였고 자녀의 나이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자녀가

전혀 몰랐음도 42.6%나 되어 상당수가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자녀의 반응을 보면 ‘부모의 결정에 맡김’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들이 부모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응답자의 88%이상이 자녀와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혼하려는 이유’, ‘미안한 마음의 전달’, ‘자녀의 삶에 대한 변화’, ‘아빠의 생활’, ‘함께 살 부모’, ‘아빠와의 만남’ 그리고 ‘아이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감 심어주는 것’, ‘왜 아빠가 없는지에 대한 것’과 ‘추후 생활방식에 대한 것’ 등의 내용들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이혼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혼과정이 자녀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이혼과정의 스트레스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 표출된 적이 있다’에서 응답자의 63.9%가 경험함으로써 그 과정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녀에게 이혼과 관련해 아빠의 응답을 한 적이 있다’에는 54.5%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자녀를 자기편으로 끌어드리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적도 40%정도가 경험함으로써 상당부분 이혼과정에서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이혼 후 부-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기도 하다. 반면 응답자의 시각에서 자녀와 남편 및 시댁식구들에 의한 부정적 관계는 그 정도가 약하였다.

이혼 전과 비교하여 이혼 후에 자녀의 변화여부를 보면 응답자의 76%이상이 이혼 후 자녀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음을 말하였다. 구체적으로 ‘엄마에게 집착’하고 ‘친가와 멀어짐’, ‘외가와 가까워짐’ 순으로 나타나 가족관계에 대한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었고 자녀자신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성적의 변화가 제일 컸으나 친구와 멀어지고 행동장애를 일으키거나 비행 및 가출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자녀의 나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면들로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생활력이 강해지거나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등 어른스럽게 변해가는 모습, 이혼전의 힘들음을 벗어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오히려 가정의 안정된 모습을 가지게 된 것 등이다. 그러나 명절 때 외로워하거나 내성적으로 변한 것, 악몽을 꾸거나 남자에 대한 적개감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친구집과의 비교하는데서 오는 심적 어려움 등이 부정적인 측

면이 있어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고려되어야할 내용들도있었다.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여성들이 자녀에게 ‘자신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남편 역할의 기대’, 또한 자녀에게 ‘두 사람의 몫(아빠까지)을 기대’하는가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남편의 부재를 인지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어나갔다. ‘자녀에게 신경 쓰다보니 자신의 개인생활이나 욕구들을 이전보다 자제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60%에 달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혼 후 여성들의 자녀와의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기에 바쁘며 자신들의 삶의 질은 분명 부차적이 되고 있음을 말하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녀가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하지 않지만(10.8%) 자녀가 전남편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67.5%가 별로 혹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성들이 이혼 후 자녀와 남편이 아버지로서의 관계유지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먼저 이혼 후 부모역할과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실제로 본인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로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에 응답자의 87.1%가 응답함으로써 자녀와 관련한 비용의 문제가 가장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양육과정의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버지 엄마의 역할에 대한 역할규정과 역할 수행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어려움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것과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역할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녀의 결혼관 혹은 이성관’ 영향에 대해 67.6%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도 관련하여 이혼한 가족 자녀들의 가치관형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와 관련해 의논할 사람이 없는 것’에 59.2%가 그렇다고 하여 남편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시각에서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은(혹은 앞으로 겪을)어려움 꼽은 것은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이 가장 높았으며 ‘친구들이 부모에 관해 물을 때 당황함’, ‘결혼할 때 상대방 집안에서의 반대나 거부감’

등이 순이었다. 이를 볼 때 양부모 이데올로기로부터 내재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무엇인가 결핍된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반영하여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이 가장 큼을 말하였다. 크게는 표출되지 않지만 ‘사회에 나가서 직장 구할 때의 불이익’(8.7%)도 염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가정내에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오는 자녀들의 어려움도 보여지고 있어 이혼한 여성들이 부모역할수행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음이다. 한 응답자의 기타의견에서 나타난 것은 자녀가 스스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하길 꺼려한다라고 하여 가족의 개념이나 가족의 형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특별히 초등학생 자녀들 둔 부모들의 경우 학교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행사들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는데 유치원에서 아빠참여수업이나 모시고 오는 것이 많았으며 초등학교에서도 가족신문, 가족사진, 가족계보 알아오기, 그리고 가족소개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말하였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여성민우회의 가족과 성 상담소가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한부모자녀들을 대하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한부모자녀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였는데(2002)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조사에 의하면 저학년 가족관련 단원에서 아빠가 없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소외(가족소개, 가족자랑, 가족그리기 등)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과서가 이미 양부모가족을 정상가족 모델로 하고 있고 교사들이 한부모가족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실에서 위축되고 아빠없는 불쌍한 아이로 취급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아이가 한부모자녀인 것을 알면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특별하게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와 한부모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보통의 아이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한부모자녀로 낙인찍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기도 하는 경우도 보여졌다. 초등학교 교사 7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교사들이 한부모자녀들에 대한 학교생활 전반이나 성격, 행동,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사별가정보다 이혼가정의 아이들에게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편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이 교사나 학교현장만의 문제가 결코 아닌 우리 사회의 오랜 사회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의식변화나 이를 위한 교과과정의 변화, 교사들의 연수가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임은 분명하다.

이혼 후 자녀가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엄마의 지원 하에 잘 영위될수 있다고 생각되어 역할의 하나라고 볼 때 응답자의 50%정도만이 아빠와 아이가 만나고 있었으며 ‘생일 등 특별한 날에만 만난다’(50.0%)가 많았지만 ‘정기적으로 만난다’(40.9%)의 비율도 그리 낮지 않았다. 같이사는 엄마를 고려하여 자녀가 아빠를 만나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는데(물론 자녀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전혀 안본다’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고 있다’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자녀가 한쪽 부모를 만날 때 편안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혼한 부부들이 담당해야할 몫임을 보여준다. 어머니가 대신할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80%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써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한쪽부모의 역할상실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으며 실제와 인식간의 갭을 볼수 있는 한 부분임을 드러내 주었다. 이혼 전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50%이상이 긍정적임에도 이혼 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서 1인당 양육비는 통상 1달에 30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알고있는 응답자는 50%미만이었으며 양육비 30만원이 현실성에 대해 응답자의 71.6%가 부정적이었다. 이는 현재 생활비에서 자녀와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에서도 나타나는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응답자의 70%정도가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와 관련한 비용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는 ‘학원비’가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78%가 현재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전 남편의 경제적 무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음’, ‘양육비 안 받는 조건으로 아이 맡음’, ‘상대방이 안주겠다고 선언’ 등 다양하였다. 문제는 무엇보다

다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결핍뿐만 아니라 양육책임회피로 인한 이유가 매우 큼을 보여준다. 남편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과 과태료 혹은 감치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47.2% 정도였다. 따라서 상당수 이혼가정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이미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혼여성가족의 경우 여성의 경제력의 필요와 더불어 양육비지급의무준수를 위한 강제조치 그리고 이혼후 자녀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자는 응답자의 80.3%가 ‘엄마’라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아이가 원해서, 모성애, 친밀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 엄마의 세심한 배려로 아이가 성장할수 있기 때문에, 자식사랑은 엄마인 것 같아서, 아이들이 엄마품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등으로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모성애의 역할의 큼을 지적하였으며 딸이기 때문에, 남편의 무책임, 남편의 알코올 중독 등의 이유도 있었다. 반면 아버지가 키워야한다는 이유를 보면 아들이라는 것과 호주제 등을 들었다. 자녀를 엄마가 키워야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해보았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127명 중 43명인 33.9%가 그렇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이었다.

이혼 전과 비교하여 이혼 한 후 현재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응답자의 72%가 현재의 생활이 더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자녀의 삶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전보다는 만족스럽다고 느끼기는 하였지만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이혼전과 비교해 볼 때의 만족정도에서도 비슷한 분포를 보여 이혼 후 삶의 만족도에서는 여성들에게 보다 크게 드러나는 것 같다.

이혼 후 자녀와 관련하여 상담에 대한 욕구는 50%이상이 있었으나 실제로 응답자의 22%만이 상담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80%이상이 상담이 실제적 도움이 되었음을 말하였다. 상담한 곳으로는 학교교사, 정신과, 여성단체

및 복지관, 상담소, 친구, 이웃, 종교지도자 등 다양하였으며 주로 대인관계, 자녀문제로 건강과 학교부적응, 친구구관계, 정서적 불안정, 사춘기, 자녀의 도벽과 성적 문제, 엄마에 대한 자녀의 지나친 애착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많았으며 본인의 대인관계와 우울증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다. 상담을 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는 40.7%가 ‘그럴 필요가 없어서’와 ‘상담할 곳을 몰라서’(24.7%),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13.6%), ‘도움이 안되어서’(6.2%) 등을 들었는데 상담관련 홍보의 필요성과 문제에 대한 오픈마인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혼 후 생활하면서 응답자들은 경제적 안정지원에 관한 욕구가 제일 강하였으며 안정적인 가족관계프로그램과 여성자신의 감정적 독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자녀양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시설, 이웃 및 공동체와 함께 할수 있는 시설, 그리고 자녀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이혼여성가족을 위한 안내책자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반면 자녀의 아버지나 친가쪽 식구들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이혼여성들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현실과 대응방식

1. 심층면접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및 관련사항 특성	133
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에 대한 구체적 실태	136
3. 요약 및 소결	196

본 장에서는 이혼여성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심층면접조사결과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연구에서 양적 부분(설문조사)과 질적 부분(심층면접)이 병행될 때 보통 양적부분에서 살펴볼 수 없는 부분들을 특화해서 보여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책임과 부모역할의 과도한 이중부담, 양육비지급 실태 등의 부분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질적 부분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²³⁾

1. 심층면접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및 관련사항 특성

이혼 가정의 자녀양육에 관한 지원방안을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혼 후 자녀를 맡아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혼 여성들의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계층, 여성의 나이, 자녀의 나이, 양육비 지급의 여부, 전남편과의 이혼 후 부모역할 등 다양하다. 이혼 후 자녀 양육의 다양한 차원을 드러내 보이고 그것에 따른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서 가능한 다양한 조건에 있는 이혼여성들을 인터뷰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혼한 부모들의 인터넷 모임인 ‘해피데이트’와 재혼정보회사 행복출발, 가정법률상담소, 여성단체와 사회복지시설중 한부모 자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의 도움을 얻어 만날 수 있었다. 심층면접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및 관련사항은 <표 V-1>과 같다.

각 사례들의 이혼 사유로는 남편의 외도, 경제적 무능, 불성실, 성격차이,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폭력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남편의 외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혼사유는 이혼 후 전남편과의 감정적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혼 후 자녀를 위한 협력적 부모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3) 특히 설문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양육비를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얼마나 불만이 있는지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였다.

여성들의 연령대는 20대 1명, 30대 14명, 40대 6명, 50대 3명을 이룬다. 자녀들의 연령대는 7세 이하가 10명, 초등학생이 18명, 중학생이 7명, 고등학생이 1명, 20살 이상이 4명을 이루고 있어서 주로 부모역할을 많이 필요로 하는 학령기의 이혼가정 상황의 부모역할, 경제적 부담등의 이중, 삼중 역할간의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각 사례의 수입정도는 100만원 미만인 5명,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9명, 150만원 이상 200만원 사이가 2명, 300만원 이상이 1명이며 현재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는 상태가 5명이며 수입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2명이었다. 현재 직업이 없는 사례 중 <사례 2>는 퇴직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고 <사례 8>은 은행 대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례 16>은 남편으로부터 월 80만원의 양육비로 생활하고 있고 <사례 9>는 별다른 소득 원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 양육비 지급 현황은 단지 네 사례만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액수는 각각 월 45만원, 50만원, 80만원, 150만원에 이르고 <사례 19>는 일시불로 3천만원을 받고 있어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터뷰 사례자들은 대개 이혼 전에 직업이 없었으나 이혼 후부터 직업을 갖기 시작한 특성을 보인다.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한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직업은 주로 학습지 교사, 영업, 판매직등에 몰려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업은 출, 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많은 노동시간을 요하는 직업이어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역할의 수행과 늘 갈등상황에 여성들을 놓이게 하고 있다.

<표 V-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 및 관련사항

사례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	결혼 기간	이혼후 기간	별거 기간	자녀 (연령)	이혼사유	양육비 지급 상황
1	34	고졸	옷가게	100-150	4년 5개월	3년	없음	딸(8세)	남편외도, 불성실	월 50
2	34	대졸	무직	퇴직금	8년	1년 4개월	없음	딸(7)	남편외도	30만원씩 6개월 지급 이후 두절
3	46	고졸	할인마트 개서	100	15년	4년	없음	딸 (13, 15)	남편불성실	월45
4	31	대졸	법률 사무소	300	3년	2년	없음	딸(4세)	남편, 시댁 과의 마찰	못받음
5	37	고졸	학습지 교사	100	8년	5년	2년	아들, 딸 (12, 10)	남편외도	월150
6	36	대졸	무직	150	4년	2년 7개월	없음	아들(6)	남편외도	못받음
7	39	고졸	일당직	4-50	9년	2년	1년	아들(11)	남편사업 부도	못받음
8	38	고졸	무직		8년	9년	없음	딸, 아들 (9, 7)	시댁과의 마찰, 남편무능력	못받음
9	37	대졸	학습지 교사	270	10년	1년	4년	아들(6)	남편 무능력	못받음
10	36	대졸	무직		8년	5년	없음	아들 (13, 11)	남편외도, 무능력	못받음
11	39	대졸	학교 사무실		7년	2년	2개월	딸, 아들 (11, 7)	남편구타, 알콜중독	못받음
12	55	대학 원졸	카드영업	150	6년	17년	없음	딸 (22, 20)	성격차이, 남편외도	못받음
13	36	고졸	카드영업	200	10년	1년 4개월	없음	딸, 아들 (10, 7)	남편외도	못받음
14	37	고졸	다단계 판매	40	1년 8개월	4년	18개월	아들(8)	남편경제적 무능력	못받음
15	41	고졸	카페	150	8년	5년	없음	딸, 아들 (12, 10)	남편외도	못받음
16	42	대졸	무직		10년	3년	18개월	아들 (15, 12)	남편외도, 권위적 태도	월80
17	41	대졸	공장	100	11년	4개월	없음	딸, 아들 (11, 6)	남편구타	월 50 2회받음
18	39	대졸	공부방	50	8년	1년	3년	딸(12, 10, 9)	남편외도	부정기적, 내키는대로
19	43	대졸	과외		10년	3년	없음	딸(13)	성격차이	일시불 3천만원
20	39	대졸	자영업		11년	5년	없음	딸, 아들 (11, 7)	성격차이	못받음
21	53	중졸	자활	5-60	17년	8년	없음	아들 (25, 22)	성격차이, 남편무능력	못받음
22	46	고졸	자활	79	15년	4년	없음	아들, 딸 (14, 18)	남편무능력	못받음
23	29	대졸	연구소	150	2년	5년	없음	딸(5)	남편외도, 구타	못받음
24	40	고졸	보험영업	150	10년	5년	없음	딸(14)	성격차이	못받음

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에 대한 구체적 실태

이혼여성의 부모역할에 대한 구체적 실태는 본 연구의 분석틀과 심층면접결과를 토대로 구분지어진 행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혼여성이 처하는 사회문화적 현실(법적 지위, 경제적 제약,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이혼부모 역할모델의 부재) 속에서 이혼 여성들이 경험하는 상황(감정적 이혼, 법적으로 불리한 지위/경제적 제약에 따른 고충, 사회적 편견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고충, 한부모역할 담당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행동적 측면(소극적 대응형, 순응형, 적극적 대응형)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가. 감정적 이혼

이혼은 단순히 서류상의 법적인 이혼이 완결되는 사건은 아니다. 이혼 후 여성 자신이 감정적인 이혼을 완수하는 것은 여성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된다. 이혼 후 달라진 자신의 정체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 활동 수반되는 변화에 대한 적응은 이혼 후 자녀양육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다음의 사례는 이혼 후 감정적 이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을때의 힘들어 자녀에게 어떤 영향으로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때 막 힘드셨을 때 애기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그냥 같이 산다는 거. 그냥 같이 사는 애가 있다는 거였지 그애한테 그랬어요. 내가 막 애들하게 신경 못 써주고 애가 되게 자는 거 보고 있으면 안됐고 그런 생각 들고 그랬지만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니까 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진짜 정말.

<사례 6>

심층면접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감정적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전남편의 애매한 태도와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대표적이었으며 감정적 이혼을 위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혼의 긍정적인 면 부각시키기, 자신의 일을 갖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만들기 및 참여하기, 그리고 주위 가족들의

지지를 통해서이다(<표 V-2>).

<표 V-2> 감정적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대응전략

감정적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편의 애매한 태도 -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
감정적 이혼을 위한 여성들의 적극적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의 긍정적인 면 부각시키기 - 자신의 일을 갖기 -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만들기 및 참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동호회 ○ 여성단체 ○ 상담기관 - 주위 가족들의 지지

1) 감정적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법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도 여성들은 대개의 경우 이혼했다는 사실, 이혼한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등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변화된 정체성과 관계, 생활에 대해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적 이혼의 처리를 어렵게 만들면서 본인과 자녀에게 힘든 시간이 된다.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계획을 어렵게 만드는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전남편의 애매한 태도-재결합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를 들 수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혼이라는 사실, 더구나 이혼한 여성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주고 있는 사회적 편견을 들 수 있다.

가) 전남편의 애매한 태도

이혼 당사자들간의 이혼에 대한 애매한 태도들은 이혼 후에도 빨리 변화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새로운 생활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어렵게 만든다. 전남편의 애매한 태도는 여성들로 하여금 이미 끝난 예전의 생활에 다시 집착하게 하며 이전 생활의 연장 속에서 살게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한부모가 되었다는 사실, 달라진 부모역할,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역할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 당시 남편에 대해 어떤 심정 이셨어요? 이혼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왕래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이 변해요. 그 사람이 좀 전에는 원수로 생각되다가도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고. 앉아서 얘기 잘 하다가 싸울때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다 짬뽕 되가지고. 그랬다가 막 뭐라고, 어후, 진짜. 남편이 너무 밍기도 하고. 저 사람 분명 내 남자였는데 다른 여자한테 정신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질투심 있잖아요. 질투심도 엄청 많아요. 밍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아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이 생활 정리해야되. 여러 가지예요 정말.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 그 여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구. (그런 여자를 주셨나봐요?) 그래요. 막 그렇게 있었으니까 나도 그사람 계속 만났고. 이 쪽도 정리할 수 없고 마음적으로. 발길 딱 끈구 나 이제 저리로 가봐야 되. 너하고 나하고 뭐냐 이제, 이혼 했으니까 남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싫어서, 자기도 헤어지면서 니가 밍고 싫어서 헤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러구. 자기 마음 모르겠다고. 하여튼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게 그게 밍더라구요. 나를 확실히 정리를 하던가. 우리 식구들도 모이면 다 그 얘기. 도데체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정리를 한다는 거냐. 왜 안하냐느냐. 그거예요 바로. 그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 라니까요. 어느 한 쪽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그렇게 계속 자기 마음 한 구서에 남아 있었으니까. 지금두 연락하고 그런거 아닐까 싶어요.

<사례 6>

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

한국 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타당한 위치를 부여받고 있는 이혼의 원인은 남편의 구타, 외도, 노름이다.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아닐 때 이혼한 여성들은 ‘그것도 못 참고’ 이혼한 문제있는 여자 취급을 받게 되며 참을성 없음, 뭔가 문제 있는 여자라는 낙인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공공연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요주의 인물이 되기도 한다. 이혼이라는 사실 자체로 문제있는 인간의 취급을 당해야 하는 현실은 이혼한 여성들이 쓸데 없이 극복해야할 하나의 과제가 되며 이는 감정적 이혼의 시기를 길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다음의 대화들은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혼여성이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관련된 어려움은 멀리서가 아니라 주로 주변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초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이혼 후 변화된 내용에서 특히 친정과 친구 이웃과 관련하여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면: 혹시 이혼하시고 나서 생활 꾸려나가는 주변에서 혼자 산다 이혼했다는 것 때문에 안좋은 시각을 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우신 적은 없으셨어요?

윤: 그것도 상처라면 상처겠죠. 가장 공격일호가 우리 엄마였어요. 그렇게 살려면서 왜 헤어지고 나오냐고, 그렇게 산다는게 엄마가 봤을 때는 불행해보이니까 허덕허덕 거리고 지금이야 안정이 됐지만 각자가 뿔뿔이니까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엄마가 봤을 대는 엑스포니까. 애 아빠하고 재결합을 애길 할 때마다 저는 화가 나쎄요. 그런 남자한테 다시 또 가라고 하니까 8년 9년 동안 애들을 방치하는 아빠를 또 한번 결함이라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겠냐고. 엄마가 일호였구요. 우리 엄마도 재혼을 차라리 하라고 하지만, 엄마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나 애들을 위한 재혼도 있겠지만, 엄마의 사위감도 필요했었던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내 남편이고 애들 아빠가 되어야 하는데, 엄마 일호는 사위감이었어요. 이차가 내 남편감 애들 아빠감이에요. 엄마도 좀 편히 살자, (좋은 사위 얻어서) 처음에는 야속했어요. <사례 8>

면: 사회적 편견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노: 전혀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 자각지심인 것 같애.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우리 사촌오빠가 한번 그래서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촌오빠가 우리 아버지 보다 세 살이 아래예요. 되게 큰오빠지. 그런데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러더라구.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니 남편이 널 때리기라도 했니, 바람을 폈니. 국으로 가만히 있고 살지 무지 화나더라구. (화나죠) 그날 밤까지 화가 나서 씩씩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의 강한 얘기들은 안 들어 봤는데 그런 시선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권위적이고 편파적인 사람. 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어야지. <사례 9>

우리나라 남자들의 이기성인데 내가 처음에는 한 2년은 애 아빠하고 재결합을 해야되겠다 애들도 있고 하니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물으면 기다리는 거지 모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내가 어느 날 안 기다린다 그랬더니 그 애 아빠 친구들이 나를 만나지 말라고 그러드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애 아빠를 기다린다니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안 기다린다 나도 이제 내 갈길 갈거다 라고 하니까. 내가 혹시나 라도 자기 와이프들을 어떤 나쁜 길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집이 나한테 하는 거야. 아주 친한 집이. 자기 남편이 그랬다는 거야. 야 그거 몰랐냐. 우리 나라 남자들의 이기성에 대해서 뭐 새삼스럽게 안 것처럼 얘길 하나. 여자들끼리 깔깔거리고 웃은 적이 있었는데. 참 사람들 인식이 분명히 그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지 않고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자기 와이프랑 한테 그리고 나는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일단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를 잘 알던 사람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례 10>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연결되어 한 동안 우울한 증세에 놓여있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는 이혼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의 케어를 받아야 하는 자녀를 방치하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때 너무 피해의식을 같거나 그니까 피해의식도 많았어요. 내가 딴 사람보다 못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나, 내 자신이 평균치에 못 미친다는 생각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막 그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한 이유는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되게 못났다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사례 6>

2) 감정적 이혼을 위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력

가) 이혼의 긍정적인면 부각시키기

이혼은 여성들에게 한국의 가부장적 결혼생활에서의 탈피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혼한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이혼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자신에게 인식시키고 이를 이혼 후의 긍정적인 생활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기도 한다. 이들에게 이혼은 가부장적 결혼내에서의 부당한 성역할 분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

도 되는 것이며, 집을 하숙집으로 여기고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명절 때 고용된 일꾼처럼 시댁에 가서 일만해야 하는 상황의 졸업이며, 남편의 허락 없이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결혼생활 속에서 사장되었던 내 안의 잠재성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긍정적인 계기를 의미한다. 여성들은 이혼 후 이것을 깨닫고 이혼 후의 새로운 생활의 계획으로 연결시키게 된다. 면접자의 “이혼 이후에 많이 변화하셨죠? 성격도 많이 변하시고?” 질문에 <사례 16>는 자신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성격이 많이 변했다기 보다는 나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게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생활에서는 그냥 표현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있기도 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일도 말해봐야 안 먹히니까 그냥 참고 말고, 어디 가고 싶어도 내가 할 거 다 하고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그걸 마음껏 표현하고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싶다는 걸, 그걸 내 나름대로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거 같아요. (면: 이 번 중국 여행은 패키지로 가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혼자서 가거든요. 나는 원래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여행다니고, 쯔가난하게 살아도 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그랬는데, 쯔 그게.. 그렇게 표현만 해도 왜 쓸데없는 소리 하나,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묵살을 해버려요. 아예 나중에는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주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원래 유럽 갈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아직 못 하겠고 다음으로 옮겼어요. 제가 쯔 돈을 더 벌어가지고 내년애나 가야겠죠. 지금도 그렇게 내가 꿈꾸는 걸 계획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실행해 옮기면 된다는 거.. 그게 나는 대단한 자유인 거 같아요. 결혼생활에서는 정말 생각도 못 한 일이거든요.

<사례 16>

<사례 9>는 이혼전과 이혼후의 자신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하였는데 감정적 이혼을 위한 여성들의 적극적 노력을 보면 이혼하고 나서 더 편하고 좋아진 부분을 중심으로 다음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바와 같이 다양한 모습들이다.

면: 이혼하시고 나서 어떤 식의 변화들이 있나요?

노: 일단 자유로왔어요. 자유롭고, 그 사람을 딱 보면 거의 헤어지려고 생각할 시점에서는 집안 공기 자체가 막 바위 눌린 것 같은 느낌들이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편했고,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될 지 계획 같은 거 세우면서 너무 즐거워졌고, 그리고 난 우리 애들이 그렇게 정말 아빠나 엄마한테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현재로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 아빠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받아서 차라리 잘됐다. 그리고 아빠가 차라리 외국 가 있다라고 애길 하면 편할 것 같았어요. 편하고, 우리 그러고 이런 단위가 있잖아요. 가족이 정말 사랑하면 아빠 엄마 애들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 그냥 요 단위가 좋은거야. <사례 9>(긍정적 이혼)

그렇죠. 내가 그 견뎌던 거. 애기를 못 견뎌 했으니까. 전남편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런 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게 편하고. 남자가 없어지면서 시댁이라는게 다 잘려 나가니까. 남들은 다 행사에 동원되가지고 명절이네 뭐네 다 난리 치는데 나는 친정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올케들 해 주는 거 나는 약간 도움만 주면 되고 내 볼일 있으면 애기 볼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때를 이용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편안함 자유스러움. 특히 자유스러움. 누구한테 보고하고 다닐 필요도 없는거고. 내가 기본 생활만 유지하면 되니까. 우리엄마가 그런다니까요. 웬만하면 너 안가는게 낫지 않냐고. 너 또 남자 수발하고 그러지 말라고. 가고 싶으면 가고 선택이라고. 나 같으면 예전이건 나이 들어서건 이혼을 했다고 하면, 엄마 본인이나, 절대 가지 않을거라고 얘기 하세요. 그런 반면 우리 아빠는 받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해 주는 거 받는 입장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니까 가라고 꼭. 빨리 가게 되면 가라고 그렇게 얘기 하시고. 형제들도 다 가라고 얘기하고. <사례 16>

(면: 이혼하고 변하신 부분은?)저도 더 좋아졌어요. 경제적인 부분은 어려워요. 하다못해 아이를 돌보는 것도 그런데. 근데 마음을 안 쓰니까. 그 지지리 궁상을 떨거나 삶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술에 찔어서 자학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거 처럼. 만약에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달린다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추진력이 더 있겠지만은 내가 달릴려고 하는데 물귀신처럼 잡고 있는

듯 하는 그 느낌에서 해방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는 흥분했어요. 근데 다만 아이하고 떨어져있을 때에는 너무 정서적으로 불안했어요. 밖에 나가서 결국 엄마들만나고 아이들 만나는 거라 속으로는 울어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 그게 아이랑 떨어져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막 돌아서서 그냥 눈물이 나거나.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해결만 할 수 있으면은 이혼이 차라리 더 잘 됐다라는 생각.

<사례 14>

그 사람이 일단 집에 안 들어왔으니까. 남편이 집에 안들어오면 미쳐요. 근데 그게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활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문잠그면 그대로 누우면 자면 되니까. 옛날엔 바람소리, 누구 발자국 소리 들으면 지금 들어오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거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사례 11>

이혼 하고 나서 편해진건 밤늦게 술마시고 들어오는 남편 언제들어올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거하고, 휴일같은거 이럴 때 티브이가 하루종일 켜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거. 티브이가 하루종일 켜져 있으니까 정신이 없고. 주부가 힘든건 그런거 같아요. 한 사람은 여유를 부리고 있는 데 또 한 사람은 계속 바빠야 하는거. 그게 힘든거지, 집안일 자체가 힘들다기 보다 상대적으로 그게 힘든거 같아요. 근데 혼자 살면 그냥 나는 내 스케줄대로 하면 되니까, 옆에서 빈둥대는 사람 없으니까, 아이씨 왜 나혼자만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 안해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편하죠.

<사례 1>

계속 더 살았으면 더 나빠졌을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합의이혼 한다고 서부지원에 갔는데 그날 열 몇쌍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로 젊었어요. 나머지는 다 40대, 50대. 그거 보면서 그 생각 했어요. 야, 나는 정말 다행이다. 저 사람들도 결혼할 때 이혼 생각한 사람 없고, 근데 저 사람들은 저 때 이혼을 하면 얼마나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많은가,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하냐. 차라리 내가 나아. 그때 씩씩해져야지 하는 생각 했어요. 젊었을 때 아닌건 아니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게 좋은거야. 그거보면서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하자 그런 생각했어요.

<사례 1>

나) 자신의 일 갖기

이혼 후 경제적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갖는 것은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 일단, 많은 여성들이 이혼 후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게 되므로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실제적인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비단 경제적인 생활고를 해결한다는 것에만 국한되는 의미는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회적 관계망들을 차단하고 남편을 통해서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 상황에서 이혼은 기존의 관계망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일을 갖고 자신의 관계망을 만들고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은 여성들의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인터뷰에 응답한 여성들중 이혼 후 새롭게 일자리를 갖게 된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이혼이라는 사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신의 신경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른 영역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

처음 이혼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힘들었지만 아이가 불쌍했어요. 왜 불쌍했냐면 한달내에 다 끝났거든요? 길게 끌어왔자 득될것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 슬픔 온갖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깐 강남역이 회사였는데 신촌까지 2호선 타고 가는데 한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강남역에 신문팔이 파는 곳에 나이드신 부부가 계셨어요. 맨날 신문사보고 그랬는데, 회사도 계속 다니고 결재 서류도 계속 보고 그러는데 보긴 보는데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고 머리가 너무 복잡한거예요. 신문감판대를 보니까 신문은 안 보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부부가 보이는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라구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창문쪽에 머리박고 계속 울었어요. 나는 저렇게도 못 되는구나 그 생각에 계속 눈물이 나더라구요. (근데 어떻게 잘 넘기셨어요?) 직장 다닌게 많이 도움이 됐던거 같아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해야할 일이 있었고. 만일 계속 집에 있고 그랬으면 굉장히 오래 갔을거 같아요. 그만둘 때 그래서 직장에 미안했어요. 내 리듬을 찾는데 직장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고나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주위에서 회복이 빠르다고 그러더라구요. 친구들도 그러고, 6개월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신문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부들 보면 그때는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아, 난 나이들어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웃음) 그러면서 저 혼자 웃고. <사례 23>

(수원에서 공부방 하셨잖아요? 그거 하면서 많이 변화가 되셨어요?)

그럼요. 내가 맨날 짐싸들고 여기가고 저기가고, 동생네 가고 엄마한테 가고, 얼마씩 있다가 또 집에 들어가서 청소만 해 놓고 다시 짐싸서 나오고,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계속 그 생활에 빠져있구.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잠 안오고 분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하니까, 나 같은 경우는 공부방 하니까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 오니까 그 애들이랑, 또 애들이 즐겁잖아요. 그 애들이 들려주는 얘기 듣구 그러면 또 즐겁구, 학부형들이랑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로 신경이 분산이되고 그러면서 점점 좋아졌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뭐 죽을 일이나 그냥 편하게. 남 얘기 안 좋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감싸주는 이웃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드러내놓았었으면 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다 싶고. 그러면서 일을 좀 더 빨리 갖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례 6>

제가 지금 부업으로 암웨이 사업을 하고 있잔아요. 이혼하고나서 친구 통해서 만났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판이 있는 상황에서 만나서 쉽진 않았지만, 제가 이게 좋은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요. 제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극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암웨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학 책이나 그쪽 책들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거기 분들이 너무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너무나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도움 받으신 부분은?) 제가 읽은 책들이 다 저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주고 모든 성공이나 실패가 나의 선택이고 내 능력이고 내 의지대로 변화해 나갈 수 있다는 거고 가장 큰 기본적 정신이.꿈은 누구나 이루어지고 내가 믿는대로 내가 생각하는대로 이루어진다는게. 기독교 정신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본인의 능력에 따라 모든게 바뀔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개념 자체가 저에게 힘을 심어주고. 억울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잘못된 거 없고 너무나 잘 살아왔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이 상황이 끝인거 같고 나락인거 같고. 근데 전혀 아니고 정말 제가 제 노력으로 그리고 한부모라도 혼자라도 너무나 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편견이라는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편견이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됐구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 느낄 수 있게 해 준거 알게 해 준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느정도는 용서가 되요. 그 생각에 대해 막 물입을

하고 집착을 하고 그런게 아니라 그래, 상황이 그랬었던 거고 그 사람들은 그
게 다인줄 알고 살아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나에게 나
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틀린 사람이고 그걸 바꾸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거고 그냥 그들대로의 삶을 살고 나는 아니었으니까 나대로 삶을
개척을 하면 된다. 생각을 갖게 되고. <사례 4>

다)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 및 참여하기

이혼 후 여성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
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격려를 해 주면서 힘든 상황에서 적극적으
로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온라인 상에서 만들어
지기도 하고, 여성단체등에 찾아가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
며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나만 특별한 경험을 한 문제있는 사
람이 아니라는 사실,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 새로운 생활의 적응을 위한 실제적인 정보의 교환등을 나눌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도 이혼이라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
견을 극복할 수 있는 지지집단을 만나고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혼
후의 적응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제가 인터넷 상에서 그런 모임을 여러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
게 남자친구가 많다는 걸 또 알아요. 저희 집에도 자주 오고 저는 집도 오픈
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모임 있을 때 저희 집에 와서 하라고. (지금 어떤 사
이트?) 거의 친목이에요. 거기서 좋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인터넷
상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친구들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많이 도움이 되
줬어요. 저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친구들 다 발 벗고 나서서 해 줄 정도로(언
제 가장 힘드셨어요?) 내가 그 모임에 99년에 들어갔거든요? 그 모임 거의 초
창기 멤버이고 운영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오픈을 하는 편이에요. 어디
나 오픈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 숨길 일 아니다. 뭐 죄 지었냐? 왜 숨기냐? 그
래서 정현씨도 그렇지만 저도 역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숨길건 없다는 생
각을 했어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왜 여자들이 이혼했다
고 숨어서 지내야 되느냐. 죄지는것도 아닌데. 동호회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웠어요. 심리적으로 제가 다운 났을 때 라든가. 제가 기복이 심할때가 있어요. 그 때마다 이 친구들이 옆에서 함께 해 줬어요. 함께 해 주고 격려해 주고 저를 막 세워주고, 업 시켜주고, 이 친구들은 이혼을 한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미혼이거나 결혼했거나.

<사례 5>

(면: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럼요. 나는 별거인 상태에서 민우회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민우회 나오면서 이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참 많은 힘을 얻었다고 봐요.(면: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고?) 그것보다는 땀 활동이나 뭐라그럴까, 이런 단체의 경험 있잖아요. 꼭 한부모모임의 경험뿐 아니라 민우회라는 걸 통해서 내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좀 더 크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 거 같아요. 집에 앉아서 전업주부로서 남편과의 힘든 문제, 그것만 막 생각하면 더 힘들었을 텐데.. 나오면서 바빠지고 시각을 좀 넓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례 16>

사실 부모 자식간에 그렇게 얹매이는 게 또 싫거든요. 애들하고만 이렇게 끈끈하게 맺어져 있으면 이건 또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는 나로서 인정할 수 있고 애들은 애들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뭐라 해야되나 온라인 상에 이혼한 사람들 사별 그런 모임에 저는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어차피 일은 그때도 집에서 계속 청소일을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 때부터는 애들도 크고 했으니까 저녁때 좀 나가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거기 모인 애들 데리고 야외로 놀러가면 데리고 가기도 하고. 지금은 애들이 그런 모임 자체를 자기 생활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난 아저씨 누구 보러간다 그래도 일단 거부감이 없고, 누구 아저씨가 집 앞에 와 있댄다 그러면 나도 따라 나가서 먹으면 안되냐 그러고. 따라나와서 저녁도 먹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요.

<사례 10>

라) 주위 가족들의 지지

이혼한 여성들이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가족들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가족들이 본인의 이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고 앞으로의 생활에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 주는 것

은 이혼 여성들의 이혼 후 적응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저희 친정에서도 친정오빠가 셋이 있고 친정 엄마가 계시는데 도움 많이 되주세요. 오빠가 돈도 많이 보태주시구요 엄마가 올때는 큰 올케 눈치보인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밀반찬, 냉동실에 있는거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먹일려고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다닌다고. 저번에는 그러시더라구요. 언니가 나가고 있는데 냉동실에 먹을게 하두 많아서 그냥 갖고 왔다고. 언니 모를거야 그러시더라구요 엄마가. 이러면서 김이고 멸치고 갖고 오셨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받아 먹으면서도 아휴, 엄마한테 못할짓 시킨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연세드신 분이 나 아니면 저렇게 할 일이 없는데 나 때문에 며느리 눈치 봐 가면서 저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울컥 하더라구요.

<사례 3>

면: 처음에 이혼 결정하실 때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노: 우리 아버지.. 니가 영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우리 엄마도 잘 했다. <웃음>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만약에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을 더 좋게 말했을 꺼 예요. 좋게 말했고, 사실 있는 그대로 말을 안 했을 것이고. 사실 그대로를 다 말한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니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사니 라고 말했고. 제 동생 조차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내가 남편을 좋아했다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꺼야. 그런데 이제 항상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사례 9>(긍정적 감정이혼-가족의 지지)

나. 이혼 여성의 부모역할 모델

1) 이혼 전 부모역할

이혼에 따르는 새로운 부모역할의 시기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이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인 서류처리가 끝나고 물리적인 공간상으로 헤어진 이후부터를 이혼으로 본다면 한 부모로서의 역할만을 이혼에 따른 부모역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혼상황은 부부나 자녀 모두에게 있어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후 변하기 시작한 가정상황에서부터 시

작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혼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더 객관적인 관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혼에 따르는 부모역할은 이미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이혼 전 부모역할로서 자녀에게 이혼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시키고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부모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혼전 부모의 역할로 대표적인 것은 자녀에게 이혼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이혼사실에 대한 모호한 설명, 이혼사실을 감추기, 이혼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등이 있다(<표 V-3>).

<표 V-3> 자녀에게 이혼 설명해 주기

자녀에게 이혼을 설명해주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사실에 대한 모호한 설명 - 이혼 사실을 감추기 - 이혼 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의 현실 인식시키기 ○ 이혼 후 자녀의 신변에 대한 안심시키기 ○ 이혼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죄책감 없애기 ○ 이혼에 대한 콤플렉스 없애기 ○ 재혼 가능성에 대한 설명

가) 이혼 사실에 대한 모호한 설명

이혼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부부는 이혼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변화, 충격, 상처, 상실감등에 휩싸여 이 상황이 정작 자녀에게 어떤 의미와 경험이 될 지에 관해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다. 이때 자녀들은 무언가 변화를 감지하면서 정작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기 쉽다. 부모들이 그 상황에 관해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들은 분위기 상으로 집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거나 아빠가 집을 나간 후에야 그 분

위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

집안 일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이나 통제권이 주어지지 않은 자녀의 입장에 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과 미래에 대해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는 현재의 애매모호한 상황 자체가 커다란 불안과 함께 오래 지속되는 심리적 상처를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이혼의 과정에서 자녀에게 그 상황을 자녀의 수준에 맞추어 이해시키고 설명하려는 부모의 역할은 이혼 가정의 자녀에게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은 이혼과정에서 자녀를 누가 맡을 것인가,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등의 ‘자녀에 관한’ 고민은 하지만 그 상황에서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느낄지에 관한 ‘자녀를 위한’ 고민은 별로 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혼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이때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아빠가 떠난 후에 짐작으로 그 상황을 알게 하거나 이혼에 대한 설명 없이 ‘죽었다’, ‘그냥 이제 같이 안산다’라는 말로 상황에 대한 자녀의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애들한테 애길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지. 근데 큰애는 느낌상 뭔가를 느꼈을 것 같애.

(그때 애기는 안 해요. 큰애가?) 다섯 살 뉘 그럴 때 애들이라는 거는. 그때 묻고 알 수 있는, 몰라 우리 애는. 지금부터 옛날이어서 그랬는지 묻고 그런 내가 그 기억이 없어. 느낌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지도 뭔가 그랬던 것 아닌가 싶어. 그리고 나서 아빠가 떠나고 이러면서는 애기를 했던 것 같아. 내가 명확한 기억은 안 남아있는데. 그거는 그때는 애들이 알게 되겠지. 아빠가 집을 떠나면서는 알게 된거지. <사례 12>

(이혼하면서 가장 힘든 게 경제적인 거라고 하셨는데, 애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가장 무엇을 걱정했을거라 생각하세요?) 애들요? 글썄요. 애들이 약간은 불안함이 있었겠쥬.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는 그런 불안감들.. 아빠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젠 아빠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같고. 그 당시에는

‘아빠 죽었다고 생각해~’막 그랬거든요. 아빠가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아빠 없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면 ‘죽었다고 그래~’ 막 이랬거든요. <사례 16>

이혼 당시 자녀의 나이가 어렸을때에는 막연히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더 커서 ‘알아들을만한 나이’가 되면 설명해 주겠다고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모들이 생각하는 ‘알아들을만한 나이’와 자녀의 ‘이해 가능한 연령’이 반드시 일치하지않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빠가 집에서 나갔을때는 아빠를 찾지는 않았나요?) 찾았죠. 근데 이미 한 돌 때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아빠는 한번씩 오는 사람. 그래서 아마 개한테 충격이 덜 했을거야. 늘 같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지금요?) 내가 이혼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너는 엄마랑 살고 크면 아빠 만나면 된다. 니가 원하면 아빠 만날 수 있다고 연락해가지구.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엄마가 나중에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너 또 다른 아빠가 생길수도 있다고. 너 아빠는 있지만 또 새 아빠가 생길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더 이상 보채거나 그러지는 않구요. 다만 이혼이라는 거는 몰라요. 이혼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글썄요. 다른 사람이 이혼 같은 거 이야기 하고 그러면 어쨌면 이해할지도 몰라요. 바로 알아들을텐데. 모르겠어요 내가 애한테는 이혼했다고는 말 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되는데 애한테는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가 되지 않구 그냥 조금 더 커가지구 내년이나 학교갈 때 애가 조금더 구체적으로 물을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얘기를 듣구. 그러면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너는 엄마랑 사는거구 아빠는 따로 사는거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할 려구요. 큰 고민은 아니에요. 시간이 약이에요.(웃음) 진짜. (웃음) <사례 6>

나) 이혼임을 숨기기

이혼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 자녀에게 아빠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다거나 직장 때문에 가셨다고 이혼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자녀들은 이미 분위기 상으로 이혼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 자녀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유형의 엄마들은 차후에 자녀들에게 이혼 상황을 알리고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갈등스러웠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하기도 한다.

(벌거 시작했을 때 자녀 나이가?)

7살, 5살. 애들은 그때 몰랐어요. 애들은 눈치는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그때는 저도 정신이 없었고, 일단은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일이 많아서라고 얘기했고, 아빠는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남자들 공통적으로 쓰는 말 있잖아요, 아빠 미국갔다 올게. 공부하러 갔다올게. 애네들은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 사람이 애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또 아니라고 하면 애들한테 혼란이 오잖아요. 아빠는 그랬는데 왜 엄마는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주변에다가는 친정엄마나 동생들한테는 미국간절로 얘기해달라고 입다물고 있었는데 애들 보기엔 아무리 엄마가 티를 안 낼려고 해도 엄마 우는 모습 보고 애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알죠. <사례 15>

(이혼했을때는 아무것도 몰랐을때겠네요?) 헤린이가요? 네, 몰랐죠. 지금은 아빠를 자꾸 찾아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네 살이면 다 알아들을 나이죠?) 네 이해는 하는데 이혼이라는 말을 잘 모를 때이니깐. (어떻게 설명해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헤린이한테 아빠 유학 갔다구 그렇게 얘기를 했데요. (아주 어렸을 때 헤어진 부부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 주더라구요) 예, 엄마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말을 해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럼 그냥 유학간 걸로 알고 잇나요?)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 줬어요. 엄마랑 아빠랑 지금 같이 못 사는 상황이라서 헤린이랑 아빠랑 못 만나는데 나중에 헤린이가 아빠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다 그렇게. <사례 4>

다) 명확한 설명과 안심시키기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아이와 함께 이혼을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혼과정에서의 부모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사례들은 (1) 자녀의 연령 수준에서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혼을 이해시키고 (2) 이혼에 따르는 자녀의 신변에 관한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며 자녀를 안심시키고 (3)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

각을 자녀에게 심어주고 (4)경우에 따라서는 재혼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해 주어서 자녀로 하여금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완충기제를 제공해 주는 특징을 보인다.

<사례 1>의 경우 이혼과 자녀양육에 관한 책들을 참고하며 이혼당시 자녀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흔히 갖게되는 ①죄책감(이혼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②이혼 후 자신의 보호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등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이혼원인은 아이와 상관없으며, 이혼과 상관없이 부모 모두 아이를 사랑하고, 이혼 후에 그 아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는 앞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다.

(애기한테는 뭐라고 이야기 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랑 아빠랑 자꾸 싸워서 살면 미워하게 되니까 따로 살기로 했다. 따로 살기로 했는데 따로 사는 거 말고는 달라지는게 없다. 너는 언제든지 다 만날 수 있고 전화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거 다 제공받을 수 있고. 암튼 너가 아빠 자주 못 보는 거 말고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엄마 아빠 다 너 사랑한다...그리고 내가 계속 췌뇌를 시켰어요. 니 잘못 아니고 이혼이 나쁜거 아니다. 엄마 나쁜 사람 아니고 아빠도 나쁜 사람 아니다. 그니까 아빠랑 엄마랑 친구사이 하기로 했어....엄마랑 아빠랑 너무 사랑해서 널 낳았고 아빠랑 엄마랑 싸운거랑 너랑은 아무 상관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해 줬어요. 부모가 싸우면 애들이 심리적으로 죄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해 줘요. 이혼, 유아교육과 관련한 책을 계속 읽었어요 뭐 하라는대로 다 했어요. 그 책에 전문가들이 하라는대로. 그 말이 다 맞는 거 같아요. 일단 이혼하려고 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게 내가 버려지는게 아닐까. 애 입장에서는 아빠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해 주는거예요. 아빠 목소리도 들려주고, 아빠는 어딘가에 살아있고 멀지 않고, 또 우리는 헤어질 때 서울에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재혼을 해도 서울에 살기로, 언제라도 달려와 줄 수 있게. 기본적으로 아이의 신변에 관한 안심을 줘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돼요. 애들은 부모가 이혼하면 내가 굶어 죽는거 아닐까, 불에 타 죽는거 아닐까 이렇게 어른들이 보기엔 정말 말도 안되는 거 같아 보이는 걸 실제로 걱정을 해요. 그런거 안심시켜주고 사랑받는다신.

둘이는 사이가 안 좋아도 둘다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계속 줘야 되요. 그럼 애가 혼란스러워 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혼란스러워 하지 않아요.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만보면 아이한테 아무 답도 내려주지 않아요. 애가 불안해 하지 않게 답을 내려주지도 않고 혼자 알아서 스스로 생각하게 내버려 두니까 애는 혼란스러운거죠. 당연히 혼란스러워 하죠. 근데 설명을 해주는거야. 우리는 이러저러해서 헤어지지만 앞으로 너를 어떻게 키워나갈거다 이렇게 애한테 답을 내려줘야 하는건데 아무것도 해준 애기 없이 어느날 헤어져 버리니까 애들은 도무지 이 사람들이 계속 살건지 아닌지 모르는거란 말이에요. 그런 명확한 해답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이 혼란스러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니 방법이 틀렸어라고 말해요. <사례 1>

다음의 사례들에서도 부모의 이혼과 관련해 자녀가 가장 불안해하는 문제인 자신의 거처,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안심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면: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적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이혼을 하면 엄마랑 산다, 이런 얘기는 했지. 그걸 안심시켜줬지. 엄마는 죽어도 니네 안 버리고 니네랑 산다, 그러면서 안심시켜줬지.

<사례 14>

아이들한테 아빠가 나쁘게 말을 했어요. 음..... 안했으면 참 좋았을텐데..(아빠가요?) 그것도 좋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저는 굉장히 그 막 너무 증오스러웠어요. 술 먹은 상태에서, 그것도 엄마랑 아빠는 이혼한다, 이혼하면 너희 새 아빠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음...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할 수 없어서 이혼했다. 그렇지만 너희들 끝까지 엄마는 너희들 책임지고 살 것이다. 이런 얘기 해 준 적 있어요. 벤치에, 공원에 가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그러면서 다독거리주고 그랬어요.(그때 애들이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그때... 제가 안 아주면서 그냥 엄마, 너희들하고 같이 끝까지 살 것이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랬더니 좀 자기들도 엄마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주 밝게 놀이터로 달려갔어요. 그런 적은 몇 번.. 이제 이혼하고 바로 몇 번 그랬어요. 그 후로는 제가 너무 시간 내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안할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얘기 이런 거는 아이들이 이제 알고 있고..... <사례 12>

다음의 두 사례는 자녀로 하여금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을 내면화 하지 않도록 이혼을 정상/비정상의 틀이 아닌 다른 식의 가족형태로 인식하도록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 애기가 그걸 너무 부담이나, 다른 사람이라 다르다는 거 때문에 콤플렉스 그런거 느끼지 았구 그냥 편하게 있는 상황 받아들일 수 있게 내가 도와주고, 그냥 마음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게 저것만이 옳은건데 물론 저렇게 하면 좋은거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거 아니구. 뭐 엄마랑 사는 사람도 있고 아빠랑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았으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누구랑도 살 수 있는거다. 가족의 형태는, 그렇게 해가지구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게 좋다. 그렇게 마음 갖구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도 금방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애가 크는 동안 내가 옆에서 그렇게 애기 해 주고 그러면 애도 심리적으로 힘들지 았을 수 있지 았을까.

<사례 6>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지. 그런데 내가 이제 간단하게 아이한테 한 얘기는 이 세상에서 너.. 개가 기차 블록을 좋아하는데.. 니가 이걸 가졌어. 그런데 또 저걸 갖고 싶어 그러면. 너 많이 사줬잖아. 할머니도 사주고 외할머니도 사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지 았느냐. 그러면 너 옆집에 선정이 봐봐. 너 개 롤러브레이드 있어? 없지. 그러면 넌 있잖아. 개는 그럼 모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지만 넌 이게 있잖아. 비교를 해주면 어 그렇구나 생각을 해. 넌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잖아, 삼촌도 있고. 그런데 다른 친구는 엄마도 없이 아빠랑 사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게 선택이거든. 사람마다 가질 수 있는 건 다 다른거야. 엄마도 마찬가지고. 어떤 엄마는 집에서 너희들 봐주는 엄마도 있고. 너는 할머니가 봐주잖아. 그거는 다 어떤 상황이거든. 그렇지만 니가 거기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항상 주입을 시키죠. 넌 감사해야 돼. <웃음> (애는 알아듣나요?) 못 알아 들어도.. 하여튼간 수고를 하죠.

<사례 9>

변화는 그 자체가 두려움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변화를 겪어야 하는 사람이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미리 심적으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일때, 즉 변화에 대한 통제권이 박탈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는 심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온다. 이혼에 따르는 변화는 비록 엄마와 아빠가 헤어졌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엄마와 아빠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연결된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설명은 단지 왜 이혼했으며 누가 너를 맡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모의 재혼 가능성까지 이어져야 한다. 김정은씨와 딸과의 대화는 좋은 예이다.

어른들은 항상 이성친구가 필요한건데, 아빠도 여자친구 필요하고 엄마도 남자친구 필요한데 그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거라고” 말하면서 어른들은 “같이 같이 만지구 벗구 뽀뽀도 하고 그런 행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필요한거라고. 그러면 ‘엄마 재혼하면 나 눈 감고 있을 때 잠깐 뽀뽀해요.’ 그러면 “안돼. 새아빠가 썬피해 하잖아.” 재는 어른들이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알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도 엄마나 아빠가 자길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자유로운거 같아요. 그래서 재혼을 하면 자기가 가족이 늘어나는 거지 엄마를 뺀다고는 생각 안해요. 애아빠나 저나 재혼 생각이 거의 80%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가 당황하지 않게. <사례 11>

2) 이혼 후 부모 역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게 된 여성들은 변화된 부모역할의 상황 앞에서 크거나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적 능력, 기질의 차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내에 지배적인 성역할화된 양부모의 모델, 자녀양육이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과 의무로 존재하는 양육의 비사회화라는 사회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표 V-4>).

<표 V-4> 이혼 후 부모역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 성역할에 기반한 양부모 중심주의
 - 이성자녀 키우기의 어려움
 - 아빠역할의 사회적 신화
 - 이혼가정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부모의 강박증
- 경제적 책임과 부모역할의 과도한 이중부담
- 자녀에게 투사되는 전남편에 대한 분노

가) 성역할에 기반한 양부모 중심주의

자녀와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엄마와 아빠가 모두 있는 가정이 정상적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이혼후의 단독 부모역할의 기능 저해요인이 된다. 이혼 후 자신과 다른 성별인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아들의 역할모델은 아빠라는 사회적 등식 앞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아들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실제적’ 아빠 역할이 없는것에서 오는 문제라기 보다는 아빠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기반한 ‘상징적’ 존재로서의 아빠의 부재로 인한 걱정이 이혼 후 자녀양육에서 늘 따라다니는 걱정이 된다. 이것은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타인의 부정적 시선에 대한 강박으로 이어져 이혼전보다 자녀를 좀 더 단속하거나 엄하게 훈육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 이성자녀 키우기의 어려움

엄마와 아빠 모두가 다 존재하고 딸의 역할모델로 엄마를, 아들의 역할모델로 아빠를 상정하는식의 가족 모델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현 사회에서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엄마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점점 커가는 아들 양육에 관한 부담감과 자신없음이다. 2차성징을 나타내고 있는 아들을 대상으로 몸이나 성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딸만큼 편하게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다.

처음에 제가 만들었을때는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 근데 밖에서 보기에 좀 막간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울타리를 친게 아이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모여서 같이 마음 나누는 거고. 아이들 중심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회원들이 많으니까 버라벌 직업이 다 있어요. 이벤트 하는 친구가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전시회 좋은 거 있으면 번개를 쳐요. 코너가 있어요. 내가 쓰는 번개. 그런거 만나서 가고. 누가 뭐가 필요한데 누구 있으면 줘라, 빌려줘라. 또 엄마가 키우는 아들이 몽정을 했다, 아빠가 키우는 딸 문제 뭐 이런거 서로 상담도 해 주고. 자녀랑 성별이 다른 부모들이 힘들어 해요. 성교육.

<사례 11>

(엄마가 혼자 키울 때 자녀랑 성이 달라서 생각되는 어려움은?)

지금까지는 없고. 이제 나도 애기가 크면 그런거 걱정은 되요.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있는게 좋잖아요. 내가 정말 딸이면 걱정할게 없는데. <사례 6>

여자애는 또 괜찮은데 남자애가 좀 크닌깐 약간 힘들더라구요. 근간 여자 혼자서 키우는 게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아빠라는 존재를 또 그리워해요. 시선도 남자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런 시선도 있고 해서. 내가 만약에 정말 재혼을 한다고 하면 애들 어렸을 때 아빠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애가 남자애가 문제점이 있더라구. 내가 아무래도 일하다보니깐 신경을 못 쓰잖아요, 애들한테. 다행히 공부들은 잘 하고 칭찬받고 이러긴 했는데 남자애한테는 자신이 없더라구. <사례 15>

다음의 사례들은 엄마 혼자서 아들 키우기의 어려움을 외부적으로 해소해 보려는 시도들을 보여준다. 이들은 학교에 찾아가 남자교사를 배정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남자친척들에게 아빠가 평상시에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 줌으로써 아들을 위한 일상적인 남성 모델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면: 아빠를 찾거나 그런 것도 거의 없겠네요?

윤: 네 근데 아마 우리 아들은 많이 외로워했던 것으로 알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일때 4학년 5학년 지가 신체적으로 (몸이 달라지고 이럴 때) 에 그럴때 외로워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방법이 없어 가지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애가 컴퓨터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성격도 날카롭고 뭐하고 그런 애가 백팔십도 바뀐 모습을 보면 뭐하고도 못 바꿀 만큼 굉장히 고마운게 그건데 특히 애가 운동을 좋아했는데 축구를 좋아했는데 같이 차줄 아빠가 없는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목욕할 때도 동반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됐고 생활하면서 민첩하게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것. 담임선생님이 꼭 여선생님이 걸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땐가 6학년 땐가 제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애 6학년 때는 남자선생님한테 묶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도 한번 찾아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남자선생님을 묶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엄마도 누나도 이모들 일곱에 삼촌 하나 있는게 여자같은 삼촌이니까 장가 안 갔지만 할아버지 알콜중독에 남자 모습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는 할아버지 게다가 선생님도 맨날 여선생님만 차지하니, 여자한테 체이잖아요 오죽하

면 남자를 묶어주십시오 두번을 찾아갔는데, 제가 아무리 어떻게 못해도 사람이 하는 건데 한번 어떻게 해보세요. <사례 18>

면: 혹시 애들한테 이래서 아빠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하세요?

고: 집에서 목욕을 하는 것도 좋은데, 추운 겨울에는 목욕탕을 자주 갔어요. 목욕탕에 가면 사람 생긴 모습도 고대로 보여주고 이런 것 때문에 자주 갔는데. 이혼하고 나서 목욕탕을 한번 갔어요. 겨울이었어요. 3월이니가 우리 창훈이는 아빠와 남자탕에 갔는데, 이번에는 봐주라 데리고 들어갔거든 애도 컸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아빠가 필요하긴 필요하기보다. 그것보다 남자가 필요하구나. 그 날은 그렇게 하고, 그 이후부터 목욕탕을 갈 수 가 없는 거야. 애 없을 때 우리 둘만 갈 까도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언니가 있는데, 내가 딸2에 아들 1예요. 형부가 있으니까 목욕탕에 가면 애들 데리고 가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어요. 그쪽까지는 그런 생각까지 못한거예요. 말로는 내가 그랬다 이랬다 하면 그것을 캐치해주길 바랐는데 안 해주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할 때 남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 내 동생이 남동생이 있기는 한데 개는 표현력도 없어요. 이런 것은 집에서 하는 수밖에 없겠다. <사례 13>

(2) 아빠 역할의 사회적 신화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 달라진 부모역할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자녀에게 아빠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에 관해서 이다. 이때 아빠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의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닌, ‘아빠없는 아이’라는 꼬리표 자체가 아이의 능력, 성품과 상관없이 아이에게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로 인해 아이가 결핍감을 갖고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것에 관한 상징적 존재로서의 아빠의 영향력이다.

(엄마가 해줄 수 없는 아빠만의 역할은?)

뭔가를 막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워낙 사회에서 두부모가 워낙 정상적으로 되어있으니까 아무리 한부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할려고 노력하고 저도

스스로 그럴 수 있는거다 해린이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겠지만 쉽진 않은거 같고 아빠라는 존재 자체, 남들과 비교되는게 제일 큰거 같아요. 얘기가 아빠를 필요로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잖아요. 아빠라는 존재 자체에 서 필요를 하더라구요. 찾더라구요. 그냥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는 없으니까 남들은 있는데 그게 싫은가 봐요. 다른 애들은 아빠 얘기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혼자있을 때 보다는 그런데 가는게 비교가 되죠? 스스로 그럴까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을 하게 된게 자기 사촌 언니들 보고서. 자기는 이모부라고 부르는데 언니들은 아빠라고 부르니까. 나는 왜 아빠가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구요.

<사례 4>

그러나 현재 한국 가족의 특수성을 살펴볼 때-경제, 사회적인 가정 외적 활동으로 거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아빠- ‘아빠없는 아이’ 라는 꼬리표가 붙어오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은 일종의 사회적 신화의 반영일 뿐이다. 많은 사례들이 이혼 전에도 별로 아이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아빠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아빠의 영향력을 따져 본다면 사회에서 생각하듯이 이혼 전이나 후에 그렇게 치명적인 큰 변화는 별로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적은 애는 그 사이의 아빠라는 갈증은 전혀 없는 것 같애. 크면서 상대방이 어떤 유치원을 간다던지 학교를 간다던지. 학교도 요즘은 아빠들 안 오니까. 유치원에서 오면 정말 성실히 따라 다니는 아빠들은 아빠와의 등산 뭐 이러면 꼭 참여하고 고릴 때는 좀 느낄 것 같아요. 상실감을 느끼지만,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우리 큰애한테도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밀착되면서 둘이 막 그렇게 지내다가 아빠가 없어졌다면 너무나 충격이겠죠. 지금 저한테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전 정말 정신적인 고아가 될 것 같애. 지금 이 나이에. 그런데 우리 애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 아빠가 큰 영향을 안 미쳤어요. 미칠려고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닥치면서 느낄 부분인데 개네들 인생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크게 요인이 되어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사례 9>(이혼후에도 별 영향 미치지 않을만큼 중요하지 않은 평상시의 아빠 역할, 아빠역할의 신화)

(특히 아빠 역할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들 때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그럴 때 없는데. 좀 부러운건 있죠. 아들이니까 휴일날 같은때 나가서 공차기라도 하고 남자답게 놀 수 있는, 아버지랑, 그런걸 내가 못 해주니까. 나는 놀이동산 가고 너무 여성스럽게 놀잖아요 같이.(웃음) 그럴 때 좀 부러운 생각은 드는데. 굳이 돈이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그런 상황 아니라면 굳이 아버지 역할 크게 그럴 때 잠깐씩 내가 느끼는 건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절실하구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남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이나 벌어서 주는거지 무슨 역할을 하냐고. 아무튼 그래요.

<사례 6>

몇 사례에서는 이혼을 통해 자녀가 아빠와 헤어진 것이 오히려 더 자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즉, 모든 이혼이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어떤 이혼은 자녀에게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상시에 아빠의 폭력, 가정에 대한 불성실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가정은 이혼이라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셈이다.

고: 누구나 아빠는 자식한테 잘하려는 마음이 있고, 좋은 것 먹여주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워낙 이들에 한번이니까 애들한테 낯설지. 작은애가 여섯살 때 아빠가 엄마한테 화를 냈었어요. 그 다음날 들어왔는데 화를 냈어요. 작은애가 그걸 들은 거야. 엄마, 아빠는 왜 필요한 거야?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느닷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있는데 갑자기 와서 성질부리고 화를 내고 나갔으니 애한테는 황당한 거야. 아빠가 꼭 필요한 거야? 그런 질문을 하더라구요.

<사례 13>

면: 그 이제 이혼하신 지가 2년 됐다고 하셨죠?(네) 이혼하시고 나서 아이들 키우시면서 이혼하고 났더니, 더 힘들어졌다 이런, 아이들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 좀더 어려워졌다, 아니면 또 이런 거 수월해 졌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 방해자가 없기 때문에 첫째는 전반적으로 너무 수월해지고 여러 가지로 다, 그리고 힘들다 특히 이혼났더니 아이들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이 남편이 아니고, 이 남편이 아니고 이 남편하고는 양육 이거에 대화상대자가 못돼요. 한 마디 하면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제 그 탓으로 금방 돌아오니깐 뭐든, 그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대자로서는 절실히 요구되지

않고 그냥 단지 나혼자 양육하기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어떤 대화 상대, 양육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그런 정도 필요성만 느꼈어요. 애 아빠로서가 아니라, 애 아빠로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냥 훌개 분해진 것, 오늘 저녁에 늦게 와서 어떤 또 술 먹고 와서 어떤 행패를 부릴까 어떠한 부담을 나에게 줄까 아이들 어떠한 폭언을 할까 이런 걱정 안한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김: 네. 아이한테는 아빠의 모습이 좋았던, 도와주었던, 사랑해줬던 이런 아빠가 분리됐으면 그런 걸 절실히 느끼겠지요. 그리고 찾게 되고. 근데 항상 방해자고 항상 힘들게 했고 했던 아빠가 없는데 아이로서는 뭐 오히려 더 나은 거 같겠죠 뭐. <사례 13>

(3)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본인의 강박증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양육시간의 부족, 경제적인 어려움등이 자녀의 성장에 다소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두 부모와 함께 사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나 저소득층의 자녀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 유독 이혼가정이라는 그 자체가 발생시키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혼가정 자녀가 했을 때 더 문제시하고 확대해 부각시키는 사회적 편견은 여성들로 하여금 이혼후의 자녀 양육에 많은 강박을 갖게 한다. 인터뷰한 사례들은 이혼 후 자녀들을 좀 더 엄격한 방식으로 훈육하는 쪽으로 변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여성이나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안겨준다.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색안경이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강박인 것이다.

우리 딸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마음속의 상처와 응어리들이 많아서, 엄마한테는 모든 것을 안심을 시키고 밖에 나가서 표출을 하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원망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나쁘게 하려고 하는. 내가 애들한테 주입을 시키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엄마, 너하고 세 식구 사는데 남들은 엄마, 아빠 네 식구 살잖아. 엄마가 너희를 키우기 때문에 밖에서 예의바르지 않거나 행동하면 나쁘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엄마가 없는 동안에는 엄마나 마찬가지로. 대신 해야해. 큰애한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면이 많았어요. <사례 3>

이혼하니까 주눅들지 않고 좀 당당하게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어떨때는 말투도 좀 강하게 하면서 퇴근해서 오면 밥먹고 설거지도 좀 해야지 엄마 일하고 왔는데 야단치고 그러면 가서 하고 그러더라 구요. 그것 뿐 아니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키워야 되는되고 내가 남자를 잘 몰랐고 실패라면 실패고 이런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들은 똑똑하게 해 가지구 진짜 성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남자도 좀 많이 알고 그런거 좀 있어요.

<사례 3>

나) 경제적 책임과 부모 역할의 과다한 이중부담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이자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의 유일한 담당자로서 이혼 여성들은 과다한 이중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자녀가 어느 정도 고학년 일 경우에는 학원등으로 자녀의 시간을 채워줄 수 있지만 저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해 줄 수 없는 시간으로 자녀의 발달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중 <사례 5>는 둘째 아이의 이상행동으로 별다른 대책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혼 여성들의 과다한 이중부담은 여성들에게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 심한 회의를 불러오게 된다.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충분히 시간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다가도 몸이 고달프고 정신적인 부담감에 시달려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시 자녀에게 되돌리기도 하는등의 모순적인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이혼 당시 자녀를 자신이 맡겠다고 했던 결정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기도 한다.

저는 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교재도 준비해야 하고 채점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에 맞추어서 교재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 보통 9시 반 10시 넘어서 끝나요. 저희 애들은 하루에 한 두세시간 정도밖에 못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보내고 저녁에 들어와서 숙제했니 씻어라 자라 이런거 잔소리 하다보면 한 두세시간 정도, 그게 제일 맘에 걸려요. 그래서 아들이 걱정되서 제 친구에게 상담을 붙여주고 계속 그랬는데 딸 애는 그때 5살이었으니까 그냥 놔뒀어요. 어려서 그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터진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정서장애 같은거. 밤에 매일 오줌을 한 두번씩 싼다던가. 제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나간다던가. 그리고 아이가 벽이

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다 튕겨져 나오는데 느껴져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듣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튕겨져 나가고, 학교가서도 듣는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여기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일단은 아이가 더 우선이고 생계도 생계지만 이 아이를 여기서 잡아주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을 거 같아요. 이 아이의 소원은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하는거거든요. 일단은 이 직장을 그만두자. 제가 지금 대책없이 그만두는거거든요. 그럼 정시에 나가서 정시에 퇴근하는 직장을 다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이에 마땅한데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례 5>

면: 결혼하셨을 때랑 지금이랑은 이혼을 통해서 애들 대하는 태도가 변하나요?

고: 변화는 너무 소홀해졌죠. 내 일이 너무 많아지고, 피곤해지니까 했니? 어디 했니? 만 해줄 뿐 전에는 같이 책 읽어주고, 음악 틀어서 듣게 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끔 전부 없어졌어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해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귀찮리게 해줘야지 하는데, 하나도 못하는 거야. 한문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조차도 생각만 있을 뿐이지 실천이 안 되는거야. 딸한테는 작은놈은 하나도 못 봐주고 있는 과정인데, 애가 학습능력이 있어요. 뭐든지 하려고 하고. 큰애는 학습이 힘든 부분인데, 작은놈은 너무 잘해. 집중력도 있고 하려고 하고. 중요한 시기에 엄마가 옆에서 더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주니까. 저학년 때는 학교에서 상 받아오는 것은 엄마의 노력이에요. 숙제도 다 엄마가 하고. 나는 슈퍼우먼이 되어 해요. 엄마도 되어 하고 아빠도 되어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일하고 와서 그냥 쉬면 되지만 나는 일도 하고 와서 밥도 해줘야 하고 애들 공부도 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야. 애들 학습적으로 봐줘야 할 부분을 못 채워주니까. 이제는 일 때문에 힘들어져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직장 가면서 월급 받는 일이 아니고 영업일이라. <사례 13>

희생당하는 애들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힘들더라구요. 내가 엄마가 너무 돌봐줄 시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맨날 미안하고<웃음> 그거를 자꾸 제가 치료받으면서 그걸 벗어나야 된다 의식적으로 느끼긴 하지만 그때 뿐이에요. 마음 속에는 늘 그게 쌓여있어요. 엄마가 진짜 월수금에 시험기간에는

거의 매일 나가거든요, 학원에. 그러니까 뭐 거의 돌봐줄 시간이 거의 없죠. 항상 보면 자는 모습 제가 저녁 해 놓으면 데워서 먹고 이런 흔적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사례 12>

면: 그 일을 같이 나눠서 할 사람이 필요한..

그렇죠. 저같은 경우는 돈은 내가 벌어도 먹고 살아요. 그런 것 보다도 따뜻하게.. 예를 들어서 그 역할을 우리 엄마라도 해줄 수 있으면 괜찮아요. 아빠의 역할을...언니가 주변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상황이 안 되니까. 누구라도 챙겨주고.. 내가 저녁때라고 한 번 가보면 쓸쓸한 거예요. 저녁 때 개네들이 하나가 다섯살이고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늦은 애거든. 그리고 돌이 있는 거보면 가슴이 몽글하죠. 돌이서 맥없이 있잖아요. 엄마가 그러는 것 보다는.. 먹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인제 애가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책가방 챙겨, 너희들 공부 하자, 이러면 될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애 묶는다는 될 게 아닌데 내가 힘드니까 애를 묶잖아요. 너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 엄마가 모든 걸 다 하는데..막 이렇게 혼내게 되는거야. 그러면서 마음 아프고.

<사례 15>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데 달라진 점은?)

일단 집안일, 가사일은 시간일 줄어들긴 했는데요 훨씬 더 피곤해 저요. 그게 생각을 해 보니까 아마 책임감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기대던 부분이 없어진 셈이니까 그런것들이 머리를 아프게 하고 어깨를 짓 누르고 이것 때문에 더 빨리 피곤해 하는거 같아요. 아이는 이전보다 객관적 시간으로는 아이보는 시간이 전보다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사례 23>

잘해주자 마음 먹다가도 실컷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에 딱 현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질러 있고 애들은 숙제 아무것도 안해놓고 그리고 있으면 정말 아무생각도 안나고. 한번은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얹혀놓고 그랬어요. 너네 아빠한테 가서 살아. 더 이상 엄마 너네하고 못 살아.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사례 5>

과외 끝나고 직장 끝나고 과외 하고나면은 저녁 7시가 되거든요. 7시 아이, 그

말간 아이 막 유아반에 정말 미안해서 7시 30분이 거의 선생님이 퇴근시간인데 저는 7시부터 여기 성수..... 여기 저 건대 역 있는데서 아이있는 성수동까지 정말 가슴이 타요. 여기 정말 특히 유명하게 차가 막히는데(엄청 막히죠, 네) 정말..... 그리고 나서 차에서 내리면 한참을 걸어가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달렸던거 같아요. 아침에 아이 맡기고 학교로 달려가고 차에서 내려서는 선생님 너무 미안해서 그것도 또 제대로 어느 때는 두 달에 한 번 밀리는 때도 있고, 고용료가, 이러다 보면은 정말 가시방석이잖아요. 끝나고도 달리고 나면은 아이업고 올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되나 이런 좌절감같은 것도 많이 들었어요.

<사례 12>

다) 자녀에게 투사되는 전 남편에 대한 분노

전 남편과의 문제로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이혼한 상태에서 여성들의 자녀 양육을 힘들게 하는 감정적 부분은 전 남편의 부정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서 발견할 때이다. 이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합리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엄마로서의 이혼 여성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을 자녀에게 투사하면서 자녀 양육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에 대한 감정적 이혼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애들이 커가면서 이혼하고 애를 키우는 게 왜 어려운 가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가하면 나도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게 뭔가하면 내가 키워서 내 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스타일대로 키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커 갈수록 아빠 성격 그 쪽 집안의 성향이 나와요. 그거야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게 나오는데 내가 이 남자랑 아주 그 어려웠던 점 있잖아. 부딪혔던 점. 내가 정말 싫어했던 점. 이 점이 애한테 딱 나와서 나와 맞닥드릴 때 아 막 주저앉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랑 대화가 안 풀리고 답답했고 힘들었던 그 부분을 그 성향을 가진 지금 딸과 맞닥드렸을 때 안 풀리고 답답하고 힘들때 정말 자지러 지는 거야. 싫어지고 정말 미워지는 거야. 어머 김소라딸이라고 키웠는데 아닌데 김인범 딸이잖아. 이렇게 되는거야. 너무 당황해. 근데 내가 우리 큰애랑 맞닥드려요. 큰애가 아빠쪽 성향, 아빠쪽 집안 성향과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내가 굉장히 싫어하고 나와 타협이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좀 이기적인 면,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점 그런 거라든지 우리 큰애가. 근데 그게 이제 개 생활과 내 생활들, 개 생활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

랑 물려요. 그럼 그게 딱딱 드러나요. 그랬을 때 굉장히 정말 당황스럽고 엄청
정말 아주 징그러워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어차피 딸이 독립체인걸, 할 수 없
다. 지 인생이다. 내가 아무리 내 삶에서 온 경험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게 잘 수용이 안 돼요..., 이혼하고 애를 키운다는 거가 이런 면에서 어려움
이 진짜 어려운거구나. 애가 커가면서 남편에게서 싫었던 점 부딪혔던점 해결
되지 못했던 경험을 반복해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로는 그게 진짜로 어려울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 내가 막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내 경험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막 3,40대 이혼한
엄마들이 애들 정신없이 잘해줄려고 키우는 것 그걸 보면서 나는 말을 해 주
고 싶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젠가는 그 남자의 애라는 게 딱 내 눈앞
으로 드러났을 때 그 애기를 해주고 싶어. <사례 12>

특히 광민이 한테는 큰아들로서의 기대치가 있고. 있는 것 같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나고, 개한테 화 많이 나요. 그 화를 내면서 가끔 30%는 지 아빠한
테 화를 내는 것 같애, 내가. 사실이에요. 그거를 없앨려고 되게 내가 후회를
하지. 이걸 정말 객관적으로 혼냈는가. 아닐 때가 많아요. 지 아빠한테 대한
어떤 속상함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럴 때 나오는 거 보면은. 지 아빠
뒤통수 났을 것도 보기 싫다니까 가끔은. <사례 9>

3) 이혼후의 적극적 부모역할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키우게 된 여성들은 두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가족
형태가 정상이라는 사회의 편견, 경제적 책임과 부모역할의 이중부담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달라진 부모역할을 위한 준비와 실천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역할을 사회적 서비스나 주변 친지들의 도움으로 확
대시켜 새로운 가족 범위와 경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함께 살지 않는 전남편
과 새로운 방식의 협력적 부모역할을 통해 새로운 부모 역할 모델을 시도하
고 있다.

<표 V-5> 이혼후의 적극적 모델

1) 이혼 후 달라진 부모역할에 대한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변화된 상황에 적응시키기 - 이혼과정에서의 상처 극복하기
2) 전남편과의 협력적 부모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부모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성실한 약속이행 ○이혼 후 협력적 부모역할의 회피 ○자녀 앞에서 전남편에 대한 가족들의 험담 - 협력적 부모관계를 위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이혼 후 협력적 부모역할을 위한 원칙의 상호간 합의
3) 부모역할의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의 활용 - 교사의 도움 - 다른 가족, 친지들을 통한 부모역할 수행

가) 이혼 후 달라진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

이혼 후 변화된 생활과 관련해서 한 부모가 된 이혼여성들은 자녀를 변화된 상황에 적응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혼 과정에서의 본인과 자녀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에 치중하느라 자녀가 뒷전으로 밀려나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혼을 앞둔 부모들이 이혼 과정, 이혼 후의 부모역할에 대한 공부를 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혼 후 자녀를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들로는 자녀를 변화된 상황에 적응시키기 위해 가급적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이혼과정에서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다른 이혼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만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게 해 주고 상담을 통해 이혼 과정에서 소원해진 부모 자녀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등을 보여준다.

아이를 자기가 키우건 키우지 않건 이혼 후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부를 좀 해야할 것 같아요. 사실 이혼할 때 배우자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약화되어서 이혼을 하게되고 아이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문제로 뒤로 젖혀지고 그

러는데, 그리고 아이 문제는 제일 꿀애비 문제로 뒤로 처지고 그러는데 어제
도 친구랑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 했는데, 이혼을 하면 우선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들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저두 양쪽
날개 한쪽 날개 생각을 하면서 한쪽 날개로도 아이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키우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부족했거든요. <사례 23>

내가 이혼하면서 딱 격리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애아빠 친구네 집인데 굉장
히 친하게 지내던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나를 옆에서 거의 2년 동안 사실은
애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많이 도와준 게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많이 변하게 없었던 게 일단 아빠는 원래 없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례 10> (이혼후 변화 덜 주기)

아이가 여러 가지 가정 형태를 좀 접해보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아.. 우리
가 우리가 정말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가정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가정
만 아빠가 없구 이러는건 아니구나 이런 모습들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쭙보니까 전에 있었대요. 그런
모임을 그런데, 재정적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다,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지금 이.... 구조를 아
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걸 친구를 안 데리고 오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좀
느끼거든요. 아빠란 존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로 몹시 힘들게 내
뱉고 그런 걸 보니까 나만이 아빠가 없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으면 좋
겠더라고요. <사례 12> (솔로 페어런팅에 대한 적극적 저항)

애들하고 살아가는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먼저 이런 상처 치
유받고 받아드리고 살아가자 해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 속에 3년 동안 특별하
게 직장생활 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할애하다 보니 부채가 많이 커졌고 지금
오천 되지만, 물론 갚을 능력은 안돼요. 우리 가정 회복되는 걸 보면 굉장하
저는 기빠요. 어찌보면 무책임한 표현같죠? 빛은 빛대로 남았는데 뭐가 기빠,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제가 벌면서 살았던 시절도 있었고, 잘나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삶의 사고방식과 지금의 사고방식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바뀌었어요. 3년 동안 놀아서 진 빛은 애들의 가정이 화목
할 수 있는 수업료다 그리고 건강한 정신은 돈주고도 못 사잖아요. 제가 심리
상담을 한 육개월 정도 저희 수녀님한테 했었고 그거에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프로그램에 자주 들어갔어요. 거기에 돈을 좀 썼어요. 내 아이한테는 이 삶이 되물림 되지 않게끔 내가 끊고 아이만큼이라도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키워야겠다 애들하고의 대화방법 같은 것. 옛날의 억압식 왜냐면 내가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명령식 주입식 배우다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신선하면서도 힘들더라구요. 이년 삼년동안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노력하고 지금 우리 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 입에서는 굉장히 화목하고 좋은 가정이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좋대요. 그전에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상상 못한 부분이에요. 특히 딸아이는 같은 동족이다 보니까 이해력이 생기는데 아들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됐어요. 재는 왜 그러지 누구 닮았지 나 닮았다는 사실을 인정 안하고 싶었어요 보이지 않는 지네 아빠 닮았나보지 했는데, 우리 애 속에서 나의 어렸을 때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거예요 나는 저럴 때 어떤 감정이 들었지 역추적하면서 제가 애 마음으로 자꾸 볼 수 있는 시각이. 이런 교육 아니었으면 아직도 저는 이 근성 안에서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애들 키웠을 텐데 전환하다보니까 가정이 틀이 달라지고 애들 사고가 달라지고 왜 못해, 안해, 못하고 안될 수 밖에 없는 환경내에서 키워냈기 때문에 못하는거예요 긍정적인 환경을 나부터 시작해야겠다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아픔 안에서 이런 과정을 얻어낼 수 있는 참다운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부채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는 하지만 옛날같은 피튀기는 무거움은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흐르고 있는데, 윤: 애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요.

<사례 8>

나) 전남편과의 협력적 부모역할

모든 아빠가 자녀에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구타, 폭언, 불성실등으로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아빠라면 이혼을 통해 헤어지는 것이 자녀의 양육에 훨씬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부끼리는 문제가 있어 헤어졌다 하더라도 자녀와 전남편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이혼 후에도 협력적 부모관계를 통해 자녀에게 계속 아빠의 케어를 받게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협력적 부모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전남편을 비롯한 주변 가족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1) 협력적 부모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여성이 협력적 부모관계에 대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남편이 의지가 없다면 이혼 후의 부모관계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인터뷰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전남편들의 불성실한 약속이행, 양육비 지급 회피를 위한 관계의 단절, 자녀 앞에서 가족들이 전남편에 대한 험담을 해서 자녀에게 아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자녀들이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에서 협력적 부모역할이 어려움을 겪었다.

대개 엄마들은 정기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아빠와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기를 원하지만 전남편들은 부정기적으로 자신의 여건이 허락하는 때에만 자녀와의 만남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아빠가 자녀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남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자녀의 삶에 아빠가 깊숙이 관여해 주기를 바란다.

협력적 부모역할을 자녀와 비동거 부모사이에 긍정적 인식이 형성돼 있을 때 가능한데, 동거 부모의 가족들이 아빠에 대해 대놓고 험담을 하는 경우 아빠와 자녀 사이의 긍정적 라포형성은 어려워진다.

애 아빠도 애랑 만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원했던 방식이 안 될때도 있으니까. 저는 적어도 하늘은 무너져도 애랑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애 아빠는 저랑은 약속의 개념이 좀 달라요. 예를들어 6시에 갈게 그러면 10시에도 오고 그래요. 그러면 6시부터 열시부터 재는 준비 다 하고 현관에서 기다려요. 그럼 저는 그거 보면서 애 가슴에 아빠가 약속을 잘 안지키는 사람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되고. 일요일날 아침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전화해 보면 그때까지 자고 있는거예요. 그럼 애가 그걸 알면 애가 상처 받으니까 “여진아 아빠 너무 아프신가봐, 회사에서 어제 너무 일이 늦게 끝나서 못 일어나셨데. 너랑 약속을 잊은건 아는데 너가 이해를 해야될 거 같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애 한테는 아빠에 대해 나쁜 얘기는 절대 안해요. 애한테는 항상 아빠가 근사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재한테는 항상 아빠가 최고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아빠를 만나면 엄마가 절대 친가쪽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 안한다는 걸 애 아빠가 알게되요. 그러다 보면 싫어서 헤어졌지만 우리두, 아 애 엄마가 내 체면을 좀 살려준다 그런걸 알아요. 그래서 애 아빠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애가 아빠한

테 가서 ‘엄마는 맨날 나 혼내키기만 해’ 그러면 애는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 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면 아빠한테 더 혼나요. ‘엄마가 혼낼만 하니까 혼낸거지.’ 그래요. 작년인가 애가 ‘엄마, 아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같아요.’ 그러더라구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깨질 뻔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엄마도 약속 안 지키는 때 있지 않느냐.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게 아니라 그럴만한 일이 있다.’

<사례 1>

(따로 연락은 하세요?)

딸아이가 이런 상황이다 이런건 얘기를 해 줘요. 아빠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고 데려다 주고 그래요. 규칙적인건 아니고. 아무생각도 하지 말자. 아무 생각도.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건 나를 읽어내는 감옥이 되고. 불규칙적이예요. (애들은 아빠 자주 보고싶어하죠?) 그렇죠. 그거는 불만이죠. 근데 본인 생각이 또 있으니까. 본인도 개인 생활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봐요. 주말에 잠깐잠깐. 근데 저는 잠깐잠깐 보는게. 오늘도 아이 데리고 보겠다는데 저는 하루 데리고 자라. 잠깐 보는거랑 하룻밤 데리고 자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아이를 하룻밤 데리고 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안되겠다 저녁에 데려다 주겠다 그러거든요. 저도 그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잠깐 만나는 아빠는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잠깐 보면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줄수 있지만 아이의 깊은 내면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애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잘 해주고 어디 데려가 주고 장난감 사주고 먹을거 사주고 그러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을 만져줘야 하는데 이걸 근본적인걸 만져주는게 아니잖아요. 그건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아예 만나지 말라, 할머니 집에 보내겠다.

<사례 5>

만난 거는 작년 9월달 생일에 만났구,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는 면접교섭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냥 한달에 1-2회라고만 적었고 뭐 구체적으로 마지막주 토요일이라든가 주말이라고 해 놓으면 그 때 일정 비워놓고 서로 맞추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거를 거부하더라구요. 자기 보고 싶을 때 와서 보겠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하고나서 2-3번 봤어요. 그때도 아이하고 먼저 통화를 하고 만나자 그래놓고 나한테 만난다는 말을 하니까 안된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그것도 좀 불만이었어요. 규칙적으로 날을 좀 잡아놓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구 나서 거의 즉흥적으로 만나고 마지막으로 만났게 아

이 생일 때, 작년.

<사례 23>

면: 그 이후에 애들은 아빠는 더 자주 만났어요?

김: 그쪽에서 안 만났어 잘. 왜냐면 나도 애들의 아빠라는 역할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빠 역할을 다른 애들이랑 전혀 아빠가 자기들한테 대해서 케어를 하지 않는 거라고. 애들한테 영향이 크다고 늘 생각했어요. 아빠로서의 역할은 정말 나에게 중요했고 난 해주기를 바랬어요. 애들의 정서상. 정서보호를 위해서. 애들을 못 만나라고 한 적도 없었고 가능하면 애들한테 대해서는 아빠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자기가 살기에 경황이 없었는지 어떤 때는 1년, 2년 3년까지도 뚝 끊어진 적도 있었고 그러다 한번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어쩌다 일년에 한번. 입학식 졸업식 챙겨주고 생일 기억해주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최소한 일년에 몇 번이라도 애들 만나서 애들 생일 이럴 때 몇 폰이 안돼도 선물을 사주거나 돈을 보내거나. 애들한테도 애들 아빠가 자기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역할을 원했지. 애들 정서를 위해서. 아빠가 자기들을 위해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삶의 상실감이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못했고 지금도 앞으로 아빠 역할을 해주기를 바래요 나는. 왜냐면 그거는 내 딸들과 그 둘 관계잖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딸들이 자기 아빠와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잖아 자기 일생에서. 나는 지금도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래. 근데 맨날 돈과 연결 시켜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책임감도 좀 없고. 그거는 좀 없었지.

<사례 12>

작은애가 5살 때 헤어지고 그때부터 제가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작은애가 사랑을 좀 덜 받았죠. 직장생활하면서 친정에서 같이 살게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급하세요. 그리고 잔정이 없으신분. 부드럽거나 그런게 없으신 분. 어렸을 때 저희도 맨날 맞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런데다가 사위가 미우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그 스트레스가 갔어요. 저것들만 없으면. 그러면서도 또 저에게 아이들 잘 챙겨주라고 그러시고. 그래도 엄마가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언어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규제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불안심리가 있고. 제가 엄마랑 많이 부딪혀요. 애들 양육에 관한 문제, 애들 아빠에 관한 문제. 저는 이혼을 했다해도 원수는 아니니까 애들에게는 절대 아빠에 대한 욕하지 말아라. 근데 저희 엄마는 그게 서운하신거예요. 같이 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해 주려는 입장인니까. 엄마가 애들 앞에서 아

이 아빠 욕도 많이 하죠. 그때마다 저랑 많이 부딪혔어요. 왜 그러느냐 하지 말아라.

<사례 15>

(2) 협력적 부모관계를 위한 조건

이혼 후에도 여전히 비동거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때 부모 상호간에 어떠한 원칙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가가 이혼 후 부모역할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례-김정은씨는 성공적인 이혼 후 협력적 부모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이혼이라는 부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1)비동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너무 자녀의 뜻을 다 받아주지는 않게 하는 것, 2)부모 사이에 처리되지 않은 감정적 찌꺼기를 자녀 앞에서 드러내서 자녀가 비동거 부모 만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갖게 하는 것, 3)식구들 사이에서도 어른들 관계의 나쁜 감정이 자녀에게 강요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등을 중요한 조건을 꼽고 있다.

한쪽에 가서 응석 부리는 거. 내가 안 받아주면 아빠한테 가서 응석부리고 애기가 되는거. 약간 퇴행 증상 같은거. 잠깐 있었는데 사랑은 해 주되 어느 선에서는 끈었어요. 아빠한테도 애기 해 주고. 저는 제가 보기에 애가 심리적으로나 변화가 있는거 같으면 바로바로 애아빠한테 전화해서 애기해 줘요. 만일 내일 아빠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야 되면 전화해서 다 애기 해 줘요. 애가 오늘은 뭘 먹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는데 당신이 이런거는 그냥 끈어라. 이런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요. 안아줄 건 안아주고 끈을건 끈고.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겨울날 야단을 쳤더니 “나 엄마랑 안 살래 아빠랑 살래”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나가” 이랬어요. “잘가. 야, 너 책도 가져가. 옷도 가져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세워두고 한참을 뒀어요. 그 일 있고 나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애가 자기 정체성을 흔들려서는 안된다. 집이 한 군데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야 되지 엄마가 싫으면 아빠한테 가고 아빠 싫으면 엄마한테 오고 이런 인식 심어주면 안된다. 만일 나중에 사춘기때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으면 가출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당신도 하늘이 무너져도 집은 엄마집이라고 인식을 시켜라.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또 아빠한테 항상 애기해요. 절대 비싼거 사주지 말라고. 그런건 틈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요. 5000원 넘는거 사주지 말라고. 넘을때는 생일날이나 기념일날 주던가 아니면 공연 같은걸로 보여주라고. <사례 1>

(주위에 이렇게 엄마, 아빠랑 모두 잘 지내는 집 많지 않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늘어난 거 같아요. 그래도 이왕 만나는거 기분 좋게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빠랑 만나기로 했으면 애만 딱 내보내고 얼굴도 안보고,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다들 있겠지만. 제가 항상 우리 회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 사람 싫어하는 마음보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끼리 싫어서 헤어져서 상처 줬으면서 애한테는 이것도 못해준다. 애 앞에서 애아빠한테 그냥 잘 지냈어? 이렇게 한 마디 해 주면 애는 훨씬 더 편하게 아빠 만날 수 있는데. 그거 한달에 몇 번인데. 애들도 가만 보면 눈치 봐. 엄마 만나면 아빠가 싫어하지 않을까, 아빠가 선물주면 엄마가 싫어하지 않을까. 집에 가서도 막 눈치봐. 그거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저는 애 아빠 여자친구가 사준 선물을 애가 들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싫은거예요. 그래도 애 앞에서는 와 멋지다, 아빠 좋은 여자친구 만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사례 1>

저는 친정에도 얘기해요. ‘엄마, 최서방 아무리 미워도 애 앞에서는 욱하지 말자. 우리끼리는 욱해도.’ 언니들도 다 알아요. 다 이해하고. 한번은 엄마가 가게에 오셨다가 돌이 만난 적이 있어요. 애 아빠가 ‘장모님 잘 지내셨어요’ 그러고, 엄마도 ‘그래 잘 지내게.’ 아마 애 아니었으면 안 그랬을거예요. 이혼한 가정의 애 치고는 여진이는 약간의 복은 있는거 같아요. 애 앞에서는 모두다 텔런트가 되요. 지금 이렇게 사는 건 그냥 가족들의 운인거 같아요.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엄마가 되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애 낳고 알았어요. 한 아이 엄마가 된다는게 얼마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하는 건지를. 절대 자식은 얼떨결에 낳을게 아니더라구요.

<사례 1>

다) 부모역할의 사회화

이혼 후 여성들은 대개 경제적 책임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내어주기가 어렵다. 이때 몇몇 여성들은 부모역할을 나 혼자로 국한시키지 않고 부모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회 복지 기관들을 찾아 활용하거나, 학교 교사들의 협조를 구하거나, 다른 식구들과 그 역할을 공유함으

로써 부모역할의 범위를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사회적 커뮤니티로 확장시킨다. 이러한 여성들의 노력과 의지는 부모역할의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이 보다 더 커져야 하며 제도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희 직장은 토요일 일요일날 더 바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때 어디도 데리구 가고 싶고 그런데 시간도 안 맞고. 근데 여기서 다 충족을 해 줘요. 애들도 좋아하구요. 너무 좋아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신문 보다가. (그런것들도 홍보를 많이 해야 사람들도 많이 아는데) 예. 지나가면서 빨간 벽돌로 예쁘게 지어놓고 광장사회복지관이라고 써놔서 뭐하는 곳인가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들어가서 뭐 하는덴지 알아보기도 그렇고. 저는 여기에 지금 많이 의지하고 있구요 좋아요. 한달에 한번씩이나 두 번씩 만나서 영화관람도 시켜주고 오웅진 신부가 하는 꽃동네 있죠 거기도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다양해요 프로그램이. 제가 직장 나가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다니지를 못하고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런게 있었는데 거기서 대신 해 주는거예요. 올해요 지원이 많이 충분히 지원을 받으셔서 다음달에 제주도 여행을 가요. 참 좋아요. 애들도 한번도 안 빠지고 꼭꼭 가구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면담하고 우리 애들 둘 또 가서 면담하고. 둘이 오는 경우가 처음 있었데요. 자매가. 이번에 지원이 좀 넉넉하게 들어와서 애들한테 더 잘해줄 수 있게 됐다고. 저는 지금 마음이 놓여요. 너무 생활이 단조롭고 지금 많은 경험을 해야될 나인데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막 대주면서 어디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런게 항상 안타까웠어요. 아버지 역할 그런거 보다는. 경험 그런거. 어디좀 가고. 그런걸 되게 바랬는데 복지관을 만나고 해소가 되는거 같아서 저는 막 행복해요.

<사례 3>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줄 그런 역할은 누가 좀 담당을 좀 해 주든지 할머니나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 있는 방학동안에 선생님들이 오전시간을 봐주세요. 급식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참 고맙더라구요. 그것도 무료로.

면: 복지관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김: 네, 받아요. 예, 그래서 복지관에서 아이 태권도, 그것도 무료로, 그리고 또, 지금같은 방학동안에는 내가 뭐, 부끄럽게 정말 도움은 전혀 못 드리면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사례 12>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대해주고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정말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어요. 제가 학기초에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써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고 우리집은 이러니까 좀 아이들에게, 뭐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는 안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런 생각을 갖고 키우고 있고 우리 아이들 잘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근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많이 세워 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낮에도 오줌을 싸어요. 아무데나 싸요. 저는 막 미치죠. 그런 거 봤을 때, 선생님은 그런거 다 알고 계시면서 처리를 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해 주세요. 그니까 저는 잊을수가 없고 매번 만나는 선생님마다 너무 감사드려요. 작년에 전학을 왔는데 저희 아이는 너무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잘 말을 해요. 시도때도 없이 말을 해서 그게 문젠데. 선생님이 봤을 때 좀 버릇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저한테 숙제 다 했다, 준비물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전 무지하게 혼났어요 선생님한테. 어머님이 이러시면 새벽이는 내 아들 삼겠다고. 그럴 정도로 저는 그 말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럴정도로 관심 가져주시는구나. 그리고 남겨서 나머지 공부해서 보내주시고.

<사례 5>

면: 엄마가 모든 역할을 다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어떠세요?

나: 나는 글썽 옆에서들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도 그렇고 동생네도 그렇고. 어디 여행가면 동생 네가 반드시 우리 애들 데리고 갈려고 해 주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버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친구네 집, 애아빠 친구네집. 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이 항상 티켓을 끊어두 우리 애들 것까지 같이 끊어 가지고 같이 데려가 주고. 막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그 원래 항상 아빠랑 다녔으면 힘들 텐데 그게 아니라 언제나 엄마랑 다녔기 때문에. 나도 그게 습관화 됐어서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데.

<사례 10> (확장된 부모역할)

노: 지금 사는 가족 단위라는 게, 우리 가족이 대가족이면 대가족이잖아요. 항상 제어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거. 너만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함께 라는 어떤 울타리가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버지가 주는 자리는 너무 큰데. 저한테는 커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아빠가 영향을 미친 것도 크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치관처럼 자리가 잡히는데, 우리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안쓰럽기는 한데, 지금

현재의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개한테 더 큰 교육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 9>

다. 이혼 여성·자녀들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

이혼여성과 자녀들을 둘러싼 사회적 편견의 경험은 양부모를 전제한 공식적 제도, 잠재적 문제아로 보는 암묵적 시선과 사회생활에 따라다니는 낙인 등이 대표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방식은 순응과 저항으로 구분된다.

<표 V-6> 사회적 편견의 경험과 이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방식

사회적 편견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부모를 전제한 공식적 제도 - 잠재적 문제아로 보는 암묵적 시선 - 사회생활에 따라다니는 낙인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응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응하기: 정상가족처럼 보이게 하기 - 저항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면화된 편견 버리기 ○사회적 편견, 제도에 대한 비판

1) 사회적 편견의 경험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의 모델로 상정하는 사회 속에서 이혼한 여성과 자녀들은 ‘비정상적 가족’이라는 편견에 놓이게 된다. 자녀를 둔 이혼 여성들은 이혼 후에 이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크고 작은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편견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데, 공식적인 학교행사등에서 양부모가 모두 있다는 것을 전제한 상황에서 진행되거나, 교사, 친구들, 학부모 사이에서 이혼가정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잠재적 문제아라는 암묵적인 시선을 받아야 하는 현실, 그리고 이혼 후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혼여성이라는 사실이 장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등이 그것이다.

가) 양부모를 전제한 공식적 제도

일단 학령기의 자녀들을 둔 부모는 학교에서 양부모를 모두 전제한 행사들-아빠가 참여하는 일일행사, 가족 사진 가지고 오기등- 앞에서 자녀들에게 아빠가 없음을 확인시켜주어야 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다양한 가족이 그 자체로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서 아빠 없음을 여러 친구들이나 선생님 앞에서 확인 받아야 하는 상황은 자녀와 엄마 모두에게 상처가 된다. 이 때 아빠가 없다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혼 가정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등의 사회적 지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식은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의 불쌍한 처지를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확인시키는 부정적인 경험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아빠 참여하는 행사도 해요?)

가을에 해요. 그때는 혼자 가거나 할머니랑 같이 가거나 삼촌이랑 가거나. 아이에 대해서 걱정 많이 했던 거는 친구들이 이혼한집 애라고 그럴 때 상처받지 않을까 그거였는데, 그거는 제가 준비를 많이 시키면 될 것 같고 아빠랑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엄마랑 같이 살고 있고 즐겁게 살고 있고 세상엔 아빠 엄마랑 같이 살지 않는 애들도 많고 다 같이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살지 않는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아이가 정말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준비를 할까 그게 좀 걱정이 되요.

제가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한부모 된 분들 모이는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어떤 분 한분이 그런 글을 썼는데, 아빠가 나오라는 거예요(행사에서) 근데 애는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아빠들 틈에서 혼자 모든걸 다 하고 들어왔어요. 아주 당당하게 다 하고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목욕탕 물 틀어놓고 펄펄 올었다는 글을 올렸어요. 이 엄마도 대단한 엄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행사를 또 안 가질 수도 없는거거든요. 또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사례 11>

막 마음 안 좋을때도 있죠.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두 개 만들어 오고 그럴 때. (어린이집에서 아빠와 함께 하는 행사 있었어요?) 아직까진 없었어요. 그런데

따르는데 보니까 유치원도 그렇고 있더라구요. 왜, 그런거 왜하나 몰라요. 난 싫은데. 엄마가 없으면 엄마랑 같이 하는 것도 그런데. 그런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 있는걸 당연히 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거 난 진짜, 거기서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하나도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너무, 아빠가 당연히 있는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닌 사람도 많은데. 그런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집에는 아빠와 함께 하는 그런거는 없었어요. 아직. 근데 내 친구네 보니까 아빠와 함께하는 그런거 있더라구요. 어후 이런 프로그램은 도대체 왜 하는거니, 여기 왜 이래? 아빠 없는 사람은 누구랑 가냐 그러면서.

<사례 6>

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아빠와 뭐하기,(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감: 네, 특히 저는 속상한 게 물론 그거는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이걸 굳이 내세워서 그러니까 가족이 밝히고 싶으면 계보같은 거를 찬찬히 할아버지 밑에서 애길 듣는다거나 아빠한테서 애길 듣는다던가 그럼 참 좋은데, 그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갖고 있는데 그게 그 곳에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부, 이러면서는 이제 아주 당혹스러워요. 할아버지조차도 사실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친할아버지가 잘 성함도 모르겠어요. 제가 호적등본을 보지 않는 한 그리고 애 아빠가 가족얘기하기를 무척 꺼려했어요. 또 가족이 상황이 좀 복잡하거든요. 이래서 가족을 부끄러워했어요. 이 계보도 음.... 가족사진 붙이는 것도 조금 껄끄럽긴 한데, 그때 굉장히 화가 나더라구요. 이런 거 꼭 해야하나,

<사례 12>

이런것도 느꼈어요. 학비 면제 받을때두요 처음에 신학기에 그 서류를 다 갖다가 내잖아요? 부모가 써서 내는 란이 있어요. 이러이러하니까 좀 주십시오. 그거를 써서 냈는데 그거를 1년에 네 번을 내야 되요. 그때마다 써서 내는거예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써서. 근데 그게 개선이 됐어요. 작년에 받은 사람들은 올해 한 번만 써서 내면 된다고. 그래서 어휴 너무 잘 됐다. 작년에는 그거 똑같은 내용은 네 번이나 똑갈게 쓸때마다 이거 뻔한건데 이혼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팔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근데 그때마다 써서 내야 되니까 서무과에 가서 그 용지를 받아와야 되요. 그거를 받아오면 내가 써서 갖다 내는거거든요? 애들이 받아와요. 근데 받아와가지고 줄 때 별로 표정이 좋지 않은거예요. 그래서 먼저 납입 통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안 내고

있다가 고거 나올 때 야 그거 가서 받아와, 그러면 애들이 안 받아와요. 그럼 내가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거 빨리 받아와야지 면제를 받지 안그러면 너 어떡할라그래. 그럼 또 똑같은 내용 써서 보내고, 아유 한번에 좀 안되나 했는데 한번에 됐어요. (그런건 좀 애들한테 받아오게 하지 말고 집으로 직접 부쳐주면 좋은데) 그래서 저번에 작은애가 안 받아 오길래 그랬죠. 너 왜 이거 갖고 오기 싫으냐? 그랬더니 아니 잊어버리고 안 가져 왔다고 그래요. 엄마도 너네들 면제 받지 않게 널 돈 다 내고 당당하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면제 안 받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면제 받게 해 주고. 엄마는 돈좀 많이 벌어가지고 널 거 다 내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다고 엄마가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엄마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 휴무날도 안 놀고 열심히 하는데도 100만원이 안되 수입이. 그러니까 이런 혜택 받을 수 있을 때 받는거지. 너 이거 누가 받고 싶다고 아무나 받는거 아니야. 엄마같은 자격이 되니까 받는거야. 그랬더니 누가 뭐래?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거야. 우리가 받을만 하니까 당당하게 받는 거야. 근제 자존심이 상한가봐요. 용지를 빨리 안 갖고 와요. 그러면 나는 애가 달아가지고 빨리 용지 갖고 오라고 그러면 써서 내야 되고. 예휴(한숨).

<사례 3>

면: 학교에 이상한 행사들 많잖아요. 가족사진 가져오기 뭐 이런 거.

전: 저학년 때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유치원 때 찍었던 사진 가져가고 그랬죠. 학기 초 되면 아빠의 인적사항 이런 거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사는 것 처럼 쓰고, 그리고 뭐 아빠랑 같이 한 여행 이런 게 있으면 바로 갔다온 거 써내고. 그건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내가 뭐 이랬니, 저랬니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서 하더라고요.

면: 근데 또 왕래가 있으니까

전 : 있으니까.. 전혀 없으면 그걸 또 써 내기기 함들죠.

면: 그러면 학교에서 교사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전: 예. 이야기 안 했어요.

<사례 16>

나) 잠재적 문제아로 보는 암묵적 시선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여성은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친구들 문제와 관련해서 이혼사실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경험한

다. 똑같이 문제를 저질렀을 때 이혼가정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더 심각한 시선을 받는다면, 문제가 터졌을 때 ‘언젠가 네가 이런 문제를 저지를 줄 알았다’는 식의 부정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모두다 이혼으로 돌리는 사람들의 편견을 경험하게 된다.

이혼 자녀에 대한 주위의 편견이 자녀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을 당하는 자녀 본인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녀에 대한 편견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의 이혼사실 자체만으로 자신의 자녀가 실제보다 마이너스 점수로 평가받을 것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게 된다. 이혼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성들로 하여금 이혼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개인적인 죄책감’을 떠 안기고 있다. 학교생활, 친구들과 관련하여 편견을 경험했던 어떤 여성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혼가정 자녀만 입학이 허용되는 학교를 아예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이혼 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의 강도를 느끼게 해 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면: 그..... 혹시 아까 이 사회적인 주변 사람 시선 얘기, 이거 하셨는데 혹시 뭐 그런 시선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런.....

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직장에도 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게 이제 그..... 다른 주위의 큰 아이의 우리 아일 아는 선생님이러던가, 학교 선생님이러던가 또 기타 그 돌봐주는, 그 피아노 선생님들이 알았을 때 반응이 알고나서 아이를 바라보는 거 하고 그러고나서 알지 못했을 때 아이를 바라보는 반응이 달랐어요.(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 편견이죠. 편견이 있더라구요.(아.....) 그거는 너무나도 제가 속상하고 그 문제는 또 정말 부당하고 막 화가 나고 이랬는데, 그렇게 바라보더라구요. 어떤 잘못된 점 이게 보였으면은 음..... 그거를 거기에 꼭 연관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우리 그 큰아이 담임선생님이 이제 같은 저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거든요. 큰아이가 우리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그냥 직원으로만 그냥 직원 아이로만 바라보고 자기반 아이, 이렇게 바라봤어요.

음.... 그 분이 이렇게 아이를 아주 그 경제적으로 낭비하고 돈 그렇다는 그거를 그쪽으로 그 미리 자기가 그쪽으로 다 생각해 놓고는 아이를 맞추더라구요. 그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는 이럴 수 밖에 없단 식으로 그렇게 아이를 몰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제가 굉장한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나서 아이만 그냥 그런 모습 저한테 보였으면은 제가 상담자 선생님에게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좌절..... 나는 아이 잘 키우고 정말 이럴려고 그랬는데, 이 모르는 또한 벽이 세상의 벽이 있구나 음..... 그때는 사실 굉장히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싶더라구요. 위안이랄까, 내 판단이 정말 옳았다는 거를, 다시 이렇게 뭐..... 듣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찾게 됐어요. 근데 역시 편견..... 있어요. <둘다 계속 침묵> <사례 12>

(자녀에 관해서 한부모 가정이라고 일어날 수 있는 걱정 있으세요?)

이게 사회적인 편견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복지관에서 저희 아이들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부모 아이이기 때문에, 원인을 그쪽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애네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지금 애네들 잡아주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사실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가장 아프고. <사례 18>

이번에 5월예요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써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읽은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불쌍한 아이구나 그러니까. 애가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몰랐다가 집에 왔는데 뭔가가 다른거 같고 기분이 안 좋은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거예요. 왜 그런 애기를 들어야 되는지.(엄마 아빠 같이 안 사는게 불쌍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친구한테 애길 했더니 왜 애길 안했냐고, 다 얘기해주지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따로 산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고 그치만 같이 살지는 않는다. <사례 23>

이 동네가 점차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서 개인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자들이 새로 아파트로 입주해 해요, 서울이기 때문에. 중심가는 아니더라도 교통편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깐 평수 늘려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간 29평 이상 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던가, 아주 고급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렵게 살지는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편차가 심해서. 그 엄마한테 제가 오픈을 했죠. 다만 이래서 여기서 거주하는데, 이 동네에는 한 반에 애육원 같은 시설에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랑 같이 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 엄마가 그 이후에, 그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경직되는 부분을 제가 느꼈거든요. 아이 준비물이랑 학교행사가 어떨죠하고 물었더니 살갑게 전화하지 못하거나. 그 부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거죠.

<사례 14>

우리 아이가 4월달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학교 앞에서. 제가 왜 이부분은 내가 태연한척 하더라도 태연하지 못 할 수 밖에 없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가 그 때 옆에 없었거든요. 근데 흔히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 니네 아빠 전화번호가 몇번이니?’ 혹은 ‘니네 집이 어디니? 빨리 가보자’이랬을 때 우리 아이가 ‘여기 모자원이구요~’이랬을 때 처음 대면조차 아빠가 없는 엄마가 데리고 있는 만만한 사람으로 본다는 걸 제가 그 때 느꼈어요. 근간은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이가 응급처리 받으면서, ‘너희 집이 어디냐?’그러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우리집은 저 언덕에 있어요’, 아니면 번지를 대겠는데, 아이들이 창신모자원, 무슨 모자원하고.

<사례 14>

만약에 내가 계속 혼자 생각 했을 때 걱정되는건, 엄마 아빠 다 있는 집 애들이랑 얘기를 할 때 아빠랑 같이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래 친구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나 이런건 걱정 많이 해요.

<사례 23>

(개인적으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 말고 편견 같은것들 없애는데는 어떤 변화가?)

그니까 제가 이혼을 결심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 문제가 가장 컸구요 진짜 그 문제만 없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헤린이에 대한 그 부분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도 다 이겨나갈 수 있겠다.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는 마음이 제일 컸었는데, 죄를 짓는 다는 마음 자체가 한부모에게서 자라는 아이는 뭔가 다르다라는 편견 때문이것 같아요. 그런 편견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부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꼭꼭 참고 사는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사는거 보다는 이혼을 해서 그런게 훨씬 나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 한부모, 실제로 안 그럴 수 있는데 한부모에게서 자란 아이

들은 뭔가 틀리다, 뭔가 좀 모자라다,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편견 자체가 제일 없어져야 할 거 아닌가 싶구요 그리구 저 같아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혼을 해서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데에 어플라이를 할때 이력상에서 좀 제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지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 잘 다니고 있지만.

<사례 4>

(면: 그러면 아이들, 커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어떤 게 될까요?)

김: 많죠 뭐. 커나가는 과정에서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 편견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부딪혀야 할 거, 결혼문제, 그런 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절망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니가 힘든 게 엄마 눈에 보기에는 부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는데 또 부당하게 되진 않을까 그게 힘든 거죠.

<사례 12>

우리 회원들중에 교사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학교를 하나 세워서 이혼가정 자녀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학교 시설, 교사 모든 것을 다 최상으로 해 놔서 너도나도 다 이 학교 들어오고 싶게끔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서 위장이혼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하하) 이런 얘기도 서로 하고 그래요. 그럼 그 학교에서는 이혼 안한 가정 자녀가 막 왕따 당하고..

<사례 1>

다) 사회생활에 따라다니는 낙인

이혼을 한 여성은 이혼 후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혼이 입직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한국사회에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젊지 않은 여성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나마 최근 대형 할인마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곳에서 나이든 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계산대에서 돈을 만져야 하는 캐셔(casher)들에게 구용주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성실성이라기 보다는 그 여성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남편의 존재이다. 이혼 후 법적으로 자녀와 동거관계로 나오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때 여성들의 이혼 사실을 쉽게 드러낼 수 있다.

직장에서는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구요. 이혼녀다 그런거를, 무시할거 같구. 면접 보러 갔을때도 주민등록 등본 띠면 딱 나오잖아요. 애들이랑 나만 나오니까. 물어보더라구요 면접관이. 여섯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느껴지더라구요, 의식이. 그래서 근야 별거라 그랬어요(웃음). 이혼이라는 말이 딱 안 나오더라구요. 그냥 사업차 남편이 대구에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묻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까. 우리는 또 돈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고 남편의 직업 같은 거를 중요시 하더라구요. 그래서 떨어질거 같더라고요. 근데 났어요. 다행이.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요. 주위에서는. 처음에는 모르다가 한 3-4년 되니까, 주부들이 모이면 다 남편 얘기 잦아요. 근데 저는 다른 얘기 할때는 막 화제에 꺼가지고 명랑하게 얘기 하는데 남편들 얘기 나오면 내가 딱 대화가 막히는거예요. 뭐 거짓말로 막 늘어놓을 수도 없고. 그냥 웃기만 하고 남 얘기 하면 웃기만 하고 그러니까 눈치 빠른 애들은 눈치를 채더라구요. 한번은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다른 얘기 할때는 그렇게 명랑하고 하면서 남편 얘기 할때는 좀 그렇다 그렇게 남에게 얘기한 거를 남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 재가 눈치가 빨라서 또 눈치를 채나보다. 그런것도 있고.

<사례 3>

2)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응방식

위와 같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이혼 여성들과 자녀들이 대응을 하는 방식은 기존의 사회 가치와 질서에 순응하는 방식과 비판의식을 갖고 저항을 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 두가지 대응방식은 개인별로 확연하게 나뉘어 진다기 보다는 한 개인 안에서 상황과 사안별로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은 이혼을 부정시 하는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을 탄력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가) 순응하기: '정상가족'처럼 보이게 하기

아직도 아이들 세계에서 부모의 이혼은 왕따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부모와 자녀 모두 이혼가족임을 숨기면서 '정상가족'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비이혼 가족이 정상화 되어있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이 된다. 아이들은 친구에게 부모의 이혼을 숨기고 마치 아빠

가 함께 사는 것처럼 이야기 하거나,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는 것, 가정환경조사서에 이혼하지 않은 가족처럼 보이게 써달라고 엄마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지금 애들이 친구들한테 얘기 해요?)

안해요. 쟁피하데요. 그니까 저는 그렇게 키워도 애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애들 사이에서 아직은 그런 문화가 있나봐요?) 담임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하드라고요. 새벽이가 우리 아들이 어쩔땐 아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쩔땐 없다라고 얘기를 한데요. 아이들이 상황에 따라 말을 만들어 내요. 그니까 그 소리를 듣는순간 가슴이 너무 아픈거예요. 일기를 쓴다든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아빠가 말이야’ ‘우리 아빠 어디 가셨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애한테 말은 안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나하고 내통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냥 애한테 그런건 쟁피한게 아니다, 엄마 아빠 둘다 없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래도 너흰 아빠가 있고, 같이 살진 않지만 아빠가 너희 사랑하고 엄마가 너희랑 같이 살면서 너희 사랑하지 않느냐. 절대 쟁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애들은 안 그래요.

<사례 5>

고: 이혼하고 한 3개월 있다가 그랬나. 주위에서 너네 아빠 어디 갔냐? 물어보면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일기를 훑쳐보면, 아! 3월달 이니까 새학기 잼아요. 환경조사서를 써서 내잖아요. 엄마 아빠 학력 직업. 나는 솔직한게 중요해서 내 이름 옆에 조차도 넣고 싶지 않아요. 현 상황을 써서 내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신경 좀 써서 해달라고 써서 줬는데, 땀 애한테 보일까봐 봉투에 넣어 줬어요. 딸애가 펴서 보더니 이거 다 지우려는 거예요. 그대로 적어 달래. 왜냐하면 고학년이 되면서 애들한테 그런 것이 보이기 싫어서 그런 건지. 다 지워서 보내줬어요. 일기를 쓸 때도 부모가 있고 없고를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일기 수준이 아직도 이러냐고 그러는데, 아빠가 없는데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잘 잤다고 쓴거예요. 아빠가 없는데. 아빠를 쓴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애들 자라는 것은 다르구나.

면: 많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나보네요?

고: 네

<사례 13>

면: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 기재할 때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는 다르게 적으셨나요?

고: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작은놈은 입학식 때 내가 줬으니까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난에 왜 안 적어 주셨냐고? 우리 큰애를 보니까 빼면 안될 것 같아서 다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했더니 선생님이 알았다고 그대로 올리겠다고. 선생님은 그것은 흉도 아닌데 정확하게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는데 내 맘 같지 않아서 그냥 올려주세요. <사례 13>

면: 애들 친구들은 이혼했다는 것 모르나요?

고: 모르죠. 애들은 당연히 몰라요. 애들도 하기 싫어해요. 원치 않고, 우리아빠 미국 갔다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 안하고. <사례 13>

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이 이혼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워낙 애들 어릴 때가 오래 되어서 기억을 꺼내 내시기가 힘들실 것 같아요.

김: 아, 기억이 어렵듯이 되는 것은 둘 중의 누구였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자기 친구들한테 안 밝혔었고, 개들은 신경은 쓰는 거지. 그러다 아주 친한 애 하나정도에게만 국민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사실 우리집 아빠 헤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보통 이런 친구들한테 굳이 안 밝혔던 것 같애. 친한 애들한테는 얘기하는 것도 내가 알았고, 경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밝히기도 하고 안 밝히기도 하고 애들이 그랬어. <사례 12>

일기를 쓰는 것을 보면 아빠도 같이 간 것처럼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들이 남들한테 (신경쓴다는 얘기죠) 그런다는 얘기로 봐야되겠죠. 안 띄게하고 싶은 부분이겠지. 그런 걸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겠지. <사례 10>

나) 저항하기

이혼한 여성들은 이혼을 문제시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순응하기의 전략을 쓰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러한 편견과 낙인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혼가족임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 때에 외부로부터의 편견이 사라지면서 주위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한다.

(1) 내면화된 편견 버리기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은 일면 사실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당사자들이 이러한 편견을 깊이 내면화해서 콤플렉스로 작동하면서 ‘가상의 편견’을 경험하기도 한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중 몇몇은 자기 안에 내면화된 콤플렉스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와 지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회적 편견은 두 가지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그 범주에 대한 외부적 편견이 가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스스로가 편견을 내면화해서 그 편견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여성들이 내면화된 편견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것을 버리려는 노력은 사회적 편견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사회적인 편견 그렇게 심하게 받아본 적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에 대해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무디지는 안거든요. 제가 또 한예민 하거든요. 무디지는 않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가치관인거 같아요. 똑같은 A라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상반된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구 모르겠어요. 저는 주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못 느끼는 건지.

<사례 5>

(2) 사회적 편견에 대한 비판

다음의 사례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미리 이야기를 해서 학교로부터 긍정적인 협조를 받아내고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부모들은 어떤 특별한 관심은 원하지만 어떤 특별한 관심은 두려워한다. 이혼가정의 자녀라고 매사에 요주의 인물로 취급하는 식의 특별한 관심은 자녀와 엄마 모두에게 상처가 된다. 그렇다고 이혼이라는 사실이 특별하게 취급받는 현실 속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즉, 자녀가 이혼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이혼이라는 사실이 낙인이나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을 ‘특별하게’ 취급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양부모가 모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한 학교 행사들을 비판하면서 부모중 한명만 참여해도 좋은 행사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지금 학교 다니는데, 저는 다 미리 가서 애기 했어요. 이혼했다, 제일먼저 하는 애기가 이혼했다, 그 다음에 하는 애기가 애는 아주 나한테 소중한 애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애다 일부러 더 막 유난을 떨어요. 애한테 혹시라도 함부로 할까봐. 애 나한테 너무 소중한 애고 나 애 없으면 안되고 애 너무 귀하게 큰 애니까 애가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같으면 불안해 하면 바로바로 애기해 달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다. 그러면 다들 ‘어 그래요?’ 그러면서 이혼한 집 앤줄 몰랐다고 다 그래요. 교장선생님은 저한테 전화해 주셔서 사소한 거에 얽매이지 말고 기도 하라고. 여진이 학교 건강하게 잘 다니니까. 담임선생님하고도 매일 자주 주고 받고. 저는 선생님이 야단을 쳐서 여진이가 서운해 해도 조금도 저는 선생님한테 안 서운해요. 선생님이 보여준 애정이 있으니까. <사례 20>

당연히 부모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하거나 어떤 상황을 설정하지 말고 부모가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 참여하는 행사라거나 그런것도 당연히 두 부부가 다 있을거다 생각하지 말고 아빠 오는 날 엄마 오는 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누구든 한 쪽 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편안하게 아빠 없는 사람은 엄마가 오게 그 상황 자체를 너무나 특정화 지워서 하기 보다는 당연히 느낄 수 있게 재는 엄마 없고 재는 아빠 없고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사례 4>

라. 양육비관련 문제

이혼 후 양육비의 지급은 많은 이혼 여성들에게 있어 자녀와 여성 모두의 생존에 중요하다. 노동시장 자체가 성별화 되어 있어 여성들이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만한 가족임금을 벌기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들은 이혼 후 웬만한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얻는 것이 어렵다.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이혼 가정의 경우 전 남편이 경제적 수입이 있어도 양육비의 지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법정액

수로(자녀 일인당 월 20-30만원) 상정되어 있는 금액은 현재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이혼 해봐서 해보면서 느낀게 너무나 양육비에 대한 산정도 너무 적고, 또 그쪽 집안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고 그러면 좀 많이도 해줄 수 있고 그런건데 아무리 그 쪽이 그래도 딱 2-30만원으로 책정이 되 있더라고요. 너무나 기가막혀 가지고, 솔직히 대학보내고 학원 보내려면 2-30만원으로는 턱도 없잖아요. 양분한다고 해도 엄마가 분담 한다고 해도 아빠가 2-30만원 낸다는 건 말이 안되죠. 유치원만 보내도 그런데. 참, 너무 기가 막힌다. 그래서 능력 없는 여자들이 이혼도 못하고 있다는게 정말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사례 4>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뭘 할 수도 없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여성들은 이야기한다. 그나마 부족한 액수나마 제때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양육비 청구소송을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제도적 문제, 양육비 못 받는걸 당연시하는 분위기-에 부딪혀 대부분은 좌절되고 만다.

면접자들에게 나타난 양육비지급실태와 이에 대한 그들의 대응방식을 살펴보면 다음 <표 V-7>과 같다.

<표 V-7> 양육비 지급 실태와 이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방식

양육비 지급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고정 액수의 지급 - 부정기적, 비고정액수의 지급 -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종적 감추기
양육비 지급에 대한 대응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부터 포기하기 : 양육비 못 받는게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 적극적 청구의 시도와 좌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의 복잡함 ○ 제도적 문제(개인의 접근이 금지된 개인정보)

1) 양육비 지급 실태

가) 정기적, 고정적 액수의 지급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고정액을 양육비로 받는 여성들은 무척 드물다. 이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전 남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육비에 대한 제도적 강제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전 남편의 인간성, 성실성 등 지극히 개인적 ‘운’에 맡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 사립학교 보내는데 거기에 드는 돈은 다 아빠가 해주니까. 한 한달에 50정도 드는데 그걸 한꺼번에 내니까. 한번 150정도씩. 입학금까지 합해서 한 200정도 들었는데 다 보내줘요. 애기한테는 잘해요. <사례 1>

나) 부정기적, 비고정적 액수의 지급

이혼 여성들에게 전 남편의 양육비 지급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들은 양육비의 지급을 통해 아이가 아빠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기를 바란다. 또한 양육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될 때 아이도 아빠와 안정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이에게 아빠가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 때 자녀에 대한 영향력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서 자녀의 정신적인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는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아이와 아빠 사이의 신뢰, 유대감 등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사이트 운영하면서 회원분들이 뭘로 힘들어 하는거 같으세요?) 돈. 사실 돈이 사람을 키우거든요. 저는 주기적으로 주는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돈을 주면 어떤 식으로든 아이하고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나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되고 그게 아이한테 굉장히 큰 울타리가 되요. 예를들어 10억을 줬다 해봐. 뭐 엄마가 10억 잘 관리하면 애는 잘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애가 정신적으로는 문제지. <사례 1>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내가 힘드니까 최소한 한 30만원씩이라도 보내라 그랬어. 말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니 컴퓨터 사라고 백 만원 보낼 걸로 그걸로 끝이었지. 애들을 1년에 한 두 번 만나면 그 때 애들 용돈 조금 주고 그러는 정도. 경제적 능력도 좀 안 되는 면도 있었고, 별로 책임이 없는 면도 있었고. 나는 돈 액수에 상관없이 꼬박꼬박 매달 십 만원씩이라도 늘 보내오면 애들이 아빠가 자기들을 잊지 않고 케어해 준다는 난 그거를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마인드는 그게 아니더라고. 낮 돈 조금 보내서 아무런 생색도 없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안 보냈어요. 나는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십 만원 이래도 꼬박꼬박. 십 만원 보내려 하면 보낼 수 있지 자기들도 먹고 사는데. 그거라도 보내면 애들한테 아빠가 자기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좋은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구.

<사례 12>

다)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종적 감추기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종적을 감추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종적을 감추어 버렸을 때 현행법, 제도상 계속해서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종적을 감춘 전남편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아래 사례의 경우 여성이 직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일이 쫓아다니며 전남편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현행법, 제도상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며 종적을 감추어버린 당사자에게 제도적 강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하다.

올해들어 조금씩 빼그덕 거렸거든요? 작년엔 30만원 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40만원씩 주겠다고. 자기자식이니까 댄다고. (모자르지 않으세요 그것 가지고?) 그 쪽에서 그러더라구요. 자기가 왜 다 대냐. 절반씩 대야 하지 않느냐. 올 초에 빼그덕 대고 그때마다 연락을 했었는데, 양육비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연락처를 다 바꿨더라구요. 직장도 바꾸고. (재혼 하셨어요?) 아니요 호적등본을 떼어봤는데 그건 아니고. 그니까 올초 들어 느낌이 굉장히 아까워하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한쪽에서는 거의 숨은거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찾아내서 받을까. (그럼 그때 내용증명 같은 거 떼어놓으셨어요?) 네, 이혼할

때 다 써 가지고 공증받고 다 해놔는데 그때 주변에서 그랬어요. 해 봐도 안 주면 소용없다. 처음에 남자들 처음에만 주고 나중엔 안 준다. 나중엔 애도 안 보고 저만 생각한다. 그런 애길 하더라구요. 일단은 내용증명 보내보고, (전 시덥쪽으로는 연락 안 되시구요?) 그 쪽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해서 될법하지가 않아요. 그쪽 부모님들하고는 연락하고 싶지 않구요. 이것까지 생각했어요. 일단 주민등록을 찾아보고 내용증명 보내보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소득 신고가 되 있는지 아닌지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런 일이 생기면 방법이 너무 제한되 있더라구요. 개인적 차원에서 본인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는 개인신용정보라고 해서 개인 아니면 알려주지 않잖아요. 정보 보호하는게 더 강화됐다고 해야하나. 심부름센터 사람 시켜가지고 알아내야 하는데 이런생각 들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하지 않고 국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직장 다니니까 월급 가압류 한다던가 자동차 가압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차량 가압류도 생각을 해봤는데 차량 가압류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거라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몇 달 더 연장해 주는 거 말고는 그게 안되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사람들하고 해 보니까 나중에는 관둬라 관둬, 치사해서 내가 니 돈 아니어도 내가 번 돈으로도 내가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만 20세 이전에는 나중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기입을 해서 영수증을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일년이 될지 이년이 될지, 하다못해 아이들 간식비 하나까지 다 기입을 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또 당장 들어가야 될 비용인데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례 23>

2) 양육비 지급에 대한 대응방식

가) 처음부터 포기하기: 양육비 못받는 게 오히려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
지급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거부한 전남편에 대해 더 이상 제도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양육비를 못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 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네가 문제라서 못 받는게 아니고 남자들이 원래 다 그런 것이고, 재판까지 가 봤자 험한 꼴 당하는 것은 여자쪽이며 결국 거기까지 간다해도 받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주위의 반응들은 여성들의 시도 자체를 좌절시킨다.

(주변에는 그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각서 쓰고 그래봤자 지가 안주면 방법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야 나는 4년넘게 한푼도 못 받았는데 너는 좀 받지 않았냐고, 그냥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런 소리 들을때는 허걱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애를 니가 키우겠다는 건 니 돈 들어서 다 키우겠다는 그것 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건 아니다. 부모가 애 양육비 들어가는 거 있으면 다 분담하는거다.

<사례 5>

나) 적극적 청구 시도와 좌절

아래 사례는 종적을 감춘 전남편에게 계속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결혼 관계가 없어져 타인이 된 상태에서 기관들은 쉽게 전남편의 정보를 건네 주지 않는다. 결국 제도적 방법이 아니라 아는 인맥을 통해 비공식적 통로로 전남편의 행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에 관련된 법, 제도적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즉, 양육비 지급 의무와 이행에 관한 명령이 개인의 마음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끔 법적 강제력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결국 제도적 절차의 복잡함 앞에서 장벽을 느끼며 좀 더 간소화된 형식의 지급 방식을 원하고 있다.

주소를 알아보려고 전남편 다니던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연말정산할 때 주민등록 등본 제출했을거 아니냐 그러고 알려달라 그랬죠. 양육비가 들어오다가 안 들어와 서 연락을 해 봤더니 연락처를 바꿨다, 그러니까 알려달라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구요. 근데 그 주소에 이 사람이 아직 사는줄 몰라서. 내가 제적된 호적등본이랑 이혼할 때 썼던 내용증명 같은거 떼어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찾아준다고 하기는 하더라구요. 아직 거기까진 안해봤어요. 근데 요즘워서 드는 생각은 이런거를 다 개인이 이렇게 해야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좀 통제를 하고, 서류를 근거 삼아가지고 약속한 양육비 같은거는 국가가 통제를 하고 나중에 아이 아빠에게 받아내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거 같아요....국가에서는 소재 파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세금을 건어야 하니까. 독일같은데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직접 부딪히는 일 없이 창구에서 타가고 국가에서 남편한테 세금건듯이 청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럼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런게 그런게 합리적인거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할라면 그런 서류 떼고 알아보러 다니고 시간 내기도 어려워요. 누구누구 아는 사람 찾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언제, 일하는 근무시간에 나가서 통화하고 수시로 자리비워야 하고, 어후 직장다니고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거 같아요. <사례 23>

복잡해서 이려고는 내버려뒀어요. 주소 알고 물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거리도 멀고. <사례 13>

3. 요약 및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혼한 여성들의 자녀양육 현실과 대응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여성들의 감정적 이혼은 여성 스스로 이혼이라는 삶의 변화를 해소하는데에 중심적인 부분이 되며 따라서 이혼후 자녀양육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감정적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는 전남편의 애매한 태도와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며 감정적 이혼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은 이혼의 긍정적인 면 부각시키기와 자신의 일을 갖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만들기 및 참여하기(온라인 동호회, 여성단체, 상담기관 등)였다.

이혼 여성들의 부모역할은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다. 자녀에게 이혼을 알리고 설명하는 일에서 시작된 부모역할은 이혼 후 변화된 가족 형태에서 양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의 부모역할 모델과 부딪히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이혼 후 적극적 부모역할을 통해 구조화된 제도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혼적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이혼을 설명해 주는 방식에서 이혼사실에 대한 모호한 설명, 이혼사실을 감추기, 그리고 이혼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혼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이혼의 현실 인식시키기, 이혼 후 자녀의 신변에 대한 안심시키기, 이혼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죄책감 없애기, 이혼에 대한 콤플렉스 없애기, 재혼 가능성에 대한 설명등을 포함하였다.

이혼 후 부모역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성역할에 기반한 양부모 중심주의(이성자녀 키우기의 어려움과 아빠역할의 사회적 신화, 이혼가정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부모의 강박증), 경제적 책임과 부모역할의 과다한 이중부담, 그리고 자녀에게 투사되는 전남편에 대한 분노였다.

이혼 후의 적극적 부모역할은 이혼 후 달라진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 전 남편과의 협력적 부모역할, 그리고 부모역할의 사회화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먼저 이혼 후 달라진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는 자녀를 변화된 상황에 적응시키는 것과 이혼과정에서 상처 극복하는 것이었으며 전남편과의 협력적 부모역할은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불성실한 약속이행, 이혼 후 협력적 부모역할의 회피, 자녀 앞에서 전남편에 대한 가족들의 험담)을 극복하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과 이혼 후 협력적 부모역할을 위한 원칙의 상호간 합의가 조건이 되어야 함이다. 또한 부모역할의 사회화는 복지관의 활용, 교사의 도움, 다른 가족, 친지들을 통한 부모역할 수행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특별히 협력적 부모역할을 실천하는데 우리 사회의 힘든 부분은 한국가족특성으로서 초혼·혈연·친족 중심의 핵가족과 부계중심 가족관계와 성별역할분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장혜경 외 2001).

양부모를 전제한 공식적 제도와 잠재적 문제아로 보는 암묵적 시선, 사회생활에 따라다니는 낙인 등 이혼 여성과 자녀와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된다. 이것은 이혼 가족들이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고 양부모 가족과는 다른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어렵게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정상가족처럼 보이게 하면서 순응하기와 내면화된 편견 버리기나 사회적 편견,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써 저항하기의 대응방식을 보여주었다.

이혼 후 여성이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큰 관건은 경제적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이들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절실하였다. 노동시장의 성별화, 공사

영역에서의 성역할 분담으로 경제적 기반이 남성에 비해 취약한 여성들에게 양육비의 지급은 절실한 문제가 된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양육비 지급의 실태를 보면 정기적, 고정 액수의 지급이나 부정기적, 비고정액수의 지급 혹은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종적 감추기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은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양육비 못 받는게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밀리거나 적극적 청구는 시도하였으나 좌절(절차의 복잡함, 제도적 문제-개인의 접근이 금지된 개인정보)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V-8>은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V-8> 이혼여성의 가족환경과 대응방법

감정적 이혼	어렵게 만드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편의 애매한 태도 -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의 긍정적인 면 부각시키기 - 자신의 일을 갖기 -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만들기 및 참여하기 (온라인 동호회, 여성단체, 상담기관) - 주위 가족들의 지지 	
부모역할: 이혼 전	이혼 설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사실에 대한 모호한 설명 - 이혼 사실을 감추기 - 이혼 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의 현실 인식시키기 ○이혼 후 자녀의 신변에 대한 안심시키기 ○이혼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죄책감 없애기 ○이혼에 대한 콤플렉스 없애기 ○재혼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모역할: 이혼 후	어렵게 만드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역할에 기반한 양부모 중심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성자녀 키우기의 어려움 ○아빠역할의 사회적 신화 ○이혼가정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부모의 강박증 - 경제적 책임과 부모역할의 과다한 이중부담 - 자녀에게 투사되는 전남편에 대한 분노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변화된 상황에 적응시키기 - 이혼과정에서의 상처 극복하기
	대응	협력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부모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성실한 약속이행 ○이혼 후 협력적 부모역할의 회피 ○자녀 앞에서 전남편에 대한 가족들의 험담 - 협력적 부모관계를 위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이혼 후 협력적 부모역할을 위한 원칙의 상호간 합의
		부모역할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의 활용 - 교사의 도움 - 다른 가족, 친지들을 통한 부모역할 수행
사회경제적 불리: 사회적 편견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부모를 전제한 공식적 제도 - 잠재적 문제아로 보는 암묵적 시선 - 사회생활에 따라다니는 낙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응하기: 정상가족처럼 보이게 하기 - 저항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면화된 편견 버리기 ○사회적 편견, 제도에 대한 비판 	
사회경제적 불리: 양육비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고정 액수의 지급 - 부정기적, 비고정액수의 지급 -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중적 감추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부터 포기하기: 양육비 못 받는게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 적극적 청구의 시도와 좌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의 복잡함 ○제도적 문제(개인의 접근이 금지된 개인정보) 	

VI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03
2. 정책과제	205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을 검토한 결과가 합의하는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사결과에서 나온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장기과제와 단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기본방향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과 검토한 결과가 합의하는 내용을 보면 이혼한 여성한부모가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입법화가 필요한 내용들과 현존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원책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먼저 입법화가 필요한 내용들을 보면 이혼한 여성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양육자 및 친권자가 여성일 경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호주제의 폐지, 자녀의 양육비 지급 책임의 의무강제 규정, 자녀양육의 사회화 제도 (아동수당 등), 이혼절차에서 양육비 산정규정 삽입, 혼인준비교육정책화 설립 등이다.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그 수준 별로 다양한데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이혼절차의 단순화, 공공부조차원에서 저소득층 여성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및 보호확대, 이혼여성가족의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방안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 지원수준의 상향조정, 주택지원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면에서는 이혼여성가족대상으로 전문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과 모범사례 확대 (사례: 서울 모자의 집과 영락모자원의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 여성한부모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들간의 연계망구축, 가족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활성화와 이혼과정의 단계별로 다양한 지침의 제공 (이혼여성의 감정적 이혼을 위한 지침, 자녀양육에 관한 지침, 이혼 후 새로운 생활설계를 위한 지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이러한 함의는 본 조사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에서 보여진 이혼과정단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유발요인들, 이혼 후 사회환경 (사회적 편견, 경제적 불리-양육

<표 VI-1>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 정책과제

시기	정책과제	세부과제
장기 과제	법정비	주민등록제, 호주제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 이혼 가정 자녀들을 대상 프로그램 마련 : 가족의 변화와 부모역할 개념 교육 -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 낙인 개선
	사회적 부모로서의 교사, 예비교사 교육의 제도화	-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상담, 지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이혼 가정 자녀들에 대한 다른 아이들의 편견 극복과 이해를 위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단기 과제	양육비 관련 법조항 마련	-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제도의 개선 - 양육비청구에 대한 국가의 조력 - 부양의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 이행명령 - 부양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도입
	여성한부모가정 대상의 경제적 지원	- 구직 활동 지원 - 모자가정 자녀대상 학비면제 확대 - 임대주택 보급
	상담사업의 활성화	- 문제활동중심의 상담을 벗어나 일반적인 이혼가정 자녀 양육에 관한 상담 실시 ○이혼과정 단계별 심리적 지원 - 기존 상담료의 인하 - 이혼여성의 상담인력 양성 ○이혼여성들간의 멘토링 사업 지원: 이미 한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운 여성들의 사례 홍보와 일대일 만남을 주선하여 서로가 정신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상담의 긍정적 효과성 홍보와 시설확대
	부모교육 활성화	- 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여성자신의 감정적 독립 프로그램 ○자녀들의 발달단계 특성 이해와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프로그램 (자녀양육공동책임)
	부모역할의 사회화를 위 한 프로그램 및 시설확대	- 여성한부모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 및 프로그램의 지원 -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야간보호서비스 운영
	양부모 중심 학교활동 개선	- 가정환경조사서 양식 개선 - 부모를 모두 전제한 학교 행사 개선
	한부모관련 정보지침서 및 이혼 여성의 부모역할 지침의 수립 및 보급	- 한부모 관련 정보지침서의 제작 및 보급 - 자녀의 장기간의 적응을 위한 지침수립 및 보급 - 이혼여성의 감정적이혼을 위한 지침수립 및 보급
	한부모 관련 담당 종사자 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 강화 훈련 실시	- 한부모 문제에 대한 실태, 인식 교육 - 한부모관련 지원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 훈련프로그램 실시

비 문제 등) 부모역할의 문제, 이혼여성자신의 삶의 질 문제 (감정적 이혼) 등을 볼 때 더욱 구체화된다. 이러한 인지 하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입법화가 필요한 내용들과 현존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원책이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모색하였다. 양적 및 질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는 위의 <표 VI-1>과 같다. 정책제안시 정책시행의 주체 혹은 정책 대상이든 특정한 분석의 수준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제안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정책과제의 특성상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바 시기적으로 장기와 단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 정책과제

가. 장기 정책과제

1) 법 정비

호주제로 인해 여성이 친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에는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나타나 서류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호주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아빠가 자녀를 키우지 않더라도 아빠의 서류상의 동의나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들(여권을 만들 때 등)이 따라다니게 된다. 따라서 이혼관련 서류상의 문제점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례 (1): 주민등록증

부당하죠. 너무 웃겨요. 말이안되.(주민등록상에 딸과 자신이 동거인으로 나오는 것) 취업할때나 그럴때도 다 그런거 떠어서 내는거잖아요. 너무 웃겨요. 그런거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상태라면 내든 안내든 상관 없는데. 편견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게 애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평가를 할까봐.<사례 4>

사례 (2): 여권

그때 아이들 일본 프로그램에 갈 때 처음 여권을 낼 때 아빠 인감을 갖고 와야 되는 거야. 호주. 그때는 내가 진짜 열을 받은거야. 엄마의 친권을 인정하는 걸로 가족법이 개정되는 이후였어. 분명히 상위법에서 엄마의 친권이 인정됐는데. 분명히 상위법에서엄마의 친권이 인정 됐는데 아빠거를 떼오라는 거는 말이 안된다.<사례 12>

2) 이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경제적 지위의 하락만큼이나 이혼가정을 괴롭히는 것은 이혼을 둘러싼 사회의 편견과 낙인의 경험이다. 성장기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들에게 외부적으로 쏟아지는 의혹의 눈길과 자녀 스스로 내면화하게 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대는 자녀양육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자아존중감과 자신의 가족형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과 외부적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요구한다.

사례 (1):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공유

아이가 여러 가지 가정 형태를 좀 접해보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아.. 우리가 우리가 정말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가정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가정만 아빠가 없구 이러는건 아니구나 이런 모습들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게 있었으면 좋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쭙보니까 전에 있었대요. 그런 모임을 그런데, 재정적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다,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지금 이.... 구조를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걸 친구를 안 데리고 오고... <사례 11>

사례 (2):

저희 그런거 있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문제. 그들도 하나의 사람이고 우리와 함께 어우러 공동체 안의 일원일 뿐인데 장애인들은 뭔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요즘엔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은 전혀 우리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달라. 마찬가지로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부모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설정하지 말고. 쉽지는 않겠지만 <사례 4>

3) 사회적 부모로서의 교사·예비교사 교육의 제도화

학령기인 이혼 가정의 자녀는 학교가 가장 큰 세상이며 자신이 맺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의 장이 된다. 그리고 교사의 의미는 단순히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학습자로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일종의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부모 역할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부모에게 국한되는 것인 아니라 사회적 부모로서의 교사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타인의 기대가 곧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체감 형성에 직결된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이혼 가정의 자녀를 부정적 기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가, 긍정적 기대감을 가지고 기존의 편견을 깨면서 대하는 가는 이혼가정 자녀의 자기 정체감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사들이 이혼가정의 자녀를 따로 분리하여 드러내놓고 특별 취급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취급하는 것 모두 다 자녀와 이혼 여성에게 상처의 경험이 되고 있음을 앞의 조사를 통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부모 못지 않게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적 부모라는 관점 하에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이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이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그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이혼이라는 사실에 대한 또 한번의 낙인이 되거나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낙인과 차별 없는 특수성의 고려’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사들의 이혼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교사연수 및 보수교육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교육과 함께 어떻게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가정환경조사서 등과 같은 다양한 학교서류양식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배려, 교육대학과 교원대학의 예비교사에게도 사회적 소수자의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상에서 포함, 학교내 학교사회사업실과 학교사회사업가를 이용하는 방안 등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1):

지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중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랑은 또 틀리거든요. 중고등학교가. 교사들도 그렇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될까 그걸 좀 고민해요. 초등학교때는 일단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교사들이 세밀하게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교사들도 보면 좀 더 강하더라구요. 또 아이들이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왕따도 초등학교때보다 중고등학교때 더 많다고 봐요. 그거를 애들이 어떻게 할지... <사례 5>

사례 (2):

이번에 5월예요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써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읽은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불쌍한 아이구나 그러니까...애가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사례 11>

사례 (3):

저희집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와 생활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아이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무료로 급식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친구들이 아는 것이 싫어서 선생님의 제의를 거절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배려를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고 불려서 야단을 쳤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 사례>

사례 (4):

아이가 평상시 늦게까지 책을 읽는다. 너무 늦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지각을 자주하는 편이다. 교문을 지키고 있던 부장선생님이 아이가 지각하는 것을 몇 번 본 모양이다. 학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 어머님 되십니까?’라고 해서 “예”라고 했더니 대뜸 “○○ 아빠 없죠?” 함께있던 담임도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지고 학생들도 모두 선생님에게 고개가 숙여지자 선생님이 그냥 나가버렸다. 공개된 장소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국여성민우회 사례>

나. 단기 정책과제

1) 양육비 관련 법조항 개선

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육비를 고정

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의 관점을 지금과는 다르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미성년자는 사회적 역할의 담당자가 되기까지 부모와 국가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되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즉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을 사적인 부모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혼가정의 자녀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성장과 효율성의 문제와 연관되므로 국가가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국가 주도적으로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적 차원에서는 양육비의 지급이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좌우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양육비를 관리, 지급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가령 전남편에게(경제력이 있는 상황에서) 세금처럼 양육비를 징수하고 엄마는 전남편을 통하지 않고 은행창구에서 양육비를 타갈 수 있는 식으로 체계화되는 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부양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하는 양육비 전달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스위스 등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사례 (1): 양육비

국가가 좀 통제를 하고, 서류를 근거 삼아가지고 약속한 양육비 같은거는 국가가 통제를 하고 나중에 아이 아빠에게 받아내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것 같아요. 이혼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혼하면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다보니까 자기가 주기 싫다고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숨어버리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수고를 많이 들여야 하는데. 사실 안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거 얘기하다보면 주변에 워낙 약속하고 안주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너도 안되도 별 이상하지 않은거. 그런 분위기. 국가에서는 소재 파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독일같은데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직접 부딪히는 일 없이 창구에서 타가고 국가에서 남편한테 세금건듯이 청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럼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인거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할라면 그런 서류 떼고 알아보러 다니고 시간 내기도 어려워요. 누구누구 아는 사람 찾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언제, 일하는 근무시간에 나가서 통화하고 수시로 자리비워야 하고, 어후 직장다니고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거 같아요 <사례 11>

양육비 관련 법조항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²⁴⁾

① 양육비에 관한 사전 처분제도의 개선

이혼소송 제기 후 부모의 일방(예를 들면 자녀의 모)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일방(예를 들면 자녀의 부)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자녀의 생활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과 양육에 관한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우선 자녀의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련하여 현행 가사소송법은 제62조에 사전처분제도를 두고, 제1항에서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중략)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설령 법원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에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달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처분을 한다고 해도 그와 같은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그와 같은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확보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자녀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양육비가 실제로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사전처분(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효력을 갖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한다)을 하도록 제도화한다.

② 양육비청구에 대한 국가의 조력

양육비청구를 대행하는 기관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이 조력

24)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2002), “한부모가족 양육비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상담을 통하여 상황을 판단한 후 어떤 방법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낼 것인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양육비청구대행기관은 부양의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부양의무자가 스스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은행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가 자녀(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은 양육비청구대행기관에 대하여 양육비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양육비청구대행기관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③ 부양의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 이행명령

양육비에 관한 심판(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는 또 다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지금 당장 자녀의 생계에 필요한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양권리자(경우에 따라서는 양육비청구대행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부양의무자의 채무자(예를 들면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부가 근로자인 경우, 부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부양권리자(자녀 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번거로운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 부양의무자가 자녀(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부양권리자인 자녀는 부양의무자의 새로운 직장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양육비지급이 중단되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사용자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임금채무 중 일부를 부양권리자인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러한 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공단은 부양권리자 또는 양육비대행청구기관의 청구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직장, 주소, 월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규정의 도입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양육비이행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여기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몰래 직장을 옮기는 경우)를 형사소추사항으로 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부양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도입

자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금전채무의 불이행과는 성격이 다르며, 스스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형법은 부양의무위반의 경우 6월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양의무자의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오스트리아 형법 제198조 제1항). 스위스에서도 자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소가 있으면 자유형에 처해진다(스위스 형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부양능력이 있으면서도 가족법상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자유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자유형의 형기는 3일에서 3년까지 가능하다(스위스 형법 제36조).

2) 여성한부모가정 대상의 경제적 지원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혼과 함께 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다. 따라서 이혼 여성들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학령기에 있는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임대주택등의 확대 보급등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래의 사례는 학교에서 자녀들 학비 면제와 사회복지관을 통해 자녀들 학원비를 할인 받는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이를 통해 이혼 후의 새로운 삶에 자신감과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되었다고 그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때 이것이 가시행정으로 연결되어 수혜대상에게 또 한번의 낙인으로 경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 (1): 취업알선

계속 일하던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주부로 있었던 사람은 일할 수 있게 상담을 통해 알선을 해 준다든지 <사례 6>

사례 (2): 학비면제

근데 애들이 학비 면제 받거든요? (어떻게요?) 참엔 몰랐어요. 몰랐는데 학기초에 가정통신지에 신상조사라는 그런 용지를 갖고 오거든요? 그걸 다 적었더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모자가정 대상으로 하는 그런건가 보죠?) 예. 제가 썼어요. 이혼했고 애들하고 셋이 살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 준비 서류가 몇가지 있었어요. 직장에서 떼어오는 근로자 원천 징수, 월급 명세서 다 복사해서 갔다 내고 그랬거든요? 둘 다 지금 면제받아요. 그리고 학원비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가죠. 원래대로 가면 한 애한테 24만원, 종합반 같은거 그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보내다가 또 못보내고 이렇게 하다가요 광장 사회복지관 장승리 사회복지사님 만나 가지구요 그 분이 많이 혜택을 줬어요. 그 분이 직접 학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DC 해서 잘 되가지고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애들하고도 이제 살 길이 보인다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후 어떻게 방법이 있을텐데 하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애들 방학했을 때 전단지가 신문에 끼어왔어요. 광장 사회복지관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독거 노인들도 도와주구요,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또 컴퓨터 이런것도 가르쳐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뒷장에 보니까 푸른 날개라고 해서 한 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참 좋아요. <사례 3>

사례 (3): 주거

집을 세번 네번 이사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든 게 그렇잖아요. 애들하고도 그렇고 혼자서 꾸려나가 산다는 게 그렇고, 얻는 과정 그렇고. 그거 생각하면 혜택이 주어졌을 때 너무 고마웠어요 <사례 8>

언젠가는 임대아파트 좀 해가지고 애들하고 이사 좀 안 다니고 자리잡고 살고 싶고. 그게 제일 바라는 거구요.<사례 3>

3) 상담사업의 활성화

이혼 여성들은 이혼 후에 자신 감정처리의 문제, 달라진 부모역할과 관련해 서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 이때 특별히 상담을 원하는 내용

은 극단적인 문제행동을 보이는 자녀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혼 과정에서 미성숙하게 자녀에게 행했던 행동들 혹은 앞으로 자녀와의 관계 맺기에 관한 일상적인 내용들이 많다.

사례 (1):

..엄마가 거짓말을 해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친구들이 유학가서 죽었다고 그러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정서적인 부분이나 그런것들에 대한 해결내용 <사례 4>

이때 기존 상담시설의 문제는 이혼과 관련된 상담이 문제행동을 보여주는 이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나마 비싼 상담료 때문에 상담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혼에 따르는 변화 전반에 대한 상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지는데 이때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의 인력을 상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혼 여성중 이혼하는 과정에서 상담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여성들이 많으며 그 과정에서 상담자로서의 비전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상담의 긍정적 효과성에 대한 홍보와 시설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상담사업의 활성화로 가족상담서비스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나 복지시설의 상담시설, 학교 상담실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사업의 활성화는 일반여성가족뿐만 아니라 여성한부모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한국 가족복지와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갖는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상담실을 찾아오는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인간관계의 기본인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여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가부장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남편에 대한 갈등과 가사노동에 대한 불평등에 대하여 호소하며 이혼을 생각하는 사례들을 고려해 볼 때 이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이혼 후 건강한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양성평등한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서비스체계가 구축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고 하겠다. 가족관련학과(가족학과, 아동가족학과, 가족복지학과 등)에서 배출되는 가족생활교육사 및 가족상담사제도가 학계와 정부측의 연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사례 (1): 상담료

지원 해 주면 너무 좋죠. 특히, 상담 이런 거는 사람들에게 적극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상담받고 싶었는데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한번도 상담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한이 맞혀서 내가 상담을 해서 제가 그 사람들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비전을 그걸로 생각을 하게된 거예요. 제 전화기를 24시간 오픈해 놓으면 새벽녘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막 뉘두리 하다가 전화를 끊어요. 저도 가끔 그러구 싶을때가 너무 많아요. 밤에 갑자기 너무 다운이 되서 너무너무 막막할 때 전화할 때가 한군데도 없어요 저는. 전화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럴 때 누군가 내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있다면, 어느때라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구 상담료가 너무 비싸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요번에 제가 저희 아이 소아 상담 받으려고 했거든요? 1회 한시간에서 두시간이 십만원이예요. 또 한군데는 5만원이더라구요. 아이 심리치료, 놀이치료 하는데가. 하루벌어 하루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엄두를 못내요. 그래서 지금 알아만 놓고 애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럼 보조 같은거 원하세요?) 보조 보다는 가격이 좀 다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5>

사례 (2): 상담의 필요성

상담을 받는게 거의 문제행동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런게 나타날 때 상담을 받는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애는 걸으로 드러나는 건 없으니까 <사례 11>

사례 (3): 전문적인 상담자로서의 훈련기회와 지원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계가 우선이에요. 애들 키울려면 월세도 내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요. 생각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되기 마련이잖아요. 상담하는데 꼭 대학원을 나와야만 하는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격증가지고 모든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상담원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가령 우리 같은 사람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

저렴하게. 저는 그게 참 절실해요. 그걸 참 하고 싶어요. 상담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싱글, 이혼한 사람들 모임에 가입한 것도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 만져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거고. 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 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꼭 대학원을 가서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가서 좀 배우고 싶은데, 자주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지금은. 다 오전시간에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주말 토요일 같은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가서 공부를 하고 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거 같고 <사례 5>

4) 부모교육의 활성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양육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한부모로서 여성은 그 역할이 더 과중함으로 여성자신의 감정적 독립을 위해서나 자녀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특성이해와 자녀와의 관계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아도 자녀양육은 공동책임이라는 부모역할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과 아동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높이도록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와 교사와 함께 하면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으므로²⁵⁾ 선진국의 성공적인 부모교육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자녀의 연령대별에 따른 부모교육의 유형화 등). 미국의 경우 헤드스타트(Head Start)운동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1960년대부터 시작한 이 운동의 결과로 인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과 아동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졌다. 우리나라는 영락모자원의 부모역할교육프로그램이 좋은 사례이다.

25) 장혜경 외 (2002), 『가족문화개선 청소년교육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보호위원회 용역과제 (진행중)

프로그램 사례 :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와 부모참여

먼저 헤드 스타트는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으로 건강과 인간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감독 하에 있으며, 지방과 지역사회에 강한 기반을 두고 있다. 오늘날 헤드 스타트는 여타 아동보육이나 유치원체계와는 확연히 구분되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기구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포괄적인 교육, 건강 및 발달 관련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을 중요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사례 : 영락모자원의 『부모역할교실』

- 목적: 가족간의 올바른 의사소통 전달로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동시에 심신의 건강,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켜주며 자녀들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 긍정적인 사고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조함.
- 목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수행방법, 그리고 자녀와의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터득하도록 함.
- 이 프로그램은 총 8회에 걸쳐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됨 (세부프로그램은 본문 참조)
- 총 8회에 걸쳐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통한 부모역할교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한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자녀양육 방법이 개선되고 자녀들과의 문제회수가 감소되는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음.

5) 부모역할의 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 확대

경제적 책임과 부모역할의 이중역할을 맡고 있는 이혼 여성들은 부모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관, 시설, 프로그램등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가령 방과후에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화된 교육 프로그램, 마땅히 부모가 제공해 주리라고 기대되는 역할들 (여행, 박물관 견학 등) 을 대행해 주는 사회복지 시설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관을 통해 다양하게 부모역할을 제공받는 사례들은 매우 만족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1): 방과후 교실

그니까 우리 애들은 그때 컸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니까 그런데 애들 어린 집들은 진짜 막막할 거예요. 제일 만만하게 친정엄마. 친정엄마한테 맡기거나 탁아소 같은거 있지만 돈을 많이 내야되잖아요 그런데는. 돈 안내면서 애들 방과후에도 봐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참 좋죠. 이혼한 여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례 3>

프로그램 사례 (1): 대청, 공릉, 광장, 중곡, 방화6,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방과후교실 운영

-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를 마치는 방과후부터 부모의 퇴근 전까지 틈새 시간에 개입하여 아동들에게 학습 및 과제물지도, 생활·정서지도,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과후 교실은 한부모 가정 부모들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고 학령기 아동들에게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복지관에 따라서 평일 뿐 아니라 토요일 오후를 이용하거나, 전문 학습지 교사 및 대학생 등을 자원 봉사자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 방과후 교실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세대를 선별함으로써 효과와 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나 집단구성원의 학년 및 성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 학년을 보다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의 집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연령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장혜경 외(2001) 참조).

프로그램 사례 (2):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의 야간보호서비스(night care service) 운영

- 식당보조, 파출일, 판매직 등 근로시간대가 늦은 한부모의 자녀들에게 방과후 저녁 시간대(방과후 교실 이후의 시간) 저녁급식 및 학습·정서지도 등을 제공한다.
- 야간보호서비스는 매일 진행되는 유아 및 아동의 야간보호(pm 5:30~pm 11:00)를 통한 보육서비스(급식, 간식제공, 숙제지도, 정서지도 프로그램)와 시기에 따른 단위 행사로 구성되는데 단위사업으로는 학습지도 프로그램, 소그룹 활동, 편부모 교육 집단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을 제공한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 가정 보호자들의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줌으로써 아동양육과 경제적 문제 해결이라는 이중적 부담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되었고, 부모들 간에도 친밀해 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부모들은 직업선택의 범위가 확대돼 야간근로시간대가 적용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등 가정의 자립자활과 성장기 아동의 양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들 역시 영양상태 및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경험하였으며, 개인적, 소극적 성향을 단체생활과 소집단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성 향상과 협동심, 이타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그러나 아동들의 경우, 아동들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정서적 욕구의 증가로 인해 단기개입으로는 아동의 지속적 성장에의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므로 장기적 사업 지원의 필요함이 요구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장혜경 외(2001)참조).

6) 양부모 중심의 학교활동 개선

이혼 여성들은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제도권 교육의 강한 ‘양부모 중심주의’를 경험하게 된다. 현재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모두 다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행사나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양부모 중심주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 수입원으로서의 아빠와 가사노동자로서의 엄마를 전제한 이 모델은 돈벌이와 가사, 육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이혼 여성들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버거운 요구이다. 많은 학교에서는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자녀를 지원하는 엄마를 전제로 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리고 있고, 엄마와 아빠가 모두 참여하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굳이 이혼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권 교육이 상당부분에서 가정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미 전제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대착오적이다. 가정과 학교 사이의 상호 교류적 자녀 교육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일 것이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가족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 반영하지 않는 현재 학교의 프로그램은 이혼 가정의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와 성격을 반영한다면, 앞으로의 공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은 가정의 전폭적 지원을 전제하기보다는 ‘사회화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확대된 부모로서의 모델을 개발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1): 양부모 중심 학교활동 개선

당연히 부모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설정하지 말고 부모가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 참여하는 행사라거나 그런 것도 당연히 두 부부가 다 있을거다 생각하지 말고 아빠 오는 날 엄마 오는 날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누구든 한쪽 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편안하게 아빠 없는 사람은 엄마가 오게 그 상황 자체를 너무나 특정화 지워서 하기보다는 당연히 느낄 수 있게 재는 엄마 없고 재는 아빠 없고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사례 4>

사례 (2): 가정환경조사 기록상 아빠 존재

내 기억에 큰애학교에서 한번은 참 잘 만들었다 싶은게(가정환경 조사서) 가족이라고 나오면서 비고란에 동거, 별거 표시하는 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아도 아빠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야. 참 굉장히 현실적인,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을 표시하면 되는 거잖아.<사례 12>

7) 한부모 관련 담당 종사자들의 의식교육과 전문성강화 훈련 실시

한부모들은 정부의 보조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할 경우 담당 종사자들의 편견에 찬 태도, 눈초리, 취급으로 상처를 받기도 한다. 한부모 관련 담당 종사자들이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답습하여 수혜의 대상이 한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이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사례 (1): 가시행정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각별한 주의

제가 사실은 작년에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적응을 못 하겠어요. 방하나에 부엌하나에 화장실은 공용이고. 거기에 원장도 있고 사회복지사들도 있는데. 구로구만해도 3곳이 되긴해요. 근데 한 곳은 컴퓨터 바뀌고, 제가 있는 곳은, 제가 지금 주소지(모자원)가 그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잘 적응이 안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원 정도 보조비를 받는데. 그 보조비를 받을 때 마음이 안 편해요. 안 편하고. 이 교회에서도 하다못해 한 3만원 정도를 후원을 해주는데 그 후원비조차 제가 의식이 돼요. 어디에 나가서 제가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너는 우리 단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닌간’ 아니면 ‘너희는 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닌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적응을 못해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분위기는 시설에 대해서, 세 준 주인마냥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냥 내가 신세지고 있는, 얻어 먹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적응이 안 돼요 <사례 14>

한부모관련 담당자의 의식교육 및 한부모지원 활동가의 전문성 강화훈련의 필요성은 이미 여성부지원으로 수행한 장혜경 외(2001)에서 강조된바 있다. 이

를 토대로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부지원 시범사업으로 “여성한부모가족 지원 활동가의 전문성강화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기관 및 모자원, 자활훈련기관, 내일의 집, 공공기관 등에서 가족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자 30명을 대상으로 한부모 지원 활동가들이 한부모가 당면하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의 훈련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와 관련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역량강화로 한부모 가족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부모에 대한 사회·심리·정서적 이해를 위한 강의와 한부모 자조모임 리더와의 만남, 전문상담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의, 한부모 가족지원 상담 도입 부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미술치료,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 프로그램의 공유, 숙박 교육을 바탕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금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에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중심 센터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활동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네트워킹을 만들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자료의 공유에서부터 자료의 공유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관련 지원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훈련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심 단위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한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프로그램 사례: 한부모관련 지원활동가 전문성강화 훈련 프로그램 내용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가족형태의 변화속에 한부모가족: 전반적인 한국사회와 가족변화에 대한 이해도모
- 한부모가족관련한 법, 제도적장치들: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
- 한부모가 당면하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1): 자신, 가족 및 사회관계
- 한부모가 당면하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2): 여성한부모의 성, 재혼관련 갈등에 대한 이해
- 서로 어울리는 마당(기관 및 자기소개)
- 전문상담기술훈련

- 한부모사례 듣기 및 토의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의 이해
- 성인지력 향상훈련
- 미술치료
- 한부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방법
- 개발 프로그램 공유 및 토의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민우회 (2002)참조)

8) 한부모관련 정보지침서의 제작 및 보급

한부모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지침서를 개발하여 한부모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사무소, 상담소, 병원, 복지관, 모자원, 구청 등의 장소에 비치하여 한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여성부 지원으로 한국여성민우회가 『열려라 한부모 세상』을 곧 출간할 예정이다. 지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한국여성민우회의 한부모 관련 정보지침서(안) 내용

- 한부모 가족이란
- 출발, 단독비행: 별거를 선택할 때, 이혼을 결심했을 때, 사별했을 때, 비혼(미혼) 한부모가 되었을 때
- 행복 다지기: 내 삶의 주인 되기, 편견에 맞서기, 나와 만나는 즐거움, 아이와 더 붙어 살기
- 클릭@정보찾기: 복지정보, 일자리 구하기·만들기, 한부모 서로 돕기 모임, 인터넷 세상, 여성단체 및 상담기관들, 컴퓨터 및 시설
- 부록: 가족과성상담소에서 추천하는 도서, 재미있는 영화, 가정폭력 특별법, 관할 법원, 이혼신고서 양식,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9)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지침의 수립 및 보급

한부모관련 정보지침외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여성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모역할지침을 수립하고 보급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은 본문의 외국의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

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아직 구체적인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관련 지침이 없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가) 자녀의 장기간의 적응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1) 이혼에 대한 자녀와의 구체적 대화 지침

- 결정이 명확해 질 때까지 기다릴 것
- 자녀로 하여금 그것을 양쪽 부모 모두에게서 듣도록 하게 할 것
- 모든 자녀에게 그들이 부모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함께 말할 것
- 기초적인 이유를 제공할 것
 - 구체적 이유를 이야기하지 말 것
 - 상대를 비방하지 말 것
- 다음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할 것
 - 자녀가 떠나는 부모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 그 부모가 언제 떠날 수 있는지
 - 그 부모가 어디서 살 건지
 -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시켜줄 것
 - 그들은 여전히 두 부모를 갖는다는 것
- 이혼은 그들 책임이 아니라는 것
- 질문을 독려하고 걱정과 느낌을 공유할 것

(2) 구체적인 방식

① 지속적인 안심을 제공하도록 한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혼은 단지 부부간의 일이지 부모와 자식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며 자녀들이 자신들의 과실이 아님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여전히 두 부모를 갖게 될 것과 여전히 자녀가 두 부모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말해주도록 한다. 부모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매우 해로운 일이다.

② 질문과 토론을 장려하도록 한다.

당신 자녀에게 질문하도록 북돋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언제나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대답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보스턴 대학의 Abigail Stewart와 그녀의 동료들은 그들 연구집단내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Yvette Walczak은 이혼시기의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자녀의 성공적인 적응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일단 그들의 감정이 이해되면, 자녀들은 감정적으로 더 강해지고 이혼이라는 그 문에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자녀들의 초기 반응을 주시하도록 한다

아이들의 반응이 다양하긴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사한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이혼소식을 접했을 때 걱정과 슬픔, 거부당했다는 것과 취약하고 무기력하며 배반당했다는 느낌으로 자아존중감이 흔들리게 된다. 대부분은 떠나는 부모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거나 몇몇은 완전히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일시적으로 학교나 친구, 정상적 행위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는 대다수의 이혼 부모들이 그들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부모들은 대개 자기우울에 빠져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사례] 나는 딸에게 물었어요, 왜 이전에 한번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었는지..“왜냐하면 나에게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④ 자녀들이 그들 감정을 구별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만일 자녀들이 자신을 오픈시켜서 자신의 걱정, 느낌을 말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 이혼에 관한 자녀용책을 읽어줘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느끼는 것,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 당신의 자녀에게 다른 아이들이 느끼는 방식들에 관해 이야기 해 주도록

한다 (예: “많은 아이들이 그들 부모가 이혼 할 때 분노를 느낌으로써 그들은 양부모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에 흥분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그들은 그것에 관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신 자녀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도록 도와주고,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 어떤 자녀들은 말보다는 종이에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
- 가족상담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당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당신 자녀가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몇방울의 눈물을 보이는 것, 당신 역시 슬프다는 것을 보거나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은 건강한 일이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in control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으며 자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⑤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활용한다

- 예측가능한 규칙과 스케줄을 만든다 : 예측가능한 규칙과 스케줄이 제공하는 구조는 자녀들에게 안심을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을 둘러싼 명백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삶이 통제가능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규칙들은 방과후 활동, 숙제시간, 노는시간, 식사시간, 취침시간 등 일상생활을 통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만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스케줄로 예측가능하게 한다.
- 명확한 기대와 한계를 만들고 일관적으로 지키도록 한다 : 명확한 기대와 한계는 그들에게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를 제공해 준다. 이것은 사랑스럽지만 단호하게 그러나 차갑거나 벌을 주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혼한 부모는 자녀가 이미 큰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뭔가를 제한시키는 것에 주저한다.
- 부모역할의 스케줄을 확립하도록 한다 : 가능한 빨리 다른 부모와 함께 부모역할의 스케줄 짜는 작업을 한다. 부모역할 스케줄을 달력에 표시해 놓아서 언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를 알게 한다.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와 가능하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양부모와의 관계의 연

속성과 안정성은 자녀의 안정된 환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 부모갈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도록 한다 : 다른 부모와의 갈등을 끝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속된 갈등은 이혼 후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 자녀에게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⑥ 자녀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방법들을 활용한다.

우선 좋은 관계의 토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따뜻함과 양육 및 감정적 지원, 자녀의 필요에 대한 부모의 민감함과 책임감, 자녀에게 연민과 존중심,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들 수 있다.

□ 자녀와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방법

- * 자녀들에 대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말해 주도록 한다. 자녀들의 감정, 걱정, 관심을 살피며 친구, 학교생활, 일상적 활동 등에 대해 배우며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를 알도록 한다.
- * 당신 자녀의 삶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낼 수 있는 시간에 한해 그들의 교사들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녀들의 필요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게 한다.
- * 일대일의 시간을 매일 가진다. 당신과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한다.
- * 매주마다 가족 미팅을 제도화한다.
- * 아이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과 당신의 삶에 아이가 중요하다는 확신을 준다.
- *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 사고, 견해를 갖도록 하고 그것을 존중하도록 한다.
- * 아이들로 하여금 당신이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 * 모든 상황에 긍정적이며 자녀를 칭찬하도록 한다.

□ 다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방법

- *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잘 듣고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 * “door-openers”를 사용한다 (“나에게 이야기 해 봐.” “네 관점에 흥미 있어.” “네가 그것에 대해 뭔가 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등)
- * 당신의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데 지나치게 자기방어적이라면 시간이 조금 흐른뒤에 질문을 한다.
- * 자녀가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피하고 개방형 질문을 하도록 한다 (예: “너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 * 이혼관련된 질문들로 돌리면서 당신 자녀의 걱정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열어놓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질문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자녀에게 당신은 언제나 그들의 질문에 기꺼이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 다른 부모와 당신 자녀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방법(양쪽 부모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녀의 적응에 중요하다)

- * 당신의 자녀가 다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허가해 준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 당신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다.
- * 다른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 정보를 유지하도록 해 준다. 그 부모가 자녀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게 한다.
- * 다른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를 존중해 주고 절대로 그 부모의 방문을 거절하지 않는다.
- * 당신 자녀가 다른 부모를 만나러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러는지를 파악하려고 애써야 한다. 당신이 말로 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지는 않는다든가 다른 부모와 재미없는 계획을 이야기 해주지는 않았는지 주시해야한다. 많은 아이들은 같이 살지 않은 부모 집으로 가는 과정이 어렵지만 일단 가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 * 당신 자녀가 다른 부모와 시간을 보내기 전이나 후에 그와 보낸 시간이 해로웠다는 표시로서 문제적인 행동을 한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부모들간에 긴장이 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부모에서 다른 부모로의 이동이 긴장을 수반하는 일이다.
- * 다른 부모와 부모역할관계(coparenting)를 맺도록 한다.

⑦ 자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끌어오도록 한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엑스트라 지원과 양육을 가족 밖의 성인들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지원은 자녀들이 스트레스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을 도와준다.

⑧ 당신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대개 상담은 그들의 걱정과 공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이다. 상담자들로 부터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감정의 융기들을 다룰 수 있는 좋은 대처기술을 배우고 그들을 지지할 수 있감정적 자신감을 배울 수 있어 상담자는 부모들에게도 실천적 제안을 제공할 수 있다.

⑨ 기억할 점이 있다.

지속되는 갈등, 고질적으로 악화된 부모관계, 형편없는 부모역할, 자신을 압도할만한 변화,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요소들이 혼합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이혼과 같은 단일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부록 [이혼에 대한 자녀의 적응목록] 참조.

* [사례] 캐롤의 부모는 그녀가 8살 때 이혼했고 그녀는 현재 16살이다. 이혼에 관해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뭔가를 얻었어요.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독립적이 됐고, 더 강한 사람이 됐어요. 이혼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3) 이혼에 대한 자녀의 적응 체크목록

- 우리 자녀는 우리의 갈등에 노출되어 있는가?
- 나는 나의 아이를 중간에 끼이는 것을 삼가고 있는가?
 - 다른 부모에 대한 비방
 - 내 아이가 내 말의 전달자가 되는 것
 - 다른 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녀를 이용하는 것
 - 자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
- 나는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있는가?

- 나는 다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지하고 있는가?
- 나는 우리 가정에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는가?
- 나의 자녀와 나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 하고 있는가?
- 나는 지지적인가? 나는 그들에게 존중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 나는 명확한 기대와 한계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
- 나는 그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나는 사랑하는 방식 안에서 일관된 훈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 나는 그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책임, 역할, 근심의 짐을 지우고 있지는 않는가?
- 나는 내 자녀를 위한 재정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는가?
- 나는 내 자녀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다른 소스를 발견했는가?

나) 이혼여성의 감정적 이혼을 위한 가이드

(1) 자아존중감을 세우기

배우자로부터 꾸준히 받은 부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손상되고 때로 그것은 내면화되어 거부감, 좌절감으로 손상을 입기도 한다. 다음 중에서 당사자는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몇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 당신의 자아존중감은 당신자신에 대한 사고와 인식과 연관된다. 몇일 동안 당신 스스로에게 말하고 써보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일단 당신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고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 자신의 좋은 점들을 적어보고 스스로를 위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적어보도록 한다. 당신의 장점, 강점, 재능, 숙련, 취미, 목표를 포함해서 최소한 20-25가지 장점 리스트를 갖게 될 때까지 계속하면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말하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긍정적 속성의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자아존중감은 새로운 성취에 의해 달성됨으로 새로운 흥미나 취미를 발전 시키도록 한다. 또는 당신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몇가지 기술들

을 배운다.

- 당신이 달성한 하루의 모든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든다.
- 당신이 잘 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당신 스케줄 안에 그것들을 자주 실행할 여지를 만든다
-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비판적인 사람과는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당신을 지원하고 좋아하고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도록 한다.
-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 당신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5가지의 리스트를 만든다
- 당신의 필요에 보다 우선가치를 부여하도록 하다.
- 당신에 대한 다른사람들의 칭찬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당신자신에 대한 관점안으로 통합한다
- 당신이 한부모이고 부모역할에 의해 과도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면 당신의 부모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 이혼 자조모임의 참여를 통한 보살핌과 공감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결혼생활동안 배우자들은 불가피하게 자신들의 개인적 고유성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게 된다. 그들의 공유된 시간 때문에 그들은 상호 의존적이 되는데 이혼과 함께 그들 삶의 씨실과 날실들의 얽혀 있음을 풀어야만 한다. 이혼 후 정체성 위기(나는 누군가? 나는 삶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이곳으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 등)에 대해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 이전 배우자와 이전 결혼생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배우자가 원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당신이 디자인한 방식대로 삶을 창조할 수 있으며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고 당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할 때까지는 당신은 “자아들” 사이에 끼어있다는 느낌을 갖게될 것이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Robert Weiss는 이혼한 많은 사람들이 결정 내리는 것을 어려워해서 당황하게 된다고 밝힌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옷,

가구, 집, 이웃, 라이프 스타일이 옳은지 결정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좋고 싫음을 그들의 이전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 왔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관된 자아의 안정성을 얻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몇몇에게는 이혼 후 발전시킨 새로운 정체성이 결혼생활 안에서의 정체성과 거의 유사성을 갖지 않는데 이것은 특별히 그들의 정체성이 결혼과 가족에 좀 더 밀접하게 묶여 있었던 여성들에게서 나타난다. 때때로 남자들은 이혼을 자기 평가를 위한 원동력을 삼기도 하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을 새로운 삶의 위한 계기로 삼는다는 좀 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임을 밝히기도 한다. 다음의 제안은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당신의 옛 삶의 스타일보다는 새로운 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전에 초점을 맞춘다. 배우자 없이는 다소 불완전하다는 정신상태를 극복하고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세상을 사고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깨뜨리도록 노력한다.
- 당신의 옛 자원에 덜 의지하고 새로운 다양한 자원들을 개발한다(새로운 취미, 스킵, 친구들 등).
-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유연성과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 당신이 즐겨 사용했던 방식을 심각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매 주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표 한 두 가지에 더 근접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을 밟도록 노력하면서 “해야할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든다.
- 기록을 한다 (당신이 받아들여야할 새로운 방향은? 어떻게 만족해 왔나? 그것을 만족스럽게,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등) 당신의 노트는 당신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매달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재평가한다.

(3) 외로운 시간들에 잘 대처하기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슬픔, 취약함, 지루함, 우울, 불안정, 자기 연민, 자기비난 등)이 수반된다. 외로움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적

외로움으로 가까운 감정적 관계의 대상이 부재한데에서 연유된다. 사회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사람도 그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식적인 친밀함으로 이루어져있다면 이러한 유형의 외로움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외로움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재에서 연유한다. 많은 이혼한 남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방법이 재혼이라는 잘못된 결론으로 점프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끝내기 위한 조급함 안에서 몇몇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외로움을 다룰 수 있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들을 제안한다.

- 몇주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몇가지 스케줄을 계획한다(지지 그룹, 흥미있는 강의, 하루 여행, 영화 등).
- 새로운 취미와 흥미를 발전시키기 시작하고 당신 혼자서 할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을 개발한다. 당신이 하고 싶어했지만 절대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다.
- 다른 사람을 동반하지 않고 당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도록 한다. 당신은 그것이 놀랍도록 흥미롭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당신이 더 가까워지고 싶은 한 두 사람과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공유한다.
- 당신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을 한다.
- 당신의 감정적 이혼을 완성하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고립과 외로움을 증가할 뿐이다.
- 자조모임과 함께한다.
- 사람들이 그들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스스로의 응석을 받아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집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또 다른 외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등이 있다(자원봉사, 홈리스에게 식사만들어 주기 등).

(4)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기

다양한 여성들간의 모임은 그 구성원들간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우정과 강한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다.

- 옛 친구들과 접촉한다.
- 당신 커뮤니티 안의 다른 싱글들에게 접근하여 점심이나 영화를 보자는 사람들의 제의를 수락하고 몇몇 싱글들에게 저녁 파티를 제안한다.
- 한 달에 한번씩 만날 수 있는 다른 싱글들 그룹을 만들어서 포트럭 저녁 식사그룹, 토론 그룹, 영화보기그룹, 지지그룹 등에 참여한다.
- 자원봉사단체, 정치단체, 교회 등에 참가하도록 한다.
- 다양한 강좌에 참여한다.
- 이혼이나 싱글자조모임에 참여한다.
- 다른 한부모 그룹과 접촉하며 기혼 친구들을 잊지 않는다.

(5) 개인적 성장을 위한 기회들을 만들기

많은 사람들은 이혼이 그들의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혼이 아니었다면 가질 수 없었던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옹기 만들 필요가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당신을 위해 그것을 그 누군가가 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많은 면을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 기회들을 갖는다(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흥미의 발달,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습득, 더 넓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의 형성, 목표 설정과 추진 등).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철희외(2000), '이혼을 하려는 모의 자녀양육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 공선영(2002), “모자가족이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 외(2000), 『저소득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 (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정(2001), '이혼시 자녀양육비 판정의 문제점과 합리적 지침방향제시', 『소비자학연구』 제13권 제 3호.
- 김혜영(2001), “가족문화의 변화와 성인지적 가족정책”, 미발표자료.
- 대한가정법률상담소(2001), 『월간 가정상담』 2001, 7.
- 문현숙(1999), '이혼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논문.
- 박부진(1999), '재판 이혼시 자녀 양육자 선정의 실태 및 문제점', 『가족과 문화』, 제 11집 2호.
- 박부진(2000), '한국사회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의 문제', 『서강대사회과학연구』 9.
- 박영란 외(2001),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희외(2002), '이혼의 과정과 각 단계의 심리사회적 특징', 한국가족사회복지학과 제 11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변화순 외(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1999),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결과요약』
-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연감』.
- 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여성복지사업』
- 부산광역시(2002), 『전국여성지도자 포럼: 양성평등한 통합적 가족정책』 자료집.
- 서울시(2001), 『여성복지사업안내』.
- 신용주(2001), '영국의 한 부모 정책', 『한국여성학』 제 17권 2호.
- 양혜경(2000), '한부모 가족의 사회복지지원 대책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예선(2002), '이혼 가정에 대한 개입방안 1,2', 한국가족사회복지학과 제 11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오선순(2001), '이혼가족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여성학회.
- 오은순(2001),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학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제 9권 제 1호. 한국열린교육학회.
- 유경희(2001), '여성주의 집단 상담이 이혼(별거)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은기수(2002), "출산을 추이와그 변화의 원인", 『출산율 1.30 진단과 대안』, 한국여성개발원 제10차 여성정책포럼자료집.
- 이명숙(2002), '이혼가족과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알아야할 이혼관련 법과 문제점', 한국가족사회복지학과 제 11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소희 외 (2001),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 이용교(2001), "지역센터로서 공부방 기관행정 및 지자체 연대방안", 빈곤지역 공부방 실무자 교육자료집 I, (사)사랑의 친구들.
- 이이효재(2002),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주제 폐지',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 이정희(2002), '호주제 폐지와 민법 개정안',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 이태수(2001), "공부방 활동의 전망과 정책", 『빈곤지역공부방 실무자 교육자료집 I』 (사)사랑의 친구들.
- 장혜경 외(2001),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 장혜경, 민가영(2001),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 장혜경 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현황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 외(2002), 『가족문화개선 청소년보호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보호위원회, 발간예정.
- 정순희 외(1999), '이혼 가계의 자녀양육비 지원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0.
- 윌러스타인 주디스외(2000),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서울: 명진출판.
- 정진영(1995), '이혼가정에서의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사회과학논총』 1.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 보호백서』.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통계청(2002). 『2001 혼인, 이혼 통계결과』

- 한경혜, 김영희(1994), '이혼여성의 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가족학회』 제 6집, 1994.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1), 「이혼가정과 자녀양육」, 창립 45주년 기념심포자료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가족복지상담사업의 운영실태와 효율화 방안』.
- 한국여성개발원(2001),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자료집』, 여성부.
- 한국여성민우회(200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숍자료집
- 한국여성민우회(2002), 『한부모자녀가 당당한 학교만들기』,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여성민우회(2002), “한부모가족 양육비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한부모 가족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심포지움자료집.
- 허정원 외(1998),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관계망 지원과 이혼 후 적응’, 『서울대생활과학연구』 23.

<국외문헌>

- Barros, Nancy(1995), *Parenting through Divorce*, Motivo Publishing Company Inc.
- Boyan, Susan Blyth(1997), *Cooperative Parenting and Divorce*. Active Parents Publishings Inc
- Clapp, Genevieve(2000), *Divorce and New Beginings*. John Wiley & Sons Inc
- Dwd. Nancy E(1997), *In Defense of Single-Parent Families*. New York Univ Press
- Duncan, Simon(eds.)(1997), *Single Mother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UCL Press
- Ellison, Sheila(2002), *The Courage to be a Single Mother*. HaperCollins Books.
- Folbre, Nancy(1994), *Who Pays for the Kid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Kaslow, Folerance W.(1997), "Effects of Divorce on the Children", *Painful Parentings*, John Wiley & Sons, Inc.
- Hines, Alice M(1997), "Divorce-related Transitions, Adolescent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May 1997)
- Hyde, Abbey(1999), "Single Mothers in Extended Households,"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22.
- Kaslow, Florence W(1997), "Effects of Divorce on the Children", *Painful Parentings*. John Wiley & Sons, Inc.

- Nicholas, Long and Rex Forehand(2002), *Making Divorce Easier on Your Child*. Contemporary Books
- Pisdinik, Bradley A(1996), *Divorce War*, Adams Media Coporations
- Ross, Julie A(1996), *Joint Custody with a Jerk*. St Martins Press
- Shami, Nailah(2000) *Taking the High Road*. Peguin Group
- Simons, Ronald L(1999), "Explaining the Higher Incidence of Adjustment Problems Among Children of Divorce Compared with those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1
- Smith, Gayle Rosenward(1998) *What Every Woman Should Know about Divorce and Custody*. Penguin Putnam Inc.
- Stark, Barbara(1992), *Family Law and Gender Bias*. Jai Press
- Taylor, Raymond J(1999), "Attitudes of Proffessionals Toward Parenting Programs After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 32
- Thayer. Zabeth S(2001), *The Co-Parenting Survival Guide*. New Harbingers Publications.

<인터넷 자료>

- Euro Statistics (2001), Statistics in Focus: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www.home.clara.net/sping/misc/king.htm
- Guidelines for Separating Parents: Promoting Responsible Shared Parenting After Separation and Divorce



부 록



이혼관련 법률

(1)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가)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나) 재판이혼 :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불치의 정신병, 성적인 갈등, 빚이나 경제갈등, 종교갈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성격차이, 애정상실 등이며 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한다.

(2) 재산관계

(가) 위자료 :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 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이다.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하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 및 지급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 위자료 산정기준을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위자료 액수 및 지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로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가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월급 및 퇴직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이며,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신청(가소 제64조) 또는 강제집행(가소 제41조)을 할 수도 있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100만원이하)(가소 제67조 제1항), 감치처분(30일 이내)(가소 제68조 제1항)을 신청할 수 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게 되면, 이를 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위자료는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나) 재산분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하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고 있던 생활기반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므로, 이제 이혼으로 생활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것이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이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되기도 한다. (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또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시기가 확정된 경우 공동재산으로 본다.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틀리므로 본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재산분할청구도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신청(가소 제64조) 또는 강제집행(가소 제41조)을 할 수도 있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100만원이하)(가소 제67조 제1항), 감치처분(30일 이내)(가소 제68조 제1항)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만 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그리고 현행법상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신용정

보주식회사,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알아낸 뒤 법원에 이를 주장하여야 하고, 국세청 등을 통하여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부동산을 재산분할 받으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3) 자녀와의 관계

(가) 친권 :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다. 법원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젖먹이 등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유리), 성별(여자일수록 어머니에게 유리), 자녀의 의사(특히 15세가 넘으면 반드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결혼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본인 및 주변환경, 경제적인 능력,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느냐(가능하면 현재 자녀가 있는 환경을 변경시키지 않으려고 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녀를 꼭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별거가 시작되면 자녀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자녀를 누가 양육하건, 자녀에 대한 ‘친권’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부모나 자녀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단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친권행사자’만 지정될 뿐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 양육비는 1명당 20만원 내지 30만원 전후로 인정되며,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로 하여 인정된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비가 정해지거나 상호간의 합의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더라도, 상대방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뒤 이를 강제집행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다.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후일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성(姓)도 바뀌지 않고 호적도 친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다.

(나) 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

녀를 만나고 자녀와 편지를 교환하며 전화통화를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새로이 인정하였다(민법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은 통상 한 달에 두 번 정도(예컨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시까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는 7,8월과 12,1월에 각각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기타 생일, 명절, 크리스마스 등을 이용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4) 호주제

호주제는 이혼관련법률은 아니지만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호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일환으로 여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성정책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호주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여 민법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민법 제 4편(친족법)’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현재 호주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중요쟁점은 헌법상 남녀평등이념과 평등한 가족관계형성에 위반되는 ‘호주승계’, ‘이혼 후 자녀의 입적 및 부자동성주의’, ‘결혼후 처의 입적’, 그리고 ‘호주제도의 존치여부’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녀의 입적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족공동체가 이혼에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그 당사자가 여성일 경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부부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므로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되어버리게 되고 이럴 경우 자녀의 호적을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 호적에 함께 기록 될 수 없다. 따라서 자의 부가입적과 부자동성원칙은 이혼한 여성가정의 호적상 불합리를 가져오고 있다.

한부모가족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

1) 여성단체 한부모가족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 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http://hanbumo.womenlink.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운동 ▪ 집단 프로그램("새로 짓는 우리집"을 위한 한부모 교실/여성주의 집단상담/자기성장집단상담/한부모자녀 집단 프로그램) ▪ 자조모임 ▪ 가족캠프(어린이캠프) ▪ 정책토론회 ▪ 한부모 지원상담 ▪ TV 모니터링 사업
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행복찾기 모임터 ▪ 가족캠프 ▪ 법률서비스
여성의 전화 (http://www.hotline.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적응을 위한 집단상담 ▪ 이혼여성의 자녀관계를 돕는 프로그램 ▪ 싱글여성 캠프 ▪ 가족캠프 ▪ 모임운영

2) 지역사회복지관의 한부모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	대상	부모	자녀	기관사업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업 및 취업 상담·알선 ▪ 의료비·보험료 지급 ▪ 자립금적립지원 ▪ 자조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비(장학금)지급 ▪ 학원비 보조 ▪ 결식·급식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상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 집단상담/지도 ▪ 자조모임 ▪ 가정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 집단상담 ▪ 자녀자조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지지방 구축) ▪ 후원사업 ▪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료기관·기업대상 옹호서비스 ▪ 생활정보 제공 ▪ 무료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지도 ▪ 학교·교사대상옹호서비스 ▪ 자원봉사자와의 결연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역할교육 ▪ 자녀교육 프로그램 ▪ 법률정보 등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교실 ▪ 특기지도 ▪ 야외학습 및 특별활동 	
	보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보호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사례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입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함 		
	가족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캠프 ▪ 가족의밤 		

2-1) 복지관의 부모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실시 복지관	내 용
부모역할 교육	방화6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조모임을 통한 모자가정간의 유대감 강화 및 정보 교환 • 내용: 모 자신을 위한 삶, 자조집단 형성방안, 또래집단에 대한 관심, 자녀와의 연락망, 한부모가족이 부딪히는 문제, 적응과정, 가족구조의 변화 및 모자복지법
	대구사직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가족대화법 및 가정 내 부모역할훈련' (가족이해 및 관계강화 교육), '쉽게 다가가는 경제: 효과적인 가계운영법'(경제특강)
자녀교육 프로그램	이대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자녀에게 있어서 상실의 의미, 가족구조의 변화와 역할분담, 자녀의 건강한 자아상 확립, 부모자신의 홀로서기 등 • 기간: 주 1회, 총 4주의 과정 • 유료
	대구서구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성장발단기에 따른 자녀 이해와 부모역할성 교육, 여성건강관리 등에 관한 특강을 2회 실시
특 강	대구서구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꽃꽂이, 선물포장 등

3) 모자보호시설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 \ 대상		부 모	자 녀	기 관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생계비 지급 ▪ 보육비용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비 지원 ▪ 급식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 후원자개발 및 결연사업
심리·사회적 지원	상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상담 ▪ 집단상담/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생활지도(정기예배) 	
	의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 신체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 의료비보조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역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방(방과후지도) ▪ 예능활동 ▪ 특강(성교육) ▪ 문화·체험활동 	
	사례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퇴소 상담 및 정기상담을 통하여 각 가정에 맞는 대인서비스 지원/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날/어버이날 ▪ 성탄 ▪ 체육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 수련회/야유회 ▪ 가족캠프 	

4) 모자자립시설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프로그램	내 용
▪ 퇴거준비 프로그램	퇴거세대에 대해 시설 퇴소후 자립에 대한 안정적인 준비를 마련하기 위해 퇴거세대 및 퇴거예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자조집단(월례회)	한부모 서로들의 지지관계망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마련하며, 자립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효과가 있으며 교육 및 토론, 반사회 등의 형태로 진행됨.
▪ 소자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창업에 대한 기본교육,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내용교육(자금조달 방법, 성공사례 발표),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 등을 실시함.
▪ 신규입주세대를 위한 세대별 자립계획 지원	신규입주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자립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세대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짐.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캠프, 생일잔치, 송년회 등의 다양한 행사 개최
▪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학습지도 및 상담, 방학프로그램, 자녀캠프 등.
▪ 모자자립시설 시설보수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5) 인터넷 공동체 현황

site	내 용
ssolo.com (2000. 3월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사업 • 대안학교 • 정보교환장 • 자녀교육정보 • 대부·대모코너 • 키드(kid)게시판
www.divorcenet.co.kr (2000. 5월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관련 정보제공 • 부모교육 프로그램 • 이혼관련 전문가 및 관련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www.happydate.or (2000. 10월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남녀 및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모임.
www.0to7.com의 '한부모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 육아 포털 사이트인 www.0to7.com의 클럽의 하나로 한부모 가족들의 모임임.

6) 종교단체 : 새출발교회와 가정상담선교센터의 프로그램

새출발교회('이혼자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별거한 남녀들의 집단모임으로 1988년 11월 부산에서 첫 모임을 시작하여 현재는 서울에 클럽이 결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매주 60명 정도가 모임. 이혼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의사소통 훈련,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소집단 상담, 이혼 후 야기되는 가족 구성원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다과회 및 야유회, 자녀 교육 특강, 건강교육, 이혼 후 대인관계 개선, 집단상담, 개별상담, 야외 행사(수련회, 워크샵) 등을 실시함. - 교육내용으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방법', '개인 청문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려면' 등과 같은 집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
가정상담선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모 및 남편의 장애 등으로 실질적 여성가장이 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주로 이혼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부들이 이혼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7) 한국가족상담연구소의 프로그램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http://www.consult.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정을 통해 개발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개강좌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상담과 가족생활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모자보호시설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연구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한부모가정의 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미혼모를 위한 가족생활 프로그램' 등이 있음
--	---

8)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지원 내용

사 업		내 용
홍 보		○ 유선방송, 반상회보, 지역정보지 및 후견기관(혹은 모기관)이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하여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1차 상담	○ 구청 및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가구현황조사, 전체적인 사업소개, 개인의 근로능력, 사업참여 의사와 관심 분야 등을 파악.
	2차 상담	○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들과의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개인적 상황과 가구상황을 고려하는 심층 상담.
	교 육	○ 생계비 산정방법, 국기법에 대한 이해, 빈곤에 대한 이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공동체 의식 등 개개인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자활을 위한 장기적인 의식변화를 꾀하는 교육 실시
자활사업의 배치		○ 1, 2차 상담을 통한 적정 사업에의 배치
자활사업의 선정		○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 창출 ○ 시장진입형 프로그램: 무료간병인 사업단, 집수리 사업단, 물세탁 사업단, 방역·소독 사업단, 떡지원사업단 등.
지역자원의 연계		○ 복지자원(보육정보 등)과 경제적 자립자원의 파악 및 연계 ○ 지자체와의 협조: 공동작업장의 무상임대

9) 빈곤지역 공부방

공부방은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층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지원의 열악함으로 인해 신체발달의 불균형, 학습능력의 저하,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일탈 및 비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빈민지역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지역의 문제를 공유함과 동시에 그 지역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시작되었다 (이용교, 2000). 최근의 공부방은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의 한 형태로, 실직가정 및 저소득가정, 가정해체로 정상적 아동보육이 행해지지 않는 가정의 아동, 결식아동, 방임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 학습지도를 비롯하여 음악·미술·공동체놀이 등의 문화활동, 다양한 심성훈련과 상담 및

권익보호활동,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빈민지역 청소년들의 인성적·지적 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전국에 걸쳐 500여개의 청소년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공부방은 지역적 제한, 접근성 등의 문제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가용자원이 될 수 있으며, 최근 아동보육 조례 제정을 통한 공부방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어 모자복지법상의 모자·부자가족의 아동도 지원의 우선순위에 적용이 되며, 더욱 체계화된 아동보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과제

(장혜경외 2001. 여성부)

과제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1.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방안 마련 1-2.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1-3. 다양한 가족형태에 기초한 각 유형별 건강한 가족사례 발굴 및 시상 1-4.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편견을 막기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자료 마련
과제 2. 한부모가족 당면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2-1. 호주제 폐지 및 주민등록제도 개선 2-2. 한부모 및 여성가장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모자복지법 보완 2-4.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양육비 청구 및 지급관련 법·제도 개선 2-5. 의료보호제도의 보완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도모
과제 3.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마련
3-1. 생계안정을 위한 취업 훈련 프로그램 3-2. 소자본 창업 훈련 및 창업 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3-3. 지역사회 특성에 기초한 창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 개발 3-4. 취업 및 창업 관련 정보망 구축 3-5. 주거 안정 지원
과제 4.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대책마련
4-1.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방안 마련 4-2. 한부모 여성-자녀를 위한 부모자녀관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4-3. 주간 보호, 단기보호 및 방과후지도시설 확충 4-4. 자녀 학업지도 확대 및 다양한 특기적성, 취미교실 프로그램 마련 4-5.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
과제 5. 한부모가족의 사회·심리적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
5-1.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2.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3. 우수프로그램의 발굴 및 장기적 지원
과제 6.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실무자 역량 강화
6-1.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6-2.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6-3. 한부모가족 대상 전문치료프로그램 운영기관 설립 및 전문가 양성
과제 7. 한부모가족의 가족원 특수상황에 대한 전문적 프로그램 마련
7-1. 알콜, 도박, 폭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부모족 지원 방안 마련 7-2. 장애인 및 만성질환 가족원이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마련 7-3. 정신질환 가족원이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마련

[과제별 구체적 내용]

과제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1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방안 마련
개 요	·우리 사회에는 한부모가족을 ‘결손가정’, ‘문제가족’ 혹은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한.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변화를 고려해 볼 때 이제는 한부모가족을 현대사회에서 당연히 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가족형태로 수용하는 현재적인 가족의 패러다임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세부 추진 과제	1-1-1. 다양한 가족형태의 수용과 홍보: 애니메이션 및 만화 홍보 1-1-2. 교과서 내용개정 및 교사대상 교육 실시 1-1-3. 대중매체를 통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개선: 드라마, 공익광고 등 1-1-4. 한부모가족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자랑스런 어머니상 등 1-1-5. 양성평등의 부부관계 및 부모역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지원 정책 실시
연계 부서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1-2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방안
개 요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결핍 뿐 아니라 정서적 결핍을 경험함. 아동 및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대학생이나 일반 가정과 결연토록 하여 학습지원 및 인성지도, 심리적 지원을 연계해 주는 것은 이러한 결핍을 감소시켜줄 수 있음. 또한, 방과후 공부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필수적임. 그러나, 자원봉사자들 역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없이 투입될 경우 도리어 편견 등으로 한부모 가족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음. 따라서, 한부모 사업에 활용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전에 충분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청됨.
세부 추진 과제	1-2-1. 지역사회 소규모 모임이나 대규모 운동회를 통한 가족간 교류 증대 1-2-2. 지역사회 지도자급(교육, 종교, 의회, 관공서)을 대상으로 한 한부모가족 관련교육 1-2-3.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전문화 1-2-4. 지역사회 소모임 형성 및 지원
연계 부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여성단체

1-3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막기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제도 마련
개 요	·한부모 가족은 담당공무원의 무시나, 교사의 비하적 발언, 병원이나 기업으로부터의 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부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련기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한부모가족에 대한 적절한 옹호와 홍보를 통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적절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
세부 추진 과제	1-3-1. 행정기관(구청,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 담당자 대상 각종 한부모가족관련 법적 내용 및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
연계 부서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과제 2. 한부모가족 당면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2-1	한부모가족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존립기반 마련
개 요	·호주제도의 존치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재적응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혼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는 현행 호주제는 한부모가족의 존재근거를 법적으로 거부하고 있음. 즉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민등록상에도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록되게 됨.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씨·본적·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음. 한편, 현행법상 부부공동명의로 1가구 2주택으로 구분되어 세금을 더 내도록 되어 있어 부부의 평등한 존립기반을 저해하고 있음.
세부 추진 과제	2-1-1. 호주제 폐지 2-1-2. 호적 및 주민등록 제도 개선 : 한부모가족 여성의 자녀 친권행사 개선 2-1-3. 세제정책 개선
연계 부서	법무부, 행정자치부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대상자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함.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저소득층 모자가정이 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로 포함될 추세임. 그러나 최저생계선 이상 차상위층에 속한 한부모가구주들의 경우 생계상 필요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한부모가족에 대한 한시적 보호조치나 한시적 우대조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함.
세부추진과제	2-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한부모가족 지원근거 마련 2-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 수급자에 대한 보육시설 및 보육비 지급의 현실화 2-2-3. 연령 및 직업경력, 학력에 따른 특성화된 자활사업 마련 2-2-4. 조건부수급권자 한부모가구주 추가노동 인센티브 제공 2-2-5. 장애 및 만성질환자 보호하고 있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권 제공
연계부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2-3	모자복지법 관련 재정비
개요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우리 나라의 한부모가족을 정책대상으로 한 유일한 사회적 지원책으로 그동안 모자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 생계비 지원 및 의료비 지원 항목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모자보호시설과 자립시설을 이용하는 한부모가구가 지역사회내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채 영구적 빈곤층을 형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됨.
세부추진과제	2-3-1.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간의 조율을 통한 생계비/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2-3-2.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 상담 프로그램 마련 2-3-3. 모자보호 및 자립시설의 효과성 평가
연계부서	보건복지부, 법무부

2-4	의료보호제도의 보완을 통한 한부모가족 건강한 생활도모
개 요	· 저소득계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가 있으나 절대빈곤층이 아닌 한부모가족은 수혜대상이 되지 못함. 현행 의료보호제도 하에서는 시설보호나 거택보호의 대상자가 아닌 이상 의료비의 면제는 불가능해서 한부모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특히 한부모가족 중 가족원이 만성질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가족전체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세부 추진 과제	2-4-1. 차상위층 한부모가족 의료보호제도 지원을 위한 법적 정비 2-4-2. 장애 및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료 보호 1종 제공
연계 부서	보건복지부, 법무부

2-5	자녀 양육비 청구 및 지급 관련 법· 제도 개선
개 요	· 한부모가족은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조사에 의하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사람은 11.5% 정도임. 70%는 이혼이나 별거시 자녀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거나 아예 양육비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음. 양육비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57.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월별지급액도 자녀당 20-30만원 선으로 비현실적임. 전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감치처분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를 재점검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강구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세부 추진 과제	2-5-1. 이혼시 자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강제 강화 및 지급액의 현실적 조정 2-5-2. 자녀 양육비 청구 선급제 제도 도입 2-5-3. 아동 수당제도 도입 방안 마련
연계 부서	법무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2-6	기타 법·제도 정비
개요	·최근에 들어 한부모가족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부재한 실정임. 저소득층에 대한 한정된 지원을 벗어나 전체 한부모가구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지원법이 필요함. 특히 남편의 유무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실질적인 여성가장이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방안이 보다 실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이외에도 여성 한부모가구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세부 추진 과제	2-6-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 추진 2-6-2. 한부모지원 종합정보센터 마련 2-6-3. 한부모가족 여성 취업 불평등시 행정처분 제도 마련 2-6-4. 창업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2-6-5. 모자가정 신청절차 간소화 및 동일내용 지원 신청시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
연계 부서	행정자치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과제 3.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마련

3-1	한부모 가족의 생계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
개요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즉 생계유지 곤란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혼 및 사별후 일정한 취업경험이 없었던 여성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한부모가구주가 된 여성들의 연령이나 학력수준, 취업 경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생계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이혼이나 사별직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구에 대해서는 저이자 융자를 통한 정착금 지원 등이 필요하며, 취업 교육 및 취업알선을 강화하되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세부 추진 과제	3-1-1. 한부모 가구 여성 대상 취업교육 및 취업알선 3-1-2.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급여 지급수준 현실화 3-1-3. 한부모가족 초기 정착을 위한 정착금 지원 3-1-4. 소자본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창업 지원 3-1-5. 다양한 소자본 창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3-1-6. 창업 준비를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실시 3-1-7. 공동작업장 및 자활공동체를 통한 취업문제 해결 모색
연계 부서	노동부, 보건복지부

3-2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
개요	·본 연구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부모가구에서 자립을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함께 기거할 주거공간의 확보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은 영구임대아파트와 전세금 지원 등이 있으나 혜택을 받고 있는 숫적 비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임. 또한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고립적으로 형성됨으로써 주변의 편견이나 아동들의 탈선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안정 지원방식이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세부추진과제	3-2-1. 주거지원 확대: 영구임대주택의 일방적 제공이 아닌 주택공사의 일반 아파트 분양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 3-2-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 계속 실시 3-2-3. 전세자금 저이자 대출 및 융자 3-2-4.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방안 마련 3-2-5. 여성가장이 자녀 양육시 주택에 대한 점유권 보호
연계부서	건설부, 행정자치부

과제 4.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대책마련

4-1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방안 마련
개요	·많은 여성 한부모는 생계유지상 어려움 이외에도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모자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등록된 한부모가구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업료(육성회비 포함)에 한정되며 고등학교까지만 해당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녀가 원할 경우에도 보충학습을 받게 할 수 없으며 대학교 학자금 문제로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세부추진과제	4-1-1.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자금 지원 확대 및 지원 시기 조정 (인문계 및 대학 포함) 4-1-2. 자녀 교육비 실비지원(급식비, 교재구입비 등) 4-1-3. 인터넷 사용료 및 컴퓨터 구입비 지원 4-1-4. 사교육비 지원 방안 마련 4-1-5. 자녀를 위한 신발 의류구입 쿠폰 제도 마련
연계부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4-2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 요	·이혼, 사별 후에 이혼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도 심리적 충격을 겪게 되며, 특히 이혼 후 새로운 가족관계가 설정됨에 따라 그 관계구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음. 이혼 당사자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은 한국가정법률상담연구소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이혼 이후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발달되어 있지 못함. 특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심리적 갈등, 가족 내 관계의 재구성으로 인해 심리 정서적 문제와 당면할 가능성이 높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므로 개발이 시급함.
세부 추진 과제	4-2-1.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상담프로그램 개발 4-2-2. 자녀의 자조모임 및 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2-3. 한부모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의무화 4-2-4. 한부모가족 캠프, 영화관람 등 오락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마련 4-2-5. 우수프로그램의 발굴 및 장기적 지원
연계 부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4-3	보육 및 방과후 지도 시설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
개 요	·한부모가족의 여성가구주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 보육문제임. 특히 6세미만의 아동이나 저학령 아동을 데리고 있는 여성들은 더더욱 어려움에 처하며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결과로 이르기기도 함. 그동안 정부는 보육시설확충3개년 확충사업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 수를 늘려 000년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19,325개에 달함. 그러나 양적 팽창과는 달리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저조로 인한 고가 비용문제나, 취업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 낼 수 없는 보육시설 이용시간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더불어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세부 추진 과제	4-3-1.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4-3-2. 단기보육보호시설 마련 및 확대 4-3-3. 방과후 공부방 지도시설 확충 및 수혜대상의 확대 4-3-4. 충분한 급식, 놀이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보육, 보호수준의 향상
연계 부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건설부

4-4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지도 프로그램 확대
개 요	·본 연구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요소 중의 하나는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이며 특히 학업성취도가 높을 때 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학과수업에 보충의 필요를 느낄 때에도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서 학업성취도가 낮아 지거나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기도 함. 따라서 한부모가족 자녀들에 대한 학습 지원 및 안전한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더불어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도 프로그램은 집단지도 프로그램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음.
세부 추진 과제	4-4-1. 학업부진 아동을 위한 보충교육 프로그램 마련 4-4-2. 방과후 학습지도 프로그램 마련 4-4-3. 학습지도 프로그램과 집단지도 프로그램의 병행운영
연계 부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4-5	한부모가족 아동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개 요	·성장기에 있는 아동기의 자녀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동일한 프로그램과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낮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아동들은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생활습관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므로 프로그램 개입의 필요성도 높고 그만큼 효과도 큼. 따라서,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차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아동들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처럼 다양한 문화체험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 추진 과제	4-5-1. 아동영양상태 정기 점검과 결식아동 지원 4-5-2. 아동건강검진(보건소나 인근 병원과의 연계) 4-5-3. 아동보육프로그램의 도입 및 확대 4-5-4.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의 차별화 4-5-5. 인성교육 및 성교육 강화 4-5-6. 문화, 여가프로그램 지원확대(취미교실, 영화 관람, 견학 등)
연계 부서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과제 5. 한부모가족의 사회·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5-1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개 요	·한부모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은 어렵고 자녀 양육과정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따르며, 자녀에게 충분히 해 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죄책감을 갖기도 함. 따라서, 한부모가족에게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모역할 교육 및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또한 한부모들은 이성문제, 재혼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도 주변인들에게조차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자녀들에게만 실시되는 성교육을 부모들을 위해서도 실시하여 개방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음.
세부 추진 과제	5-1-1. 한부모가족 부모역할교육(부모-자녀 관계형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의무화 5-1-2. 자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1-3. 한부모를 위한 성교육 실시
연계 부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5-2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 요	·이혼이나 사별 후에 한부모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도 심리적 충격을 겪게 되며, 특히 이혼 후 새로운 가족관계가 설정됨에 따라 그 관계구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음. 이혼 당사자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은 한국가정법률상담연구소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이혼 이후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발달되어 있지 못함. 특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심리적 갈등, 가족내 관계의 재구성으로 인해 심리 정서적 문제와 당면할 가능성이 높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므로 개발이 시급함.
세부 추진 과제	5-2-1.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상담프로그램 개발 5-2-2. 자녀들의 자조모임 및 집단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연계 부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5-3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 및 장기적 지원
개 요	· 현재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주로 공동모금회나 민간복지재단 등의 민간기관이며, 이들 기관은 자체규정상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 보통 2년 이상 지원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 사업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특성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우선 발굴하여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점차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세부 추진 과제	5-3-1. 우수한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사례의 정기적인 발굴 5-3-2. 프로그램 특성별로 지원기간의 차등화
연계 부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과제 6.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실무자 역량 강화

6-1	한부모가족 지원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개 요	· 이혼이나 사별후 한부모가구가 된 여성들의 경우 호적재편, 재산분할, 자녀들 전학 및 입학문제, 보육시설 정보 등은 물론 취업 및 창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나 모자가정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갖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형성기나 과도기에 한부모가족의 가구주나 자녀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적지 않음. 따라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세부 추진 과제	6-1-1. 한부모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제반 정보의 시스템화 6-1-2. 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한부모가족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및 성인지적 교육 실시 6-1-3. 한부모가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건립 방안 모색
연계 부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6-2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개요	·한부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그 내용은 점차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지만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교류는 미흡한 실정임.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인력, 시간 등의 자원을 절약하고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사회내의 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함.
세부 추진 과제	6-2-1. 복지관, 시설, 단체 등 유관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6-2-2. 지역사회 내 지원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학교, 병원, 관공서, 기업 등)) 6-2-3. 각종 결연사업 추진 및 후원금 지급
연계 부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6-3	전문 치료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설립 및 전문가 양성
개요	·기존에 일부 사회복지기관이나 여성단체에서만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내용성에 있어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전문가를 초빙할 경우 그 비용이 너무 고가로 일반 수요기관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전문 치료프로그램(미술치료, 음악치료, 댄스치료 등)을 담당할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세부 추진 과제	6-3-1. 전문 치료기관의 설립 6-3-2. 치료 전문가의 양성
연계 부서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6-4	실무자 대상 교육 실시
개요	·일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단체 등의 실무자들은 한부모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가 취약함.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한부모가족관련사업을 실시해 온 여성단체 등에서는 집단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를 상당수준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확산, 교육시키고자 하나 체계적인 통로가 없는 상태임. 이런 노하우의 확산을 위해서는 한부모관련 사업을 수행할 기관의 중간관리자급은 대상으로 한부모사업 전반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략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야함.
세부 추진 과제	6-4-1. 리더쉽 훈련 실시
연계 부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과제 7. 한부모가족의 가족원 특수상황에 대한 전문적 프로그램 마련

7-1	알코올, 도박, 주벽,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개 요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알코올, 도박,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들은 이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이들 가족에게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외에도 각각의 특수한 욕구들에 대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가족 치료 등의 전문적 개입을 실시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세부 추진 과제	7-1-1. 알코올, 도박, 주벽, 학대 당사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7-1-2. 문제가정 가족원 전체에 대한 가족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사업 확대
연계 부서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7-2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가족원이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개 요	·가족 중에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 때문에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들고, 계속적인 추가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됨. 따라서, 노동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장애 및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의 제공을 위해서는 주간보호 및 재가 복지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함.
세부 추진 과제	7-2-1. 케어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 및 주간보호 확충 7-2-2.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간병인,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연계 부서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생애주기별 과제]

생애주기	정 책
(1) 10대 혹은 미혼모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지도 : 고등학교 졸업 유도 • 취업상담 • 생활수행 교육 • 미혼모 부모교육
(2) 20대 혹은 조이혼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교육 특성화 : 전문적인 직업교육 •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 및 단기보육시설) • 주거자금 지원 • 향후 취업 및 인생설계 상담 • 부모역할 교육
(3) 30대 혹은 자녀취학기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 및 단기보육시설) •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연결 및 강화 • 자녀들의 건강 및 영양에 대한 점검과 지원 • 취업 및 창업상담 • 자녀양육/교육비용의 배우자의 분담 강화 • 주거자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우선권 • 부모역할 교육
(4) 40대 혹은 자녀청소년기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작업장 및 소규모창업 상담 •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학습부진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 한부모가족 청소년 캠프 • 자녀양육/교육비용의 배우자의 분담 강화 • 주거자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우선권 • 부모역할 교육
(5) 50대 이후 혹은 자녀성년기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및 의료지원 •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방안 • 시간제, 공동작업장 등의 일자리 모색 • 행복한 노년을 설계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 한부모가족 공동체 형성 • 원룸(one-room) 주거공간 마련 •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한부모가족 지역사회정착에 기여한 우수 사례]

1) 자조모임을 통한 사회적, 심리적 자립 성취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의 한부모 자조모임(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 자조모임은 집단 프로그램인 ‘한부모 교실’의 후속모임으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임. 1997년 1기 자조모임을 시작으로 2001년 현재 4기까지 조직되었으며, 매 기수마다 4~7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음. 월 1~2회의 자조모임을 통해 그들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독서토론 및 여행 등과 같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자조모임의 형성초기에는 상담소의 전문가가 개입하여 조직 및 운영을 지원하며, 2~3년 이상 자조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더 이상 전문가의 개입 없이도 자발적인 모임을 스스로 운영해나가고 있음.
- 자조모임은 한부모 프로그램에서 궁극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한부모들의 노동조건상 시간 조정이 어렵고, 초기에는 서로 모이기를 꺼려하는 특성상 자조모임의 조직과 특히 장기적 지속은 매우 어려우며 실제로 자조모임이 잘 운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임. 그런 측면에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인 자조모임의 형성을 유도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지속적인 모임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는 민우회의 자조모임은 그 형성과 유지의 측면 모두에서 매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 자조모임 형성의 발판이 된 집단 프로그램『한부모교실』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업의 목표

- 한부모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내고 나눔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한다.
- 이혼, 별거과정에서 오는 실패감, 우울, 좌절감등에 대해 함께 나눔으로써 혼자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통한 자매애 형성하고, 이를 통해 힘을 얻는다.

- 자기이해, 자기탐색, 자기수용의 기회를 마련한다.
-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서로 돕기 모임으로서의 연결을 유도한다.

(2) 진행방법

- 매월 3째 주 토요일 오후 3시~6시(또는 7,8시까지도 진행)

(3) 프로그램 내용(예)

프로그램 명	내 용
한부모로 홀로서기: 즐겁게 당당하게	유명 한부모의 경험담을 통해 우리 안에 공통점 찾고 서로 를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함.
다양한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친해 지기/스트레스 해소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자기개방, 자기수용의 기회 마련
사례발표	한부모의 삶을 나눔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어떤 것들 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 공유
감정 느끼고 표현하기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
나의 의사소통방법, 자기표현방법	이혼, 사별의 과정에서 오는 실패감, 분노, 좌절감 등 공유
정보교환	한부모홈페이지, 관련 사이트 등과 기타 정보를 공유
집단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과 나를 조금 더 드러내자, 내가 원하는 것 알 아보기
이혼과정에서 힘들었던 것 드러내기	자신의 문제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분리하기
나의 잠재력 찾기	나의 장점 찾고 자신감 회복
나의 미래 계획 세우기	그 동안의 모임을 통해 힘을 모아 새로운 삶을 꾸려갈 것을 다짐함

(4) 사업의 성과 및 내담자의 변화

- 이혼(별거)과정에서의 복잡하고 힘든 감정을 드러냄.
- 자신을 이해하고 남을 이해함으로써 참여자들간에 이해와 결속력이 생김.
- 자신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바로 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됨.
- 자신이 행복해야만 자녀와 함께 긍정적인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됨.
-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동료와 단체가 있음을 확인

함으로써 힘이 됨.

- 상담 지원과 정보제공으로 심리적/정서적인 안정을 찾게 됨.
- 모임에 나와 힘을 얻어가면서 자녀와의 관계, 대인관계에서 여유가 생김.
- 모임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회원들이 많이 늘었음.
- 모임에 나오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갔다고 말하는 회원이 많았음.

2) 지역사회 결연사업(대모/대부, 복지관 방과후)을 통한 자녀교육문제 해결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 지원 사업(한울교실, 학습지도 서비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방과후교실이나 대학생 자원봉사자와의 1:1 결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지속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기도 함. 또한 비슷한 환경의 자녀들만이 모인다는 점에서 낙인을 경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함.
- 단순한 봉사자 연결이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욕구에 부합한 최적의 서비스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이르게 된 하나의 대안으로써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의 학원과 연계하여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학원의 수강료를 감면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 내용은 국·영·수 등 학원의 과정을 따름. 학생들과의 사전면담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욕구 등을 확인하고 권리라는 측면을 인식시키며, 학원 내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주고 있음. ‘한울교실’은 지역사회의 학원이라는 자원을 발굴하고, 박탈감 및 소외감을 경험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교육을 통해 또래 아동들과 함께 어울리는 정서적인 효과도 함께 거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는 아래와 같음.
 - (1) 서비스 제공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라는 이중 취약 구조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발달을 위한 충분한 자원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최해경,1999:28). 이러한 취약한 구조에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 체념주의적 사고에 쉽게 빠져들 수 있고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유해환경에의 노출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정무성, 2001) 그만큼의 일탈행동 가능성도 확대될 수밖에 없음.²⁶⁾

- 특히 광장 복지관의 주된 서비스 제공 해당 지역인 광장동과 구의 3동은 광진구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곳으로²⁷⁾ 특히 광장동은 대부분이 중형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중산층 이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역임. 이 지역 안에 포함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이 겪게 될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은 타 지역의 동일 대상자들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바로 한울교실임.
- 한울교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 수행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그 가정에 자원들과 여러 기회들을 제공하여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청소년 일탈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2) 목적 및 목표

- 목적 :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 수행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청소년 일탈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도록 한다.
- 목표 :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 ① 5개 이상의 학원과 연계를 맺어 대상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원하는 대상자에게 개별학습지도봉사자를 지속적으로 연결한다.

26) 원조교제 경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지검 자료에 의하면 정상가정은 41.7%, 결손가정은 58.3%로 나타났다.

27) 광진구, 광진복지 5개년 종합계획(1997-2001년) 『복지골 내 고향 광진, 광진구』, p. 22.

③ 서비스가 제공된 대상자들의 70%가 성적이 향상된다.

(3) 서비스 제공 과정

- 지역사회학원 연계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 학업에 대한 욕구와 그에 부응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한울교실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둘째,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그 어떠한 소외감도 느끼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셋째,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전체의 관심과 지원으로 해결함.
- 광장동과 구의동에 있는 학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원장들과 통화한 결과 학원의 원장들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임으로써, 학원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원장들의 지지와 후원을 약속 받게 됨.

(4) 서비스 제공 결과

- 8개의 학원이 참여하고 총 24명의 학습지도 봉사자가 참여하여 2001년도 총 16명의 청소년들이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받음. 청소년들이 연결된 각 학원에서는 월별로 소견서(학업수행 능력 및 생활 태도 등 기록)를 복지관으로 발송해주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주력하고 있음. 연계사업에 동참하는 학원 및 연결되는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사례

* 이름 : ☆☆☆

* 학년 : 중학교 3학년

*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 학원 연계 후 성적이 64점 ▶ 77점 ▶ 79점 ▶ 82점까지 오름. 처음에는 학습지도 봉사자를 연결했었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다지 나아지는 것이 없다가 학원을 연결하고 나서부터 성적이 점점 오르기 시작함. 성적이 오르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에 대한 의욕이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을 밝힘.

3)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경제적 자립방안 : 마포자활지원센터의 맛을 만드는 사람들

- ‘맛을 만드는 사람들’은 마포자활지원센터의 자활창업공공근로 사업 중 외식창업사업단으로 1999년 7월에 사업을 시작함.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한부모 여성들이 참여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 추진배경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추진배경

- 생계가 곤란한 여성가장의 근로능력향상 및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구성 필요
- 도시락, 출장요리 등 빈곤여성의 참여가 가능한 자활사업프로그램 개발
-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재창출 필요
- 빈곤계층 자활사업의 사례 및 전형 창출

(2) 사업내용

- 영업적 측면
 - 출장요리: 각 복지관, 시민·사회단체 등(겨울에 집중)
 - 행사용 도시락: 관내 어린이집
 - 김밥, 샌드위치 등: 이화여대 생활협동조합(3월~6월, 9월~12월)
- 자활공동체 구성 측면
 - 조합원 3명(대표 김○○이 여성 한부모임)으로 구성된 자활공동체 구성
 - 민주적인 회의과정 습득

(3) 추진실적

- 조합원 : 3명
- 연간 고용인원 : 15명

- 참여자 월 평균 임금 : 85만원
- 연간 매출 : 약 18,000만원(2000년 10월~2001년 9월)
- 인건비 : 약 6,000만원(위 기간 중 16명 참여)
- 순수익 : 약 1,300만원

(4) 성과 및 기대효과

- 생계안정(참여자 월 평균 임금 85만원)
- 여성가장자활공동체 정립(현 조합원 3명)
- 수익의 사회적 환원 시행: 2000. 3월부터 아현동 인근 지역 내 독거노인 반찬 도시락서비스 20case 무료 제공
- 자활공동체를 통한 고용창출 도모(연간 평균 15명 고용)

(5) 향후계획

- 조합원 증대를 통한 생산자 협동조합 정립
- 매출신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고용 확대와 소득향상

4)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의 전문가 지원상담

- 이 프로그램은 한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 및 자녀양육 문제 및 정서적 문제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변호사, 자녀문제 전문가 및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의 전문가들이 직접 문제에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크지만 1회 상담으로 그치기 때문에 전문상담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전문가와 연계해주는 등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부모들을 위한 전문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은 여타의 프로그램에 비해 아직 취약한 분야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전문 강사에 대한 강사비의 현실적 책정, 정신건강을 위한 장기적 상담의 정착, 한부모 프로그램 전문가뱅크 조직 등이 제안될 수 있음.

(1) 프로그램의 목표

- 전문가 면접상담을 통하여 한부모들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전문상담을 통하여 한부모 자신의 정신적인 어려움, 자녀교육의 어려움, 법과 제도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 한부모 자신이 결손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한부모로서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에 있는 한부모들이 쉽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한부모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한다.
- 자녀교육 상담을 통해 부모, 자녀간의 이해를 도와 자녀와의 갈등을 극복한다.
- 법률 상담을 통해 무지로부터 오는 불이익이 없도록 이혼 직전이나 직후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의 문제와 위자료, 부부재산 분할청구, 양육비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러한 지원상담을 통해 지역에서 자조모임을 갖도록 함으로서 한부모 스스로가 격려받고 자존감을 높이도록 한다.

(2) 프로그램 진행방법

- 격주 월요일 저녁 7시~10시 전화 예약 후 상담가능(1회 3~5인정도)

(3) 프로그램내용

- 정신건강 상담 : 한부모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함.
- 법률 상담 : 무지로부터 오는 불이익이 없도록 이혼 직전이나 직후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 특히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의 문제와 위자료, 부부재산 분할청구, 양육비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자녀교육 상담 : 부모, 자녀간의 이해를 도와 자녀와의 갈등을 극복함.
-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한부모들의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절한 전문가상담의 내용과 형태를 진행하도록 함(제테크, 주택마련, 소호창업에 대한 정보 제공, 미술치료등).

(4) 서비스 제공 결과 및 효과

일 시	'99년 6월 - 12월 (총 14회)	'00년 1월 - 12월 (총 24회)	'01년 1월 - 6월 현재 (총 9회)
장 소	본 상담소	본 상담소	본 상담소
참석인원	39명	77명	32명
내 용	- 정신건강 6회 - 자녀교육 3회 - 법률 4회 - 사회복지 1회	- 정신건강 9회 - 자녀교육 8회 - 법률 7회	- 정신건강 4회 - 법률 4회 - 자녀교육 1회

- 정서적인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었고 법적, 사회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됨.
-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자신의 심리적 위축감을 드러내고 위로 받음으로서 낮아져있던 자존감이 향상되고 당당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함.
- 정신과 전문의 및 전문 미술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봄으로써 자기통찰을 하는데 도움이 됨.
-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됨.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됨.
- 사회 속에서 느끼는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말하게 됨.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해 이혼 사례들의 경우는 사별로 한부모가 된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꺼려했고 피해의식도 강했으나 상담의 횟수가 거듭되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조금씩 말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좋은 부모 역할의 구체적인 방법을 체득하게 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짐.
- 자녀에 대해 결여된 가족체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해 미안해하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됨.
- 명절 함께 보내기의 경우(군포), 외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한부모들이 함께 모여 즐겁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서로 확인하고 힘을 얻음.
- 창업 등 경제적인 다양한 내용을 접하고 견학하면서 경제적인 감각을 배움.
- 다른 곳에서 쉽게 말하지 못하는 작은 문제까지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지지공동체가 형성됨.

미국의 아동, 가족관련 법률의 제정 연보*

□ Maternity and Parenting Policies 모성과 부모역할 정책

- 1949-69: 1949년의 뉴욕을 선두로, 1969년의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1949년에서 69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에서 주별 한시적 장애보험법(State 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 Laws) 제정. 이 법률들은 1978년에 임신과 모성(출산 후 몸조리를 포함하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
- 1964, 1972: 1972년과 1978년에 수정된 것처럼 1964년의 공민법 제7조
- 1993: 가족간호휴직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 Child-Conditioned Social Assistance 자녀와 관련한 사회원조

- 1911-21: 40개 주에서 어머니와 미망인 연금 법률(1935년에는 45개주)
- 1935: 16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공인된 국가 정책 하에서 지출을 맞추기 위한 공식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법률 제 4조인 피부양 아동에 대한 원조(ADC: Aid to Dependent Children)
- 1950: ADC가 양육자 수당을 포함하도록 개정.
- 1961: '실업자 아버지' 프로그램이 선택조항으로 추가됨.
- 1962: ADC가 보다 포괄적인 정책의 일부로서 규정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AFCD(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로 바꿈. 연방정부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잠재적인 AFDC 가족에게 더 많은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도록 법을 분리함.
- 1967: 긴급원조프로그램을 추가. 수입은 부모가 구직활동을 할 때 제공되는 인센티브로서 추가되는 규정을 무시. 노동 인센티브인 WIN 프로그램이 추가.
- 1975: 자녀부양강제(Child Support Enforcement)정책이 추가됨.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중 한 명이 부양비 50불을 인센티브로서 추가함

*Kamerman, 1997, Family Change and Family Policies in Great Britain, Canad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Appendix.

(1984). 이 법안은 차후 강화됨(1988).

- 1981: 노동 인센티브는 축소됨. 주정부는 수혜자가 최저임금비율 내에서 보조금 만큼의 일을 할 것을 요구하는 선택조항을 허가하였음.
- 1988: 1988년의 가족부양법안은 WIN으로 대체되었음. 종합적인 '직업선택과 기초기술'(JOBS) 프로그램과 함께 3세 이상(주정부별로 1세 이상도 있음)의 자녀를 둔 양육자에 대한 의무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주정부의 참여비율 분담 정도를 정하는 나머지 노동 프로그램은 고용명부에 등록되지 못한 부모들을 지원함(의료보조와 자녀양육). 주정부는 실업자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년 6개월이라는 수급기간에 제한을 둠.
- 1996: 1996년의 '개인 책임과 노동기회 조정법'(PRWORA)은 AFDC와 JOBS 프로그램을 폐지. 또한 기능적 장애아동에 대한 SSI 수당을 줄이고 식량권의 허용치를 삭감하고 수당을 받는 합법적 이민자들의 권리를 엄격하게 제한. 주는 프로그램의 세부항목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 Food Stamps 식품권

- 1964: 식품권 법안(Food Stamp Act)은 자격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적은 비용으로 영양적으로 적당한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라는 쿠폰은 빈곤한계수입의 30%까지 상향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정되었다.
- 1974: 수정안은 주에서 프로그램들을 지정하였다.
- 1977: 개인이 식량권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삭제. 만약 자격요건이 된다면, 개인들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식량권을 갖게 된다. 자격요건에 몇 개의 강제조항이 부과.

□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근로소득환급공제

- 1978: 자녀가 있는 저소득 노동자 가족은 급여 중 일정비율의 tax credit을 그 최대치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즉 credit이 납세자의 연방 소

득세 수준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직접 이전비용, 곧 '환급성 tax credit'의 형태로 과세자에게 되돌려진다.

1987: credit의 수준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절될 수 있도록 함.

1990-93: 두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credit의 규모 확대.

□ Child Care

1946: Child Care Food Program은 1946년에 국립학교급식법안 하에서 권위를 부여하였다. 아침, 점심, 저녁과 간식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원조가 자격있는 보육센터와 개별가족 또는 집단 보육 가정에 제공되었다. 식사를 제공받는 대부분의 아동 연령은 3세에서 5세 사이이다.

1962, 1967, 1988, 1990: AFDC 프로그램이 확립된 상태에서 사회복지법안(SSA)의 4조 A항은 4가지의 다른 보육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그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빈곤한 아동들의 보육에 투자를 한다. 그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AFDC 가족들에 대한 보육 (2) 직업 때문에 AFDC를 떠난 사람들을 위한 보육 (3) AFDC에 적합해져 가는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위한 보육. 네 번째는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90).

1962년 이후로, 4조 A항에 대한 수정은 주의 공적(사회)복지 부서로 하여금 과거, 현재 그리고 잠재적인 AFDC 수혜자들이 공적인 원조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고무하도록 기획되었다. 주(state)의 부처는 직접 보육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providers에게 보육을 설계할 수 있다.

1964: Head Start는 Johnson 행정부가 빈곤과의 전쟁을 시작했던 '경제적 기회 법안Economic Opportunity Act'(1964년)의 부분으로서 제정되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와 더욱 결부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빈곤한 자녀들을 위한 보충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만들어 졌다.

1965: 초등·중등교육 법안의 1조가 제정되었다. 그것은 Head Start처럼, 보충 교육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가 미취학아동들을 포함하여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

로그래에 대해 기금을 지원한다.

1975, 1981: SSA의 20조는 주가 국가의 중간수입의 115%까지의 임금을 받는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금에 권위를 부여하였다. 20조 기금의 상당한 부분은 저소득층과 적당한 소득을 가진 노동자 가족을 위한 보육서비스에 주어졌다.

1976: 아동과 비부양자 세금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는 확장되었다. 1954년에 처음 제정되었을때는, 혜택은 노동을 하거나 구직중이고 13세 미만의 적어도 한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상환 불가능한 세금 credit이다. 1976년의 확대는 보육관련 비용에 대해 한 명의 피부양자에 대해 2,000불까지 그리고 두명 이상에게는 4,000불까지 20%의 세금 credit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Note: 비록 참여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부양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credit은 보육을 위해 쓰여진다.

1990: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OBRA, 1990)은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와 보육 서비스의 공급과 질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

개방형 질문 응답결과

사례	현재 전 남편에 대해 바라는 점
2	자녀교육비 규칙적 제공
3	전화 등 연락을 하지 말아야, 이혼인정을 말하는 것-포기
5	차라리 내결에서 떠나주었으면 싶다
6	이혼 현실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잘 갔으면
8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실제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10	아들을 잘 뒷바라지 해주길 바람(경제적, 학자금 등)
13	아빠로서 양심적, 도덕적, 법적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아이에게 언제나 아빠는 내편이라는 정신적 안정감을 주었으면
15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했으면
19	폭력, 외도가 청산된다면 고려(애 때문에)
23	아이들 양육비 조달 원함
26	아이들 교육비 좀 컸으면
29	잘 되기만 바란다
31	가족을 보살피며 겸손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기 바란다
44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46	아이들은 나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주면
55	친권포기, 양육비
59	양육비 조달
61	남편은 재혼 상태임, 현실에 충실하라고
62	양육비
70	아이를 만나기 전에 자기관리를 요한다.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좋은 아빠로 아이에게 기억되길 바란다.
71	아이한테 기본적인 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74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깨끗이 마무리해주고 아이들은 만나되 나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쪽 가정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76	자립하여 잘 살기를... 그리고 재혼하기를....
80	1년 이상을 본인이 재혼한 점을 숨기며, 재결합을 요구해왔다. 또한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커녕 겉으로만 위하는 척 하는 위선적인 행동이 싫다. 차라리 전 남편

82	빛청산
84	경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85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
87	늙으면 외로울까봐
90	남편이 좋아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 아름다운 삶을 경험해 보기 원함
91	자녀에 대한 자아정체감형성에 도움이 되므로
95	완전한 정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했으면 하는 최소한의 바램이 있다.
100	생활비 지원
101	현재는 사별
104	자녀양육문제를 협의 점대로 잘 이행해주길
107	아이한테 신경써 주었으면
110	자녀 양육비 및 사채(빚)가 남아있어서 얘기하고 싶다
111	자녀들 교육비 지원 정도
112	자신의 건강을 지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를
115	서로 건강하게
117	새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121	지난 일을 다시 얘기하는 이상한 버릇과 무절제한 술버릇이 고쳐질지는 모르지만 바라는 점이라면 그렇다

사례	재혼에 대한 생각
30	외롭지 않은 노후를 위해서
47	아이를 자신의 아이와 같이 품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생각해본다
61	성적으로 외롭다
67	나이가 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0	전혀 생각 없지만 아이가 재혼하라고 조를 때 살짝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믿을만한 남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72	서로 대화가 통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기대와 희망을 버릴 수 없어서 꼭 재혼할겁니다. 우린 누구나 그런 가정을 꾸려나갈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딸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75	지금은 솔직히 없다. 그러나 힘이 되어주는 남자는 있었음 한다. 자녀문제가 가장 큰 문제
91	함께 하는 것이(사랑을 주고 받는 것) 자연스러우니까
95	가슴이 통하는 사람과의 삶을 갖고 싶어서
123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127	강요된 성생활을 하지 않아 잠자리가 편안함

사례	이혼 후 달라진 점
8	배려해야 할 사람들(예: 시댁식구)이 줄어들었다
10	경제력이 강해짐을 느끼고 개발하고 싶다
12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자세의 시간을 가짐
13	경제적으로 더욱더 안정되고 생활에 활기가 생김
18	월세집 등 경제적 안정급선무
47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전후 같다
61	오히려 평온
70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 아침까지 안기다려도 되는게 행복하다. 상스런 말 안 들어도 좋고 이혼한 시부모님
72	나의 기존 인간관계와의 돈독함이 두드러짐
80	인생에 대해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 결혼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란 기대를 했지만, 그런 기대가 산산이 사라지고 난 뒤엔 오히려 나 스스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90	개인생활과 욕구에 대한 구체적 실험
95	정신적인 성숙 혹은 감정절제가 더 용이하다. 전 남편에 대해 거의 완전히 포기했으므로
117	다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할까 두렵습니다.
124	남편의 폭력폭언으로부터 해방되어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아이들도 불안감에 싸여서 집안이 전쟁터 같았으나, 이혼 후 표정이 밝고 정신 육체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나는 이혼을 잘했다고 생각하며 왜 좀더 일찍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도 해보았다.

사례	이혼과정에서 자녀와 관련해서 남편과 상의한 내용
8	양육비에 대한 극히 형식적인 상의
24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들어 아이를 줄 수가 없었음
47	무조건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전 남편은 포기했기 때문에 상의할 필요가 없었다
56	남편이 아들만 원해서 아들은 초등2학년이라서 어려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61	아이가 이혼을 권했다
67	자녀와 합의
70	다행히 전 남편은 아이에게 지극정성이라 정상적인 가정과 같은 수준의 양육의논이 통한다.
80	양육비와 결혼생활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경우에만 전 남편이 아이에 대한 면접권을 인정하기로 함.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을 빌미로, 이혼시 위자료 및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었음.

91	양육권
94	양육권, 친권
95	아이들과 상의하고 신중히 결정하고 여러 번 통보했으나 무반응이라 재판으로 청구했음
113	상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너무 급한 상황이라 당연히 본인이 떠 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124	오랜 기간동안 도박을 하여 남은 재산이 없었다
127	하지만 평소에 남편이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남의 말을 한적도 있고 또 살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라든지 생활에서 또 아이들이 어리고 해서 결정함

사례	이혼후 자녀에게 변화
10	친구들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생활력이 강해졌음. 고집이 강해졌음
24	큰 변화는 없었으나 명절때 외로워함
38	엄마, 아빠가 좋은 관계가 아님을 눈치채고 말과 행동을 자제함
47	내성적 성격
56	고등학생 둘째딸이 충격이 큰 듯함
61	어른스럽게 변했음
70	이혼후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비교적 잘 적응했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해주었다.
72	아직 어려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한 것 같습니다. 엄마와 떨어져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큼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80	자폐아 증상으로 1년 동안 고생한 경험이 있으나,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행동이나 성격 등 지금은 문제가 없다.
91	너무 어릴 때라 이혼전과 후를 비교하기 힘들
93	남자에 대한 적대감
95	성인이 된 이후이므로 별문제를 느끼지 않았으나 내적인 갈등이 예상되었음
100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함. (가출은 아님)
101	어렸기 때문에
107	더 착해졌음
112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고 학교성적도 상승됨
113	아빠의 그리움, 외로움, 친구 집과의 가족 간의 비교
124	우리는 이혼후 두 아들과 날이 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만 가고 밝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했다(그 이유는 남편이 얼마나 집안을 못살게 했으면 그랬겠어요)

사례	아빠와 함께하는 행사
12	아빠 참여수업에서 가족사진 만들기
15	유치원에서 아빠모시고 오기
16	유치원에서 아빠모시고 오기
24	가족사진, 가족신문, 여름휴가, 명절
26	가족사진 가져오기
27	유치원-부부교실 참여
31	아빠에 대해 하루하루 생활일기를 쓰지 않습니다
34	가족신문 만들기
35	가족신문 만들기
50	가족사진
51	가족신문만들기, 가족계보 알아오기
68	유치원에서 가족사진 가져오기
71	가족사진가져오기, 가족참여수업
74	아빠 참여수업, 가족사진 가져오기
78	아빠랑 같이 하는 운동에서
88	가족신문, 발표회
93	가족사진 가져오기, 소개하기(학교에서)
96	가족사진, 가족신문
113	초등학교 걸스카웃 모임에서 아빠와 등산가기가 있었음
115	유치원에서 잔치
116	가족사진 가져오기

사례	양육자	이유
1	엄마.	자녀가 원하는 사람
2	엄마	자녀가 원하는 사람
3	엄마	아이의 선택
4	엄마	
7	엄마	모성애
8	엄마	어릴 적부터 친밀감 형성되어 있으므로
10	엄마	아이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므로
12	엄마	딸이라서
13	엄마	
14	엄마	모성애

15	아빠	감당하기가 어렵다
16	엄마	모성애
17	엄마	정서적인 안정
18	엄마	자녀가 원하는 사람이
19	아빠	아들이라서
20	엄마	자녀가 원하는 부모
21	엄마	
22	엄마	엄마의 세심한 배려와 희생정신이 필요, 또 엄마입장에서도 자녀양육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의지가 됨
23	엄마	모녀의 정이 더 많음
24	엄마	큰 것은 아빠가 할 수 있지만 아이의 감성과 자상한 면에서
25	엄마	
26	엄마	자식사랑은 늘 엄마인 것 같아서
27	엄마	
28	엄마	
29	엄마	
30	엄마	
31	엄마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꼼꼼하게 신경 써 줍니다
32	엄마	
33	엄마	아이가 어리니까
34	엄마	안정적이다
35	엄마	
38	엄마	모성본능으로 임신, 육아는 여성이 더 우월. 정서나 섬세함,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 등이 강하다고 생각함
39	엄마	안정감
40	엄마	
41	엄마	정서적 안정
42	아빠	섬세한 마음
43	엄마	자녀양육에 있어 엄마 역할이 큼
44	엄마	아이가 여아인 경우
45	엄마	무엇보다 아이들은 엄마 품을 많이 그리워하기 때문에
46	엄마	엄마와 자식간의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있을 수 없다.
47	엄마	
48	엄마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엄마가
49	엄마	모성이 더 강하니까
50	엄마	아이들은 엄마 손이 많이 필요

51	엄마	알콜중독으로 양육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52	엄마	
53	엄마	
55	엄마	정서적으로 엄마가 있으면 안정이 되니까
56	엄마	남편이 무책임
57	엄마	
58	아빠	호적, 아직은 부계사회 때문에
59	엄마	자녀가 아직은 어리고 정서적으로 안정
60	엄마	자녀에게는 엄마의 세심한 배려가 중요
61	엄마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아이가 엄마를 원해서
62	엄마	
63	엄마	어려서 절대적인 엄마 필요성
64	아빠	
65	아빠	
66	엄마	무능력한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나을 것 같은데
67	엄마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소중함을 더 안다고 생각한다
68	엄마	책임감
69	엄마	세심하게 배려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됨
70	엄마	여자는 본능적으로 감정에 섬세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갈등이나 심리변화의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남자들은 선이 굵은 반면, 진정
71	엄마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아빠하고의 시간보다는 엄마하고의 시간이 많고 사람에게 따라 틀리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므로 아이한테 불편함이 적으므로
72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부분보다 엄마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73	엄마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정서적으로 가장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74	엄마	우리의 경우 아빠가 아이들에게 많은 집착을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했다.
75	엄마	모성본능이라는 말이 있죠? 애를 나본 사람만이 소중함을 알지 않지 않을까요?
76	엄마	
77	엄마	엄마의 세심한 배려, 사랑
78	엄마	어린아이에게는 아빠보다 엄마가 해줘야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79	엄마	이혼을 안하고 부모가 키우는 게 최선이지만 부득이하게 된다면 아이를 사랑하고 양육할 의지가 있고 아이가 따르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나도 그런 존재이고

80	엄마	아이가 성장한 후 아빠와 살겠다고 주장한다라는 상상을 할 때와 경제적으로 고통받았을 때, 또 미혼남성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을 때 약간의 갈등을 느껴본 적이 있다.
81	엄마	편협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굳이 부와 모의 사랑을 비교한다면,, 10달동안 뱃속에 안고 있었던 어미사랑이 더 크고,, 많은 인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82	엄마	
83	.	부모가 다함께
84	엄마	무조건 엄마의 사랑으로 길러져야함
85	엄마	
86	엄마	정서적 안정
87	엄마	
88	엄마	책임감
89	엄마	엄마가 주로 양육하게 되므로, 정서적 안정감
90	엄마	정서적 안정감
91	엄마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 엄마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
92	엄마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전무
93	엄마	아이에 대한 밀착관계가 엄마가 훨씬 낮기 때문에
94	엄마	1) 능력 되는 자 2)건강한 정신 소유자
96	아빠	호주제
97	엄마	
98	엄마	아이도 원하고 아빠는 능력도 안 된다
99	엄마	정서적으로 안정
100	엄마	
102	엄마	
103	엄마	엄마의 역할이 중요
105	엄마	
106	엄마	정서적 안정
107	엄마	모성애로 감싸주는 것 같아서
108	엄마	아이들이 어리므로
109	엄마	조금은 더 챙겨줄 수가 있고 성장과정을 의논함
110	엄마	가정을 꾸려 갈 수 있으니까
111	엄마	잘 키울 수 있으니까
112	엄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113	엄마	좀더 세심하게 돌봐줄 수 있음
115	엄마	모든 일에 엄마가 하는 게 편해서
116	.	엄마의 섬세함과 모정

117	엄마	
118	엄마	
119	엄마	
120	.	누구든지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해야한다
121	엄마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엄마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3	엄마	엄마가 아이와 더 밀착되어 있으니까
124	엄마	따뜻한 감정을 지닌 어머니가 양육하며, 대화하는 관계가 좋다고 생각한다. 모성애는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125	.	정서적으로 안정감
126	엄마	양육이나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127	엄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가 어립니다. 10세 아니 15세 이후라면 아이스스로 결정하겠지요. 10전이라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다고 하는 아이라면 의견을 받아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라 봅니다.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방안에 관한 설문지

ID 번호		조 사 자	
조사집단		조사일시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는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여성한부모가족이 더 이상 예외적인 가족이라고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이들 가족들은 각종 법률 및 제도나 정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개발원(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연구기관)에서는 이혼여성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해야 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개별적인 응답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각 질문에 평소 경험하시고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히 응답 해 주시면 관련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 7

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연구부
장혜경·민가영 / 02-356-0070(교환 306, 401)

일반적 사항

1. 귀하는 만으로 몇 세 되십니까? (만 세)

2.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무학 |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국민)학교 졸업 |
| <input type="checkbox"/> ③ 중학교 졸업 | <input type="checkbox"/> ④ 고등학교 졸업 |
| <input type="checkbox"/> ⑤ 전문대 졸업/대학 중퇴 |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교 졸업 |
| <input type="checkbox"/> ⑦ 대학원 이상 | |

3.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돈벌이를 하지 않는다 ☐② 단순노무직 일을 한다
☐③ 판매 및 영업관련 일을 한다 ☐④ 사무직 일을 한다
☐⑤ 전문직 일을 한다 ☐⑥ 자영업에 종사한다

4. 이혼 전에 일을 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① 내 월급 ☐② 전남편의 도움
☐③ 가족친지의 도움 ☐④ 은행대출금
☐⑤ 정부보조금 ☐⑥ 위자료
☐⑦ 저축해 둔 돈으로
☐⑧ 재산에 따른 이익 (건물세, 배당금 등)
☐⑨ 다른 가족(식구)이 벌어오는 돈으로

6. 귀하 가정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하층 ☐② 하층 ☐③ 중간층 ☐④ 상층
☐⑤ 최상층

7. 귀하 가정의 실제 한달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150만원
☐③ 151-200만원 ☐④ 201-300만원
☐⑤ 300만원 이상

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사글세
☐⑤ 친정집 ☐⑥ 친척집에 더부살이
☐⑦ 가구보호 (정부) ☐⑧ 기타

9. 이혼하기 전 **결혼기간**은 총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9-1. 이혼하기 전 **별거기간이 있으셨다면**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10. 귀하께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원들이 누구인지 순서대로 귀하와의 관계, 이들의 나이와 교육정도를 빠짐없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원	나와의 관계	나이	교육정도
(예)	첫째딸	13	중학교 재학
1			
2			
3			
4			

이혼과정 관련사항

11. 귀하께서 이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년 개월)
12. 귀하의 이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협의 이혼 ☐② 재판상 이혼
13. 귀하께서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와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다음의 보기에서 골라 3순위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기에서 찾으실 수 없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혼 사유	1순위	2순위	3순위
(1)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			
(2) 이혼을 결정적으로 하게된 이유			

- | | | |
|----------------------|--------------|------------|
| [보기] ①남편의 가부장적 의식 | ②남편의 외도 | ③남편의 폭언/폭력 |
| ④남편의 도박 | ⑤남편의 외박/가출 | ⑥남편의 음주 |
| ⑦경제적 무능력 | ⑧인터넷 중독 | ⑨생활비를 안 줌 |
| ⑩남편의 이혼강요 | ⑪남편의 건강문제 | ⑫성적 불만 |
| ⑬귀하의 외도 | ⑭귀하의 이혼요구 | ⑮시댁과의 마찰 |
| ⑯빛 ⑰친정과의 마찰 | ⑱결혼지속에 대한 회의 | ⑲자녀문제 |
| ⑳귀하의 일에 지장 | ㉑귀하의 건강문제 | |

14. 처음 이혼이야기가 된 시점에서부터 이혼하게 되기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년 개월)
15. 귀하께서 **이혼 결정 전, 이혼하는 과정, 이혼 후** 각각의 단계에서 스트레스가 되셨던 사항들을 생각해 보시고 경험하셨던 내용들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기 이외의 문제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혼단계	1순위	2순위	3순위
(1) 이혼 결정 전			
(2) 이혼하는 과정			
(3) 이혼 후			

- [보기] ①남편의 폭언 및 폭력 ②친권 및 양육권문제 ③양육비 관련사항
 ④자녀가 누구와 살지 ⑤자녀에게 미칠 영향 ⑥생활비 조달문제
 ⑦재산분배 및 위자료 문제 ⑧이혼 후 재산/위자료 받는 것에 대한 확신여부
 ⑨부모역할의 편향성 문제 ⑩자녀훈육의 어려움 ⑪외로움
 ⑫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⑬재혼여부의 갈등 ⑭성생활
 ⑮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 ⑯이혼녀에 대한 편견
 ⑰남편에 대한 원망감(분노) ⑱자녀와 남편과의 만남을 인정하는 것
 ⑲친정부모와의 관계 ⑳시부모와의 관계 ㉑친구들과의 관계
 ㉒친척친지의 반대 ㉓이웃과의 관계

16. 이혼 후에 전남편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① 어떠한 형태로든 교류하고 있다 (16-1과 16-2로 가십시오)
☐②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 (17로 가십시오)

16-1. 교류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양육비 및 경제적인 부분 ☐② 자녀양육 방식
☐③ 자녀와의 만남 ☐④ 자녀와 친조부모와의 관계
☐⑤ 한쪽의 새파트너로 인한 부모역할문제
☐⑥ 한 쪽의 재결합 요구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6-2. 현재 전 남편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7. 재결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17-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18로 가십시오)

17-1. 재결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편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② 자녀들이 아버지를 원해서
☐③ 부+모+자녀의 가족모습이 중요해서
☐④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힘들어서
☐⑤ 자녀들의 성장에 아버지의 부재가 크게 지장을 준다고 생각해서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8.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혀 생각 없다
☐② 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싶어서
☐③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해서
☐④ 경제적으로 기대고 싶어서
☐⑤ 남편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서
☐⑥ 부+모+자녀로 된 가족을 갖고 싶어서
☐⑦ 생각은 있지만 아이 때문에
☐⑧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9. 이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경제적 어려움 | <input type="checkbox"/> ② 혼자서 부/모 역할수행의 어려움 |
| <input type="checkbox"/> ③ 자녀양육부담 증가 | <input type="checkbox"/> ④ 자녀에게 더욱 밀착 |
| <input type="checkbox"/> ⑤ 가사일로부터의 자유로움 | <input type="checkbox"/> ⑥ 친척일로부터의 해방 |
| <input type="checkbox"/> ⑦ 미래에 대한 불안 | <input type="checkbox"/> ⑧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
| <input type="checkbox"/> ⑨ 친구/이웃과 멀어짐 | <input type="checkbox"/> ⑩ 자녀에게 남편역할기대 |
| <input type="checkbox"/> ⑪ 심리정서적으로 안정 | <input type="checkbox"/> ⑫ 개인생활과 욕구에 대한 자제 |
| <input type="checkbox"/> ⑬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

이혼과정과 자녀

20.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힘들었다 ☐② 조금 힘들었다
☐③ 전혀 힘들지 않았다

21. 이혼과정 혹은 결정에서 자녀와 관련하여 전 남편과 상의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상의가 전혀 없었다 ☐② 자녀가 남편과 만나는 것
☐③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④ 학업관련사항
☐⑤ 거주지 ☐⑥ 양육비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2. 이혼과정 혹은 결정에서 자녀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반대했음 ☐② 어느 정도 반대했음
☐③ 부모의 결정에 맡김 ☐④ 찬성하는 편이었음
☐⑤ 적극적으로 찬성했음 ☐⑥ 탈선, 우울증을 보임
☐⑦ 자녀는 전혀 몰랐음

23. 이혼이 결정된 후 이와 관련하여 자녀와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이혼하려는 이유 ☐② 함께 살 부모
☐③ 아빠와의 만남방법 ☐④ 자녀의 삶에 대한 변화
☐⑤ 아빠의 생활 ☐⑥ 미안한 마음의 전달
☐⑦ 이야기 한적 없음 ☐⑧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4. 다음은 이혼과정에서 자녀와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귀하께서 느끼셨던 대로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매우	약간	별로	전혀
(1) 자녀에게 이혼과 관련해 아빠의 응답을 한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2) 자녀를 통해 남편의 의중을 알리고 하거나 나의 의중을 전달하려한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3) 자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내 용	매우	약간	별로	전혀
(4) 이혼과정의 스트레스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 표출된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5) 자녀가 아빠와 함께 나에 대한 비난을 한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6) 자녀를 통해 남편이 나의 의중을 알려고 하거나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려한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7) 남편과 시부모가 나와 자녀관계가 멀어지도록 자녀에게 나에 대한 비난을 한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8) 이혼과정이 자녀에게 표출되지 않도록 애쓴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이혼 후의 생활과 자녀

25. 이혼 전과 비교하여 이혼 후에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발견되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변화가 없었음 | <input type="checkbox"/> ② 학교성적의 변화 |
| <input type="checkbox"/> ③ 친구와 멀어짐 | <input type="checkbox"/> ④ 행동장애 |
| <input type="checkbox"/> ⑤ 비행 및 가출 | <input type="checkbox"/> ⑥ 엄마에게 집착 |
| <input type="checkbox"/> ⑦ 건강이 나빠짐 | <input type="checkbox"/> ⑧ 친가와 멀어짐 |
| <input type="checkbox"/> ⑨ 외가와 가까워짐 |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26. 다음은 이혼 후 귀하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귀하께서 느끼셨던 대로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매우	약간	별로	전혀
(1) 자녀에게 자신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함	① ---	② ---	③ ---	④
(2) 자녀에게 일상생활에서 남편의 역할을 기대함	① ---	② ---	③ ---	④
(3) 자녀에게 두 사람의 몫(아빠까지)을 기대함	① ---	② ---	③ ---	④
(4) 자녀에게 신경쓰다 보니 나의 개인생활이나 욕구들을 이전보다 자제함	① ---	② ---	③ ---	④
(5) 자녀가 전 남편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함	① ---	② ---	③ ---	④
(6)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자녀가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함	① ---	② ---	③ ---	④

27. 다음은 이혼 후에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문제들을 얼마나 경험하셨는지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매우	약간	별로	전혀
(1)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	① ---	② ---	③ ---	④
(2) 자녀와 관련해 의논할 사람이 없는 것	① ---	② ---	③ ---	④
(3) 아버지 역할을 보지 못하는 것	① ---	② ---	③ ---	④
(4) 자녀에 대한 교사의 편견	① ---	② ---	③ ---	④
(5)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당연시하는 법제도 및 사회분위기	① ---	② ---	③ ---	④
(6) 자녀의 결혼관 혹은 이성관	① ---	② ---	③ ---	④

28. 귀하께서 생각하기에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은(혹은 앞으로 겪을) 어려움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
☐② 친구들이 부모에 관해 물을 때 당황함
☐③ 사회에 나가서 직장 구할 때의 불이익
☐④ 결혼할 때 상대방 집안에서의 반대나 거부감
☐⑤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
☐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갈등
☐⑦ 아빠를 원망하고 있는 엄마 때문에 아빠를 못 만나는 것
☐⑧ 아빠대신 엄마의 의논상대자 혹은 아빠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
☐⑨ 아빠가 자녀와 만나기를 회피하는 것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9. 학교에서 부모가 함께 하는 행사들로 인해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시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29-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30으로 가십시오)

- 29-1.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었습니까? (예: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 아빠 직장 일일 참여기, 가족신문 만들기, 가족사진 가져오기 등.)

30. 이혼 전에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편이었습니까?

- ☐① 매우 좋음 ☐② 원만함
☐③ 형식적 관계 ☐④ 매우 안 좋음

31. 자녀가 아빠를 만나고 있습니까?

- ☐① 예 (31-1, 2, 3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32로 가십시오)

31-1.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 ☐① 정기적으로 만난다 ☐② 생일 등 특별한 날에만 만난다

31-2. 자녀가 아빠를 만나는데 귀하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 ☐① 매우 ☐② 어느 정도 ☐③ 약간 ☐④ 전혀 안 본다

31-3. 어머니가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③ 약간 ☐④ 전혀 안 그렇다

양육비 관련 사항

32. 현재 법원에서 1인당 양육비는 통상 1달에 30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3. 32번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비 30만원 정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당 ☐② 어느 정도 적당
☐③ 약간 부족 ☐④ 매우 부족

34. 현재 생활비에서 자녀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10만원 이하 ☐② 11만원-20만원
☐③ 21만원-30만원 ☐④ 31만원-50만원
☐⑤ 51만원-80만원 ☐⑥ 81만원-100만원
☐⑦ 100만원 이상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5. 자녀와 관련한 비용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_____
(예: 먹는 것, 입는 것, 학비, 학원비, 용돈 등)

36. 현재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계십니까?

☐① 예 (36-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36-2로 가십시오)

36-1. 만일 받고 계신다면 한달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만원)

36-2. 만일 받고 계시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전남편의 경제적 무능

☐② 양육비 안 받는 조건으로 아이맡음

☐③ 상대방이 안주겠다고 선언

☐④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모름

☐⑤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음

37.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과 과태료 혹은 감치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38. 자녀양육은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빠 (38-1로 가십시오)

☐② 엄마 (38-1로 가십시오)

38-1.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39.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39-1로 가십시오)

39-1.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삶의 만족도 및 법/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욕구

39. 귀하와 자녀가 이혼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전에 훨씬 만족	비해 만족	그래도 전보다는 만족	비슷 하다	전만 못하다	전과 비교하여 매우 불만족
(1) 현재 귀하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2) 현재 귀하의 삶을 이혼 전과 비교해 볼 때의 만족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3) 귀하가 생각하기에 현재 자녀의 삶에 대한 만족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4) 귀하가 생각하기에 현재 자녀의 삶을 이혼 전과 비교해 볼 때의 만족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40. 이혼 후 자녀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약간 그렇다 ☐④ 전혀 없었다

41. 이혼 후 자녀문제와 관련해서 상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41-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41-2으로 가십시오)

41-1. 누구에게 (예: 학교교사, 상담소, 정신과, 종교지도자, 친구, 이웃 등)
어떠한 내용으로 (예: 학업, 친구관계, 성문제, 아버지와의 관계 등)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한곳	상담한 내용	매우 도움	어느정도 도움	별로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41-2. 상담을 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그럴 필요가 없어서 ☐② 상담할 곳을 몰라서
☐③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④ 도움이 안되어서

42. 이혼 후 생활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나 상담 서비스, 교육 등이 어느 정도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원내용	매우필요	필요	약간필요	필요없음
(1) 이혼여성가정의 경제적 안정 지원에 관한 것	① ---	② ---	③ ---	④
(2) 이혼여성가정의 안정적인 가족관계 프로그램	① ---	② ---	③ ---	④
(3) 전 남편과의 관계 청산을 위한 프로그램	① ---	② ---	③ ---	④
(4) 여성자신의 감정적 독립을 위한 프로그램	① ---	② ---	③ ---	④
(5) 이혼가정의 자녀양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시설	① ---	② ---	③ ---	④
(6)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아빠와 친인척관계에 관한 프로그램	① ---	② ---	③ ---	④
(7) 이웃 및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① ---	② ---	③ ---	④
(8) 이혼여성이 자녀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시설	① ---	② ---	③ ---	④
(9) 이혼여성가족을 위한 안내책자에 관한 것	① ---	② ---	③ ---	④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혼여성 심층 면접지

1. 일반적 사항

- 1) 자신의 연령
- 2) 최종학력
- 3) 직업의 유무(직업이 있을 경우 하는 일), 이혼 전에 일은 했는지
- 4) 현재 소득정도, 현재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 5) 현재 살고 있는 집(자택, 전세, 친정집 등)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원들 상황 (연령, 관계 등)

2. 이혼관련 사항

[전반적 사항]

- 6) 결혼기간은? 이혼전 별거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이혼 후 지금까지의 기간은?
- 7) 이혼당시 본인과 자녀의 연령
- 8) 이혼의 종류는?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 9) 이혼하게된 동기는?(처음 이혼 이야기가 붙어져 나오게 된 계기와 이혼을 결심하게된 결정적인 계기는?)

[과정으로서의 이혼]

- 10) 이혼 얘기가 나온 시점에서부터 이혼을 하게 되기까지의 기간은?
- 11) 이혼 과정이 어떠했는가?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는 반영이 되었나? 또한 부모의 이혼과정에 대해 자녀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 12) 이혼 결정전, 이혼하는 과정, 이혼 후 각각의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가장 힘들었는가?
- 13) 이혼 후 전남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현재 전남편과 교류가 있는가? 교

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4) 재결합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재결합을 바라는 이유는? (예:자녀에게 아버지가 필요해서, 경제적인 이유, 남편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서 등)
- 15) 현재 전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혼으로 인한 변화]

- 16) 이혼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가?
 - (1) 대인관계 면에서: 이혼 후 대인관계에 나타난 변화는? (새롭게 생긴 관계, 끊어진 관계. 이 관계의 변화가 가져다 준 긍정적/부정적인 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에 살던 사람들과의 관계, 친한 친구들과 소식 관계, 직장을 옮긴다던가, 친정과의 관계, 친척들과 왕래를 안한다던가 등)
 - (2) 자신의 역할면에서: 가중된 부모역할, 생활책임자, 사회적 지위, 위축감, 시선 등
 - (3) 자신이 평가해 볼 때 더 좋아진 점과 더 안 좋아진 점은 (예-가사일로부터의 자유로움, 친척일로부터의 해방,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경제적 어려움, 혼자서 부모역할 수행하는 것의 어려움, 자녀 양육부담 증가, 미래에 대한 불안, 친구 이웃과 멀어짐, 개인생활과 욕구에 대한 자제 등)
 - (4) 이혼 후 자신과 자녀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이혼 전과 비교해 볼 때의 만족 정도는
- 17) 이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이혼 후 혼자 사는 여자에 대한 편견을 경험한 적은?
- 18) 가족중심 문화에서 소외를 받은 경험은? (스스로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 가지 않게 되는지, 명절의 스트레스가 이혼 전과는 또 다르게 다가온 적은 없는지 등)
- 19) 재혼에 대한 생각은 있는가? 이유는?

3. 자녀의 적응과정과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이혼과정과 자녀]

- 20)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과정은?
- 21) 이혼 전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전 배우자와 어떤 부분을 상의했나?
- 22) 이혼 후에도 자녀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상의하고 있나?
- 23) 이혼하는 과정과 이혼 후의 삶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 24) 자녀의 양육권, 거주지, 전학, 함께 거주할 부모의 선택에 자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나?
- 25)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자녀가 무엇을 가장 걱정했을거라고 생각하나?
- 26)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데 누구의 도움, 혹은 누구와 상의하는가?
- 27) 이혼 과정에서의 힘들어 자녀에게 표출되었던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자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적이 있는가? 이혼과 관련하여 아빠에 대한 험담을 자녀에게 한 적이 있는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어떠했나?

[이혼에 따른 변화]

- 28) 이혼 전과 비교하여 이혼 후에 자녀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긍정적/부정적인 변화에 대해 가능한한 **연령대의 변화**에 따라 파악할 것)
- 29) 이혼 후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워진 점을 순서대로 알아볼 것 (경제적, 상의할 사람의 부재, 아버지가 해 주어야 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학교에서의 가정환경조사서 기재 등)
- 30) 자녀들이 함께 살지 않는 부의 친척들과 얼마나 왕래가 있는가? (없다면, 자녀가 원하는 것이었나?) 이혼 후 자녀가 남편의 역할, 보호자로서의 역할 등을 해 주기를 기대하며 더욱 밀착하게 되었나?

[이혼가정에 대한 편견]

- 31) 학교에서 이혼한 학(부)모라는 교사의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32) 자녀가 학교에서 이혼 사실로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 33) 이혼 후 자신의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혼가정 자녀라는 사회적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34)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혼 후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나 어려움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 친구들이 부모에 관해 물을 때 당황함, 친구들과 부모의 이야기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 후에 취직할 때 직장 구하는 것에서의 불이익, 결혼할 때 상대방 집안에서의 반대, 자녀의 결혼관 혹은 이성관, 이혼 후 아이가 아빠를 보고싶은데 아빠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이혼 후 coparenting]

- 35)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 36) 이혼 전 부와 자녀와의 관계 어떠했나?
- 37) 자녀가 이혼 후 부를 만나거나 그의 친척들과 만나는데 자신의 눈치를 본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 38)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아버지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자녀가 아빠를 만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 혹은 꺼리고 있는가? 자녀가 아빠를 만나는데 있어 자신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나?
자녀를 통해 전남편 소식을 듣고자 하거나 나의 소식을 전하려고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자녀를 통해서 하려고 했나? 어떤 소식이었나? 이 과정에서 자녀가 힘들어하지는 않았나?

[양부모 중심주의]

- 39) 자녀의 학교에서 양부모가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행사로 인해 곤란했던 적은? (학교에서 부모가 함께 하는 행사참여-아빠 직장 일일 참여기, 가족신문 만들기, 가족 사진 가져오기 등)
- 40) 학교 이외에 법적, 사회 문화적으로 양부모를 자연스럽게 전제하고 있는 경우로 인해 아이와 자신이 상처받은 적은 없는가.

4. 양육비 문제

- 41) 현재 생활비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자녀 양육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먹는 것, 입는 것, 학비, 학원비, 용돈등)
현재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가?
- 42) 현재 양육비를 받고 있는가? 얼마를 받고 있는가?
- 43) 현재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 액수를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는가
- 44)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경제적 무능을 제외한 이유로)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본 적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 달라고 해본적이 없다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반응은, 개별적 사정, 자존심 상하고 등등... 개인적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꼬집어내도록... 강제징수 등)**

5. 시설이나 기관의 지원정보

- 45) 이혼 후 자녀양육이나 양육비 관련 문제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가?
- 46) 상담이나 지원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의 도움을 받았는가?
- 47) 이혼 후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시설 등), 상담 서비스, 교육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가?(예: 이혼여성가정의 경제적 안정문제, 안정된 가족관계, 자녀들의 심리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엄마와 자녀관계 프로그램,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아빠와 관련한 프로그램, 여성자신의 감정적 독립을 위한 것, 자녀의 정체성확립에 관한 것, 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관한 것 등)
- 48)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자신과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며 향후 가족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가? (가족의 의미와 이러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2002년 12월 27일 인쇄
200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56-007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313-7593 (代)

<정가 10,000원>

ISBN 89-8491-052-X 93330